

성경 공과

제1권

전진반 (Intermediate Class)



아브람을 부르심

상응 해석으로 합리적 이해를 돕는 책

아니타 돌 지음 / 배제형 편역

도서 출판 벽옥

상응 해석으로 합리적 이해를 돕는

성경 공과

제1권

Intermediate Class



아니타 에스. 돌 지음
배제형 편저

도서 출판 벽옥



ANITA STURGES DOLE
(Mrs. Louis A. Dole)
1889-1973

이 책에 대하여....

이 책은 성경의 깊은 뜻을 전문가의 도움 없이 자신 스스로 이해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2-6명 정도의 성경 그룹 모임이라면 혼자 만의 이해보다는 비슷한 연령, 비슷한 학력, 또는 비슷한 전문 직업이 모이는 관계로 각자의 의견 교환으로 인해 보다 더 빠른 이해의 속도와 흥미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영문판인 Anita S. Dole여사의 Bible Study Notes는 기념 출판용인지라 성경의 순서에 따라 6권의 책으로 편집되고 있으나 한국어판은 저자의 취지 그대로 매주 1회 4년을 성경 공부의 한 주기가 되도록 4권으로 재편집하였는데, 다시 각 권에는 6반(수준)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제 1권 제3반, intermediate class만을 가지고 전진반, Intermediate Class로 명칭을 첨가해 재편집한 것입니다.. 이 책을 잠깐 읽었을 때 자기의 수준에 맞지 않으면 다른 책을 먼저 읽기 바랍니다.

성서 속의 하느님의 말씀(the Word)은 상응(correspondence)의 언어로 인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언어는 우리가 거울 앞에서 자신을 보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고 간단히 설명해볼 수 있습니다.

본권 시리즈의 기초 1, 2반을 익혔거나 이 책 차례를 훑어 볼 때 성경 본문의 줄거리를 말할 수 있다면 본 반에 진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서 글자의 기억을 강조하는 이유는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에 오신다”는 기록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분이 오시는데 사용되는 “구름”은 하느님의 말씀을 담은 성서의 글자인데, 이 글자는 상응의 언어로 표현된 것입니다.

상응의 이해는 여러분을 하느님의 말씀에 합리적으로 접근하게 하므로 “권능과 영광으로 오신” 예수를 뵈게 해주고 동시에 그분으로부터 천국의 기쁨 (Heavenly joy)을 받아 영원히 향유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 책에서 다루지 않는 성서, 즉 욥기, 잠언...바울 서신 등등은 여러분 스스로의 이해의 범주에 있어 선견자의 도움이나 어느 누구에 의한 별도의 강론이 필요 없는바 각자 열심을 내어 읽어 숙지하기 바랍니다.

본서는 공동 번역을 채택하였는데 그 이유는 처음 성경을 대하는 이들의 경우 읽기가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해서 일 뿐입니다. 그러나 의역이 심할 경우 상응의 해석이 불가능하므로 다른 번역 성경도 자주 참조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다면 아래 사이트를 방문하기 바랍니다.

www.baysidechurch.org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마태복음 13장 46절

차례

** 이 책에 대하여.....

1. 창조에 관하여	창세기 1장; 2장 1-3절	9
2. 에덴의 동산	창세기 2장 8-25절	15
3. 노아가 방주를 짓다	창세기 6장	20
4. 아브람을 부르심	창세기 11장 27-30절; 12장 1-10절	25
5. 이삭의 출생	창세기 21장 1-21절	30
6. 야곱과 에사오	창세기 25장 19-34절; 27장	35
7. 요셉과 그 형제들	창세기 37장	42
8. 모세의 출생	출애굽기 1장; 2장 1-10절	48
9. 홍해를 건너다	출애굽기 13장 17-22절; 14장	53
10. 십계명	출애굽기 19장 16-25절; 20장 1-21절	60
11. 나답과 아비후	레위기 10장	65
12. 발람	민수기 22, 23, 24장	70
13. 예리고 성의 정복	여호수아 6장	80
14. 드보라와 바락	판관기 4장	85
15. 사무엘의 출생	사무엘상 1장; 2장 1-11절	91
16. 사울을 선택함	사무엘상 9, 10장	96
17. 다윗을 기름붓다	사무엘상 16장	104
18. 솔로몬의 지혜	열왕기상 3장	109
19. 엘리야와 아합	열왕기상 17; 18장	115
20. 아사왕의 통치	열왕기상 15장 9-24절	124
21. 시편에 관해서	열왕기하 23장 1-2절; 시편 1편	129
22. 이사야를 부르심	이사야 6장	133
23. 활활 타는 화덕	다니엘 3장	138
24. 예언자 미가	미가 6장	145
25. 성전의 재건	하깨 1장	149

26. 주님이 세상에 오시다	마태복음 1:18-25; 2:13-23	153
27. 동방박사의 방문	마태복음 2장	159
28. 세례를 받으신 주님	마태복음 3장	165
29. 시험을 받으신 주님	마태복음 4장 1-11절	169
30. 주님의 첫 제자들	마태복음 4장 12-25절	174
31. 산 위에서의 설교	마태복음 5, 6, 7장	178
32. 주님의 공생애	마태복음 8장	187
33.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	마태복음 13장	192
34. 주님의 영광스러운 변모	마태복음 17장	198
35. 종려주일	마태복음 21장 1-27절	203
36. 주님의 지상 마지막 주간	마태복음 26, 27장	208
37. 부활하신 주님	마태복음 28장	219
38. 요한의 환상	요한 계시록 1장	224
39. 교회들에 대한 메시지	요한 계시록 2, 3장	229
40. 거룩한 성	요한계시록 21, 22장	236

1

창조에 관하여

머리말

성경은 세상의 어느 책과도 다르다. 주님께서 그 저자이시며 그 속에 주님 자신에 관한 것과 우리가 천국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배우기 위해 알아야 할 것, 그리고 우리가 죽었을 때 천국에 가서 살기 위해 알아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부른다. 이 책의 첫 권은 「창세기」로써 “시작”이라는 뜻이다.

「교리 요점」은 공부의 편의를 위해 중요한 부분을 지적했는바, 유용할 것이다. 이는 단지 어느 부분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각 요점은 교회의 4가지 기본 원칙이 되는 4 교리인 주님, 말씀, 믿음, 생활(charity) 중 어느 하나와 관련되어 있다.

성 서 본 문: 창세기 1장, 2장 1-3절

1장: 1.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 내셨다. 2.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 것도 생기지 않았는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뒤덮여 있었고 그 물 위에 하느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

3. 하느님께서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겨났다. 4. 그 빛이 하느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느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5.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이렇게 첫날이 밤, 낮 하루가 지났다.

6. 하느님께서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7.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창공을 만들어 창공 아래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을 갈라 놓으셨다. 8. 하느님께서 그 창공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이렇게 이튿날도 밤, 낮 하루가 지났다.

9. 하느님께서 “하늘 아래 있는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마른 땅이 드러나거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10. 하느님께서 마른 땅을 물이라,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 부르셨다. 하느님께서 보시기 참 좋았다.

11. 하느님께서 “땅에서 푸른 움이 돋아나거라! 땅 위에 낱알을 내는 풀과 씨 있는 온갖 과일나무가 돋아나거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12. 이리하여 땅에는 푸른 움이 돋아났다. 낱알을 내는 온갖 풀과 씨 있는 온갖 과일나무가 돋아났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13. 이렇게 사흘날도 밤, 낮 하루가 지났다.

14. 하느님께서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 밤과 낮을 갈라 놓고 절기와 나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15. 또 하늘 창공에서 땅을 환히 비추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16. 하느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두 큰 빛 가운데서 더 큰 빛은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빛은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또 별들도 만드셨다. 17. 하느님께서 이 빛나는 것들을 하늘 창공에 걸어 놓고 땅을 비추게 하셨다. 18. 이리하여 밝음과 어둠을 갈라 놓으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19. 이렇게 나흘날도 밤, 낮 하루가 지났다.

20. 하느님께서 “바다에는 고기가 생겨 우글거리고 땅 위 하늘 창공 아래에는 새들이 생겨 날아 다녀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21. 이리하여 하느님께서 큰 물고기와 물 속에서 우글거리는 온갖 고기와 날아 다니는 온갖 새들을 지어 내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22. 하느님께서 이것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며 말씀하셨다. “새끼를 많이 낳아 바닷물 속에 가득히 번성하여라. 새도 땅 위에 번성하여라!” 23. 이렇게 다섯날도 밤, 낮 하루가 지났다.

24. 하느님께서 “땅은 온갖 동물을 내어라! 온갖 짐승과 길짐승과 들짐승을 내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25. 하느님께서 이렇게 온갖 들짐승과 짐승과 땅 위를 기어 다니는 길짐승을 만드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26. 하느님께서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 또 짐승과 모든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 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 내셨다. 하느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

내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어 내시고 28.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 온 땅에 퍼져서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를 돌아 다니는 모든 짐승을 부려라!”

29. 하느님께서 다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온 땅 위에서 낚알을 내는 풀과 씨가 든 과일나무를 준다. 너희는 이것을 양식으로 삼아라. 30. 모든 들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 다니는 모든 생물에게도 온갖 푸른 풀을 먹이로 준다.”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31. 이렇게 만드신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엿새날도 밤, 낮 하루가 지났다.

2장: 1. 이리하여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2. 하느님께서서는 엿새날까지 하시던 일을 다 마치시고, 이렛날에는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3. 이렇게 하느님께서서는 모든 것을 새로 지으시고 이렛날에는 쉬시고 이 날을 거룩한 날로 정하시어 복을 주셨다.

교리 요점 (Doctrinal Points)

- * 주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며 하늘과 땅을 창조 하셨다.
- * 말씀은 우리의 창조주에 관한 것과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에 대한 주님의 계시이다.
- *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판단이 주님의 말씀과 다르더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이다.
- * 스스로에게서 비롯된 것을 가지고는 어떤 진정한 선도 행할 수 없다. 모든 선은 주님에게만 있고 그분으로부터만 나온다.

해설

먼저 성서의 첫 절을 마음에 새겨 두자. 그것은 3절, 27절, 28절의 말씀들을 배우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또한 6일 동안 각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잘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다.

창세기 1장이 세상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자연과학적 설명을 위해 성서가 써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 스스로도 알아낼 수 있는 것으로 하느님께서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을 들여 성서를 만드신 것은 그러한 것들과는 거리가 멀다. 성서는 우리가 결코 알아낼 수 없는 하느님과 우리의 영혼에 관한 사실, 즉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주님은 자신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을 통해 쓰게 하셨기에 성서는 주님이 그 저자이다. 주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의해 사람의 말로 쓰여지기는 했지만 그것은 주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넣어 주셨기 때문이었음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들은 그것을 기록한 사람들이 저자가 아닌 주님이 저자이신 것이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사람이 세상적인 속성과 천국적인 속성을 가진 상태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이 아무리 동물적인 속성을 가졌다 할 지라도 결코 사람은 단순히 동물이 될 수는 없음을 뜻한다. 그러나 거듭남이 시작되기 전에는 사람의 세상적인 속성은 아직 초보적이었고 천국적인 속성은 무지와 암흑으로 가려져 있다. (2절)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가 태어날 때의 모습이며 거듭남이 시작되기 전의 모습이다.

우리의 영적 발달의 시작은 하느님께서 “빛이 있어라”고 말한 순간부터 이다. 물질적인 빛이 신체적인 눈을 위하여 있듯이 영적인 빛인 진리는 마음의 눈을 위하여 있다. 빛이 있으므로 우리의 눈이 제 구실을 할 수 있고 진리가 있으므로 우리의 마음이 제 구실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때에서야 우리는 더욱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빛” 또는 “밝다”는 말은 흔히 “발전할 수 있다” 또는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쓰이고 “어둠”은 “발전할 수 없다” 또는 “가능성이 없다”는 뜻으로 쓰이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한다.

6일 간의 창조는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 되기까지, 즉 형상이 하느님과 같아지고 영적인 본성이 하느님을 알고 경배하게 되기까지의 6단계를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창세기를 잘 읽고 진리의 빛 속에서 각각의 단계를 생각해 보자. 주님께서 창조하신 자연계의 모든 것들은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러므로 자연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창조하신 영적인 세계에 있는 것들과 상응으로써 연결되어져 있다. 같은 맥락으로 성서의 모든 내용들도 상응의 원리로서 그 안에 깊은 뜻을 담고 있다.

성서의 영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창조 이야기에 있는 몇 가지 상응에 대해 알아 보자. 「물」은 진리를, 「창공」, 더 정확히 표현해서 「광활한 공간」은 우리의 사고면(생각하는 평면)을, 창공 위의 물은 주님과 천국적인 삶에 대한 진리를, 그리고 창공 아래의 물은 세상과 세상적인 삶에 관한 진리를 의미한다. 「마른땅」은 의식적인 경험을 뜻하며 「바다」는 기억 속에 있는 진리들을 뜻한다. 「식물계」는 생각을 상징하고 과일은 행실을 상징한다. 「씨」는 과일이라는 결실 또는 행실 안에 내포되어 있는 새로운 시작을 여는 근원을 의미한다. 주님께서도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것이다”라고 하셨듯이, 보여지는 결실인 열매의 질은 그 열매의 근원인 “씨”의 질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마태복음 13장 1-23절의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또한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설명하실 때 “씨”가 말씀을 의미한다고 밝히셨다.

「해」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달은 주님에 대한 믿음을, 별은 천국적인 것에 대한 지식을 상징한다. 낮은 우리가 분명하게 보는 상태 즉 분명히 아는 것을 의미하며 밤은 모든 것이 어두워 보이는 상태를 뜻한다. 별에 의해 항해자들이 인도되는 것처럼 주님과 선한 삶에 대해 배운 지식들을 따르고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된다. 「움직이는 창조물들」은 바람이나 애착을 표현한다. 물고기와 같은 냉혈동물은 지식에 대한 애착을 뜻하고 온혈동물은 유용한 일에 대한 애착을 뜻한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27절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생각해 보자. 주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더불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생각과 애착을 주셨고 우리에게 그것들을 지혜롭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다. 스웨덴북은 “창조의 목적은 인류로부터 천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고 말한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천국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임을 의미한다.

2장 3절을 읽고 주일이 우리에게 어떤 날이 되어야하는지 생각해 보자. 안식일은 우리에게 슬프거나 힘든 날이 되도록 하느님께서 정하신 날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과 함께 행복과 평화를 즐기고 나누도록 정하신 날이다. 행복이란 「내 멋대로」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 멋대로 하는 것은 남을 해치거나 곤란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행복이란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의 계명을 따라 삶으로써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도록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따라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되새겨 보면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 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다.

기초 상응 공부 (Basic Correspondence)

빛 = 진리

물 = 진리

질문 정리

- 1) 우리는 어떤 책을 공부하고 있는가?
- 2) 성경의 저자는 누구인가?
- 3) 우리는 성경을 또 다르게 무엇이라고도 부르는가?
- 4) 성경의 처음 말씀은 무엇인가?
- 5) 첫 장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 6) 세상과 모든 것이 창조 되는데 며칠이 걸렸을까?
- 7) “날”은 24시간 단위의 하루를 의미하는가?
- 8) 첫째 날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 9) 둘째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 10) 셋째 날에 물은 어떻게 되었을까?
- 11) 넷째 날에 무엇이 새로 창조 되었을까?
- 12) 다섯째 날에 무엇이 나타났을까?
- 13) 여섯째 날에 무엇이 창조 되었을까?
- 14) 일곱째 날에 동물이 만들어졌을까?
- 15) 무엇이 가장 나중에 만들어졌을까?

- 16) 인류는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 되었을까?
- 17) 주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도록 말하셨을까?
- 18) 주님은 일곱째 날에 무엇을 하셨을까?
- 19) 주님이 첫 장에서 우리에게 진실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일까?

질문의 답

- 1) 성경 2) 하느님 3) 주님의 책, 말씀, 생명의 책 4) 한 처음에 5) 창조
- 6) 육일 7) 아니다 8) 빛 9) 창공 10) 바다와 마른 땅 11) 풀, 나무들
- 12) 해, 달, 별들 13) 물고기, 새들 14) 여섯째 날 15) 사람 16) 하느님
- 17)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18) 쉽 19) 우리의 영적 성장의 시작

2

에덴의 동산

머리말

창세기의 1장부터 7장까지는 고대 언어의 표현이 그대로 전해진 것이며 상징성이 강하다. 이 부분은 특히 어린이들에게 가르치기에 적합한데 그 이유는 어린이들은 단순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생생하게 마음속에 간직하기 때문이다.

성 서 본 문: 창세기 2장

2장: 8. 야훼 하느님께서 동쪽에 있는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마련하시고 당신께서 빚어 만드신 사람을 그리로 데려다가 살게 하셨다. 9. 야훼 하느님께서 보기

종고 맛있는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그 땅에서 돌아나게 하셨다. 또 그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돌아나게 하셨다.

10. 에덴에서 강 하나가 흘러 나와 그 동산을 적신 다음 네 줄기로 갈라졌다. 11. 첫째 강줄기의 이름은 비손이라 하는데, 은과 금이 나는 하월라 땅을 돌아 흐르고 있었다. 12. 그 땅은 좋은 금뿐 아니라 브돌라라는 향료와 홍옥수 같은 보석이 나는 곳이었다. 13. 둘째 강줄기의 이름은 기혼이라 하는데, 구스 온 땅을 돌아 흐르고 있었다. 14. 셋째 강줄기의 이름은 티그리스라 하는데, 아시리아 동쪽으로 흐르고 있었고, 넷째 강줄기의 이름은 유프라테스라고 하였다. 15. 야훼 하느님께서 아담을 데려다가 에덴에 있는 이 동산을 돌보게 하시며 16. 이렇게 이르셨다.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따 먹어라. 17.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따 먹지 말아라. 그것을 따 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는다.”

18. 야훼 하느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의 일을 거들 짝을 만들어 주리라”하시고, 19.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하나하나 진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려다 주시고는 그가 무슨 이름을 붙이는가 보고 계셨다. 아담이 동물 하나하나에게 붙여 준 것이 그대로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 20. 이렇게 아담은 짐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이름을 붙여 주었지만 그 가운데는 그의 일을 거들 짝이 보이지 않았다. 21. 그래서 야훼 하느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뽑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시고는 22.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다음, 아담에게 데려 오시자 23. 아담은 이렇게 외쳤다.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지아비에게서 나왔으니 지어미라고 부르리라!” 24. 이리하여 남자는 아버이를 떠나 아내와 어울려 한 몸이 되게 되었다. 25. 아담 내외는 알몸이면서도 서로 부끄러운 줄을 몰랐다.

교리 요점

- *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는 우리의 영혼 여러 평면에 적용된다.
- * 우리에게선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러나 진정한 지식과 능력을 갖기 원한다면 우리 안에서 선을 찾지 말고 항상 주님께에서 그것을 찾도록 노력해

야 한다.

해설

「에덴의 동산」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아담과 이브는 두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태고교회 즉 지상의 최초 교회의 사람들을 상징한다는 것이다. 「아담」은 히브리어로 사람을 의미한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아담이란 단어가 사람으로 번역되어 있다. 이브는 “생명”을 의미하며 에덴은 “기쁨”을 의미한다. 주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동쪽”에 만드신 것은 그곳이 주님에게 가까운 방향이기 때문이다. 동, 서, 남, 북의 네 방향은 주님으로부터 가깝고 먼 상태를 의미한다. 태양은 주님을 상징하며 동쪽에서 떠오른다. 그래서 동쪽은 주님과 가장 가까운 상태를 뜻하며 서쪽은 주님으로부터 가장 떨어진 상태를 뜻한다. 남쪽은 일조량이 가장 많은 방향으로, 남쪽으로 향해 가는 것은 주님의 진리를 보다 많이 이해함을 뜻한다. 그리고 북쪽으로 향해 가는 것은 진리에 대한 이해가 줄어들음을 뜻한다.

강이 네 줄기로 갈라진 것은 주님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각각 다른 정도와 각도로써 우리의 생각과 느낌에 작용되는 것을 상징한다. 첫 번째 강줄기인 '비손 - Pison'은 “흘러 넘친다”는 뜻이며 믿음에서 나온 지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서의 믿음은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 강물이 공급된 땅은 금이 넘쳤던 곳으로 이는 선한 마음을 상징한다. 두 번째 강줄기는 '기혼 - Gihon'으로 “갑자기 흘러나온다”는 뜻이며 선과 진리에 대한 모든 지식을 의미한다. '히데켈 - Hiddekel'은 “급류”를 뜻하며 마음을 명확하게 해주는 이성을 상징한다. '유프라테스 - Euphrates'는 “결실이 풍부함”을 뜻하며 우리가 진리를 배우는 시작점인 기억적 지식들을 상징한다. 우리가 성경을 진심으로 익히고 깨닫는 때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이러한 네 단계의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된다. 에덴 동산의 강은 에제키엘 47장 1절부터 5절까지와 12절,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하는 강과 동일하다.

나무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인식을 상징한다. 우리 안에는 인식을 상징하는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이들 중 가장 크고 높은 나무는 인식으로 알게 된 원리들 중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 생명나무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터 시작된다는 원리를 의미한다. 생명나무가 에덴의 동산 한가운데에 있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러한 원리에 따라 살았다는 것을 뜻한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가 주님의 인도와 가르침이 없이도 선하고 현명하게 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을 상징한다. 주님께서 아담에게 이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도록 명령하신 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우리는 어떤 사물을 보면 그것의 용도와 이름에 대해 먼저 떠올리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사물의 용도와 특성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것들에 맞는 이름을 붙여준다. 초기의 사람들은 모든 사물이 주님을 사랑하는 어떤 것과 상응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들이 어떻게 인간들로 하여금 주님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것인지도 알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이 모든 동물들에게 그 특성에 맞는 이름을 지어준 것으로 쓰여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이다. 사람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었지만 자기애가 점점 그들의 마음에서 자라나 자신들이 주님으로부터 독립적인 존재라고 느끼고 싶어 했다. 이것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라고 쓰여 있다. 인간이 완전히 이기적인 존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자기 이외의 어떤 존재를 사랑하도록 가르치신다. 이상적인 결혼생활을 이루려면 남편과 아내 서로 모두가 상대방을 자신보다 더욱 아끼며 사랑해야 한다. 24절의 말씀은 결혼식 주례에 종종 사용되기도 한다. 결혼은 처음부터 주님이 정하신 거룩한 상태로 다른 어떤 인간관계보다도 소중한 것이다. 아담이 깊은 잠에 빠지게 되는 때는 인간의 발달에 있어 그들 영혼의 성장이 육체의 성장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망각해 버리는 때를 말한다. 우리들 역시 이 중요한 사실을 잊기 쉽다. 주님이 아담으로부터 뽑아낸 갈비뼈는 사람이 그 자신만으로는 얼마나 생명력이 없는가를 보여준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실 때에 우리는 진실로 사랑스럽고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

기본 상응 공부

강 = 주님으로부터 나와 우리에게 오는 진리

나무들 = 일반적인 원리들

질문 정리

- 1) 성경은 누구의 말씀인가?
- 2) 성경의 첫 번째 책 이름은 무엇인가?
- 3) 창세기의 의미는 무엇인가?
- 4) 첫 장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 5) 주님은 며칠 동안 모든 것을 창조 하셨을까?
- 6) 무엇이 맨 마지막에 창조되었을까?
- 7) 사람은 누구와 닮게 창조되었을까?
- 8) 주님은 7일째 무엇을 하셨을까?
- 9) 주님은 첫 사람들을 어디에 살게 하셨을까?
- 10) 첫 사람들에게 어떤 이름이 주어졌을까?
- 11) 아담은 무엇을 의미할까?
- 12)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을까?
- 13) 물은 동산에 어떻게 공급되었을까?
- 14) 강은 몇 개의 물줄기로 나뉘었을까?
- 15) 무슨 나무로부터의 것을 먹지말라고 말해졌는가?
- 16) 아담은 무엇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을까?
- 17) 아담이 잠들었을 때 주님은 그로부터 무엇을 빼내셨을까?
- 18) 주님께서 그 갈비뼈로 무엇을 만드셨을까?
- 19) 에덴의 동산을 통해 보여주는 우리의 상태는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하느님 2) 창세기 3) 시작 4) 창조 5) 육 일 6) 사람 7) 하느님 9) 에덴의 동산 8) 휴식 10) 아담 11) 인류 12) 돌보고 가꾸는 일 13) 강 14) 네 개

15) 선악에 관한 지식 16) 동물과 새들 17) 갈비뼈 18)여자 19) 주님에게 가까이
있으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상태

3

노아가 방주를 짓다

머리말

뱀 그리고 가인과 아벨에 관한 이야기들은 인간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자아와 스스로의 욕망에만 집착함으로써 순진함, 천적인 상태 그리고 선행에 관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유 즉 악의 근원에 대해 알려 주고 있다. 본장을 통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것 그리고 인간이 주님께 첫 번째로 불순종한 것은 무엇이며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자.

성 서 본 문: 창세기 6장

6장: 1. 땅 위에 사람이 불어나면서부터 그들의 딸들이 태어났다. 2. 하느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의 딸들을 보고 마음에 드는 대로 아리따운 여자를 골라 아내로 삼았다. 3. 그래서 야훼께서는 “사람은 동물에 지나지 않으니 나의 입김이 사람들에게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사람은 백 이십 년밖에 살지 못하리라” 하셨다. 4. 그 때 그리고 그 뒤에도 세상에는 느빌람이라는 거인족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들로서 옛날부터 이름난 장사들이었다. 5. 야훼께서는 세상이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 차고 사람마다 못된 생각만 하는 것을 보시고 6. 왜 사람을 만들었든가 싶으시어 마음이 아프셨다. 7. 야훼께서는 “내가 지어 낸 사람이지만, 땅 위에서 쓸어버리리라. 공연히 사람을 만들었구나.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는 것과 공중에 새까지 모조리 없애 버리리라. 공연히 만들었구나”하고 탄식하셨다. 8. 그러나 노아만은 하느님의 마음에 들었다. 9. 노아의 이야기는 이러하다. 그 당시에 노아만큼 올바르고 흠없는 사람이 없었다. 그는 하느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었다. 10.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을 두었다. 11. 하느님이 보시기에 세상은 너무나 썩어 있었다.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12. 하느님 보시기에 세상은 속속들이 썩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땅 위에 냄새를 피우고 있었다. 13. 그래서 하느님께서서는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세상은 이제 막판에 이르렀다. 땅 위는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저것들을 땅에서 다 쓸어버리기로 하였다. 14. 너는 전나무로 배 한 척을 만들어라. 배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안과 밖을 역청으로 칠하여라. 15. 그 배는 이렇게 만들도록 하여라. 길이는 삼백 자, 나비는 오십 자, 높이는 삼십 자로 하고, 16. 또 배에 지붕을 만들어 한 자 치켜 올려 덮고 옆에는 출입문을 내고, 상 중 하 삼층으로 만들어라. 17. 내가 이제 땅 위에 폭우를 쏟으리라. 홍수를 내어 하늘 아래 숨 쉬는 동물은 다 쓸어버리리라. 땅 위에 사는 것은 하나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18. 그러나 나는 너와 계약을 세운다. 너는 네 아들과 네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배에 들어가거라. 19. 그리고 목숨이 있는 온갖 동물도 암컷과 수컷으로 한 쌍씩 배에 데리고 들어 가 너와 함께 살아남도록 하여라. 20. 온갖 새와 온갖 짐승과 땅 위를 기어 다니는 온갖 길짐승이 두 마리씩 너한테로 올 터이니 그것들을 살려 주어라. 21. 그리고 너는 먹을 수 있는 온갖 양식을 가져다가 너와 함께 있는 사람과 동물들이 먹도록 저장해 두어라.” 22. 노아는 모든 일을 하느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하였다.

교리 요점

* 노아의 방주 때부터 인간은 “천적” 본성 대신에 한 단계 낮은 “영적” 본성을 갖게 된다. 이것은 인간이 진리를 사랑하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진리에 대한 것을 배우고 그 진리에 순종해야 함을 의미한다. 우리는 우리의 이기심을 부추기는 자연적인 애착들을 믿어 진리를 배우고 깨우치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될 것이다.

해설

이브와 뱀에 관한 이야기는 태고 사람들이 주님께 불순종하여 아름다운 에덴의 동산을 잃게 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들은 금지된 열매를 먹은 후 선 대신 악을 선택하여 자신만을 사랑하며 스스로의 지혜를 믿음으로써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갔다. 그리고 그들은 극도로 악해져 그들의 사악함이 마치 큰 홍수와 같았다. 그리하여 그들의 모든 영적 생명, 선한 애착들, 그리고 진실한 사고들마저 사라지고 마침내 그들은 육체적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다. 에덴의 동산에 있는 강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진리를 표현하며 이 진리만이 모든 것에 생명이 있도록 해준다. 하지만 사람들은 교만해져서 스스로로부터 진리를 찾는데 이것은 결국 거짓에 대한 사랑이 되고 결국은 파멸의 원인이 된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받기에 충분한 선이 남아 있었던 태고교회의 사람 중 일부를 상징한다.

홍수를 이겨낸 방주는 주님께 순종함으로써 형성된 인격을 상징한다. 이 방주는 3층 구조로 지어졌는데 이는 마음의 3층 구조를 의미한다. 방주 위에 창이 있음은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기 위해 열려 있음을 의미한다. 문은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대한 상징이다.

방주의 “방들”은 인간 내에 의지와 이해성의 분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마침내 그들의 사고와 의지를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이 잘못된 것을 원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은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고 올바른 것에 순종함으로써 그들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구원될 수 있는 방법이었고 우리 또한 스스로가 원하지 않더라도 옳은 것을 배우고 실천하면 구원될 수 있다.

최초의 사람들은 “천적”(Celestial)사람들로 주님으로부터 온 진리가 그들의 의지 속에 직접 흘러 들어가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들은 의(意), 지(知) 그리고 행(行)이 하나인 존재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의지가 이기적으로 변화되어 그들은 더 이상 주님으로부터 온 진리를 직접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노아로 시작되는 고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영적”(spiritual)사람들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진리를 우선적으로 이해 성에 받아들이며 그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의지 부분에

들어가 순종할 수 있었던 사람들을 의미한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며 여러 이름들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성경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된다. 성경 이야기 속의 영적 배경에는 간략한 계보가 종종 주어진다. 이름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것은 아무 중요성도 없이 보여서 오히려 왜 이러한 내용이 성경의 일부에 속하는지 의아해 하기도 한다.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인물들의 상응을 상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를 요약하자면 이것은 사람들이 주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에서 계속적으로 이탈되어 가는 단계들로 볼 수 있으며 이 단계들이 갈수록 더 외향적이 되어 감을 볼 수 있다.

노아는 「휴식」을 뜻한다. 노아가 모두를 데리고 방주로 들어간 후 주님께서 “문을 닫았다”함은 인간이 이미 타락한 영들로 가득한 영계와 직접적인 접촉을 못하게 되자 주님께서 그나마 인간 속에 남아있던 선한 것을 보존하시려는 것을 뜻한다. 노아는 썸, 함, 야벳이란 세 아들을 가졌다. 이들의 이름은 생명의 새로운 상태가 갖게 된 영계와의 새로운 세 가지 접촉 방법들을 표현하고 있다. 「썸」은 “이름”을 뜻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연상할 수도 있다. 이것은 애착에 대한 것 보다 진리에 대해 인식하게 되는 새로운 능력을 상징한다. 「함」은 “따뜻함”을 뜻한다. 따뜻함이란 사람 또는 교회가 가지는 진리에 대한 애착 즉 진리를 사랑함인데 이는 방주에 사용된 전나무로 더 잘 묘사되고 있다. 역청은 “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역청을 함유한 나무에 불을 지르면 얼마나 잘 타는지 상상하면 쉽게 이해하게 된다. 「야벳」은 “넓혀짐”을 의미한다. 우리가 진리를 향한 탐험을 시작할 때, 우리의 호기심은 우리를 지식이라는 넓은 바다로 인도 한다. 이 세 능력(세 아들들)들이 홍수의 파괴로부터 보존되어 졌고 이 능력들에 적절히 관련된 애착들(아내들)과 그것을 지지하는 선한 애착들(방주 속의 동물들), 그들을 지탱시키는 진리들(방주 속의 먹을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 그들 안의 선함이 넓혀지게 된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간 후 “주님이 문을 닫았다”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기 위한 시험에 들 때 주님께서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상징한다. 주님은 우리와 시험 사이에 항상 계시며 방주라는 우리의 인격이 홍수와 같은 시련을 극복하고 딱딱한 땅에 정지하여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신다. 우리는 이와 더불어 비가 40일간 밤낮으로 내렸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기본 상응 공부

홍수(나쁜 의미의 물) = 이기심으로 인해 거짓으로 변한 진리
3 = 의지, 사고, 행동이라는 세 측면의 완벽함 (의지+사고=행동)

질문 정리

- 1) 주님은 첫 사람을 어디에 놓으셨을까?
- 2) 첫 사람들은 그 곳에서 무엇을 했을까?
- 3) 에덴의 동산에 물은 어떻게 공급되었을까?
- 4) 에덴의 동산 중앙에 있었던 나무는 무엇일까?
- 5) 에덴의 동산에는 어떤 나무들이 있었을까?
- 6) 주님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금하셨을까?
- 7) 주님은 아담이 잠들어 있는 동안 그로부터 무엇을 취하셨을까?
- 8) 주님은 그것으로 무엇을 만드셨을까?
- 9) 첫 사람은 어떻게 주님께 불순종 했을까?
- 10) 주님께 불순종한 그들은 어떤 벌을 받았을까?
- 11) 그들은 회개했을까?
- 12) 주님은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셨을까?
- 13) 주님은 왜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을까?
- 14) 주님은 노아에게 무엇을 지으라고 하셨을까?
- 15) 우리는 방주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까?
- 16) 노아와 함께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였을까?
- 17) 노아의 세 아들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 18) 노아는 방주로 무엇을 들어오게 했을까?
- 19)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은 무엇을 의미할까?

질문의 답

1) 에덴의 동산 2) 지키고 잘 돌보았다 3) 강 4) 생명나무 5)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6) 지식의 나무로부터의 것을 먹는 것 (eat of tree of knowledge)
7) 갈비뼈 8) 여자 9) 금지된 열매를 먹었다 10) 동산으로부터 쫓겨남
11) 아니다 12) 인류를 멸하기로 13) 그들은 선했기 때문에 14) 방주 15) 전나무, 역청, 3층, 칸막이 방들, 창문, 문 16) 아내, 아들, 며느리 17) 썸, 함, 야벳 18) 창조물의 쌍들 19) 자아에게서 올바름을 찾음

4

아브람을 부르심

머리말

시간이 흐르자 노아의 후손들 또한 아담과 이브의 후손들처럼 주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스스로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했다. 결국 그들은 함께 어울려 살 수 없을 정도로 이기적으로 변하게 되어 지상의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도덕적 교훈은, 어떤 집단이든 그 집단의 일원이 이기적으로 행동하게 되면 그 집단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균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성서 본문: 창세기 11장 27-30절, 12장 1-10절

11장: 27. 데라의 후손은 다음과 같다.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다. 28. 하란은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29. 아브람과 나홀이 아내를 맞았는데,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래요, 나홀의 아내는 밀가였다. 밀가는 하란의 딸로서 이스가와는 동기간이었다. 30. 사래는 잉태를

하지 못하는 몸이었으므로 자식이 없었다. 31. 데라는 아들 아브람과 아들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람의 아내인 며느리 사래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길을 떠나다가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서 자리잡고 살았다. 32. 데라는 이백 오 년을 살고 하란에서 죽었다.

12장: 1. 야훼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네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장차 보여 줄 땅으로 가거라. 2.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떨치게 하리라. 네 이름은 남에게 복을 끼쳐 주는 이름이 될 것이다. 3. 너에게 복을 비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라. 세상 사람들이 네 덕을 입을 것이다.” 4. 아브람은 야훼께서 분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함께 떠났다. 하란을 떠날 때, 아브람의 나이는 칠십 오 세였다. 5. 아브람은 아내 사래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길을 떠나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렀다. 6. 아브람은 가나안 땅을 거쳐 모레의 상수리나무가 있는 세겜 성소에 이르게 되었다. 그 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7. 야훼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시어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셨다. 아브람은 야훼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셨던 그 자리에 제단을 쌓아 야훼께 바쳤다. 8. 아브람은 그 곳을 떠나 베델 동쪽에 있는 산악지대로 옮겨 가서 서쪽으로는 베델이 보이고 동쪽으로는 아이가 보이는 곳에 천막을 쳤다. 아브람은 거기에 제단을 쌓아 야훼께 바치고 야훼의 이름을 불러 예배를 드렸다. 9. 아브람은 다시 길을 떠나 네겟 쪽으로 옮겨 갔다. 10. 마침 그 지방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 흉년이 너무나 심하여 아브라함은 에집트에 몸붙여 살려고 옮겨 간 일이 있었다.

교리 요점

*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고대 말씀에서 취해 온 것이며 이는 역사적인 측면에서 쓰인 것이 아니다. 사실적인 역사시대는 제 12장부터 시작된다.

해설

주님께서 지상에 세운 두 번째 교회 즉 고대 교회는 노아와 그의 후손들로 그려지고 있다. 고대말씀(Ancient Word)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이전의 성경은 교회시대에 쓰여 졌다. 고대 사람들은 상응 공부를 즐겨 해서 성경 또한 상응을 담을 이야기들로 이루어 졌다. 그러나 세대가 지나면서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벗어나 자아를 중심으로 살기 시작했다. 그들은 예배와 연관되어 만들었던 형상들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를 잊어 버렸고 그것들을 우상으로 숭배하게 되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바벨탑에 관한 이야기는 이 두 번째 교회가 무너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바벨탑 이야기 이후 창세기 11장은 노아의 첫 아들인 「셈」의 후손들의 이름을 알려 준다. 이들은 셈족이라 불리며 현재 소아시아라 부르는 지역에서 살았다. 창세기 11장 11절부터 13절에 있는 이름들은 창세기 앞 장에서 등장했던 이름들처럼 개인의 이름이 아닌 한 가문 전체를 뜻하는 것이다. 스웨덴본에 의하면 실질적인 역사시대는 14절부터라고 한다. 그것은 「에벨(Eber)」라는 인물의 등장으로 시작되는데 그의 이름을 더 정확히 하자면 헤벨(Heber)이라고 써야하며 그로부터 히브리인이라는 이름이 기원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실존 인물들로 이들의 후손들에 의해 이스라엘 교회와 유대 교회가 이루어진다.

성경의 지도를 보고 갈대아의 우르를 찾아보면, 갈대아의 우르와 가나안의 사이에 아라비아 사막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브람의 가족들이 주님의 뜻에 따라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갈 때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하란을 경유하게 된다. 하란은 우르를 떠나기 전에 죽은 아브람의 형제인 롯의 아버지의 이름을 딴 것으로, 나홀의 성이라고도 부른다. 그 이유는 나홀이 하란에 정착했기 때문이다.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도 하란에서 죽게 된다. 그러나 아브람, 그의 조카 롯, 그리고 아내 사라와 그의 하인들은 여행을 다시 시작했다.

우리는 하란이라는 지역과 더불어 아브람이 처음 도착해 제단을 쌓은 가나안 지역 내의 두 곳 즉 셰켄(Shechem)과 베텔(Bethel)도 기억해야 한다. 그 이유는 성경 이야기에 등장하는 지역과 사람들의 이름은 영적으로 상징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집트도 기억해야 한다. 이집트는 나일강이 그 지역을 비옥하게 해서 고대에서는 세계의 곡식 창고로 유명해서 흉년이 들면

타 지역 사람들이 그곳에서 양식을 구했다.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자주 이집트로 왔던 것을 알 수 있다.

주님이 아브람을 부르시는 이야기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의미한다. 즉 주님이 자연적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아 중심적인 삶의 길을 떠나 그분이 뜻한 삶의 천적인 상태로 거슬러 올라가기 위한 여행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심과 같다. 가나안 땅 즉 거룩한 땅은 천적 상태를 상징한다. 따라서 성경의 모든 사람들과 장소들은 상응으로 볼 때 천국을 향한 우리의 영적 여행과 관련되어 있다. 이집트는 육체의 삶에 필수인 곡식을 창고에 저장해 두는 것 같이 많은 지식을 우리의 마음에 저장하는 것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흉년은 양식 곧 선과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 지식의 부족을 의미한다.

아모스서 8장 11절을 읽어 보도록 하자. 우리는 삶 속에서 종종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줄 지식이 부족함을 느낀다. 이런 지식의 부족이 상징하는 흉년을 견뎌내기 위해, 또는 부로 상징되는 충분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집트로 상징되는 선과 진리에 대한 지식의 습득을 자발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영혼은 성장하게 된다. 우리는 늘 하느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스웨덴볼의 삶의 수칙들 중 하나이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통해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뜻하신 바에 대해서도 알아갈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이집트에 내려가는 것에 상응한다. 이집트에서 되돌아 옴은 우리가 얻은 지식을 주님을 섬기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 상응 공부

갈대아의 우르 = 자연적 수준에서의 이기적인 상태

가나안의 땅 = 천국적 상태

질문 정리

1) 성경의 첫 11장까지는 역사적 사실인가?

- 2) 성경에 언급된 첫 실제 인물은 누구인가?
- 3) 지상에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 선택된 사람은 누구인가?
- 4) 아브람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 5) 아브람의 형제는 누구인가?
- 6) 아브람의 아내는 누구인가?
- 7) 그들은 어디에서 살았는가?
- 8) 주님은 그들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는가?
- 9) 그들이 첫 번째 멈춘 곳은 어디인가?
- 10) 누가 하란으로부터 떠나 계속 여행을 했는가? 롯은 누구인가?
- 11) 주님은 아브람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 12)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머문 곳은 어디인가?
- 13) 아브람이 두 번째 멈춘 곳은 어디인가?
- 14) 아브람은 멈춘 두 장소에서 무엇을 지었는가?
- 15) 그 후, 아브람은 어디로 갔으며 왜 그곳으로 갔는가?
- 16) 가나안 땅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7) 아브람의 여행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질문의 답

- 1) 아니다 2) 에벨 3) 아브람 4) 데라 5) 하란, 나홀 6) 사래 7) 갈대아의 우르 8) 가나안 9) 하란(나홀의 성) 10) 아브람과 롯, 아브람의 조카 11) “큰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12) 세겔 13) 베델 근처 14) 제단 15) 에집트, 흉년 때문에 16) 생활 속에 있는 천국적인 방법 17) 유전된 이기적 경향성들을 떠나는 것(거절해가는 것)

5

이사악의 출생

머리말

첫 번째 합리성을 의미하는 이스마엘과 두 번째 합리성을 의미하는 이사악의 대조를 위해 먼저 이스마엘의 출생에 관한 재검토와 상속자에 관한 내용을 살펴 보자.

성 서 본 문: 창세기 21장 1-21절

21장 1. 야훼께서는 약속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니,
2. 사라가 임신하여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때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3.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아 준 아들을 이사악이라 이름지어 불렀다.
4. 하느님의 분부를 따라 아브라함은 아들 이사악이 태어난 지 팔 일만에 할례를
베풀었다. 5. 아브라함이 아들 이사악을 얻은 것은 백 살이 되던 해였다. 6. 사라가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내가 아들을 낳았다고 모두들 나와
함께 기뻐하게 되었구나. 7. 누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아기에게 젖을 물리리라고
말할 꿈이나 꾸었더냐? 그런데 그 노력에 아들을 얻으셨구나.” 8. 아기가 자라나
젖을 땔 때가 되었다. 이사악이 젖을 떼던 날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다. 9.
그런데 사라는 에집트 여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자기 아들 이사악과
함께 노는 것을 보고 10.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 계집종과 아들을 내쫓아 주십시
오. 그 계집종의 아들이 내 아들 이사악과 함께 상속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11.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이스마엘도 자기 혈육이었기 때문이
다. 12. 그러자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그 애와 네 계집종을 걱정하여
마음 아파하지 말아라. 사라가 하는 말을 다 들어 주어라. 이사악에게서 난 자식이라야
네 혈통을 이을 것이다. 13. 그러나 이 계집종의 아들도 네 자식이니 내가 그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14.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양식 얼마와 물 한 부대를 하갈에게 메어 주며 아이를 데리고 나가게 하였다. 하갈은 길을 떠나 얼마쯤 가다가 브엘세바 빈들을 헤매게 되었다. 15. 부대의 물이 떨어지자 하갈은 덩불 한 구석에 아들을 내려 놓고 16. “자식이 죽는 것을 어찌 눈 뜨고 보랴”고 탄식하며 화살이 날아가는 거리만큼 떨어져서 주저앉아 이스마엘을 바라 보았다. 하갈은 이스마엘이 소리내어 우는데도 주저앉아 그저 바라만 보았다. 17. 하느님께서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당신의 천사를 시켜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이르셨다. “하갈아, 어찌 된 일이나? 걱정하지 말아라. 하느님께서 저기서 네 아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다. 18. 어서 가서 아이를 안아 일으켜 주어라. 내가 그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19. 하느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 주시니, 그의 눈에 샘이 보였다. 하갈은 큰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아이에게 먹였다. 20. 하느님께서 그와 함께 해 주셨다. 그는 자라서 사막에서 살며 활을 쏘는 사냥꾼이 되었다. 21. 그는 바란 사막에서 살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며느리감을 에집트 땅에서 골라 맞아 들였다.

교리 요점

*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와 표준에 따라 판단하는 이성보다 더 높은 이성을 얻어야 한다.

해설

창세기 13장 1-2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돌아올 때 가축, 금 그리고 은을 많이 가진 큰 부자였다. 이것은 우리가 어린 아이였을 때 많은 지식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이 지식이란 자연계, 성경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지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되돌아오는 것은 우리가 배운 지식들을 주님을 섬기기 위해 사용하는 순간을 의미한다. 아브라함은 헤브론 남쪽에 정착했는데 이곳은 초기에 유대 교회의 중심지였다. 아브라함과 헤브론은 유아기의 어린이가 가진 순진함과 순종을 상징한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을 물려받고 장차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러나 사라와 아브라함은 2세를 갖지 못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여종 하갈을 아내로 주어 아들을 갖게 한 것은 그 당시의 관습으로 볼 때 나쁜 것이 아니었다. 세 번째 교회까지 내려 올 때는 인류에게 주어진 진리들이 모두 잊혀진 상태여서 진정한 결혼에 관한 의미 역시 잊혀져 있었다.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주님은 사라에게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도록 하셨다. 이 아들이 이사악이다. 이사악이란 이름은 「웃음」을 뜻한다. 창세기 21장 6절을 찾아보면 이사악의 이름에 대해 알 수 있다. 우리는 이사악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사악이 태어 날 당시 이스마엘은 14살이었다. 이스마엘 또래의 소년들은 대체로 아기에 별반 흥미가 없다. 이 또래의 소년들에게 아기는 아주 약하고 어린 존재에 불과해서 어른들이 왜 아기에 대하여 백일잔치나 돌잔치 등을 하며 기뻐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이스마엘 역시 이와 같은 소년이었다. 이스마엘은 이런 소년기에 사용되는 추론의 일부를 보여준다. 이들은 육체적 강함 즉 신체적 능력의 우월성을 중요시해서 나약해 보이는 것들은 무시해 버린다.

하갈이 사라를 멀리하여 쫓겨났던 것같이 이스마엘도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된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사랑했고 그를 쫓아내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 같다. 어쨌든 주님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따르도록 하셨다. 사라는 천국적인 것들을 사랑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아들 이사악은 이스마엘로 표현되는 추론 능력보다 한 단계 높은 추론 능력을 의미한다. 더 높은 추론 능력이란 자연적인 것에 토대를 두지 않고 영적인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우리들 속에 있는 “이스마엘”은 스스로에게 확실하게 이익을 주는 것을 위해 행동하라고 하지만, 우리들 속의 “이사악”은 주님께 서 기뻐하시며 우리의 이웃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라고 한다. 이스마엘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공이라고 여기고 이사악은 선한 인간이 됨을 성공으로 여긴다. 또한 이스마엘은 죽음을 최대의 비극으로 보고 이사악은 죽음을 진정한 삶의 시작으로 본다.

우리가 만약 우리 안에 이사악과 같은 더 높은 추론 능력이 생겨나기 원한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추론 능력인 이스마엘을 우리 안에서 그에 합당한 위치에 있도록

해야 한다. 이스마엘은 우리의 삶에 상당히 유용하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스마엘이 살아서 번성하기를 원하셨다. 하지만 이스마엘로 상징되는 낮은 추론 능력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주관해서는 안 된다. 성경에서 가나안은 천국적인 인격을, 이집트는 기억 속에 있는 지식을 그리고 있다. 광야는 우리가 세상적인 것과 자연적인 수준 이상의 것을 보지 못할 때의 마음 상태를 뜻한다. 따라서 광야 생활은 이리저리 배회하는 것처럼 가만히 있지 못하는 상태이다. 이것은 곧 거쳐해야 할 영적인 집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이스마엘은 활 쏘는 자가 되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활은 논쟁을 상징한다. 자연적 수준의 추론은 논쟁을 아주 좋아 한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했던 부모님이나 친구들과 했던 논쟁들을 떠올려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본장의 이야기는 성경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참 뜻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보다 정확히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기본 상용 공부

헤브론 = 선 측면에서의 교회

광야 = 정착할 집이 없는 마음의 영적 상태

질문 정리

- 1) 지상의 두 번째 교회의 종말을 보여주는 성경 이야기는 무엇인가?
- 2) 그 속의 사람들에게 무엇이 일어났는가?
- 3) 주님께서는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기 위해 어느 가정을 택하셨는가?
- 4) 그들은 어디서 살았는가?
- 5) 주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
- 6)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던 중 멈춘 곳은 어디인가?
- 7) 누가 가나안으로 계속 갔는가?
- 8) 아브람이 제단을 쌓은 가나안의 두 장소는 어디인가?

- 9) 왜 그는 이집트로 갔는가?
- 10) 그는 이집트에서 돌아 온 후 어디에 정착했는가?
- 11)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해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 12) 아브라함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는 무엇이었는가?
- 13) 사라는 아브라함의 대를 어떻게 잇게 했는가?
- 14) 하갈의 아들 이름은 무엇인가?
- 15) 주님께서 이스마엘에 관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 16) 사라가 아들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세였는가?
- 17) 사라의 아들 이름은 무엇인가?
- 18) 이스마엘의 어떤 행동이 사를 불쾌하게 했는가?
- 19)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무슨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는가?
- 20)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 21) 하갈과 이스마엘은 어디로 갔는가?
- 22) 천사들은 그들에게 무슨 약속을 했는가?
- 23) 이스마엘은 무엇이 되었는가?
- 24) 이스마엘은 어느 나라에서 자기의 아내를 구했는가?

질문의 답

- 1) 바벨탑 2) 흘트려짐 3) 아브람(에벨, 데라) 4) 갈대아의 우르
- 5) 가나안으로 가라 6) 하란 7) 아브람, 사래, 롯 8) 세겔, 베델 9) 기근
- 10) 헤브론 11) “바다의 모래같이 불어나리라” 12) 아들 13) 하갈을 그의 아내로
 줌 14) 이스마엘 15)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16) 백 세 17) 이사악 18)
 이사악을 조롱했다 19)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 20) 사라의 말을 따라라 21) 사막(광야) 22)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 23) 활 쏘는 자 24) 이집트

6

야곱과 에사오

머리말

본장에서는 쌍둥이 형제에 관한 이야기를 알아보고 아브라함이 이사악의 아내를 하란에서 취해오는 과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살펴본다.

성 서 본 문: 창세기 25장 19-34절, 27장

25장: 19. 아브라함의 아들 이사악의 역사는 아래와 같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 이사악이 태어났는데, 20. 이사악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을 때 그의 나이는 사십 세였다. 리브가는 바탄아람에 사는 아람 사람 브두엘의 딸로서 아람 사람 라반의 누이였다. 21. 리브가가 아기를 낳지 못하였으므로 이사악은 야훼께 아기를 갖게 해 달라고 빌었다. 야훼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 주시어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는데, 22. 뱃속에 든 두 아이가 서로 싸우므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어디 살겠는가!”하면서 야훼께 까닭을 물으러 나갔다. 23. 야훼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태에는 두 민족이 들어 있다. 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두 부족으로 갈라졌는데, 한 부족이 다른 부족을 억누를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24. 달이 차서 몸을 풀고 보니 쌍둥이였다. 25. 선동이는 살결이 붉은데다가 온 몸이 털투성이였다. 그래서 이름을 에사오라 하였다. 26. 후동이는 에사오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했다. 리브가가 그들을 낳은 것은 이사악이 육십 세 되던 해였다. 27. 두 아들이 자라나, 에사오는 날썰 사냥꾼이 되어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질이 차분하여 천막에 머물러 살았다. 28. 이사악은 에사오가 사냥해 오는 고기에 맛을 들여 에사오를 더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하였다. 29. 하루는 에사오가 허기져 들에서 돌아 와 보니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었다. 30.

에사오가 야곱에게 “배고파 죽겠다. 그 붉은 죽 좀 먹자”하였다. 그의 이름을 에돔이라고도 부르는 데는 이런 사연이 있다. 31. 야곱이 형에게 당장 상속권을 팔라고 제안하자 32. 에사오는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상속권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하였다. 33. 그러나 야곱은, 먼저 맹세부터 하라고 다그쳐 요구하였다. 에사오는 맹세하고 장자의 상속권을 야곱에게 팔아 넘겼다. 34. 그리고 에사오는 야곱에게서 떡과 불콩죽을 받아 먹은 후에 일어나 나갔다. 이렇게 에사오는 자기의 상속권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27장: 1. 이사악은 늙어 눈이 어두워졌다. 어느 날 그는 큰아들 에사오를 불렀다. “얘야!” “예, 어서 말씀하십시오.” 2. “너도 보다시피 내가 늙어 언제 죽을지 모른다. 3. 그러니 너는 사냥할 때 쓰는 화살통과 활을 메고 들에 나가 사냥을 해다가 4.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정성을 쏟아 너에게 복을 빌어 주리라.” 5. 리브가는 이사악이 아들 에사오에게 하는 이 말을 엿듣고는 에사오가 사냥하러 들에 나간 틈을 타서 6. 아들 야곱에게 귀뜸해 주었다. “아버지가 네 형 에사오에게 7. 사냥해다가 별미를 만들어 오라시면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것을 잡수시고 에사오에게 복을 빌어 주겠다고 하시더구나. 8. 그러니 야곱아!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여라. 9. 양떼들한테 가서 살진 염소 새끼 두 마리만 끌어 오너라. 내가 그것으로 아버지 구미에 맞게 잘 요리해 줄 터이니 10. 그것을 아버지께 갖다 드려라. 그러면 아버지가 잡수시고 세상을 뜨시기 전에 너에게 복을 빌어 주실 것이다.” 11.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하였다. “보시다시피 형 에사오는 털이 많고 저는 이렇게 털이 없습니다. 12. 아버님이 저를 만져 보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아버님을 놀리거나 한 것처럼 되어 복은커녕 도리어 저주를 받을 것 아닙니까?” 13.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야곱아, 네가 받을 저주는 내가 받으마.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어서 가서 염소 새끼나 끌어 오너라.” 어머니의 말대로 14. 야곱은 염소 새끼 둘을 어머니에게 끌고 왔다. 어머니는 남편 구미에 맞게 별미를 만들었다. 15. 리브가는 집에 보관해 두었던 큰아들 에사오의 옷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꺼내어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16. 염소 새끼 가죽을 매끈한 손과 목에 감아 준 다음, 17. 장만해 놓은 별미와 구운 빵을 아들 야곱의 손에 들려주었다. 18. 야곱은 아버지한테 들어 가 “아버지!”하고 불렀다. 아버지

이사악이 “오냐, 네가 누구냐?”하고 묻자 19. 야곱이 대답하였다. “저는 아버님의 맏아들 에사오입니다. 아버님 분부대로 요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어서 일어나 앉으셔서 제가 사냥해다가 만든 요리를 잡수시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이사악이 아들에게 물었다. “에사오야! 무슨 수로 이렇게 빨리 잡아 왔느냐?” “아버님의 하느님 야훼께서 짐승을 금방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사악은 “네가 정말 내 아들 에사오인지 만져 보아야 겠다”하면서 가까이 오라고 하였다.

22. 가까이 온 야곱을 만져 보고 이사악은 중얼거렸다. “말소리는 야곱의 소린데 손은 에사오의 손이라!” 23. 그는 야곱의 손에 형 에사오의 손처럼 털이 많았으므로 야곱인 줄 모르고 그에게 복을 빌어 주기로 하였다. 24. 이사악은 “네가 틀림없는 내 아들 에사오냐?”하고 다짐하였다. 야곱이 “예, 그렇습니다”하고 대답하자 26. 이사악은 “에사오야! 사냥한 것을 이리 가져오너라. 내가 먹고 정성을 쏟아 너에게 복을 빌어 주리라”하였다. 야곱이 가져다 바치는 요리와 술을 먹고 마신 뒤 26. 아버지 이사악은 야곱에게 “에사오야, 이리 가까이 와서 나에게 입을 맞추어 다오”하였다.

27. 그가 가까이 가서 입을 맞추자 이사악은 야곱이 입은 옷에서 풍기는 냄새를 맡고 복을 빌어 주었다. “아! 내 아들에게서 풍기는 냄새, 야훼께 복 받은 들 향기로구나. 하느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신 이슬로 땅이 기름져 오곡이 풍성하고 술이 넘쳐 나거라. 못 백성은 너를 섬기고 못 족속들은 네 앞에 엎드리리라. 너는 네 겨레의 영도자가 되어 네 동기들이 네 앞에 엎드리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에게 복을 빌어 주는 사람은 복을 받으리라.” 30. 야곱이 아버지 이사악이 빌어 주는 복을 받고 아버지 앞에서 막 물러나오는데 형 에사오가 사냥에서 돌아 왔다. 31. 그도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들고 들어 가 권하였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이 아들이 사냥해 다가 만든 요리를 잡수시고 저에게 복을 빌어 주십시오.” 32. 아버지 이사악이 “대체 너는 누구냐?”고 물었다. “저는 아버님 맏아들 에사오입니다.” 이 대답을 듣고 33. 이사악은 그만 기가 막혀 부들부들 떨며 말하였다. “누군가가 벌써 사냥해다가 만든 요리를 나에게 가져왔었다. 네가 오기 전에 나는 그 요리를 받아 배부르게 먹고 그에게 이미 복을 빌어 주었다. 그 복은 어쩔 수 없이 그의 것이다.” 34. 에사오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통곡하면서 아버지에게 애원하였다. “아버지! 저에게도 복을 빌어 주십시오.” 35. “네 동생이 와서 속임수로 너에게 돌아 갈 복을 가로챘구나.”

36. 이 말을 듣고 에사오는, “나를 두 번씩이나 뒷발질하라고 그 녀석의 이름이 야곱이었던가? 저번에는 내 상속권을 빼앗더니, 이번에는 내가 받을 복마저 가로채는구나!” 하며 물었다. “저에게 주실 복은 하나도 남겨 두지 않으셨단 말입니까?”

37. 이사악이 에사오에게 대답하였다. “도리에는 어긋나지마는 나는 야곱을 너의 상전으로 삼고, 모든 동기를 그에게 종으로 주었다. 그에게는 곡식과 술도 떨어질 날이 없을 것이다. 에사오야, 이제 와서 내가 무엇을 해 줄 수 있겠느냐?” 38. 그러나 에사오는 거듭 애원하였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빌어 주실 복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아버지! 저에게도 복을 빌어 주십시오.” 입을 다문 채 말이 없는 이사악 앞에서 에사오는 목 놓아 울었다.

39. 아버지 이사악이 아들에게 대답하였다. “네가 살 땅은 기름지지 않은 땅, 하늘에서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땅이다. 칼만이 너의 밭줄이 되리라. 너는 아우를 섬겨야 할 몸 너 스스로 힘을 길러 그가 썩워 준 멍에를 목에서 떨쳐 버려야 하리라.” 41. 에사오는 아버지가 야곱에게 복을 빌어 준 일로 야곱을 미워하였다. 에사오는 속으로 “아버지 상을 입을 날도 멀지 않았으니, 그 때 동생 야곱을 없애 버리리라”고 마음먹었다.

42. 리브가는 큰아들 에사오가 한 말을 전해 듣고는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놓고 일렀다. “큰일 났다. 형 에사오가 너를 죽이지 않고는 속이 풀리지 않을 모양이다. 43. 그러니 야곱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곧 하란으로 몸을 피해 라반 아저씨를 찾아 가거라. 44. 네 형의 분이 풀릴 때까지 잠시 외삼촌 댁에 가 있거라. 45. 네 형의 노여움이 풀려 네가 한 일을 잊을 만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데려 오마. 한꺼번에 너희 두 형제를 잃고서야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

46. 리브가가 이사악에게 호소하였다. “헛 여자들이 보기 싫어 죽겠습니다. 만일 야곱이 이 땅에 사는 저 따위 헛 여자를 아내로 맞는다면 무슨 살 맛이 있겠습니까?”

교리 요점

- * 주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의 이기적인 성향까지 선용하시어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신다.
- *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모방해야 할 본보기들은 아니다. 오직 주님의

삶만이 우리의 삶의 본보기가 된다.

해설

아브라함은 죽어서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단순한 순종심을 가진 어린 시절과 같은 상태가 사라져 버림을 뜻한다. 이사악은 합리성을 기본으로 하는 상태에 놓여 짐을 상징하며, 그는 유아기가 지나 마음이 성장해 스스로 생각하고 독립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시기를 묘사한다. 이사악의 단계에서 우리는 삶을 보다 독립적으로 살게 되어 그러한 방향으로 발달 진보하게 되지만 유아기의 특징인 순수함과 무조건적 신뢰는 더 이상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 시점에서 우리 삶은 욕구(desire)와 지식(knowledge) 즉 에사오와 야곱으로 명백하게 구별된다. 주님께서는 우리 내에 있는 이 두 가지 부류를 인도하셔서 선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우리는 태생이 이기적이며 지혜가 결핍되어 있다. 에사오와 야곱은 모두 결점이 있었고 서로 많이 닮았는데, 이것은 우리 안의 욕구와 지식이 서로 다투는 것과 같다.

이사악의 장자인 에사오는 애착 또는 욕구(desire)적 측면을 그리며 야곱은 진리 또는 생각하는 측면을 그린다. 이 둘은 행동 속에서 하나 되어 세상에 나타난다. 에사오가 장자였듯이 우리 안에서도 욕구(desire)가 먼저 일어난다. 욕구가 없으면 생각도 일지 않으며 행동 또한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 행동으로 옮기려면, 우리는 그것을 현실화 시킬 “방법”에 대해서 먼저 배워야 한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야곱이 에사오에 우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야곱은 “책략가(supplanter)”를 뜻하는데, 그는 이름의 의미처럼 책략으로 형의 자리를 차지했다.

성경에서 야곱의 특성은 간혹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보호하고 번성케 하신 인물이라면 모두 선하고 좋은 사람이었을 것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본보기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성경의 인물들은 우리처럼 좋고 나쁜 두 가지 특성(qualities)들을 가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로부터 삶의 교훈을 얻는다. 이 교훈은 문자적 의미로도 충분히 전달이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큰 실수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늘 자애로움으로 대하심을 보여준다. 야곱은 그의 형으로부터 야비하게 이득을 취했고, 에사오는 가족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의 아버지의 뒤를 잇는 특권을 배고픔 때문에 포기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우리는 그를 보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고 확신할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꾸준히 이런 종류의 일들을 되풀이 하게 되며 당장 필요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일들 때문에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포기해 버리기도 한다. 우리의 특권(birth right)이란 우리가 주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 동물의 수준에서 벗어나 사람이 되어 하느님의 자녀로 그분의 나라를 상속 받음을 의미한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세상적 만족을 얻기 위해 우리의 기독교적 이상을 버리게 되면, 그것은 마치 팔죽한 그릇에 우리의 특권을 파는 것과 같다. 만약 에사오가 시험을 만들지 않았다면 야곱은 형을 속일 수 없었을 것이다. 에사오가 배고픔 때문에 죽을 것 같이 느꼈듯이, 우리 역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면 곧 죽을 것처럼 느낀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노력하면 우리에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창세기 27장을 보면, 야곱이 에사오인 것처럼 행동한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진짜 동기를 알고 계신다. 그러나 설령 그 동기들이 옳지 않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행복을 취소하지 않으신다. 그 이유는 비록 동기가 이기적이더라도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이 전혀 행하지 않는 것 보다 낫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가 좋은 습관을 형성해 가면서 차차 선행을 사랑하기까지 도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에사오는 장단점이 혼합된 인격이다. 그는 축복 받기를 간절히 원해 그의 아버지에게 기꺼이 순종하며 사냥하는 등의 고생을 했었다. 그러나 그는 동생이 자기를 속여서 실망시키자 그를 죽이려고 했다. 우리는 간혹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에사오와 야곱 또한 그들의 젊은 시절에는 다른 모든 인간들처럼 이기적일 뿐이었다.

야곱과 에사오가 재회할 때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으며 이 기간 동안 두 사람은 힘든 노력과 훈련을 거쳤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바램이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데까지 이르는 데는 오랜 세월이 걸린다.

기본 상응 공부

에사오 = 자연적 삶의 수준에서의 선

야곱 = 자연적 삶의 수준에서의 진리

질문 정리

- 1) 이사악은 누구와 결혼했는가?
- 2) 그 여자는 어디 출신이었나?
- 3) 이사악과 리브가의 두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 4) 형은 누구인가?
- 5) 그들의 생김새는 어떻게 달랐는가?
- 6) 에사오는 야곱에게 무엇을 팔았는가?
- 7) 그는 무엇을 얻었는가?
- 8) 이사악이 예뻐한 아들은 누구인가?
- 9) 리브가가 예뻐한 아들은 누구인가?
- 10) 리브가는 이사악이 늙자 야곱이 그를 어떻게 속이도록 도왔는가?
- 11) 이사악은 에사오에게 주었어야 할 것을 야곱에게 주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 12) 이에 대해 에사오의 감정은 어떠했는가?

질문의 답

- 1) 리브가 2) 하란 3) 에사오와 야곱 4) 에사오
- 5) 에사오는 털이 많고 붉음, 야곱은 매끈매끈 했음 6) 장자의 권리
- 7) 팔죽 8) 에사오 9) 야곱
- 10) 맛있는 고기 요리를 준비 시키고 야곱의 손에 염소 가죽을 씌워 주었다
- 11) 장자의 복 12) 야곱을 죽이길 원했다

7

요셉과 그 형제들

머리말

야곱이 20년간 하란에 머물면서 있었던 일 즉 레아와 라헬에 대한 이야기, 아들들의 출생, 베델에서의 주님의 약속, 그리고 가나안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야곱의 간절함을 살펴본다.

성 서 본 문: 창세기 37장

37장: 1. 한편 야곱은 자기 선친이 유랑민으로서 머문 적이 있던 땅 가나안에 자리를 잡았다. 2.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요셉은 열 일곱 살이 되어 형들과 함께 양을 치게 되었다. 그는 아버지의 두 소실 빌하와 질바의 아들들을 거들어 주고 있다가 아버지에게 그들을 좋지 않게 일러 바쳤다. 3. 이스라엘은 요셉을 늘그막에 얻은 아들이라고 해서 어느 아들보다도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장신구를 단 옷을 지어 입히곤 하였다. 4. 이렇게 아버지가 유별나게 그만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형들은 미워서 정다운 말 한 마디 건넬 생각이 없었다. 5. 한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했는데 그 때문에 형들은 그를 더 미워하게 되었다. 6. “내가 꾸 꿈 이야기를 들어 봐요”하며 그는 이야기를 꺼냈다. 7. “글쎄, 밭에서 우리가 곡식 단을 묶고 있는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이 묶은 단이 둘러 서서 내가 묶은 단에게 절을 하지 않겠어요?” 8. “네가 정말 우리에게 왕 노릇할 셈이냐? 네가 정말 우리에게 주인 노릇할 셈이냐?” 형들은 그 꿈 이야기를 듣자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 9. 그 후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는 형들에게 그 이야기를 또 했다. “글쎄, 내가 꿈을 또 꾸었는데 해와 달과 별 열 하나가 내게 절을 하더군요.”

10. 그는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가 아버지에게 꾸지람을 들었다. “네가 꾸 꿈이 대체 무엇이나? 그래,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제들이 너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절을 할 것이란 말이나?” 11. 형들은 그를 질투했지만, 아버지는 그 일을 마음에 두었다. 12. 그의 형들이 아버지의 양떼에게 풀을 뜯기러 세겔으로 갔을 때, 13.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일렀다. “얘야, 네 형들이 세겔에서 양을 치고 있지 않느냐? 네가 갔다 와야 하겠다.” 그가 대답하였다. “네, 가지요.” 14. “네 형들도 잘 있고 양들도 잘 있는지 알고 싶으니 가서 보고 오너라.” 그는 이렇게 이르고 헤브론 골짜기에서 그를 떠나 보냈다. 요셉은 세겔에 이르러 15. 들판을 헤매다가 한 사람을 만났다. 그가 “누굴 찾느냐?”고 요셉에게 물었다. 16. “저의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에게 형들이 어디서 풀을 뜯기고 있는지 알려 달라고 했다. 17. 그가 대답하였다. “벌써 여기를 떠났다. 도다인으로 가자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 말을 듣고 요셉은 도다인으로 찾아 가 거기에서 형들을 만나게 되었다. 18. 형들은 멀리서 알아보고 그가 다다르기 전에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 19. “야, 꿈장이가 오는구나. 20. 저 녀석을 죽여 아무 구덩이에다 처넣고는 들 짐승이 잡아 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되어 가는가 보자.” 21. 그러나 르우벤은 그 말을 듣고 있다가 그들의 손에서 그를 건져 낼 속셈으로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고 하였다. 22. “피만은 흘리지 말아라. 그 녀석을 이 빈들에 있는 구덩이에 처넣고 손만은 대지 말아라.” 르우벤은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살려 내어 아버지께로 되돌려 보낼 생각이었다. 23. 이윽고 요셉이 다다르자 그들은 요셉에게서 옷을 벗겼다. 그것은 장신구를 단 옷이었다. 24. 그리고는 그를 잡아 구덩이에 처넣었는데 그 구덩이는 물 없는 빈 구덩이었다. 25.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는데, 마침 길르앗으로부터 낙타를 몰고 오는 이스마엘 상인들이 눈에 띄었다. 그들은 향고무와 유향과 몰약을 낙타에 싣고 예집트로 가는 길이었다. 26.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그래도 우리 동기인데 그를 죽이고 그 피를 덮어 버린다고 해서 무슨 이득이 있겠니? 27. 그러니 그 애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버리고 우리는 손을 대지 말자. 아무래도 우리 동기요, 우리 혈육이 아니냐?” 형제들은 그의 말을 듣기로 했다. 28. 그러는 동안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다가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었다. 그들은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이십 냥에 팔아 넘겼다. 이스마엘 사람들은 요셉을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29. 르우벤은 구덩이로

돌아 와 요셉이 그 안에 없는 것을 보고 옷을 찢으며 30. 형제들에게로 돌아 가 “그 애가 없어졌다. 난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느냐!”하고 부르짖었다. 31. 그러자 그들은 염소 한 마리를 죽이고 요셉의 옷을 가져다 그 피를 묻혔다. 32. 그리고 그 장신구로 꾸민 옷을 아버지께 보내며 말을 전하였다. “이것을 우리가 주웠습니다. 이것이 아버님 아들의 옷인지 아닌지 잘 보십시오.” 33. 그는 그것을 곧 알아보고 외쳤다. “내 아들의 옷이다. 들짐승이 잡아먹었구나. 요셉이 짐승들의 밥이 되다니!” 34. 야곱은 옷을 찢고, 베옷을 몸에 걸친 채 아들을 생각하며 날이 가도 달이 가도 울기만 했다. 35. 그의 아들딸들이 모두 일어나 위로했지만 그는 위로를 받지 않고 다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아니다, 나는 지하로 내 아들한테 울면서 내려가겠다.” 이렇게 아버지는 요셉을 생각하여 울었다. 36. 한편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로 가서 파라오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그를 팔아 넘겼다.

교리 요점

* 스웨덴볼에 의하면 말씀의 가장 깊은 뜻은 주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다. 우리의 거듭남이란 시험, 투쟁 그리고 승리라는 회전의 연속이다.

해설

야곱은 에사오의 분노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하란으로 보내진 후 그곳에서 20년 정도 머물렀다. 그는 삼촌 라반을 섬기며 세월을 보내는 동안 라반의 두 딸과 결혼해 그들로부터 일곱 아들을 가졌고 두 아내의 몸종 들인 빌하와 질바로부터 네 아들을 가진 후에 가나안으로 되돌아 왔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른 후 라헬은 야곱의 열두 번째 아들인 베냐민을 낳았다.

야곱은 자연적 평면에서의 인생을 뜻한다. 이스라엘 교회는 야곱의 후손들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표현적인 교회를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야곱의 열두 아들들은 영적 성장에 있어서 우리 안의 자연적인 평면이 거듭나는 과정을 그린다. 먼저 출생한 아들들은 우리에게 처음 발달되는 낮은 수준의 진리를 향한 애착들을 상징하며

후에 출생한 아들들은 조금 더 높은 차원의 진리를 향한 애착들을 그리고 몸종들이 낳은 아들들은 보다 낮은 수준의 진리, 즉 지식에 대한 애착들을 의미한다. 야곱은 라헬이 낳은 두 아들을 가장 사랑했다. 이 두 아들은 우리의 발달과정 중 마지막 단계에 속하는 깊은 영적 애착과 사고들을 의미하며, 이것들을 우리 삶의 적재적소에 배치하게 되면 아주 유용하다.

우리는 걸사람에 속하는 자연적 사상이나 욕구가 속사람에 속하는 보다 높은 사상에 종속되어야 함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가 처음 성장하기 시작할 때에는 주로 종교에 대한 외향적 지침에 중심을 둔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내 친구가 내가 가진 종교에 대해 비웃지 않을까?”하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들 내면의 깊은 곳에는 말로 표현될 수 없는 어떤 것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바로 “남겨져 있는 것(remains)”으로 이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적인 혹은 이기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게 도와준다. 요셉과 베냐민이 여기서는 “남겨져 있는 것”을 상징한다. 요셉은 영적인 것들에 대한 애착 (affection)을 뜻하고 베냐민은 영적인 것들에 대한 이해성(understanding) 또는 영적인 것을 배우고 싶어 함을 뜻한다.

이러한 의미를 기억하게 되면 요셉의 이야기에 굉장한 비유(parable)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요셉은 그의 형들과 많이 달랐고 이 다른 점들 때문에 형들로부터 많은 미움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가 형들과 부모보다도 더 위대해지는 꿈을 계속해서 꾸게 되고 그것은 결국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된다. 여기까지의 이야기는 우리 안에 영적인 것들에 대한 애착이 막 생겨나서 시련을 겪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예를 들어, 성공을 하려고 한다면 젊은 시절에 미래를 꿈꾸고 원대한 이상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임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극히 소수를 제외하고는 초지일관하는 경우가 드물다. 그 이유는 우리 안의 외적(표면적인) 추론이 이 꿈과 이상을 비웃고 이것들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요셉이 형제들로부터 버려져 이집트에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의 외적 추론은 영적인 것을 향한 우리의 애착을 기억적 지식이라는 창고를 상징하는 이집트에 억류 시킨다. 그리고 그가 죽었을 거라고 아예 단정하지만 그는 죽지 않았다. 그는 장차 그의 가족들이 기근을 피할 수 있도록 주님에 의해 보호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이 처음에 가지는 종교에 대한 순수한 느낌과 생각들을 깊은 기억 속에 보존 하셔서 장차 우리의 필요

즉 기근과 같은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발생하게 될 때 그것들을 재발견하도록 해주심과 같다.

구약 성경의 가장 깊은 의미는 주님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로 추측된다. 요셉은 성경에서 주님을 가장 잘 묘사하는 인물이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구분되었던 것처럼 주님 또한 사람들과는 달랐다. 요셉은 어려서 부모와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고 결국 장성한 후 파라오의 꿈을 해몽하여 이집트의 총독이 됨으로 그 꿈이 이루어 졌듯이 주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당신의 오심과 그 목적에 대해 예언을 주셨고 또한 그것을 이루셨다. 서로 다른 이유에 의해서 이기는 하지만 요셉과 예수님은 모두 타의에 의해서 이집트로 내려갔다. 그리고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 은 몇 십 냥에 팔려졌고 예수는 가롯 유다에 의해 은 몇 십 냥에 팔려졌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의 겉옷을 그의 죽음을 입증하는 데 사용하였듯이 예수의 겉옷은 그분이 죽었음을 입증하는데 사용되었다. 그러나 요셉이 죽지 않고 결국은 이집트의 총독이 되었듯이 예수는 부활하셔서 인류의 구주가 되셨다.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우리의 지성 안에 말씀의 가장 깊은 의미들이 간직되도록 해야 한다.

기본 상응 공부

야곱의 열두 아들 = 인간 발달 과정에 필요한 모든 생각들과 애착들
요셉 = 영적인 것에 대한 애착들

질문 정리

- 1) 하란에서 태어난 야곱의 아들은 몇 명인가?
- 2) 아들 중 맏형은 누구인가?
- 3) 하란에서 태어난 아들 중 막내는 누구인가?
- 4) 가나안에 돌아온 후 태어난 아들은 누구인가?
- 5) 라헬의 아들은 누구인가?
- 6) 야곱은 어떤 아들을 가장 사랑했는가?

- 7) 야곱은 요셉에게 무엇을 입혀 주었는가?
- 8) 요셉의 형들은 왜 그를 미워했는가?
- 9) 요셉이 꾸 두 가지 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가?
- 10) 야곱은 요셉에게 어떤 심부름을 시켰는가?
- 11) 요셉은 어디서 형들을 찾았는가?
- 12) 형들은 요셉을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는가?
- 13) 누가 요셉의 생명을 구해 주었는가?
- 14) 형들은 결국 요셉을 어떻게 했는가?
- 15) 요셉은 어느 나라로 팔려 갔는가?
- 16) 야곱의 열 두 아들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질문의 답

- 1) 열한 명 2) 르우벤 3) 요셉 4) 베냐민 5) 요셉과 베냐민
- 6) 요셉 7) 다양한 색깔의 채색 옷 8) 아버지가 특별히 예뻐했고 그의 꿈 때문이다
- 9) 곡식 단, 해, 달, 별들 10) 형들을 찾아보라고 11) 도다인 12) 죽이기로
- 13) 르우벤
- 14) 구덩이에 집어넣었다 15) 이집트로 16) 기본이 되는 모든 정신적 자질

8

모세의 출생

머리말

창세기는 요셉의 죽음으로 끝난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이집트에 안락하게 정착했고 또 요셉에 대한 이집트인들의 경외심이 살아 있었다. 그러나 해가 거듭되어 히브리족의 숫자가 불어나자 이집트인들의 경계심이 고조되었고, 마침내 요셉을 모르는 「파라오」가 등장하여 히브리인들에게서 난 모든 사내아이를 죽이라는 명령까지 떨어지게 됐다.

성서 본문: 출애굽기 1장, 2장 1-10절

1장: 1. 야곱을 따라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 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2.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3. 이싸갈, 즈불론, 베냐민, 4. 단, 납달리, 가드, 아셀. 5. 야곱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은 칠십 명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요셉은 이미 이집트에 내려 가 있었다. 6. 얼마 뒤에 요셉이 죽고 그의 동기들과 그 시대 사람들도 다 죽었으나 7. 이스라엘 백성은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 찰 만큼 무섭게 불어났다. 8. 그런데 요셉의 사적을 모르는 왕이 새로 이집트의 왕이 되어 9.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일렀다. “보아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듯 무섭게 불어나니 큰일이다. 10. 그들이 더 불어나지 못하게 기회를 보아 손을 써야겠다.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원수의 편에 붙어 우리를 치고 나라를 빼앗을지도 모른다.” 11. 그리하여 그들은 공사 감독들을 두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제 노동을 시켜 파라오의 곡식을 저장해 둘 도성 비둠과 라므세스를 세웠다. 12. 그러나 이렇게 억압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불어났다. 이집트인들은 그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13.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 혹독하게 부렸다. 14. 그들은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일과 밭일 등, 온갖 고된 일을 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다. 15. 한편 이집트 왕은 히브리 산파- 한 사람은 시브라였고 또 한 사람은 부아였다-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16. “히브리 여인이 해산하는 것을 도와줄 때, 사타구니를 보고 아들이거든 죽여 버리고 딸이거든 살려 두어라.” 17. 그러나 산파들은 하느님을 두려워하여 이집트 왕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사내 아이들을 살려 주었다. 18. 에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 들여 “사내아이들을 살려 두다니, 어찌하여 이런 짓을 하였느냐?” 하고 꾸짖었다. 19. 산파들이 파라오에게 대답하였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과는 달리 기운이 좋아 산파가 가기 전에 애기를 낳아 버립니다.” 20. 하느님께서 산파들을 잘 돌보아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날로 무섭게 불어 나갔다. 21. 산파들이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하느님께서 그들의 후손을 일으켜 주셨다. 22. 마침내 파라오는 온 백성에게 명을 내렸다. “히브리인들이 계집 아이를 낳으면 살려 두되 사내아이를 낳으면 모두 강물에 집어넣어라.

2장: 1. 레위 가문에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같은 레위 가문의 여자를 아내로 맞았다. 2. 아내가 아기를 배어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너무나도 잘 생겨서 석 달 동안 숨겨서 길렀다. 3. 그러다가 더 숨겨 둘 수 없게 되자 왕골상자를 얻어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그 속에 아기를 뉘어 강가 갈대숲 속에 놓아두었다. 4. 그리고 아기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형편을 살피고 있었다. 5. 마침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러 강으로 나왔다.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고 있었는데 공주가 갈대숲 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하나를 보내어 건져다가 6. 열어 보았더니, 사내 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는 불쌍한 생각이 들어 “이 아기는 틀림없이 히브리인의 아기다” 하고 중얼거렸다. 7. 그 때 아기의 누이가 나서서 파라오의 딸에게 말하였다. “아기에게 젖을 빨리게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유모를 하나 데려다 드릴까요?” 8. 파라오의 딸이 “그래, 어서 다녀 오너라”하고 대답하자 소녀는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 왔다. 9. 파라오의 딸이 그에게 부탁하였다. “내가 값을 줄 터이니 이 아기를 데려다 젖을 먹여 길러다오.” 그리하여 여인은 아기를 데려다 젖을 먹여 키웠다. 10. 아기가 꽤 자란 뒤에 어머니는 아이를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 갔다. 공주는 그 아이를 자기의 아들로 삼고, 물에서 건져 냈다고 하여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교리 요약

*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각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 있다.

해설

출애굽기 12장 40절을 보면 이스라엘 후손이 이집트에서 430년간 머물렀던 것을 알 수 있으며 창세기 15장 13절과 사도행전 7장 6절에서도 400년간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집트 체류의 실제 기간을 200년이 조금 넘는 것으로 추측하기도 한다. 스웨덴본은 그의 저서 「천국의 비밀 제 1502항」에서 430년이란 기간은 야곱이 이집트로 갔을 때부터가 아닌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갔을 때부터 계산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말씀 속의 숫자는 역사적 정확성 보다는 그것에 대한 반응이 더 중요하다.

요셉을 등용한 파라오는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에 기거함을 환영했고 그들에게 살기 좋은 비옥한 나일강 삼각지를 내주었다. 그러나 요셉이 죽고 난 후 히브리인들의 숫자가 계속 늘게 되자 (기록상으로는 칠십여 명에서 성인 남자만 육십여 만으로 늘어났음) 새로운 파라오들은 그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본문에서 읽는 바와 같이, 파라오들은 결국 아주 강력한 수단인 산아제한 정책으로 히브리인의 남자 수를 줄이려 했다.

말씀 속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주님에 의한 영감으로 기록되었고, 이 역사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나 인간 안에 존재하던 교회의 역사를 표현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가족은 흉년이 들어서 이집트로 내려가 양식을 구했고 그들은 요셉의 특별한 보호를 받았다. 요셉을 이집트의 통치자로 세운 「파라오」는 우리의 외향적 기억들이 주님을 섬기는데 사용되어질 때를 묘사한다. 흉년을 만나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은 우리의 순수한 영적 애착들이 잘 보호되면서 지식을 획득해 가는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다.

요셉은 사후 썩지 않도록 관에 넣어져 이집트에 안치되었다. 사람들은 흔히 이기적

인 이득을 위한 지식만을 추구하고 그러한 지식들이 우리의 삶에 가지는 영적인 목표에 대해서는 잊어버린다. 그 결과 세상적인 것들만을 목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그것들을 쫓아 살아가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삶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욕망에만 집착하는 것을 “요셉의 사적을 모르는 (출애굽기 1:8)” 파라오가 등장하는 구절이 상징하고 있다. 이기심과 세상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의 맹점은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그 이유가 그 사람은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돈도 벌고 또 누구의 도움도 없이 살아가니까 성공적이고 진취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삶은 이기심과 욕망이라는 거친 주인 밑에 있는 노예와 같아서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는 브레이크가 고장 난 자동차처럼 더 큰 욕망을 향해 끝없이 달리게 된다. 돈이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다가 결국은 자신의 목숨까지 잃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어린 시절에 듣던 이야기들이나 어른이 되어서 보는 T.V.의 드라마에서 흔히 등장하는 소재이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의 속성이 이기심과 세상적인 욕망에 이끌리기가 쉽다는 것을 말해준다. 하지만, 이기심이나 세상적인 욕망에 끌리는 삶은 결국은 스스로를 노예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스웨덴북은 강조한다. “주님에 의하여 인도되어 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다.”

말씀 중에 ‘아들의 출생’은 어떠한 상황에서 있게 되는 새로운 진리의 발달을 상징한다. 신생아들 중 사내아이는 모두 죽이라는 「파라오」의 명령은 세상적인 욕망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삼을 때 우리의 이기적인 원리(파라오)가 우리의 영적 성장에 필수적인 어떠한 새로운 진리의 발전도 용납하지 않는 것을 상징한다. 그러나 모세가 구원된 이유는 그가 그의 민족을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구하고, 또한 주님께서 계명을 내리시기 위한 그분의 도구로 쓰여야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모세는 하느님의 법을 의미한다. 주일 학교를 다닌 사람이라면 어린 시절부터 십계명에 어느 정도 친숙했을 것이다. 십계명을 성경을 통해 배우지 않은 사람들도 간접적으로 그것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세상적 측면에서도 우리에게 탁월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모든 질서가 십계명 안에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십계명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이집트의 속박에서 빠져 나오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다. 모세의 친어머니는 이스라엘

인이었고 양어머니는 이집트인 이었다. 이것은 하느님의 법은 주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이지만 세상적인 것을 얻으려는 우리의 욕망들도 때로는 바람직하게 보존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왕골 상자(the ark of bulrushes)를 물 위에 잘 뜰 수 있도록 역청과 송진을 발랐다는 기록 역시 노아의 방주와 같은 의미를 그린다. 노아의 방주 역시 역청으로 발라져 있는데, 역청이란 우리의 이기심을 표현한다. 우리는 때로 스스로가 받게 될 손해가 두려워서 잘못된 행위를 스스로 금하기도 한다. 그 예로 운전 중 신호등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하는 불이익 때문에 신호등을 잘 지키는 것이 이와 비슷한 것이다. 나일강의 강가에 자라는 왕골(골풀) 즉 이집트의 파피루스는 진리로부터 비롯된 낮은 차원의 것들을 상징한다.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왕골상자는 말씀의 글자를 의미한다. 이런 시각에서 「파라오」의 딸은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는 본능적 열정을 상징하며 그것은 때때로 사람들이 성경을 읽도록 인도한다. 하지만 주님의 섭리로 아기 모세는 이집트의 공주에 의해 구해진 후에도 친어머니에 의하여 보호되고 양육되어진다. 이것은 하느님의 진리는 하늘 아버지로부터 상속된 주님과 그분의 진리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수단으로 하여 유아기와 어린 시절에 뿌려진 씨 즉 “남겨 두신 것(remains)”을 소중하게 키우신다는 것을 묘사한다.

모세가 「파라오」의 궁전에서 성장하는 것은 말씀이 세상에서 교육의 한 부분으로 우리 안에서 성장되는 과정을 묘사한다. 모세는 우리가 거의 인식하지 못하는 깊은 주님의 섭리 하에 입양되어진 것이다.

기본 상용 공부

왕골(rush): 올바른에 대한 가장 단순한 생각

송진(pitch): 이기심

질문 정리

- 1)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 처음 정착할 때 이집트인들의 대접은 어떠했는가?
- 2) 해가 거듭될수록 그 대접은 어떻게 변했는가?

- 3) 파라오는 무엇을 두려워했는가?
- 4) 파라오는 히브리인들의 증가를 어떻게 막으려 했는가?
- 5) 구원된 아기의 이름은 무엇인가?
- 6) 그의 어머니는 그를 구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 7) 누가 아기를 발견했는가?
- 8) 그 여자는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는가?
- 9) 모세를 젖 먹이기 위해 누가 불리어졌는가?
- 10) 이집트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질문의 답

- 1) ‘존경하는 손님’ 2) 노예가 되는 쪽으로 변화 3) 히브리족이 강해짐을 두려워했음 4) 새로 태어난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 5) 모세 6) “상자를 만들고, 갈대 숲 속에 놓아 둬” 7) 파라오의 딸 8) 그를 양자로 삼는 것 9) 모세의 친 어머니 10) 지식을 획득하는 상태

9

홍해를 건너다

머리말

홍해를 건너는 광경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나 과월절에 관한 것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과월절(Passover)이란 단어가 이집트로부터의 해방과 연결되어 머리 속에 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성 서 본 문: 출애굽기 13장 17-22절, 14장

13장: 17. 파라오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 보내게 되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들을 곧장 불러 새 땅으로 가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하느님께서 이 백성이 닥쳐 올 전쟁을 내다보고는 후회가 되어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나 않을까 염려하셨던 것이다. 18. 그래서 하느님은 그들을 홍해바다에 이르는 광야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단단히 무장하고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19. 이 때, 모세는 요셉의 유해를 모시고 떠났다. 요셉이 “하느님께서 너희를 돌보아 찾아오실 터이니, 그 때 너희는 내 뼈를 여기에서 옮겨다오”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단히 다짐해 두었던 것이다.

20. 그들은 수곳을 떠나 광야 접경에 있는 에담에 진을 쳤다. 21. 야훼께서는 그들이 주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앞서 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이렇게 22.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14장: 1.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던 길을 돌이켜 므딕돌과 바다 사이에 있는 비하히룻으로 돌아 와 그 근처 바알스본 앞 해변에 진을 치라고 하여라. 3. 그러면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길이 막혀 아직도 이 땅에서 헤매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4.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면 그가 그들의 뒤를 추격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쳐서 내 영광을 드러내어 이집트인들로 하여금 내가 야훼임을 알게 하리라.”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5.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쳤다는 정보가 이집트 왕의 귀에 들어갔다.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은 마음이 변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부려 먹지 않고 풀어 보내다니, 안 될 일이다.”라고 하였다. 6. 파라오는 병거에 말을 메워 백성을 거느리고 나섰다. 7. 특수 병거 육백 대로 편성된 정예부대를 앞세워 이집트의 모든 병거를 총동원해 가지고 나섰다. 8. 야훼께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셨으므로 그는, 의기양양하게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게 되었다. 9. 이리하여 파라오의 병거와 기마, 기병, 보병 등 이집트인들은 그들을 뒤쫓아 비하히룻 근처 바알스 본 앞 해변에 진을 친 그들을 따라 잡았다.

10. 파라오가 다가 왔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니 이집트인들이 덮칠 듯이 뒤따라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은 질겁을 하고 야훼께 부르짖으며 11. 모세를 원망하였다. “이집트에는 문힐 데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어 여기에서 죽이려는 것이냐?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렇게 만드느냐? 12. 우리가 이럴 줄 알고 이집트에서 이집트인들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더냐? 이집트인들을 섬기는 편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고 하지 않았느냐?” 13. 모세가 백성들에게 소리쳤다. “두려워 말라. 움직이지 말고 오늘 야훼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보아라. 너희가 오늘 눈앞에 보는 이집트인들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되리라. 14.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 주실 터이니 모두들 진정하여라.”

15.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진하라고 명령하여라. 16. 너는 너의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팔을 뻗쳐 물을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 건너가게 하여라. 17. 나는 이집트인들의 마음이 굳어지게 하리라. 그리하여 그들이 너희를 뒤따라 들어서게 되면 내가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기병을 쳐서 영광을 드러내리라. 18. 내가 파라오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쳐 나의 영광을 드러내면, 이집트인들이 비로소 내가 야훼임을 알게 되리라.” 19. 이스라엘을 앞서 인도하던 하느님의 천사가 뒤로 돌아 가 호위하자 그들 앞에 서 있던 구름 기둥도 뒤로 돌아가 20. 이집트의 진과 이스라엘의 진 사이에 섰다. 그러자 구름 때문에 캄캄해져서 서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밤을 새웠다. 21. 모세가 팔을 바다로 뻗치자, 야훼께서는 밤새도록 거센 바람을 일으켜 바닷물을 뒤로 밀어 붙여 바다를 말리셨다. 바다가 갈라지자 22.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걸어갔다. 물은 그들 좌우에서 벽이 되어 주었다. 23. 이집트인들이 뒤쫓아 왔다. 파라오의 말과 병거와 기병이 모두 그들을 따라 바다로 들어섰다. 24. 새벽녘에 야훼께서 불과 구름기둥에서 이집트 군대를 내려다보시자 이집트 군대는 갈팡질팡하였다. 25. 또한 야훼께서는 그들의 병거 바퀴들을 얹어 놓아 꼼짝도 못하게 하셨다. 그러자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려두고 도망가자. 야훼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편이 되어 우리 이집트 군대를 치신다”하고 소리쳤다. 26.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집트인들과 그들의 병거와 기병들 위에 물이 도로 덮이게 네 팔을 바다 위로 뻗쳐라.” 27. 모세는 팔을 바다 위로 뻗쳤다. 날이 새자 바닷물이 제 자리로 돌아 왔다. 이집트인들은

물결을 무릅쓰고 도망치려고 했으나, 야훼께서 이집트인들을 바다 속에 처넣으셨다. 28. 물결이 도로 밀려오며 병거와 기병을 모두 삼켜 버렸다. 이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바다에 들어섰던 파라오의 군대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29.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갔다. 물은 그들 좌우에서 벽이 되어 주었다. 30. 그 날, 야훼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집트 군대로부터 건지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인들이 해변에서 죽어 있는 것을 보았다. 31.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께서 그 큰 팔을 펴시어 이집트인들을 치시는 것을 보고 야훼를 두려워 하며 야훼와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

교리 요점

- * 주님은 그분을 신뢰하는 이들을 언제나 보호하신다.
- * 선은 사랑되어야 하는바 우리의 생각에만 머무르게 해서 안된다.

해설

부활은 주님께서 악의 영향력에 노예화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완성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탄생(Advent)보다도 더 큰 의미를 지닐런지 모른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절을 교회 달력의 시작으로 삼았다. 과월절은 주님께서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시는 것을 의미함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과월절을 그들의 달력의 시작으로 삼았다. 후에 유대교로 불리는 종교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를 떠난 달을 그들 달력의 첫 달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들의 후손인 유대인들은 아직도 여기에 맞추어 그들의 종교의 달력을 작성한다. 그들은 이러한 종교적인 달력 이외에도 태양력과 다른 달력을 사용하였다. 이 달력은 초가을을 새해로 삼는다. 과월절은 유대인의 종교 달력의 첫 달 14일부터 21일까지로서 일주일 간 기념된다. 주님께서도 과월절을 기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주님께서 기념하신 마지막 과월절은 그분의 마지막을 준비하기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유대인의 과월절은 부활절 앞 주간 즉 우리의 고난 주간(Holy Week)에 해당된다. 과월절

마지막 날 밤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베푸셨다. 이것이 기독교가 과월절 대신 성찬식을 기념하는 이유다.

과월절이란 명칭은 열 번째 재앙으로 이집트의 장자들이 죽어가던 날 밤에 히브리인들의 집은 재앙이 건너갔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재앙은 열 번째로 마지막 재앙이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욕망으로 가득차서 더 이상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을 때 오게 되는 마지막 결과에 대한 묘사이다. 과월절 축제는 이집트의 속박에서 유대인들이 해방됨을 기념하기 위한 것같이 우리가 세상적이며 이기적인 삶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늘 인식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양(Lamb)은 순진함을 상징하며, 이 순진함은 우리들 삶의 한 부분이 되어 사랑되어져야 함을 뜻한다. 「순진 (innocence)」이란 단어는 글자적 뜻으로는 「무해 (harmlessness)」를 의미한다. 그러나 인생의 차원에서 보면 그것은 기회가 있으면 악한 쪽으로 기울는 경향이 다분한 것이 우리 자신임을 인식하여 주님을 자신의 안내자와 자신의 힘의 원천으로 삼아 그분에게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의존하는 것을 뜻한다. 양을 불에 구워서 먹는 것은 사랑이 순진함의 심장에 해당됨을 의미하고, 누룩 없는 빵이란 거짓 사상이 혼합되지 않은 선함(Goodness)을 의미한다. 쓴 나물이란 천국으로 향한 여정에는 고난이 따르는 것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다. 히브리인들이 과월절 음식을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두르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서둘러 먹도록 했던 것 같이 주님께서는 천국을 향한 여정의 출발을 완료한 좋은 결의가 우리의 삶에 즉시 있어야 한다고 권하고 계신다.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은 천국에 가고자 하는 사람이 거쳐야만 되는 영적 성장의 여정을 묘사한다. 그 여정이 담고 있는 상징성은 세상적인 것과 이기적인 것을 삶의 기준으로 했던 우리가 그것을 하나씩 단념해간다는 것이다. 천국적 인격인 가나안 땅의 근처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많은 시련과 유혹을 물리치고 많은 적들을 무찔러야만 한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이집트를 떠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겪는 많은 일들을 통해 묘사된다. 주님은 그들의 모든 여정 동안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 스웨덴붉은 이 기둥들에 대해 그들 사이에 있었던 천사들의 군대 또는 천사들의 집단이라고 설명한다. 주님의 천사들이란 진리의 전달자로서 우리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며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주님이 살아계시는 말씀(성경)을 의미하며 이것이 우리를 늘 인도한다. 낮은 우리의 영적 수준이 주님을 신뢰하며 따르는 때를 의미하며 밤은 의심과 실망으로 가득 차 있는 때를 의미한다.

우리는 이 여행을 떠남에 있어서 담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여행을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기적인 삶에 대한 미련들이 전진하고 있는 우리를 뒤쫓아 과거의 삶으로 되돌려 놓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의혹과 두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결국에는 난관들로 인해 여행을 포기하려 들기도 한다. 이것이 이스라엘 후손들이 “이집트에는 문힐 데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어 여기에서 죽이려는 것이냐?”하며 모세와 여호와를 원망하며 부르짖는 것을 통해 묘사된다. 그러나 주님은 모세를 통해 “두려워 말라. 움직이지 말고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보아라.”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첫째 덕목은 꾸준함과 주님에 대한 신뢰이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순종했을 때 주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주위를 둘러싸게 하여 그들을 보호하셨고 이집트 군대에게는 캄캄하게 하여 꼼짝 못하게 하셨다. 이처럼 말씀은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안내자일 뿐만 아니라 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준다. 악이 말씀 속의 진리를 볼 수 없는 이유는 악한 마음은 자아 속으로만 방향을 잡고 있어서 늘 어둡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3장 19-21절을 읽어 보자. 홍해는 악과 거짓이 축적된 상태를 묘사하며, 스웨덴붉은 그것이 곧 지옥을 상징한다고 설명한다. 우리가 과감하게 전진하려고 하면 주님은 모세의 팔을 쓰셔서 우리 앞의 어려운 장벽, 홍해를 갈라 주신다. 모세의 팔은 하느님의 법을 의미한다. 우리는 먼저 나아가야 할 방향에 서서 주님이 길을 여는 대로 곧장 전진해야 한다. 모세가 홍해를 건넌 것 같이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난관들을 물리친 후 돌이켜 보면, 주님 앞에서 그것들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알게 된다.

기본 상응 공부

빨 = 선함

누룩 = 거짓

질문 정리

- 1)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파라오에게 히브리인들을 가게 해달라고 했는가?
- 2) 히브리인들이 이집트를 출발하는 저녁에 했던 큰 축제는 무엇인가?
- 3) 히브리인들이 떠날 때, 이집트인들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 4) 주님은 히브리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 5) 히브리인들이 떠난 후 파라오는 무엇을 했는가?
- 6) 파라오는 히브리인들을 어디서 따라 잡았는가?
- 7) 주님은 히브리인들을 밤새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 8) 아침에 히브리인들은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가?
- 9) 히브리인들을 바다 안까지 뒤쫓던 이집트 군대는 어떻게 되었는가?
- 10) 이스라엘 후손들이 이집트를 떠남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질문의 답

- 1) 재앙들을 내림
- 2) 과월절
- 3) 금, 은 그리고 의복 등을 주었음
- 4)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심
- 5) 히브리인들을 뒤쫓았다
- 6) 홍해 근처에서
- 7) 양 진영 사이에 기둥을 두심
- 8) 홍해가 갈라지게 되어 건넜음
- 9) 물에 빠져 죽음
- 10) 세상에 속한 것만을 하다가 그것을 멈추기로 결심하여 영적 생활을 추구함을 묘사한다.

10

십계명

머리말

먼저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 광경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검토해 보자. 그리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통과하며 많은 곤란과 위험에 직면할 때마다 그들을 구원하심과 그들이 이집트를 떠난 3개월째에 시나이 반도에 도착했음도 기억하자. 본장의 내용을 공부하기 전에 출애굽기 제 15장부터 19장까지를 자세히 읽어 두자. 본장은 19장에서 언급된 사건에서부터 시작된다.

성 서 본 문: 출애굽기 19장 16-25절, 20장 1-21절

19장: 16. 셋째 날 아침, 천둥소리와 함께 번개가 치고 시나이산 위에 짙은 구름이 덮이며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자 진지에 있던 백성이 모두 떨었다. 17. 모세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느님을 만나 보게 하려고 진지에서 데리고 나와 산기슭에 세웠다. 18. 시나이산은 연기가 자욱하였다. 야훼께서 불 속에서 내려 오셨던 것이다. 가마에서 뿜어 나오듯 연기가 치솟으며 산이 송두리째 뒤흔들렸다. 19. 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세가 하느님께 말씀을 올리자 하느님께서 천둥소리로 대답하셨다. 20. 야훼께서 시나이산 봉우리에 내려 오셔서 모세에게 산봉우리로 오르라고 하시자 모세가 올라갔다. 21.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려가서 이 백성에게, 야훼를 보려고 마구 넘어 들어오다가 많은 사람이 죽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단단히 일러 두어라. 22. 야훼에게 가까이 올 사제들도 몸을 깨끗이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야훼가 내려가 그들을 마구 칠 것이다.” 23. 모세가 대답하였다. “이 백성은 시나이산으로 올라오지 못합니다. 이 산 둘레에 표시를 해서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게

하라고 경고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24. 야훼께서 그에게 “그러면 어서 내려가서 아론을 데리고 올라 오너라. 그러나 사제들이나 백성은 야훼를 보러 마구 올라 와서는 안 된다. 올라오면 야훼가 내려 가 그들을 마구 칠 것이다”하고 말씀하시자 25. 모세가 백성에게로 내려 가 그 말씀을 전하였다.

20장: 1. 이 모든 말씀은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2. “너희 하느님은 나 야훼다. 바로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 낸 하느님이다. 3.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모시지 못한다. 4. 너희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 따 새긴 우상을 섬기지 못한다. 5. 그 앞에 절하며 섬기지 못한다. 나 야훼 너희의 하느님은 질투하는 신이다. 나를 싫어하는 자에게는 아비의 죄를 그 후손 삼 대에까지 갚는다. 6. 그러나 나를 사랑하여 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그 후손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7. 너희는 너희 하느님의 이름 야훼를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야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8.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9. 엿새 동안 힘써 네 모든 생업에 종사하고 10. 이렛날은 너희 하느님 야훼 앞에서 쉬어라. 그 날 너희는 어떤 생업에도 종사하지 못한다. 너희와 너희 아들 딸, 남종 여종뿐 아니라 가축이나 집 안에 머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하지 못한다. 11. 야훼께서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레째 되는 날 쉬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훼께서 안식일을 축복하시고 거룩한 날로 삼으신 것이다. 12.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주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13. 살인하지 못한다. 14. 간음하지 못한다.

15. 도둑질하지 못한다. 16.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못한다. 17.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네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 할 것 없이 네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지 탐내지 못한다.” 18. 온 백성은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에 자욱한 연기를 멀리서 바라보고 두려워 떨며 19. 모세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잘 들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20. 모세가 백성에게 일러 주었다. “두려워 말아라. 하느님

께서는 너희를 시험하시기 위하여 나타나신 것이다. 너희로 하여금 하느님 두려운 줄 알고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21. 모세가 하느님께서 계시는 맥구름 쪽으로 나아가는 동안 백성은 멀리 서 있었다.

교리 요점

* 십계명은 하느님의 법이며 사람이 지어낸 법이 아니다.

해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고 이집트 군대가 몰살당하는 광경은 우리가 좋은 의도를 결심하면서 그에 따라오는 첫 유혹을 극복해내는 상황을 묘사한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며 그분에게만 도움을 청할 때 우리의 이기적인 나쁜 습관이 얼마나 무기력한 것인지 우리 스스로 실감하게 되는 것을 묘사한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가르는 큰 기적을 통해 주님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에 대해 알게 되어서 그들에게는 더 이상의 의혹이 없었을 것으로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시나이 산으로부터 삼 일간의 광야 여행 후 마라에 도착했을 때 물에서 쓴맛이 나 마실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즉시 실망하여 불평을 하였다. 이처럼 새로운 각오에서 시작된 새 생활은 처음에는 메마르고 쓴 맛 뿐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과거의 이기적 습관과 사고방식을 그리워하게 된다. 주님은 모세에게 특별한 나무를 보여 주심으로써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꾸셨다. 또 그 나무를 그 쓴 물에 던짐으로써 달게 만들었다. 나무는 섬김을 사랑하는데서 나오게 되는 원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의 두 번째 도착지는 그들과 물이 있는 오아시스였다. 이처럼 주님은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평화와 만족감을 갖도록 해 주신다.

그 후 그들이 배고픔을 겪으면서 이집트에 있는 고기 가마를 그리워하게 되자 주님은 메추라기와 만나를 그들에게 내려 주셨고 모세를 통해 어떻게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는 지도 보여 주셨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첫 번째 적인 아말렉족과 대적했는데, 모세가 언덕 꼭대기에 앉아서 팔을 들고 아론과 후르가 모세의 팔을 떠받침으로

인해 승리하게 된다. 아말렉족의 공격 수법은 매복하고 있다가 갑자기 덤벼드는 것 이었다. 아말렉족은 의심과 실망을 상징하며, 그것은 우리가 현실적인 걱정에 놓일 때 갑작스럽게 우리를 습격한다.

우리는 십계명에 친숙하면서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실감하지 못한다. 성경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 없이 양육되는 사람들도 도둑질, 살인, 그리고 거짓 증언 등이 나쁘다는 것쯤은 학교 또는 경험을 통해 배워서 안다. 모세의 시대보다 훨씬 더 앞선 법전에서도 이 계명의 내용이 발견되어 어떤 이들은 시나이 산에서 일어난 성경의 이야기를 신화로 여기기도 한다. 그러나 주님은 십계명이 신성한 것이며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아주 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해지고 있다. 십계명에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원리들이 포함되어 있다.

십계명 중에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사람들이 1-4계명이 나머지 다른 계명을 이끌고 있음을 소홀히 여겨 주님을 예배하지 않고도 이웃에 대한 그들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가 행한 선이 스스로의 것이 되어서 자기만족을 가져오게 되고 그것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중독 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은 옳지 않다. 주님께서는 “나 없이 너희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말씀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계명의 글자 안에 있는 더 깊은 뜻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혈육의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해야 하는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며 우리의 진정한 어머니는 교회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해 천국적 삶을 발견한다. 따라서 우리가 지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에 교회와 주님을 경외함이 없다면 지상에서의 삶이 끝나 영계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스스로의 본질이 천국적이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흠친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상식적인 것이다. 하지만 흠치는 것에도 그 정도가 있는 데 그중에서 가장 나쁜 것이 주님으로부터 흠치는 것인데 이것은 모든 선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행했다고 믿고 모든 선들을 자신의 공으로 돌리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타인의 인격을 헐뜯거나 비방하는 것 또한 타인의 호주머니에서 지갑을 훔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우리는 각각의 계명을 주의

깊게 통찰하고 그것의 더 깊은 의미를 마음에 담아 두어야 한다.

우리는 각 계명을 글자 그대로만 따르더라도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선까지는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더 많은 문제들을 겪게 될 때를 위해서 열 개의 말씀(Ten Words, 혹은 The Decalogue)의 의미를 더욱 더 깊이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보다 더 깊은 의미를 파악하게 되면, 우리의 인격은 마치 굳건하고 단단한 반석 그리고 도시를 에워싼 튼튼한 성벽과 같이 되어서 많은 적들로부터도 안전하게 된다. 우리는 계명들을 배우고 반드시 지켜야 하며, “나는 이 계명을 따르지 않아도 무사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는 식의 오관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기본 상응 공부

우리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어머니: 교회

질문 정리

- 1)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지역을 통해 가나안으로 여행해야만 했는가?
- 2) 그들이 배고팠을 때 그들은 이집트에서 먹었던 무엇을 그리워했는가?
- 3)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돌보셨는가?
- 4) 석 달 쯤에 그들은 어느 산에 도착했는가?
- 5) 주님으로부터 계명이 내릴 때 그들은 산에 올라가도록 허락 되었는가?
- 6) 셋째 날 아침 그들을 무섭게 만든 광경은 무엇인가?
- 7) 그들은 누구의 소리를 들었는가?
- 8) 맨 처음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 9) 그 다음 주님은 무엇을 그들에게 주셨는가?
- 10) 계명은 어떻게 두 그룹으로 구분되는가?
- 11) 첫째 돌판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 12) 둘째 돌판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13) 이러한 계명은 본문 시대 이전에도 있었는가?

질문의 답

1) 광야 혹은 사막 2) 양식(고기), 물 3) 만나, 메추라기, 바위로부터 물 4) 시나이 산 5) 아니다 6) 천둥과 번개 7) 하느님의 음성 8) “나는 주, 너의 하느님이다” 9) 십계명 10) 첫째 돌판은 1-5계명; 둘째 돌판은 6-10계명 11) 하느님에 대한 의무 12) 이웃에 대한 의무 13) 예

11

나답과 아비후

머리말

본과에 앞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나이 산 밑에서 머무는 동안 주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과 제사장들에 관한 내용 특히 주님께서 예배 의식에 관한 법을 주셨음을 기억한다면, 본과의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는 보다 쉽게 이해될 것이다. 또한 성막에 관한 내용, 성막에 두개의 제단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가 어긴 분향에 관한 법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성 서 본 문: 레위기 10장

10장: 1.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저마다 들고 있는 향로에 불을 담고 그 불에 향을 피우며 야훼께 바쳤다. 그러나 그 불은 야훼께서 지시하신 것과 다른 불이었다. 2. 야훼 앞으로부터 불이 나와 그들을 삼키자 그들은 야훼 앞에서

죽었다. 3. 이것을 보고 모세가 아론에게 일렀다.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까이에서 나를 섬기는 자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리라. 온 백성 앞에 나의 위엄을 나타내리라.’” 아론은 다만 입을 다물고 있었다. 4. 모세는 아론의 삼촌 우찌엘의 두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놓고 “어서 가서 너의 조카들을 성소에서 진지 밖으로 끌어내어라” 하고 일렀다. 5. 그들은 모세가 시키는 대로 들어가서 조카들의 속옷을 잡고 진지 밖으로 끌어내었다. 6. 모세는 아론과 그의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일렀다. “머리를 풀지 말고 옷을 찢지 마시오. 그러다가는 죽을 것이요. 야훼께서 분노하신 것은 온 회중에게 하신 것이니, 야훼께서 태워 죽이신 자들을 위하여 한 겨레인 이스라엘 온 가문이 곡해야 할 것이요. 7. 그대들은 만남의 장막 문간 밖으로 나가지 마시오. 나가면 죽을 것이요. 그대들은 야훼께서 기름 부어 성별해 주신 사람들이 아니요?” 그들은 모세가 하라는 대로 하였다. 8. 야훼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9. “네가 아들들을 거느리고 만남의 장막으로 들어 갈 때에는 포도주와 술을 마시지 마라. 마시면 죽으리라.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정이다. 10. 너희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간할 때에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간할 때에도 마시면 안 된다. 11. 또 야훼가 모세를 시켜 말한 모든 규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칠 때에도 마시면 안 된다.” 12. 모세는 아론과 그의 살아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일렀다. “야훼께 살라 바치고 남은 곡식예물을 가져다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것을 제단 옆에서 먹으시오. 그것은 더없이 거룩한 것이요. 13. 거룩한 자리에서 그것을 먹어야 합니다. 야훼께 살라 바친 제물 중에서 이것이 형의 몫이요, 형의 아들들의 몫입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지시를 나는 받았소. 14. 또 흔들여 바친 갈비와 받들어 바친 뒷다리는 형의 아들과 딸들이 형과 함께 깨끗한 자리에서라면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친 친교제물에서 형과 형의 아들들에게 돌아 갈 몫이요. 이것이 야훼께서 지시하신 영원히 지킬 규정이요.” 16. 모세는 그들이 속죄제물로 바친 수염소가 어찌 되었는가를 조사해 본 결과 이미 불에 태워 버린 것을 알게 되었다. 모세는 아론의 아들 가운데서 살아남은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화를 내며 추궁하였다. 17. “어찌하여 속죄제물을 거룩한 자리에서 먹지 않았느냐? 그것은 더없이 거룩한 것으로서 그것을 너희에게 준 것은 회중의 죄악을 치워 버리고 야훼 앞에서 그들의 죄를 벗겨 주려는 것이었다. 18. 그것은 성소 안으로 피를 가지고

들어 가는 제물이 아닌 까닭에 너희는 내가 하라는 대로 그것을 성소에서 반드시 먹었어야 했다.” 19. 아론이 모세에게 변명하였다. “그 아이들이 바로 오늘 야훼 앞에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바쳤다. 그런데도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는데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야훼께서 좋게 보아 주시겠느냐?” 20. 모세는 이 말을 듣고 그도 그렇겠다고 생각하였다.

교리 요점

* 이기적 동기에 근거한 예배는 우리의 영적 생활을 강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파괴시킨다.

해설

일반인들의 관점에서는 나답과 아비후가 받는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성경 글자대로의 법칙 즉 외적 예배를 중요시 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선택하셔서 외적 예배를 드리도록 보존하셨다. 그들에게 예배에 대한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바꾸는 것은 마음속에 감추어진 악을 행실로 드러난 악보다 심각하게 여기는 것만큼 중대한 일이었다. 스웨덴봄에 따르면 악은 그 정도에 상관없이 그에 맞는 벌을 내포하고 있다고 한다. 영원한 것에 삶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라면 과실 또는 악행에 따르는 마땅한 책임에 대해 억울해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과실이나 악행이 진정으로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벌이기 때문이다.

향을 피우는 법은 레위기와 출애굽기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이 시나이 산에서 내리신 명백한 법과 훈령 가운데 있는 항목 중 하나이다. 이 법은 특별히 레위인들이 주목해야 할 법이었다. 향은 지성소 입구에 위치한 베일 앞방의 성소에 놓인 분향단에서 피우도록 되어 있었다. 또한 그것은 아침저녁으로 피우도록 지시되었다. 이 향은 때죽 나무, 향조 껍질, 풍지향 그리고 순수한 몰약으로 구성되었다. 향로에 담는 불은 성막 뜰에 있는 큰 제단의 계속 타고 있는 불로부터 취하도록 했었다. 이 불은 우리가 주님을

언제나 사랑하고 있음을 묘사하는 것으로서 모든 예배가 순수해지기 위해서는 이 “불”로부터만 분향단에 불이 부쳐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때때로 인간적인 또는 세상적인 동기(motive)로 예배를 드리기도 한다. 바리사이파인과 율법학자들이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는 광경과 자신의 사업에 도움을 얻기 위해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예가 그것이다. 이러한 이기적인 동기가 바로 “부정한 불” 또는 거룩치 않은 불이다. 이러한 동기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종 선함들이 이기적 마음의 통로를 지나면서 변질되어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영적 생명을 파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거룩한 것이 이기적 용도 또는 스스로의 욕구를 위해 이용될 때 신성모독(profanation)이라고 하며 이것은 모든 선한 가능성을 없애버리는 결과를 낳는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 향로에 부정한 불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불이 그들을 파괴시켜 버린 것이다.

나답과 아비후는 “속옷을 입은 채”로 진지 밖으로 끌어내졌다. 제사장들의 속옷(tunic)은 말씀 속에 있는 진리(뜻)을 표현 한다. 시나이 산에서 지시된 대로 배치된 이스라엘의 캠프는 천국의 배치도며 천국적 인격을 묘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캠프 밖으로 끌어내어짐은 바로 지옥으로 던져짐을 뜻한다. 특히 속옷을 입힌 채로 끌어내어짐은 외적 예배를 모독할 때 내적 예배 역시 더럽혀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간혹 사람들은 교회 조직이 궁극적인 참된 교회는 아니라고 주장하며 교회를 비난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기도 한다. 그러나 교회 조직은 참된 교회가 지상에 있게 해주는 몸이며 교인들인 우리는 그 몸의 일부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교회를 비난함은 곧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며 교회를 떠남은 외적 형태의 교회 속에 있는 영적 생명을 차단하는 것이다.

스웨덴북은 그의 저서 계시록 설명 제 324항에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외의 다른 것 즉 번제단에서 취하지 않은 불로 예배했기 때문에 이 세계에서 타 죽었듯이 저 세계에서도 불로 태워져 버렸다”고 설명한다.

기본 상응 공부

불 = 사랑 또는 미워함
큰 제단위의 불 = 주님을 사랑함

질문 정리

- 1) 성막이란 무엇인가?
- 2) 대제사장은 누구였는가?
- 3) 아론의 보조자들은 누구였는가?
- 4) 본문에 나오는 두 개의 제단은 무엇인가?
- 5) 성막의 어느 곳에 큰 제단이 있었는가?
- 6) 큰 제단은 어떤 때에 사용되었는가?
- 7) 성막의 어느 곳에 분향단이 있었는가?
- 8) 하루에 몇 번씩 분향하였는가?
- 9) 향을 피우기 위한 숯불을 운반하는 그릇은 무엇인가?
- 10) 숯불은 어디서 취했는가?
- 11) 아론의 보조자 중 첫째, 둘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가?
- 12) 그들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
- 13) 불이 “이상하다”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14) 나답과 아비후에게 무슨 변이 발생했는가?
- 15) 죽은 그들의 몸은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 16) 모세는 아론과 그의 두 아들에게 어떤 명령을 주었는가?
- 17) 모세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도록 했는가?
- 18) 향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질문의 답

- 1) 운반용 교회 2) 아론 3) 그의 네 아들들 4) 큰 제단(번 제단, great bronze);
분향단 (incense)

5) 성막 뜰 (Outer Court) 6) 제물을 바칠 때 (Sacrifices) 7) 성소 (Holy Place)
8) 아침과 저녁에 한번씩 9) 향로 (a censer) 10) 큰 제단 11) 나답과 아비후
12) “이상한” 불 또는 거룩치 않은 불을 드렸음 13) 타당치 않음 14) 불이 그들을
죽임 15) 진영 밖으로 끌어내졌음 16) 슬퍼하지 말라 17) 불에 타 죽은 자들을
위해 통곡하라고 18) 기도

12

발람

머리말

본과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생활을 하며 많은 시련과 역경을 겪었다는 것, 거룩한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생활을 마치게 되는 것, 별을 가지고 점을 쳤던 것, 발람과 동방박사가 같은 고향 출신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조상으로부터 고대 말씀을 계속 받아왔다는 것 등을 알아본다.

성 서 본 문: 민수기 22, 23, 24장

22장: 1. 이스라엘 백성은 또 길을 떠나 예리고 근방, 요르단 건너편 모압평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2. 시뵐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인들에게 한 일을 다 보았다. 3. 모압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효가 너무나 많아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을 보고 몹시 겁에 질려 4. 미디안 장로들에게 대책을 물었다. “소가 들풀을 뜯어 먹듯이 이제 이 무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을 모조리 먹어 버리겠습니다. 그러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 때 모압 왕은 시뵐의 아들 발락이었다. 5. 그는 큰 강 가, 아마윗 사람들의 땅 브돌로 사절을 보내어 브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 오게 하였다. “이집트에서 나온 한 민족이 지금 나의 접경에까지

와서 온 땅을 뒤덮고 있소. 6. 어찌나 많은지 나로서는 당할 수가 없으니, 곧 와서 그 백성을 저주해 주시오. 그들을 쳐서 이 땅에서 몰아 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소? 그대가 복을 빌어 주는 사람은 복을 받고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 줄을 나는 아오.” 7.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은 복채를 가지고 길을 떠났다. 그들은 발람에게 가서 발락의 말을 전하자 8. 발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여기에서 하룻밤 묵으시오. 야훼께서 나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듣고 나서 가부간 대답해 드리리다.” 그래서 모압의 고관들은 발람과 함께 묵었다. 9. 하느님께서 발람에게 오시어 물으셨다. “너를 찾아 온 이 사람들이 누구냐?” 10. 발람은 “시뵐의 아들인 모압 왕 발락의 보냄을 받고 온 사람들입니다”하며 하느님께 아뢰었다. 11. “한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와 온 땅을 뒤덮었으니 어서 와서 그들을 저주해 달라고 합니다. 그들을 쳐서 쫓아 낼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12. 하느님께서 발람에게 이르셨다. “그들을 따라 가지 말라. 또 그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니 저주하면 안 된다.” 13.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 발락이 보낸 고관들에게 일렀다. “어서들 고국으로 돌아가시오. 야훼께서는 나에게 당신들을 따라 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소.” 14. 그리하여 모압의 고관들은 길을 떠나 발람에게 돌아 와서 발람이 따라 와 주지 않겠다고 보고하였다. 15. 발람은 다시 그들보다도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냈다.

16. 그들이 발람에게 가서 말을 전하였다. “시뵐의 아들 발락의 전갈입니다. ‘나의 청을 거절하지 말고 부디 와 주시오. 17. 잘 대우해 드리리다. 무엇이든지 요구하는 대로 해 줄 터이니 부디 와서 이 백성을 저주해 주시오.’” 18.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였다. “발락이 그의 궁궐에 가득 찬 금과 은을 준다고 하여도 나는 갈 수가 없소. 큰일이건 작은 일이건 나는 절대로 나의 하느님 야훼의 명령을 어길 수 없소. 19. 그러나 하룻밤만 여기에 묵어 보시오. 야훼께서 다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는지 알아보리다.” 20. 그 날 밤 하느님께서 발람에게 오시어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다면 그들과 함께 가거라. 그러나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한다.” 21.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얹고 모압 고관들을 따라 나섰다. 22. 하느님은 발람이 가는 것을 보시고 몹시 화가 나셨다. 야훼께서 보내신 천사가 그의 길을 가로막고 섰다. 마침 발람은 나귀를 타고 두 종을 거느리고 있었다. 23. 야훼의 천사가 칼을 빼든 채 길을 가로막고 서 있는 것을 보고, 나귀가 길을 벗어나

밭으로 들어가자 발람은 나귀를 때려 길로 들어서게 하였다. 24. 그러자 야훼의 천사는 다시 포도밭 사이 길을 막고 섰다. 길 양쪽에는 담이 있었는데, 25. 나귀가 야훼의 천사를 보고 벽에 몸을 비비는 바람에 발람의 다리가 벽에 긁히자 그는 다시 채찍질을 하였다. 26. 야훼의 천사가 더 다가서며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몸을 뺄 수 없는 좁은 골목으로 몰아 세웠다. 27. 나귀가 야훼의 천사를 보고 발람을 태운 채 털썩 주저앉자 발람은 화가 나서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다. 28. 마침내 야훼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주시니 나귀가 발람에게 항의하였다. “내가 무슨 못할 짓을 했다고 이렇게 세 번씩이나 때리십니까?” 29. 발람이 나귀에게 “네가 이렇게 나를 놀리지 않았느냐? 내 손에 칼만 있었으면 당장 쳐 죽였을 것이다.”하고 말하자 30. 나귀가 발람에게 말했다. “나는 당신의 나귀가 아닙니까? 오늘날까지 당신은 나를 줄 곧 타고 다니셨는데 내가 언제 주인께 이런 일을 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없었다.” 31. 그 때에 야훼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 주셨다. 그제야 야훼의 천사가 칼을 뽑아 든 채 길을 가로막고 있는 모습을 본 발람은 고개를 숙이며 땅에 엎드렸다. 32. 야훼의 천사가 입을 열었다. “어찌하여 너는 네 나귀를 이렇게 세 번씩이나 때렸느냐? 너는 지금 내 눈에 거슬리는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와 너를 막아 선 것이다.

33. 나귀가 나를 보고 세 번이나 내 앞을 피했기 망정이지, 그러지 않았더라면 나는 나귀만 살려 주고 너는 이미 죽었을 것이다.” 34. 발람이 야훼의 천사에게 아뢰었다.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당신께서 저의 길을 막아서 계셨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눈에 거슬리는 길이라면 당장 돌아가겠습니다.” 35. 야훼의 천사가 발람에게 “이 사람들을 따라 가거라. 그러나 너는 내가 시키는 말만 해야 한다”하고 말하자 발람은 발락이 보낸 고관들을 따라 발길을 옮겼다.

36. 발락은 발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르논강 가 국경 도시 아르모압에 이르러 그를 맞으며 37. 말하였다. “내가 당신을 모시려고 그렇게 사람을 보냈는데도 왜 오지 않으셨소? 내가 당신을 잘 대우해 드리지 못할 줄 아셨소?” 38.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였다. “지금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내가 무슨 말을 하지 못합니다.” 39. 발람은 발락과 동행하여 후셋 마을에 이르렀다. 40. 발락은 소와 양을 잡아 제물로 바치고 발람과 그를 따라 온 고관들에게도 보내 주었다.

41. 아침이 되어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진지가 끝까지 내려다보이는 바알 산당으로 올라갔다.

23장: 1.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여기에 제단 일곱을 쌓고 중송아지 일곱 마리와 수양 일곱 마리를 잡아 오시오.” 2. 발락은 발람이 시키는 대로 제단마다에 중송아지와 수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 3. 그러자 발람이 발락에게 부탁하였다. “자리를 뜨지 마시고 이 번제물들 옆에 서 계시오. 내가 갔다 오겠습니다. 야훼께서 나에게 나타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나에게 무엇을 보여 주시든지 그대로 알려 드리리다.” 그리고 그는 꼭대기로 올라갔다. 4. 마침 하느님께서 발람을 찾아 오셨다. 발람이 아뢰었다. “일곱 제단을 쌓았고 제단마다에 중송아지와 수양을 한 마리씩 바쳤습니다.”

5. 야훼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넣어 주시면서 이르셨다. “발락에게로 돌아 가 이러이러하게 일러라.” 6. 발람이 발락에게 돌아 와 보니, 그는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번제물 옆을 떠나지 않고 지켜 서 있었다. 7. 그는 푸념하듯이 읊었다.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데려 왔겠다. 모압 임금인 나를 동쪽 산골에서 데려 왔겠다. 와서 제 편이 되어 야곱을 저주해 달라고, 와서 제 편이 되어 이스라엘을 욕해 달라고 하였지만 8. 하느님께서 저주하시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랴.

야훼께서 욕하시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욕하랴. 9. 이 바위 봉우리에서 내려다보고 이 언덕에서 굽어보니, 아, 저 백성, 남과 섞여 살지 않는 민족, 과연 만방에 건줄 데 없는 민족이구나. 10. 야곱은 티끌 같아 헤아릴 수 없고 이스라엘은 먼지 같아 셀 수도 없구나. 내 목숨이 올바른 사람처럼 끝났으면! 내 여생도 그들과 같았으면!”

11.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였다. “웬일이요? 원수들을 저주해 달라고 청해 왔는데 도리어 복을 빌어 주다니!” 12. 발람이 발락에게 “야훼께서 내 입에 담아 주신 말씀 말고 무슨 말을 하란 말이요?” 하고 대답하자 13. 발락은 그에게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하였다. “저자들이 다 보이지 않고 조금만 보이는 곳으로 갑시다. 거기에서 그들을 저주해 주시오.” 14. 그러면서 그는 비스가산 꼭대기 감시소가 있는 곳으로 발람을 데리고 갔다. 거기에서도 그는 제단 일곱을 쌓고 제단마다에 중송아지와 수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 15.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내가 저리로 가서 야훼께서 나타나 시기를 기다리는 동안 당신은 자리를 뜨지 말고 이 번제물들 옆에 서 계시오.” 16. 야훼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시어 그의 입에 말씀을 담아 주시면서 “발락에게로 돌아가

서 이러이러하게 말하여라”하고 일러 주셨다. 17. 발람이 그에게로 돌아 와 보니, 그는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번제물을 떠나지 않고 지켜 서 있었다. 발락은 야훼께서 뭐라고 하시냐고 발람에게 물었다. 18. 그는 꾸밈하듯이 읊었다. “발락이여, 일어나 들으시오. 시뵐의 아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오. 19. 하느님께서서는 사람처럼 거짓말하실 리도 없고 사람의 아들처럼 번덕을 부리실 리도 없으시다오. 말씀만 하시고 그대로 하지 않으실 리 없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지 않으실 리 없으시다오.

20. 그런데 여보시오. 그가 복을 주시는데 따르지 않을 수 없고 그가 복을 주시는데 뒤엎을 수 없는 노릇 아니오?

21. 야곱에겐 재앙일랑 보이지도 않는군요. 이스라엘에겐 불행일랑 비치지도 않는군요. 그들을 보살피시는 야훼 하느님을 왕으로 맞이하는 소리 우렁차군요. 22.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신 하느님께서 들소 뿔처럼 그들을 지켜 주시는군요. 23. 야곱을 꺾을 마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칠 술법이 없소이다. 이제는 사람들이 야곱에게 말하리다. ‘하느님께서 이렇듯이 큰일을 하셨구나’하고

이스라엘에게 말하리다. 24.보아라, 사자처럼 일어나는 백성을! 사자처럼 한번 몸을 일으키면 잡아먹지 않고는 눕지 않는구나.

잡은 짐승의 피를 다 핥지 않고는 눕지 않는구나.” 25. 발락이 발람에게 화를 내었다. “종소! 그들을 저주하지 마시오. 그러나 축복도 하지 마시오.” 26.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야훼께서 일러 주시는 것밖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27. 발락이 발람에게 다시 청하였다. “내가 당신을 다른 데로 모시겠소. 그리고 잡시다. 행여 그 곳이 하느님의 눈에 들어, 그들을 저주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소?” 28.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광야가 내려다보이는 브올산 꼭대기로 올라 갔다. 29. 발람이 발락에게 일렀다. “여기에 일곱 제단을 세우고 중송아지 일곱 마리와 수양 일곱 마리를 마련해 오시오.” 30. 발락은 발람의 말대로 제단마다에 중송아지와 수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

24장: 1. 발람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빌어 주는 것을 야훼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는 전처럼 징조를 찾아 나서지를 아니하고 그대로 광야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2. 발람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파별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 때 하느님의

영이 그에게 내렸다. 3. 그는 푸념하듯이 이렇게 읊었다. “브올의 아들 발람의 말이다. 천리안을 가진 사내의 말이다. 4.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말이다. 전능하신 하느님을 환상으로 뵈고 엎어지며 눈이 열려 하는 말이다.

5. 야곱아, 너의 천막들이 과연 좋구나! 이스라엘아, 네가 머문 곳이 참으로 좋구나!

6. 굵이굵이 뻗은 계곡과 같고

강물을 끼고 꾸며진 동산 같구나. 야훼께서 손수 심으신 느티나무와 같고 물가에서 자라는 송백 같구나. 7. 물통에서는 물이 넘쳐 나와 땅에 뿌린 씨가 물을 듬뿍 먹는구나. 임금은 아각을 누르리니 국위를 널리 떨치겠구나. 8. 이집트에서 고생하던 것들을 이끌어 내신 하느님께서 들소 빨처럼 지켜 주시어 적국을 집어 삼키고 그 뼈들을 짓부수고 옆구리를 찌르는 구나.

9. 사자처럼 웅크리고 있는데 그 사자 같은 자들을 누가 감히 건드리랴! 누구든지 너에게 복을 빌어 주면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10. 발락은 울화가 치밀어 올라 주먹을 치며 발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원수들을 저주해 달라고 너를 불러 왔는데, 너는 이렇게 세 번씩이나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11. 당장 너 살던 데로 물러가거라. 내가 너를 잘 대우해 주겠다고 했지만, 너는 야훼 때문에 부귀를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 12.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나에게 보낸 사절들에게 내가 분명히 말해 두지 않았습니까? 13. 발락이 궁궐에 가득 찬 은과 금을 준다고 하여도 나는 그것이 좋은 삶에 야훼께서 몸소 주시는 말씀을 어기면 서까지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야훼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외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4. 이제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는 마당에, 후일 이 백성이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나 알려 드리리다.” 15. 그리고 나서 그는 푸념하듯이 읊었다. “브올의 아들 발람의 말이다.

천리안을 가진 사내의 말이다. 16.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말이다. 지존하신 이의 생각을 깨치고 하는 말이다. 전능하신 하느님의 환상을 뵈고 엎어지며 눈이 열려 하는 말이다. 17. 이 눈에 한 모습이 떠오르는구나. 그러나 당장 있을 일은 아니다. 그 모습이 환히 보이는구나. 그러나 눈앞에 다가 온 일은 아니다. 야곱에게서 한 별이 솟는구나. 이스라엘에게서 한 왕권이 일어나는구나. 그가 모압 사람들의 관자놀이 부수고 셋의 후손의 정수리를 모조리 부수리라. 18. 에돔은 그의 속국이 되고

세일은 그의 차지가 되리라. 이스라엘은 힘이 뻗치고 19.야굽은 원수들을 지배하며 아르에서 빠져 나온 피난민을 멸절시키리라.”

20. 그는 아말렉을 바라보며 푸념하듯이 읊었다. “아말렉은 민족들 가운데 첫째라더니, 결국은 아주 망하고 말겠구나.”

21. 또 그는 켈족을 바라보며 푸념하듯이 읊었다. “네가 사는 곳은 견고하건만, 바위틈에 보금자리를 틀어 올렸건만,

22. 카인은 타 죽고 말리라. 끝내 아시리아에게 털리고 말리라.” 23. 그는 또 푸념하듯이 읊었다. “아, 누가 과연 살아 남으랴! 24.함대가 기뻐 쪽에서 온다. 그들은 아시리아를 누르고 에벨을 누르겠지만 그들도 결국 망하고 말리라.”

25. 그리고 발람은 길을 떠나 자기 고향으로 갔다. 발락도 자기 길을 갔다.

교리 요점

- * 고대 교회의 말기에 상응에 관한 지식이 악용되었는데 그것이 성서에 등장하는 마술의 시작이다.
- * 우리가 주님의 법도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바르게 살기위해 노력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다.

해설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애썼던 반면에 발람의 말들이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되어 버리는 이야기는 우리가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 때 우리를 해치려는 악은 무능해짐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것은 신약성서에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비유가 주는 교훈과 같다.

이스라엘 진영의 배치도는 시나이 산에서 주님께 의해 지시되었다. 이 배치도는 삶의 진정한 질서로서 삶의 중심에 주님을 두고 다른 모든 욕구나 기쁨은 그분에 관련되고 종속되면서 적당한 위치를 갖게 되는 것을 뜻한다. 질서가 잡힌 삶은 시련이나 시험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으며, 설사 공격을 당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축복으로

바뀐다. 이 삶은 악의 공격이 있게 되면 그것을 연습이라는 좋은 기회로 받아들여서 그 인격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발람은 상응에 관한 지식을 악용했다. 그는 숫자 일곱이 거룩하다는 것과 영계와의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제물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연결이 제물과 더불어 성립 되었을 때도 악령은 이스라엘 진영의 배치도에 담긴 능력을 깨트릴 수 없었다.

거룩한 것들 즉 성경이나 교회 등을 이기적 용도로 악용하는 사람은 발람으로 상징된다. 발람의 악함의 결과는 이스라엘을 해하는 대신 그에게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이 미디안족과 싸울 때 그는 죽게 된다.(민수기 31장 8) 발람은 발락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일부라도 반역자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다.(계시록 2장 14절) 이것은 주님만을 섬겨야 하는 진정한 관계에서 자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빗나가게 하면 금방 허술해지는 인간의 약점을 가르쳐준 것이다.

앞서 배웠듯이, 동물은 애착들(이끌리는 마음)을 표현한다. 그 중에 말은 깊고 높은 원리들을 추론하려는 애착을 뜻하고 나귀는 외적인 지식으로 추론하려는 애착(마음)을 뜻한다. 스웨덴붉은 나귀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상식(common sense)”이라 할 수 있는 자연적 추론능력을 상징 한다고 설명한다. 우리는 자연적 추론능력들을 삶의 유일한 길잡이로 여길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것들이 적당한 위치에서 활용되면 우리에게 아주 유익하다. 만약 우리가 이 능력들을 삶의 유일한 길잡이로 착각하면, 우리는 아기 이삭을 조롱한 이스마엘처럼 야생나귀가 될 것이다.

발람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나귀는 주인을 성심으로 섬기며 잘 길들여져 있었다. 이 나귀는 주인 발람에 앞서서 천사를 보았다. 그리고 주님은 발람을 멈추고 생각하게 하기 위해 나귀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우리는 스스로의 잘못된 방향과 행동을 계속 고집하게 될 때, 우리 안의 상식이 그것은 잘못된 것이며 우리가 실수하고 있음을 말해 줄 때가 흔히 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옳은 것을 하도록 강요하지 않으신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경고하시고 우리의 방향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려 주시기 위해 여러 방법을 강구하신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발람의 예언은 우리에게 베들레헴의 별에 관한 것, 동방박사가 그 별을 보았고 그들은 별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발람이 출생한 지역의

사람들 등등에 관한 것들을 상기시켜 준다. 이 지역은 아람 또는 시리아라 부른다. 메소포타미아 역시 이 지역에 해당되며, 그 지명은 “강들 사이에”라는 의미이다. 그 이유는 두 개의 유명한 강 즉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강이 합쳐지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이 지역 사람들은 고대 교회의 ‘고대 말씀’을 구전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종교 또한 구전된 ‘고대 말씀’에서 파생되어졌음으로 고대 교회로부터 남겨진 자들이라 부른다. 별(star)로 된 예언은 의심의 여지없이 고대 말씀의 일부이다. 고대 교회에 속한 사람의 주된 기쁨은 상응을 연구하는 것이었다. 고대 교회가 깨지고(성경에서 바벨탑 이야기로 기술된 부분)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상응에 관한 지식 일부가 메소포타미아지역에 남아 있었다. 이것은 본문에서 발람이 보수 때문에 발락을 위해 여러 가지 제물을 준비하라고 지시하는 구절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러한 상응에 관한 지식은 주님이 탄생하는 때까지도 계속 남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 이유는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에게 바친 예물이 상응적 예물이었기 때문이다. 스웨덴북은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상응에 관한 지식에서 주님의 권능을 사용하는 법을 발견했다고 설명한다. 고대 교회의 나머지에 속하는 동방박사들은 주님에 대해 배우려는 마음과 진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지식을 갖고 싶어 했다. 반면, 발람은 이 상응의 지식을 이기적 목적을 위해 사용한 악한 사람들 중의 한 명이다.

기본 상응 공부

- * 일곱 = 거룩한 것들
- * 나귀 = 자연적 추론

질문 정리

- 1) 광야 여행에서 이스라엘 후손들을 인도한 것은 무엇인가?
- 2) 이스라엘 후손들은 몇 년간 광야에서 배회했는가?
- 3) 광야에서의 마지막 진영 지는 어디인가?
- 4) 이스라엘 후손들이 오는 것에 두려워했던 왕은 누군가?

- 5) 발락은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는가?
- 6) 발락은 발람에게 무엇을 요청했는가?
- 7) 발람은 그의 힘을 누구에게서 구했는가?
- 8) 주님은 발람에게 맨 처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 9) 발락이 두 번째 사신을 발람에게 보냈을 때,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 10) 길을 가는 도중 발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 11) 발람은 발락에게 어떤 준비를 하라고 했는가?
- 12) 발람은 이러한 제단이나 제물을 바치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 13) 발람은 이스라엘을 몇 번이나 저주하려 했는가?
- 14) 그때 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 15) 발람은 이스라엘을 왜 저주할 수 없었는가?
- 16) 발람은 어떤 특별한 예언을 했는가?
- 17) 발람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피해를 입힐 수 있었는가?
- 18) 발람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는가?

질문의 답

- 1) 구름기둥과 불기둥 2) 40년간 3) 모압 평야 4) 발락(모압왕) 5) 발람
- 6)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7) 하느님으로부터 8) 저주하러 가지 말라고 9) 내가 주는 말만 말하라고
- 10) 천사가 그의 나귀를 놀라게 했다 11) 일곱 제단과 제물로서 증송아지와 수양들
- 12) 상응에 관한 지식으로 13) 세 번 14) 저주가 축복으로 바뀜 15) 악한 의도 속에는 진정한 힘이 없기 때문 16) 별에 관한 예언 17) 이스라엘이 시험에 빠져들게 하는 방법을 발락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18)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싸움 와중에 살해 됨

13

예리고 성의 정복

머리말

요르단 강을 건너는 광경을 홍해를 건너는 것과 비교해 본다. 길갈에서 돌을 세우는 것, 과월절 축제 그리고 만나의 공급이 중지된 것 등도 염두 해야 할 사항이다. 또한 1장부터 5장까지를 읽어 두면 본과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용이할 것이다.

성서 본문: 여호수아 6장

6장: 1. 예리고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굳게 닫혀 있어 드나드는 사람의 그림자 하나 없었다. 2.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예리고와 그 왕을 네 손에 붙인다. 굳센 용사들아, 3. 너희 모든 군인들은 날마다 이 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그렇게 열새 동안 돌아라. 4. 사제 일곱이 각기 수양뿔 나팔을 들고 궤 앞에 나서라. 이렛날에는 이 성을 일곱 번 돈 다음 사제들이 나팔을 불어라. 5. 그 수양뿔 나팔 소리가 나면 백성은 다 같이 힘껏 고함을 질러라. 그러면 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 때 전군은 일제히 쳐들어 가거라.” 6.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사제들을 불러서 일렀다. “계약궤를 메고 나서시오. 일곱 사제는 수양 뿔 나팔 일곱 개를 가지고 야훼의 궤 앞에 나서시오.” 7. 그리고나서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행동을 개시하여라. 이 성을 돌아라. 정예부대는 야훼의 궤 앞에 나서라.” 8. 이렇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한 대로, 일곱 사제가 수양 뿔 나팔 일곱 개를 가지고 야훼 앞에 나서서 불었다. 그 뒤를 야훼의 계약궤가 따랐다. 9. 나팔을 부는 사제들 앞에는 정예부대가 행군하고 그 궤 뒤를 후위부대가 따라 가는데 나팔 소리는 계속 울려 퍼졌다. 10.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고함을 지르지 말라. 작은 소리도 내지 말라. 한 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고 있다가 내가 고함을 지르라고 하거든 그 때 고함을 질러라.” 11. 그는 야훼의 궤를 모시고 성을 한 바퀴 돌게 한 다음 진지로 돌아 와 그 밤을 진지에서 보내게 하였다. 12.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면 사제들은 야훼의 궤를 메고 나섰다.

13. 일곱 수양 뿔 나팔을 가진 일곱 사제가 야훼의 궤 앞에서 행진하며 나팔을 불면, 정예부대가 그들 앞에 서서 행군하였고 후위부대는 야훼의 궤 뒤를 따랐다. 나팔 소리는 계속 울려 퍼졌다. 14. 둘째 날도 그들은 성을 한 바퀴 돌고 진지로 돌아 왔다. 이렇게 하기를 엿새 동안 하였다. 15. 이렛날이 되어 새벽 동이 트자 그들은 일찍 일어나 전과 같은 방식으로 성을 일곱 바퀴 돌았다. 그 날만 성을 일곱 바퀴 돈 것이다. 16. 일곱 번째 사제들이 나팔을 불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외쳤다. “고함을 질러라. 야훼께서 저 성을 너희에게 주셨다. 17. 저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야훼께 바쳐 없애 버려라. 다만 창녀 라합의 목숨과 그의 집에 있는 사람만은 살려 두어라. 그 여자는 우리의 사명을 띠고 갔던 사람들을 숨겨 주었다. 18. 너희는 깊이 명심하여라. 없애 버리게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탐내지 말라. 없애 버리게 되어 있는 것을 가지지 말라. 그랬다가는 전멸당하는 운명을 이스라엘 진영에 스스로 불러들이게 된다. 19. 은이나 금이나 동제품이나 철제품은 모두 야훼께 드릴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 야훼의 금고에 넣어야 한다.” 20. 백성들은 고함을 지르고 나팔 소리는 울려 퍼졌다. 나팔 소리가 울리자 백성은 “와”하고 고함을 질렀다. 그 순간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러자 백성은 일제히 성으로 곧장 쳐들어 가 성을 점령하였다. 21.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소건 양이건 나귀건 모조리 칼로 쳐 없애 버렸다.

22. 여호수아가 땅을 정탐하러 갔던 두 사람에게 일렀다. “그 창녀의 집에 들어 가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을 데려 오너라.” 23. 정탐원으로 갔던 젊은이들이 그 집에 들어 가 라합과 그의 부모와 오빠들뿐 아니라 그에게 딸린 일가친척을 모두 이스라엘 진 바깥 안전한 곳으로 데려 내 왔다. 24. 그리고는 성에 불을 질러 그 안에 있는 것을 모조리 태워 버렸다. 그러나 은과 금, 동제품과 철제품은 야훼의 금고에 넣었다. 25. 창녀 라합과 그의 가문과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만은 여호수아가 목숨을 살려 주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날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그 여자가 예리고를 정찰하라고 여호수아가 보낸 사람들을 숨겨 주었기 때문이다. 26. 그 때 여호수아가 맹세하였다. “이 성을 다시 짓겠다고 나서는 자는 야훼께 저주를 받으리라. 만아들을 죽이지 않고는 기초를 놓지 못하고 막내아들을 죽이지 않고는 성문을 달지 못하리라.” 27. 야훼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해 주시니 그의 명성이 온 땅에 두루 퍼졌다.

교리 요점

- * 모든 선과 진리는 주님에게만 있으며 심정으로 이를 인식하는 것이 거듭나는 삶의 첫 번째 필수 조건이다.
- * 시험에 부딪친 우리를 이기게 해주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다.
- * 우리는 옳은 것을 행함에 있어 지속적이며 신실한 자세로 행해야 한다.

해설

여호수아 5장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한 땅에 첫 발을 딛고 난 후의 첫 진영인 길갈이란 지역과 관련된 네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다. 첫째는, 그들이 요르단 강을 건넌 것을 기념하기 위해 요르단 강 바닥에서 취한 열 두 개의 돌을 세웠다는 것이다. 둘째는, 거룩한 땅에 들어간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 것으로 이것은 우리의 세례와 같으며 순결함과 자기의 삶을 주님을 섬기는데 헌정함을 표현한다.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후손들은 광야여행으로 인해 이 예식을 갖지 못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할례를 받았고, 이들만이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되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셋째는, 과일절이 기념되어 진 것이다. 이것을 기념하는 이유는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이미 자유와 성공에 대한 축복을 부여 받았음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초기에 상기하여 이스라엘인들의 사기를 올릴 수 있도록 하시려는 배려이다. 넷째는, 만나의 공급이 중단되고 거룩한 땅에서 나오는 소출을 먹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만나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 없이 인격이 재구성되는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계유지를 위한 음식물과 같은 영적 양식을

표현한다. 이러한 양식은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는 데는 필요치 않으므로 저장될 수 없다. 우리가 거둬나는 시기로 접어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배양되고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것들로 만족을 느끼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것은 “거룩한 땅의 소출”을 먹으면서 만나의 공급이 중지되는 것으로 묘사된다.

예리고는 거룩한 땅에 있던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할 첫 번째 성이다. 성이란 체계가 있는 교리나 믿음을 상징한다. 요르단 평야 즉 거룩한 땅에 있는 첫 번째 성인 예리고는 좋은 의미로는 영적 삶에 필요한 진리를 아주 단순하게 이해하는 상태를 뜻한다. 예리고는 “종려나무가 많은 성”이라고 불려진다. 종려나무는 주님만이 승리를 주실 수 있음을 원칙으로 삼음을 표현한다. 하지만, 적의 수중에 들어있는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이러한 원칙에 대한 부정 또는 옳은 것을 이해하고 행하는 모든 힘이 스스로에게서 비롯된다는 원리가 마음 깊숙이 박혀 있어 진리처럼 믿어지는 상태를 말한다. 거룩한 땅에 들어간 후에도, 이러한 거짓 사상으로 향하는 것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잘못된 원리는 우리가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와 스스로 독립할 수 있다고 믿게 되는 순간 우리를 전복시켜 버린다. 자만과 자아 확신이 마음속에 남아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제거해 버리는 것이 예리고 성을 정복하는 이야기로 상징된다. 주님을 섬기기 위한 것 외에는 예리고 성의 모든 것이 파괴되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예리고성의 정복은 우리 내의 자만을 정복하는 길을 보여준다. 이 길은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며, 우리의 모든 힘이 주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진리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확증해 나가는 것이다. 일곱 사제가 일곱 수양나팔을 가지고 궤 앞에서서 예리고성을 돌았다. 양(lamb)은 우리의 순진함 또는 주님을 신뢰함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어린 아이들 특히 자신을 뽐내려는 시기 이전의 어린 아이들이 소유한 순진함과 연관이 있다. 이러한 특질이 간직되어 발전되면, 순수하고 선한 모든 것을 보호하길 원하는 성숙한 인격을 지니게 되어 아름답고 강건한 특질이 된다. 양 중에서도 수양(ram)은 위와 같은 강건한 순진함을 표현하며 수양의 뿔은 순진함이 나타내는 힘을 뜻한다. 우리의 악 혹은 타인의 악에 대항하여 옳은 것을 “고함쳐라(speak up)”라고 하는 것은 수양의 뿔을 가지고 나팔을 부는 것과 같다. 숫자 일곱은 거룩함과 의를 행하기 위한 끈질긴 투쟁 끝에 오는 성취 또는 완료를 뜻한다. 자아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강한 결심만이 우리의 타고난 이기심을 잠재울 수 있다.

예리고에 대한 저주는 우리가 옛 상태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경고이다. 성경은 우리가 참으로 인식했던 어떤 진리에서 후퇴하게 될 때 스스로에게 이롭지 못함을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이것은 “신성모독(profanation)”이라고 표현된다. 예리고에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열왕기상 16장 34절에서 알 수 있다.

기본 상응 공부

여호수아 = 싸우는 진리 (truth fighting)

성 = 체계적 교리 (a system of doctrine)

질문 정리

- 1) 어떤 강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땅으로부터 분리시켰는가?
- 2) 그들은 어떻게 이 강을 건넜는가?
- 3) 거룩한 땅에서의 그들의 첫 진영은 어디인가?
- 4) 그곳에서 어떤 축제가 있었는가?
- 5) 그들이 먹던 음식은 무엇으로 바뀌었는가?
- 6) 그들이 정복해야 하는 첫 번째 성의 이름은 무엇인가?
- 7) 그 성 주위를 돌 때 무엇을 메고 돌도록 주님이 말씀하셨는가?
- 8) 궤 앞에 선 사제들은 몇 명이었는가?
- 9) 사제들은 무엇을 들고 있었는가?
- 10) 육일 동안 하루에 몇 번 성을 돌았는가?
- 11) 칠일째 되는 날 성을 몇 번 돌았는가?
- 12) 마지막으로 그들이 나팔을 불고 고함을 지르자 어떻게 되었는가?
- 13) 그 성안에서 살아남은 것은 무엇인가?
- 14) 그 밖의 성에 있는 것을 어떻게 되었는가?
- 15) 여호수아에 의하여 말해진 저주의 내용은 무엇인가?
- 16) 거룩한 땅에 들어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질문의 답

- 1) 요르단강 2) 기적에 의하여 3) 길갈 4) 과월절 5) 만나가 중지되고
그 땅의 소출을 먹음
6) 예리고 7) 궤 8) 일곱 명 9) 수양 뿔 나팔 10) 하루에 한번 11) 일곱
번
12) 성벽이 무너짐 13) 라합과 그녀의 가족 및 금속들 14) 파괴해 버렸음
15) “이 성을 다시 짓는 자는 두 아들을 잃을 것이다” 16) 거듭나는 생활의 시작

14

드보라와 바락

머리말

여호수아의 지휘 하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자취를 살펴보고 판관기 시대의 특성을 설명한다. 본장을 공부하면서 꼭 배워야 할 중요한 점은 말씀으로부터 새로운 진리를 꾸준히 배우지 않고도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나는 충분히 알고 있음”은 남녀노소를 불문 하고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성 서 본 문: 판관기 4장

4장: 1. 에훗이 죽은 다음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야훼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였다. 2. 그래서 야훼께서는 하술을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넘겨 주셨다. 그의 군대 지휘관은 하로셋하고임에 사는 시스라라는 자였다. 3. 야빈은 철병거를 구백 대나 가지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이십 년 동안 심하게 억압했다. 마침내 이스라

엘 백성이 야훼께 울부짖었다.

4. 그 때 이스라엘을 다스린 판관은 라삌돏의 아내 여예언자 드보라였다. 5. 그가 에브라임 산악지대 라마와 베텔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밑에 자리 잡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곤 하였다. 6. 이 드보라가 납달리 케데스에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 놓고 일렀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납달리 지파와 즈불론 지파에서 만 명을 뽑아 다불산으로 이끌고 가거라. 7. 그러면 나는 야빈의 군대 지휘관 시스라를 키손강으로 유인해 내겠다. 내가 그의 전군을 병거대까지 유인해 내다가 네 손에 붙이리라.’” 8. 바락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만일 당신이 저와 함께 가신다면 가겠지만, 함께 가지지 않는다면 못 가겠습니다.” 9. 드보라는 “내가 꼭 함께 가겠소. 하지만 이번 길에서 그대에게 영광이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것만은 알아 두시오. 야훼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요”하고 일어나 바락과 함께 케데스로 갔다. 10. 바락이 즈불론과 납달리 지파를 케데스로 출동시켰다. 만 명이나 되는 부대가 그의 뒤를 따라 올라 가는데,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갔다. 11. 모세의 장인 호باط의 자손 가운데 켄 사람 헤벨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문중에서 떨어져 나가 케데스 근처 사야난님 상수리나무 곁에 천막을 치고 살았다. 12.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다불산에 올라갔다는 것을 전해들은 시스라는 13. 구백 대나 되는 철병거까지 합친 전 군대를 하로셋하고임에서 키손강으로 출동시켰다. 14. 드보라가 바락에게 일렀다. “행동을 개시하십시오. 이 날은 야훼께서 시스라를 그대 손에 붙이시는 날이요, 정녕 야훼께서 그대 앞에 서서 전진하실 것이요.” 그리하여 바락은 만 명 부대를 이끌고 다불산에서 쳐 내려갔다. 15. 야훼께서 시스라가 거느린 그의 전병거대와 군대를 바락 앞에서 혼란에 빠뜨리셨다. 그러자 시스라는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쳤다. 16. 바락은 그 병거대와 군대를 하로셋하고임까지 따라 가며 추격전을 벌였다. 시스라의 군대는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칼에 맞아 쓰러졌다. 17. 한편 시스라는 켄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을 향해 뛰어 도망쳐 갔다. 하술 왕 야빈과 켄 사람 하벨 가문은 서로 우호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다. 18. 야엘이 시스라를 나와 맞으며 말하였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나리. 어서 들어오십시오. 마음 놓으십시오.” 시스라가 그의 천막에 들어오자 야엘은 담요로 그를 덮어 주었다. 19.

시스라는 목이 마르니 마실 물을 좀 달라고 청하였다. 야엘이 우유가 든 가죽부대를 열어 좀 마시게 하고는 다시 그를 덮어 주자, 20. 시스라는 야엘에게 부탁하였다. “천막 문에 섰다가 누가 와서, 여기에 누가 없느냐고 묻거든 없다고 해 주오.” 21. 헤벨의 아내 야엘은 천막 말뚝과 망치를 가지고 살금살금 다가가서 말뚝이 땅에 꽂히도록 그의 관자놀이에 들이박았다. 시스라는 기진맥진하여 정신없이 자다가 참변을 당하고 말았다. 22. 때마침 바락이 시스라를 추적하여 왔다.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으며 입을 열었다. “들어 와 보십시오. 장군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락이 들어 가 보니 시스라는 관자놀이에 말뚝이 박힌 채 죽어 쓰러져 있었다. 23.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그 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가나안 왕 야빈의 기세를 꺾으셨다. 24. 그 후로 가나안 왕 야빈은 점점 심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놀리다가 마침내 망하고 말았다.

교리 요점

- * 주님은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말씀으로부터 진리를 통해 구원하신다.
- * 말씀을 꾸준히 공부하지 않고도 의를 행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이 자신에게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 시련에 빠지게 된다.

해설

아브라함부터 판관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유아기 때부터 부모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지 않고 자립적인 삶을 시작하기까지 우리의 영적 발달의 모습들로 볼 수 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는 마치 우리의 부모가 우리에게 삶의 옳은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 주듯이 사람들을 심판하고 중재하며 이스라엘 후손들의 삶을 이끌었다. 그들의 후손들은 그 땅에 집들을 건설하며 그들 스스로 자립하게 되었다. 여호수아의 죽음은 자립된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과 같다. 자립된 삶을 시작한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결정해나가야 한다. 이 때 우리는 스스로 느끼기에 자신이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 것 같아서 부모님과 선생님들에게 배운

여러 교훈들을 무시하거나 잊게 되는 데 그 결과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여 고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 예상보다 훨씬 강한 시험을 만나기도 한다. 열두 지파가 각자 땅을 차지하고 각자의 삶을 위해 흠여지게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분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우리는 과거에 받은 교훈적인 가르침들을 기억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강압적이고 지키기 귀찮은 의무조항처럼 여긴다. 그리고 다른 세상적인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보다 쉽고 더 현명한 것처럼 받아들인다. 우리는 가나안 땅의 우상들 즉 돈, 출세 그리고 쾌락을 달콤하게 느끼게 된다. 우리가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이기적 경향성은 기회를 기다리는 맹수처럼 잠복해 있다가 이윽고 강건하게 자라서는 우리를 강력하게 공격한다.

판관의 시대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마다 제 멋대로 하던” 시대였다. (17장 6절)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계속 찾고 끊임없이 그분에 대해서 배우지 않고도 충분한 지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 해당 된다. 하지만 이는 곧 바로 시련과 고난의 때로 연결된다. 주님은 우리가 실수를 행하고는 그것으로 인해 고통 받는 것을 허용 하신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미약하고 좁은 시야를 가졌음을 인식하고 주님을 진정한 우리 삶의 안내자로 찾도록 하기 위함이다.

판관은 주님이 그 당시의 특수한 적들에 대해 이스라엘 후손들을 이끌기 위해서 곳곳에 일으켜 세운 한시적인 지도자이다. 이들은 우리가 역경에 처하여 주님을 필요로 할 때 주님이 우리 마음에 상기 시켜주시는 개별적인 진리들을 상징한다. 제 3장은 처음의 세 판관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오드니엘은 갈렙의 동생 크나즈의 아들인데 메소포타미아 왕을 쳐서 이겼다. 에훗은 베냐민 지파로 모압왕 에글론을 지략을 써서 암살하고 그 왕의 군대를 완전히 쳐부수도록 사람들을 이끌었다. 그리고 삼갈은 소를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육백 명을 죽였다.

이들 세 판관 다음이 본문에 등장하는 여판관 드보라다. 그녀는 베냐민 지파에 속했고 그녀에 대해서는 “라마와 베텔 사이에 있는 종려나무 아래에 자리 잡고”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베텔은 천적인 것들에 관한 지식을, 라마는 영적인 것들을 그리고 종려나무는 모든 선함과 모든 구원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원리를 뜻한다.

당시 적들은 판관이 살고 있는 근처나 중심부 혹은 남쪽 부분이 아닌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것은 우리를 위협하는 시험 중에서 이해성 안에서 거짓을 산출해 내는 것을 뜻한다. 드보라는 군대의 지휘자로 북쪽에 위치한 납달리 지파의 바락을 임명하였고, 군대는 납달리와 북쪽 방향에 있는 스블론 지파에서 뽑으라고 했다. 거짓 추론은 반드시 진정한 추론과 부딪쳐야만 하는데, 이것은 이 싸움이 우리 마음 안에서 반드시 치러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바락이 드보라가 동행하지 않으면 싸우지 않겠다고 하자 드보라는 전투에 참가 하겠다고 했다. 이 전투는 주님의 직접적인 도우심으로 승리했다. 주님께서서는 적들의 말과 철병거를 키손 강에서 끌어 버리셨다. (판관기 5:21-22) 이처럼 주님과 천적인 것들에 대한 애착은 거짓에 대항해 추론하는 우리의 노력을 후원하고, 주님은 우리가 승리하도록 이끄신다.

본문 마지막 부분에는 야빈 군대의 장군인 시스라가 강력한 힘에 의해 파괴됨을 보여준다. 시스라는 우리의 거짓 추론을 지휘하고 명령하는 거짓된 원리를 의미한다. 거짓된 원리들은 우리가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도 교묘하게 피해 달아나기도 한다. 여인 야엘은 켄 출신이다. 켄족은 고대 교회로부터 남아 있는 선한 자들로, 우리 속에 있는 어린 시절의 교훈적 가르침으로 되돌아가도록 우리의 심정(hearts)을 자극하는 선한 자극을 의미한다. 텐트는 예배에 있는 어린 시절 같은 심정상태를 뜻한다. 텐트를 지상에 부착시켜 단단하게 서도록 해주는 말뚝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일상생활을 연결시켜 주는 말씀 속의 단순한 진리들을 뜻한다. 야엘이 시스라를 죽인 잔인한 행동이 묘사하는 바는 우리가 어린 시절에 배워둔 단순한 계명을 가지고 “말뚝이 땅에 꽂히도록 그의 관자놀이에 들이 박아...”진 것 같이 되어서 거짓추론의 뒤에 있는 원리들을 이겨내는 우리의 능력을 의미한다.

기본 상응 공부

베델 = 천적인 것들에 관한 지식

라마 = 영적인 것들에 관한 지식

질문 정리

- 1) 여호수아는 일생동안 무엇을 성취했는가?
- 2) 거룩한 땅은 어떻게 지파 별로 분할 되었는가?
- 3) 여호수아를 바로 계승한 지도자가 있었는가?
- 4) 여호수아가 죽게 되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가?
- 5) 그 결과는 무엇인가?
- 6) 그들이 주님께 도움을 구했을 때 주님은 그들을 위해 어떻게 하셨는 가?
- 7) 주님께서 일으켜 세운 지도자를 무엇이라고 불렀는가?
- 8) 여관관은 누구인가?
- 9) 여관관 당시 어떤 적이 공격했는가?
- 10) 그 적의 대장은 누구였는가?
- 11) 드보라가 세운 이스라엘 군대의 지도자의 이름은 무엇인가?
- 12) 어떤 조건하에 그는 군대를 이끌었는가?
- 13) 어떤 지파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뽑았는가?
- 14) 전투는 어디서 벌어졌는가?
- 15) 누가 승리했는가?
- 16) 시스라는 어디로 피신하여 누구에게 숨겨 달라고 했는가?
- 17) 그 여자는 시스라를 어떻게 했는가?
- 18) 관관 시대는 우리 삶에 있어서 무엇을 묘사하는가?
- 19) 북쪽에 있는 적은 무엇을 묘사하는가?

질문의 답

- 1) 거룩한 땅을 정복했다 2) 제비 뽑아서 나누어짐 3) 없다 4) 주님을 잊어버림
- 5) 많은 적들이 그들을 괴롭힘 6) 지도자를 세워 주셨다 7) 관관 8) 드보라
- 9) 야빈 10) 시스라 11) 바락 12) 만일 드보라가 함께 간다면 13) 납달리, 스블론
- 14) 키손강 근처 15) 이스라엘 16) 야엘 17) 그를 죽였음 18) 우리가 충분히 다 알고 있고 더 이상 주님으로부터 배울 필요가 없다고 착각하는 모습
- 19) 거짓 사상을 생산해 내는 시험

15

사무엘의 출생

머리말

판관시대의 일반적 특성을 간략히 재정리한다. 판관시대의 마지막 판관으로서 이스라엘 전 지파가 인정한 판관은 사무엘이었음을 기억하자. 또한 어린 시절 사무엘의 이야기가 많이 알려져 있어서 그의 후기 업적들이 소홀히 다뤄지는 경향이 있음도 유의하자.

성서 본문: 사무엘상 1, 2장 1-11절

1장: 1. 에브라임 산악지대에 엘카나라는 수브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라마다임 출신으로서 에브라임 사람 수브의 현손이요, 도후의 증손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여로함의 아들이었다. 2. 그는 두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요, 또 한 아내의 이름은 브닌나였다. 그런데 브닌나는 자식을 두었지만 한나는 자식이 없었다. 3. 엘카나는 해마다 자기의 성읍을 떠나 실로로 올라 가 만군의 야훼께 제사를 드려 예배하였다. 실로는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야훼를 모시고 사제 일을 보고 있는 곳이었다. 4. 제일이 되면 엘카나는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아들 딸들에게 제물을 몹몹이 나누어 주었다. 5. 그러나 엘카나는 한나를 사랑하면서도 그에게는 한 몫밖에 줄 수가 없었다. 야훼께서 한나로 하여금 잉태하게 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었다. 6. 게다가 적수 브닌나는, 야훼께서 잉태하게 해 주시지 않아 속을 태우고 있는 한나를 더욱 괴롭혔다. 7. 엘카나가 매년 야훼의 신전에 올라 갈 적마다 그렇게 하였으므로 브닌나는 한나를 괴롭혔고 한나는 목이 메어 먹지를 못했

다. 8. 남편 엘카나는 한나를 보고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도 않고 슬퍼만 하오? 내가 당신한테는 아들 열보다도 낫지 않소?”하며 위로해 주었다. 9. 실로에서 젓상을 물리고 나자 한나는 일어나 야훼 앞에 나아갔다. 그 때 마침 사제 엘리가 야훼의 성전 문 뒤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10. 한나는 마음이 아파 흐느껴 울며 야훼께 애원하였다. 11. 그는 서원을 하며 빌었다. “이 계집종의 가련한 모습을 굽어 살펴 주십시오. 이 계집종을 저버리지 마시고 사내 아이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그 아이를 야훼께 바치겠습니다. 평생 그의 머리를 깎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2. 한나가 야훼께 오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동안 엘리는 한나의 입술을 지켜보고 있었다. 13. 한나는 속으로 기도하고 있었으므로 입술만 움직일 뿐,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엘리가 한나를 술취한 여자로 알고, 14. “언제까지 이렇게 주정을 하고 있을 참이나? 어서 술에서 깨어나지 못하겠느냐?”하고 꾸짖자 15. 한나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사제님! 저는 정신이 말짱합니다. 포도주도 소주도 마시지 않았습시다. 저는 야훼께 제 속을 털어 놓고 있습니다. 16 사제님, 이 계집종을 좋지 못한 여자로 생각지 마십시오. 저는 너무 서럽고 괴로워서 이제껏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17. “그럼, 안심하고 돌아가거라. 이스라엘을 보살피시는 하느님께서 네 기도를 들어 주실 것이다.” 엘리가 이렇게 말하자, 18. 한나는 “그렇게까지 보아 주시니 고맙기 그지없습니다.”하면서 물러나와 음식을 먹었다. 그 얼굴에는 어느덧 수심이 걷혀었다. 19. 엘카나는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식구들과 함께 야훼께 예배를 드리고,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 왔다. 엘카나가 아내 한나와 한자리에 들자, 야훼께서 한나를 마음에 두시어 20. 임신하게 해 주셨다. 한나는 달이 차서 아들을 낳자 “야훼께 빌어서 얻은 아기”라고 하여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었다. 21. 엘카나, 그 사람이 식구들을 이끌고 다시 야훼께 주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가는데, 22. 한나는 따라 나서지 않고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아기가 젖을 때면 아기를 데리고 가서 야훼를 뵈겠습니다. 그리고 영영 거기에서 살게 하겠습니다.” 23. “당신 좋을 대로 하구료. 젖떨 때 까지 집에 남아 있으시오. 야훼께서 부디 당신의 서약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요.” 그는 남편 엘카나의 허락을 받고 아들이 젖을 땔 때까지 집에서 키우게 되었다. 24. 이윽고 젖을 떼자 한나는 아기를 데리고 나셨다. 삼 년 된 황소 한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에다가 족부대에 포도주를 담아 가지고 실로에 있는 야훼의 성전으로 어린 아들을 데리고

갔다. 25. 일행은 소를 잡고 그 아이를 엘리에게 데려 갔다. 26. 한나가 엘리에게 말하였다. “사제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제님께서 지금 살아 계신 것이 틀림없듯이 제가 바로 이전에 여기 사제님 앞에서 야훼께 기도를 드리던 여자입니다. 27. 이 아이는 기도해서 얻은 아이입니다. 제가 야훼께 애원했더니, 야훼께서 소원을 들어 주셨습니다. 28. 그래서 저는 이 아이를 야훼께 바치기로 하였습니다. 이 아이의 한평생을 야훼께 맡기고 싶습니다.” 그러자 일행이 거기 야훼 앞에 엎드리고,

2장: 1. 한나가 이렇게 기도를 올렸다. “내 마음은 야훼님 생각으로 울렁거립니다. 하느님의 은덕으로 나는 얼굴을 들게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내 가슴에 승리의 기쁨을 안겨 주시니 원수들 앞에서 자랑스럽기만 합니다. 2. 야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으십니다. 당신밖에는 없으십니다. 우리 하느님 같은 바위는 없으십니다. 3. 잘난 체 지껄이는 자들아, 너무 우쭐대지 말아라. 거만한 소리를 입에 담지 말아라. 야훼는 사람이 하는 일을 다 아시는 하느님, 저울질하시는 하느님이시다.

4. 힘있는 용사의 활은 꺾이고 비틀거리던 군인은 허리를 묶고 일어나게 되리라. 5. 배불렀던 자는 떡 한 조각 얻기 위하여 품을 팔고 굶주리던 사람은 다시는 굶주리지 않게 되리라. 아이 못 낳던 여자는 일곱 남매를 낳고 아들 많던 어머니는 그 기가 꺾이리라. 6. 야훼께서는 사람의 생사를 쥐고 계시어 지하에 떨어뜨리기도 하시며 끌어올리기도 하신다. 7. 야훼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가멸지게도 하시며 쓰러뜨리기도 하시고 일으키기도 하신다. 8. 땅바닥에 쓰러진 천민을 일으켜 세우시며 잿더미에 뒹구는 빈민을 들어 높이셔서 귀인들과 한 자리에 앉혀 주시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땅의 밀동은 야훼의 것, 그 위에 세상을 지으셨으니 9. 당신을 따르면 그 걸음걸음을 지켜 주시지만 불의하게 살면 앞이 캄캄해져서 말문이 막히리라. 사람이 제 힘으로는 승리하지 못하는 법, 10. 야훼께 맞서는 자는 깨어지리라. 지존하신 이께서 하늘에서 천둥소리로 우렁차게 호령하신다. 야훼는 땅 끝까지 심판하시는 분, 당신께서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임금의 이름을 떨치게 하신다.” 11. 한나는 사제 엘리 밑에서 야훼를 모시도록 아이를 거기에 남겨 두고 라마로 돌아갔다.

교리 요점

- * 주님을 예배함을 중심으로 인생을 체계화해야 한다.
- * 우리는 단순한 믿음과 순종에 관한 우리 어린 시절의 심정상태를 회복시켜 보존해야 한다.

해설

관관기의 모든 이야기는 일률적으로 연결되지 않아서 시리즈의 형태와 같다.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우리가 삶의 방향을 주님에게서 찾지 않고 스스로의 길을 가기 위해 노력하는 시기를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주님에게서 삶의 방향을 찾지 않은 우리의 삶은 두드러진 경향이 없는 사건의 연속이어서 질서적인 발달이 없다.

사무엘상에서 성막이 재등장한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을 보면, 거룩한 땅의 정복이 끝나자마자 그 땅의 중심인 실로에 성막이 세워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관관기서에서는 성막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이처럼 사람들이 자기 활동분야 혹은 자신의 사상에 빠지게 되면, 교회에 관한 것을 소홀히 여기게 된다.

우리가 늘 배웠듯이, 주님은 우리의 어린 시절에 익힌 선과 진리에 관한 것 중 남겨 두신 것들(remains)을 우리의 깊은 곳에 보관되게 하신다. 이것은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즉 그 땅의 중앙에 있는 실로에 성막이 존재함과 아론의 후손 엘리가 제사장이라는 것 그리고 소수의 신실한 백성들이 해마다 제물을 가지고 예배하러 오고 있는 모습 등이 이를 묘사한다.

사무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친숙하며, 삶의 질서 있는 시작과 발달을 그려주는 아름다운 것이다. 이것은 모든 어린이가 사무엘처럼 태어나기 전에 주님께 헌납되어야 하고 교회로 일찍 데려가 교회를 섬기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린이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섬김을 기꺼이 하도록 가르쳐져야 한다. 그 후에,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한다. 어린 사무엘의 이야기와 주님의 어린 시절과는 유사한 점이 있다. 주님이 여덟 살 때에 “부모들이 매년 과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라고 기록 되어있고, 또 성전에 나가기도 했고 12살

때에는 성전에서 머무르면서 학자들과 대화도 나눴다.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간 말씀과 마찬가지로, 아주 깊은 속뜻으로는 주님의 생애를 말하고 있다.

한나의 서약(1:11)을 보면, 사무엘의 일생은 글자그대로의 수준에서 계명에 순종하는 것에 기초했다. 그 이유는 머리털은 가장 바깥쪽에 상응하고 예언자는 말씀의 글자에 상응하기 때문이다. 삼손 또한 나지르인이었고, 그의 힘은 머리털에 있었다. 민수기 6장 1-21절을 보면, 나지르인의 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사무엘의 힘은 성막 안에 있었으므로, 그의 힘은 영적이며 지속적이었다. 따라서 그는 삼손의 신체적 승리보다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결과들을 낳게 되었다.

우리가 성인이 되어 자신의 약함을 인식하고 주님의 필요성을 실감하게 되면, 주님은 어린 시절에 있었던 순수한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이 갖는 의미이다. 판관시대와 같이 혼란하고 방만한 시기가 지난 후에야 우리는 삶 안에 질서를 가져오고 마음을 통일 시킬 수 있는 것이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고, 두 번째 왕, 다윗도 기름 부어 세운 마지막 판관이었다. 사무엘이 사울이후,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때가 되면 우리는 영적 성장에 필요한 새롭고 더 높은 차원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 새로운 차원의 진리는 우리를 이끌어서 단순한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할 필요성이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도록 한다.

판관 중에서는 사무엘만이 주님을 대변하는 자로서 모든 백성에게 인식되었다. 그가 출생 전부터 주님을 섬기기 위해 바쳐진 사실과 어린 나이에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실은 아주 어린 시절 우리가 받은 좋은 가르침 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표현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생각을 바꾸어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 (마태 18:3).

기본 상응 공부

사무엘 = 주님이 성인들에게 어린 시절에서 같은 믿음 상태를 통해 말씀하심

머리털 = 가장 바깥 측면(행동), 말씀의 글자

질문 정리

- 1) 누가 마지막 판관이었는가?
- 2) 사무엘의 부모는 누구인가?
- 3) 당시에 성막은 어디에 있었는가?
- 4) 제사장은 누구였는가?
- 5) 한나는 어떤 서약을 했는가?
- 6) 그 여자는 그것을 어떻게 지켰는가?
- 7) 사무엘은 어디서 자랐는가?
- 8) 이스라엘 백성들은 판관기 당시 왜 그토록 곤란을 겪었는가?

질문의 답

- 1) 사무엘 2) 엘카나와 하나 3) 실로 4) 엘리 5) 만일 아들을 갖게 해 주신다면
주님에게 바치겠다고 서약했음 6) 사무엘을 엘리에게로 데려다 주어 살게 했음
7) 실로 8) 주님을 잊었기 때문이다

16

사울을 선택함

머리말

앞서 했던 성경 공부를 통해 판관시대의 특성과 그 당시의 사람들이 왜 곤란을 겪게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사무엘상 8장을 읽어 두면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사무엘이 나이 많은 노인으로 큰 인물이 되어 주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 즉 예언자 또는 선견자가 되었음을 염두 하자.

성 서 본 문: 사무엘상 9:10장

9장: 1. 베냐민 지파에 키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아비아의 현손이요 브고랏의 중손이요 스롤의 손자요 아비엘의 아들이었다. 그는 베냐민 사람으로서 유지였다. 2. 그에게 사울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그만큼 잘생긴 사람이 없을 만큼 깨끗하게 잘생긴 아들이었다. 누구든지 그의 옆에 서면 어깨 아래에 닿았다. 3. 하루는 아버지 키스가 기르던 암나귀들이 없어졌다. 그래서 그는 아들 사울에게 종 하나를 데리고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하였다. 4. 그는 종을 데리고 에브라임 산악지대를 넘어 살리사 지방으로 가 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다시 사알렘 지방으로 건너 가 보았으나 역시 보이지 않았다. 5. 수브 지방으로 들어갔을 때 사울은 데리고 가던 종에게 “아버지께서는 암나귀 생각보다 우리 걱정을 하시겠다”고 하며 그만 돌아가자고 하였다. 6. 그러자 종이, “이 성읍에는 하느님의 사람 한 분이 살고 있습니다. 아주 존경받는 어른이신데 그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 다 들어맞는다고 하더군요. 그에게 가면 우리가 찾는 것을 어디에 가면 찾을 수 있을지 알려 줄지도 모릅니다”하고 말하였다. 7. 사울이 종에게 물었다. “간다면 그분에게 무엇을 가지고 가겠느냐? 먹을 것이라곤 하나도 남지 않았는데 그 하느님의 사람에게 드릴 복채가 없으니, 무엇을 드리면 좋겠느냐?” 8. 종이 대답하였다. “여기 저에게 은 사분의 일 세겔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느님의 사람에게 드리면, 어디로 가야 찾을 수 있을지 알려 줄 것입니다.” 9. 그러자 사울은 종에게, “됐다. 네 말대로 어서 가자”하며 하느님의 사람이 있는 성으로 갔다. 10.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하느님께 물어 보고 싶은 일이 있으면 선견자에게 가자고 하였다. 오늘날 예언자라는 사람을 전에는 선견자라고 하였다. 11. 사울은 종을 데리고 언덕에 올라 그 성으로 가다가 물을 길으러 나오는 처녀들을 만나 “여기에 선견자가 한 분 계시다지?” 하고 물었다. 12. 처녀들이 대답하였다. “예, 그분이 저 앞에 가십니다. 오늘 산당에서 이 성의 제사가 있어서 방금 도착하셨습니다. 13. 성으로 들어가시면 그분이 산당으로 음복하시러 올라가시기 전에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먹지 않고 그분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제물을 축복한 다음에야 손님들이 먹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올라가시면 곧 만나실 것입니다.”

14.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성으로 올라갔다. 그들이 성 안에 막 들어서려는데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 가다가 그들과 맞부딪치게 되었다. 15. 그런데 사울이 오기 전날 야훼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당신의 뜻을 밝히셨다. 16. “내일 이맘때 베냐민 지방에서 사람 하나를 너에게 보낼 터이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성별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수령으로 세워라. 그가 내 백성을 불레셋 사람에게서 구해 낼 것이다. 나는 내 백성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17. 사울이 사무엘의 눈에 뜨이는 순간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이 바로 너에게 말해 둔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내 백성을 지배할 사람이다.” 18. 사울이 성 문간 안에서 사무엘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여기 선견자 한 분이 계시다는데 그분의 댁이 어딘지 가르쳐 주십시오.” 19. “바로 내가 그 선견자요”하고 사무엘이 말하였다. “먼저 산당으로 올라가시오. 오늘 나와 함께 음식을 나누시다. 내일 아침에, 그대가 걱정하고 있는 일을 다 일러 준 다음 떠나도록 해 주리다. 20. 사흘 전에 잃어버린 암나귀 일로 더 이상 마음 쓰지 마시오. 나귀는 찾았소. 이스라엘의 모든 기대가 누구의 어깨에 걸쳐 있는지 아시오? 그대와 그대의 가문에 걸쳐 있소.” 21. 사울이 대답하였다. “그렇지만 저는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저희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저의 문벌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초라합니다. 그런데 어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22. 사무엘은 사울과 그의 종을 데리고 식당으로 들어 가 삼십 명 가량 모인 손님들의 상좌에 앉혔다. 23. 사무엘이 요리사에게 “잘 간수하라고 맡겨 두었던 그 제사 음식을 가져 오너라”하고 이르자, 24. 요리사가 제물의 다리와 꼬리를 들어다가 사울 앞에 차려 놓고 말하였다. “당신께 드리려고 따로 떼어 둔 몫입니다. 어서 잡수십시오. 이 손님들과 함께 잡수시라고 떼어 두었던 것입니다.” 그 날 사울은 사무엘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 25. 그들이 산당에서 성으로 내려 와 보니 사울의 잠자리가 옥상에 마련되어 있어 거기에서 밤을 지냈다. 26. 날이 새자 사무엘이 옥상에 대고 “일어나 길을 떠납시다”하고 사울을 불렀다.

사울은 일어나 사무엘과 함께 밖으로 나갔다. 27. 그들은 성읍의 끝까지 걸어 내려갔다. 거기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일렀다. “종을 먼저 보내고 그대는 잠깐 여기에서 있으시오.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 드리리다.”

10장 1. 사무엘은 기름 한 병을 꺼내어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을 맞추며 이렇게 선언하였다. “야훼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수령으로 성별해 세우시는 것이요. 그대는 야훼의 백성을 지배하시요. 그대는 사방에 있는 적의 세력으로부터 이 백성은 구해 내어야 하요. 야훼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어 당신의 뭍인 이 백성의 수령으로 성별해 세우신 표는 이것이요. 2. 오늘 그대는 나를 떠나 가다가 베냐민 지역 쉼사에 있는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요. 그들은 그대의 부친이 그대가 찾아다니던 암나귀를 찾아냈으므로 나귀 걱정은 놓았지만 그대들이 걱정되어 ‘내 아들이 어찌 되었느냐?’는 말만 되풀이한다고 알려 줄 것이요. 3. 거기에서 다시 다볼에 있는 상수리나무 쪽으로 건너가시오. 거기에서 그대는 하느님을 예배하러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과 마주칠 것이요. 한 사람은 염소새끼 세 마리를 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어리를 가지고 나머지 한 사람은 술 한 자루를 메고 올 것이요. 6. 그 때 야훼의 기운이 갑자기 내리덮쳐, 그대도 그들과 함께 신이 들려 아주 판사람이 될 것이요. 7.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시오. 8. 그대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시오. 나도 뒤따라 그대 있는 곳으로 내려가서 번제와 친교제를 드리리다. 나와 만날 때까지 칠 일간 기다리시오. 그 때에 가서 그대가 할 일을 가르쳐 주겠소.”

9. 사울이 사무엘을 뒤에 두고 길을 떠나자 하느님께서 그의 속마음을 새롭게 하였고, 그 날로 이런 조짐이 모두 일어났다. 10. 사울은 종을 데리고 그 언덕에 이르렀을 때 과연 예언자의 무리를 만나게 되었다. 그러자 갑자기 하느님의 기운이 사울에게 내리 덮쳐 그도 신이 들려 그들과 함께 신들린 것을 보고는 서로 “키스의 아들이, 저게 어찌 된 일이나. 사울도 예언자들 중의 하나던가?”하며 수군거렸다. 12. 거기에 있던 사람 하나가 “이들이 도대체 누구네 집 아들이냐?”고 묻는 바람에 “사울도 예언자들 중 하나더냐?”하는 속담이 생겼다. 13. 사울은 이렇게 신이 들렸다가 풀려난 뒤에야 집으로 돌아갔다.

14. 사울이 종을 데리고 오는 것을 보고 그의 삼촌이 “어디를 갔다 왔느냐?”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였다. “암나귀를 찾아 나섰지만 찾지 못하고 사무엘 어른께 갔다 오는 길입니다.” 15. 이 말을 듣고 사울의 삼촌이 다시 물었다. “그분이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더냐?” 16. 사울은 “암나귀는 이미 찾았다고 알려 주시더군요”하고 대답하면서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는 사무엘의 말만은 하지 않았다. 17.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야훼 앞에 모아 놓고 18. 일렀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집트뿐만 아니라 너희를 못살게 구는 모든 나라의 손아귀에서 너희를 구해 주었다.’ 19. 그런데도 당신들은 오늘날 어려움이나 괴로움을 당할 때마다 당신들을 살려 주신 당신의 하느님을 저버리고 ‘안 되겠습니다. 왕을 세워 주십시오’하니, 이제 지파별, 씨족별로 야훼 앞에 나와 서시오.”

20.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지파를 내세우고 제비를 뽑자 베냐민 지파가 뽑혔다. 다시 베냐민 지파를 갈래별로 내세우고 제비를 뽑자 키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 그래서 그를 찾아보았으나 보이지 않았다. 22. 사람들이 야훼께, “그 사람이 여기에 와 있습니까?”하고 묻자 야훼께서 “그렇다, 저기 짐작들 틈에 숨어 있다”하고 말씀하셨다. 23. 그래서 사람들이 뛰어 가 그를 데리고 나왔다. 그가 사람들 가운데 서자 그들의 키는 모두 그의 어깨에도 차지 못하였다. 24. 사무엘이 백성에게 “야훼께서 뽑으신 이를 보아라. 이 나라에는 이만한 인물이 없다”하고 선포하자 온 백성이 “우리 임금 만세!”하고 외쳤다.

25. 사무엘은 백성에게 군주제도를 설명하고 그것을 두루마리에 기록하여 야훼 앞에 보관해 두었다. 그리고 나서 온 백성을 각기 집으로 돌려보냈다. 26. 사울도 역시 기브아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 때 하느님께서 마음을 내키게 하시어 그를 따라 나선 군인들이 있었다. 27. 그러나 “이 친구가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으랴?”하고 멸시하는 못된 자들도 있었다. 그들은 사울을 얹잡아 보고 선물도 바치지 않았다.

교리 요점

* 우리의 성인 생활은 주님을 섬김 아래 놓여져야 한다는 첫째가는 원리가 때로는

우리의 과생적인 판단으로 인해 제한받는 경우가 많다.

해설

사무엘상 8장을 보면, 사무엘도 엘리와 같이 늙게 되자 그의 아들들에게 직무의 일부를 수행토록 했다.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처럼 그의 아들들도 부패하여 백성들이 불만족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백성들은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왕을 세워 달라고 요청했다. 즉, 그들도 다른 나라처럼 될 수 있도록 왕을 원한다고 말한 것이다. 왕이란 통치하는 진리를 뜻한다. 제사장 혹은 사제들은 사랑을 뜻하므로, 그 땅이 사무엘에 의해 통치되었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함을 첫 원칙으로 삼는 상태를 묘사한다. 이에 관해 깊이 생각해 보면, 사무엘상 8장 6-9절의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 주님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도록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며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것 또한 하고 계신다.

왕을 세워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는 우리가 스스로를 통치하는 원리를 선택하겠다는 것을 묘사한다. 우리는 의를 행하기 원하고 그것이 왜 옳은 것인지 이해해야 한다. 즉, 주님 혹은 누군가가 옳다고 한 것이라서 무조건 행해서는 안 된다. 또 우리는 종종 스스로 잘 판단하는 능력이 있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진리가 실생활에서 응용되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요구된다. 우리는 외양에 따라 판단하고 외관상으로 보기 좋은 것을 최선의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원치 않아서 세월이 흐르면 오게 될 좋은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서 내면의 깊은 문제를 연구하는 것을 꺼린다. 이것은 우리의 실생활 혹은 사회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종교생활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사울은 우리의 판단 과정에서 첫 번째 기준을 외면적인 차원에 두는 것을 묘사한다. 그가 사무엘에게 처음 왔을 때, 그는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고 있었다. 나귀란 자연적 이성(natural reason) 혹은 상식(common sense)을 뜻한다. 나귀는 타박타박한 걸음씩 확실히 땅을 딛고 걷는다. 나귀의 성질은 아주 고집스러워서 자기가 가려는 길 외에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사울이 자기 아버지의 나귀를 찾는 장면은 문제의 해결책을 상식적인 수준에서 발견하려는 우리의 시도를 표현한다.

즉, 우리는 어떤 문제들로 인한 즉각적인 변화를 좋아하지 않고 변화가 더 나은 것임을 보려고 시도하거나 그것을 보려고 기다리지도 않는 것을 뜻한다.

사람들은 사울의 건장하게 보이는 외관을 좋아했다. 사울은 사람들이 올려다봐야 할 정도로 키가 컸다. 이것은 젊은이들이 의지하는 이성인 무언가를 찾는 방법이다. 우리는 스스로가 잘 생각하고 잘 판단하면 세상살이가 편할 것으로 여기지만, 세상 이치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사울은 주님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이었다. 주님은 우선 사울을 기름 부으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그 후, 주님은 사람들이 던지는 제비를 통해 사울이 왕으로 뽑히게 하셨다. 주님은 사울의 약함을 알고 계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더 많은 경험을 갖게 될 때까지 인정하고 따를 수 있는 유일한 왕은 사울뿐이라고 여기신 것이다.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것은 주님께서는 청년기의 우리에게 스스로의 판단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붓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자기를 지배할 원리를 마음에 고정 시켜 보겠다는 우리의 첫 노력 속에도 의로운 것을 행하겠다는 순수한 바람 또한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기름은 사랑을 뜻한다. 우리 삶을 지배할 가치가 있는 원리 안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한다. 만약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이기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욕구일 뿐이다. 사울은 현명하지는 못했지만, 주님과 이웃을 섬기려는 순수한 바람이 있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려는 모든 첫 시도의 기본적인 소원이 선을 행함에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의를 행하기 원하며 높은 이상을 갖는다. 그들은 자신과 타인을 위해서 큰 공을 세워 세상에 이름을 남기기를 원한다. 또한 그들은 주님을 섬기겠다는 결심도 한다. 이러한 이상과 열정은 삶에 꼭 필요한 요소이다. 만약 젊은이들이 스스로에 대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충분히 현명하다고 착각하지만 않는다면, 그들은 모든 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도움이 요구될 때 주저하지 않아야 하며, 교회 또는 기타 모든 활동분야에서 무엇인가를 해 보는 것도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인내심 있게 오랜 시간을 들인 결과에 의해서만 실질적인 지혜가 획득됨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의 충고나 권고에 기꺼이 귀 기울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울이 통치하는 기간은 격렬한데, 이것은 성급한 젊은 시기를 보여준다. 또한 그는

전쟁에서 어느 정도의 승리를 거뒀지만, 심각한 실수도 했음을 기억해야 한다.

기본 상응 공부

기름 = 사랑

왕 = 이끌어 가는 진리

질문 정리

- 1) 사무엘이 늙자 이스라엘 민족들은 왜 왕을 요구했는가?
- 2) 그 요구에 대해 사무엘은 어떻게 느꼈는가?
- 3) 주님은 사무엘에게 백성의 요구가 무엇을 말한다고 하셨는가?
- 4) 주님이 뽑은 첫 왕은 누구였는가?
- 5) 사울이 사무엘을 처음 보았을 때,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 6) 사무엘은 주님이 사울을 선택하셨음을 어떻게 입증했는가?
- 7) 기름부음은 어떻게 이뤄지는가?
- 8) 주님은 사람들을 어디에 모으라고 하셨는가?
- 9) 사울은 그곳에서 어떻게 뽑혔는가?
- 10) 실제 제비가 뽑혀지도록 한 이는 누구인가?
- 11) 사람들은 왜 사울이 왕으로 됨을 기뻐했는가?

질문의 답

- 1) 사무엘의 아들들이 악했기 때문이다. 2) 불쾌하게 여겨 거절했다. 3) “그들은 나를 거절하는 것이다”
- 4) 사울 5) 잃어버린 나귀를 찾고 있었다. 6) 그에게 기름을 부음 (사무엘상 10:2-6)
- 7) 머리 위에 기름을 부음 8) 미스바 9) 제비로 뽑힘 10) 주님

11) 키가 크고 힘이 세게 보였기 때문

17

다윗을 기름붓다

머리말

사울의 약함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무엘상 13장과 15장을 읽도록 하자. 아주 어린 사람도 사울이 사무엘에게 불순종했던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외모 또는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는 사울의 성향을 어떻게 지적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사울로부터 다윗으로 가는 변화의 연결점은 영적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

성 서 본 문: 사무엘상 16장

16장: 1.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사울을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서 파면시켰다고 해서 너는 언제까지 이렇게 슬퍼만 하고 있을 셈이냐?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길을 떠나거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라는 사람에게로 보낸다. 그의 아들 가운데서 내가 왕으로 세울 사람을 하나 보아 두었다.” 2. 사무엘이 “사울이 알면 저를 죽일 텐데 어떻게 갑니까?”하고 여쭙자 야훼께서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거라. 야훼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하면서 3. 이새를 제사에 초청하여라. 그러면 내가 할 일을 내가 알려 주리라. 너는 내가 지적하여 일러주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성별시켜 나에게 바쳐라”하고 이르셨다. 4. 사무엘은 야훼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였다. 그가 베들레헴에 다다르자 그 성읍의 장로들은 안절부절못하고 그를 맞으며 “언짢은 일로 오신 것은 아니겠지요?”하고 물었다. 5. “아니오. 좋은 일로 왔소. 야훼께 제사를 드리러 온 것이요. 그러니 모두들 목욕재계하고 함께 제사 드리러 갑시다.” 이렇게 일러 놓고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목욕재계시킨 다음 제사에

나오라고 초청하였다. 6. 그들이 나타나자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바로
 여기 야훼께서 기름 부어 성별하실 자가 있구나”하고 생각하였다. 7. 그러나 야훼께서
 는 사무엘에게 “용모나 신장을 보지는 말라. 그는 이미 내 눈 밖에 났다. 하느님은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 야훼는 속마음을 들여다본다”
 하고 이르셨다. 8. 다음으로 이새는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나와 서게 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야훼께서 뽑으신 아들이 아니오”라고 하였다. 9. 이새가
 다시 삼마를 보여 드렸지만, 사무엘은 그도 야훼께서 뽑으신 아들이 아니라고 하였다.
 10. 이렇게 이새가 아들 일곱을 사무엘 앞에 나와 뵈게 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 가운데는 야훼께서 뽑으신 아들이 없소”하고
 11. 이새에게 그 밖에 아들은 또 없느냐고 물었다. 이새가 “막내가 또 있긴 하지만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하고 대답하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 데려
 오시오. 그가 올 때까지 우리는 식탁에 앉을 수가 없소”하고 일렀다. 12.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데려 온 그는 불이 붉고 눈이 반짝이는 잘생긴 아이였다. 야훼께서
 말씀을 내리셨다. “바로 이 아이다, 어서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13. 그리하여
 사무엘은 기름 채운 뿔을 집어 들고 형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야훼의 영이 다윗에게 내려 그 날부터 줄곧 그에게 머물러 있었다. 사무엘은
 길을 떠나 라마로 갔다.
 14. 야훼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야훼께서 내리신 악령이 그를 공포에 넣자 15. 그의
 신하들이 말하였다. “삼가 아뢰니. 하느님께서 내리신 악령이 임금님을 괴롭히고
 있으니 16. 부디 소인들에게 명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해 오도록 하십시오.
 하느님께서 임금님께 악령을 내리실 때마다 그로 하여금 수금을 타게 하시면 마음이
 개운해지실 것입니다.”
 17. 그래서 사울은 신하들에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들이라고 명하였다.
 18. 시중들던 한 젊은이가 말하였다. “소인이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한 아들을 알고
 있는데 그는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씩씩하고 날랜 용사로서 말도 잘하고 풍채도
 좋은데다 야훼께서 함께 해 주시는 사람입니다.” 19. 그리하여 사울은 이새에게 전갈
 을 보내어 양을 치고 있는 그의 아들 다윗을 보내라고 하였다. 20. 이새는 빵을 나귀로
 한 바리, 술을 가죽부대로 한 부대 그리고 새끼양 한 마리를 마련하여 아들 다윗

편에 사울에게 보냈다. 21. 이리하여 다윗은 사울을 찾아 와 그를 시중들게 되었는데 사울은 다윗을 몹시 사랑하여 그를 자기의 무기당번으로 삼았다. 22. 그리고 이새에게 전갈을 보냈다. “너의 아들이 마음에 들었다. 다윗으로 하여금 내 앞에서 시중들게 허락하여라.” 23. 하느님께서 보내신 악령이 사울에게 내릴 때마다 다윗은 수금을 뜬었다. 그러면 악령이 떠나고 사울은 회복되어 숨을 돌릴 수 있었다.

교리 요점

* 우리는 삶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진리를 이해해야 한다.

해설

우리는 사울의 성급함과 현명치 못한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연적 이성이 결정적 순간에 실패함을 알 수 있다. 사울이 했던 모든 것은 그에게는 아주 현명한 것처럼 보였다. 따라서 그는 사무엘이 지시했던 것들이 진정으로 현명한 것임을 보지 못했다. 우리의 자연적 이성은 밖으로 드러난 현상(appearance)에 의해 사물을 판단하고 최상의 것이 무엇인지 점검함에 있어서 즉각적인 외부적 결과만을 찾는다. 또한 그것은 깊은 문제들을 다루지 못하고 주님의 명령에 담긴 지혜를 신뢰하지 못하므로, 영적 진리들에 대해 “나는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어.”와 같이 성급하게 판단하고 그것을 덮어 버린다.

왕으로서의 다윗은 진리에 의한 통치(the rule of truth)를 표현한다. 여기서 진리는 더 깊게 이해된 것이며 영적 방법이 동원된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자연적 이성이 어떤 결점을 들어낼 때, 그것이 우리를 인도할 보다 더 깊은 이해성을 구하게 된다. 이러한 더 깊은 이해성의 특징은 다윗에 의해 표현되며 다윗의 초기 직업이 목자였던 것으로부터 나타난다. 진리에 대한 더 깊은 이해성은 순진함을 보호하며 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 기초 한다. 이러한 깊은 이해성은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뜻함이 필수 요건이다. 그래서 사울에 의하여 그려진 자연적 이성처럼, “상식”적인 것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 보려고 하지 않는다. 사무엘이 사울을 보았을 때,

사울은 그의 아버지의 나귀를 찾고 있었다. 나귀와 양에 관한 상응을 풀어 보면 왜 나귀를 찾는 사울은 자연적인 이성을 상징하고 양을 돌보던 다윗은 더 깊은 이해성을 상징하는 지 이해가 될 것이다.

다윗이 기름부음을 받게 되자 주님께에서 오는 힘은 사울로부터 빠져 나왔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 원리들로부터 생각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순간 상식적인 것에 의해 판단한 오류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과 같다. 다윗에게 기름 부어진 후에도 사울이 왕으로서 여전히 군림함은 우리가 변화를 인식하면서도 단번에 과거의 습관을 바꾸지 못함을 표현한다.

사울은 악령이 들리는 체험을 함으로서만 그가 처한 새로운 위치를 인식할 수 있었는데, 그때마다 다윗이 음악으로 그를 진정시켰으며 또한 사울의 무기당번병을 겸하였다. 성경에서는 여러 악기들이 언급된다. 스웨덴북은 악기들이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바람을 이용한 악기인 관악기는 애착(affection)을 표현하는데, 단순하고 직접적으로 표현함을 상징한다. 반면, 현악기는 진리를 이용해 애착이 표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달콤한 시인”으로도 불렸다. 많은 시편들이 그를 통해 쓰였기 때문에, 스웨덴북은 시편을 다윗의 책이라고 칭했다.

사울 앞에서의 다윗의 연주란 사랑에 기초한 추론의 형태를 의미한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깊이 이해하고 또한 그것을 삶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유혹하고 미혹하는 많은 “악령들”을 이겨 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말씀을 꾸준히 읽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 안에 있게 되는 하느님의 은총 중의 하나이다. 다윗의 연주, 즉 사랑에 기초한 추론은 사울을 미혹하는 악령들을 물리치는데 한 번의 실수도 없었다. 이것은 사랑에 기초한 추론만이 진실 된 것이며 모든 이기적 추론은 아주 쓸모없는 것이라는 말이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느님의 진리에 의한 것이며,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주님은 다윗의 계보 가운데서 태어나셔서 “다윗의 자손”으로 불렸고, 다윗의 출생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베들레헴(Bethlehem)”은 “빵의 집(house of bread)”이라는 뜻이다. 스웨덴북은 베들레헴이 “선으로부터 있는 진리(truth from good)”에 상응한다고 말한다.

다윗의 생김새를 묘사하는 본문 18절은 매우 흥미롭다. 기름부음을 받던 시기의 다윗은 소년에 (11-12절) 불과했지만, 여기서 그는 “썩썩하고 날랜 용사”로 묘사된다. 세상적인 사람에게 영적 진리는 어떤 실질적인 효용도 없는 어린 아이의 귀여움 정도의 가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사울이 악령이 덮쳤을 때 무언가 필요함을 인식했듯이, 우리는 불쾌감을 느끼고 누군가의 도움이나 위로가 필요로 할 때서야 비로소 영적 진리의 힘을 느끼게 된다. 다윗은 거룩한 땅 내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적을 무찌르는 왕이 되었다. 그는 자기 자신 대신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주님의 힘이 언제나 그와 함께 했다. 우리 또한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그분은 모든 우리 내부에 있는 적들과 싸워 이기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기본 상응 공부

다윗 = 우리의 영적 이성으로 통치하는 하느님의 진리

베들레헴 = 선에서 나오는 진리

질문 정리

- 1) 주님은 사울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는가?
- 2) 주님은 새로운 왕을 찾기 위해 사무엘을 어디로 보냈는가?
- 3) 베들레헴에서는 다윗 외에 누가 태어났는가?
- 4) 사무엘이 이새의 큰 아들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는가?
- 5) 그 때 주님은 사무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 6) 주님은 이새의 아들 몇 명을 거절하셨는가?
- 7) 사람들에게 다윗을 데려오게 했을 때,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 8) 다윗에게 기름 부어지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9) 이와 동시에 사울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 10) 다윗의 용모는 어떠했는가?
- 11) 이외에 다윗이 가진 특성은 무엇인가?

- 12) 다윗은 어떤 악기를 연주했는가?
- 13) 다윗은 사울의 관심을 어떻게 샀는가?
- 14) 사울은 어떤 지위를 다윗에게 주었는가?
- 15) 성경의 어떤 책이 다윗을 통해 부분적으로 쓰였는가?

질문의 답

- 1) 그의 왕국을 잃게 될 것 2) 베들레헴 3) 베냐민, 예수 4) “바로 여기 야훼께서 기름 부어 성별하실 자가 있구나” 5) “이 아들도 야훼께서 뽑으신 아들이 아니다” 6) 일곱 명 7) 양을 치고 있었다 8) 주님의 영이 다윗에게 내림 9) 악령이 그를 괴롭힘 10) 불이 붙고 눈이 반짝이며 잘생긴 아이 11) 용사, 시인, 하느님께 순종 12) 하프(lyre, harp) 13) 음악으로 사울의 머리를 맑게 해줌 14) 무기당번 15) 시편들

18

솔로몬의 지혜

머리말

다윗에 대해서 특별히 기억해야 할 사항은 사무엘의 기름부음이 있기 전, 그는 베들레헴에서 목자이고 음악가이며 용사였다는 것이다. 또한 다윗에 의해 시편서의 많은 부분들이 쓰였음도 기억하자.

성서 본문: 열왕기상 3장

3장: 1. 솔로몬은 이집트의 임금 파라오와 결혼동맹을 맺었다. 그는 파라오의 딸을 맞이하여, 자기의 궁과 야훼의 전과 예루살렘의 성곽을 다 짓기까지 그 아내를 다윗성에 두었다. 2. 국민은 아직 야훼의 이름으로 부를 전이 지어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3. 솔로몬은 야훼를 사랑하였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라 살았다. 다만 한 가지, 그는 산당에서 제사하고 향을 피웠다. 4. 기브온에는 큰 산당이 하나 있었는데 솔로몬은 늘 그리로 가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은 그 제단에 번제물을 천 마리나 바친 적이 있다. 5. 야훼께서 그 날 밤 기브온에 와 있던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다. 하느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면 좋겠느냐?”고 물으셨다. 6.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당신께서는 저의 아버지인 당신의 종 다윗에게 한결같은 은혜를 베푸셨고 또 오늘 그에게 주신 이 아들로 하여금 그의 왕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7. 하느님 야훼여, 당신께서는 소인을 제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으로 삼으셨습니까만 저는 어린 아이에 지나지 않으므로 어떻게 처신하여야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8. 그런데 소인은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당신의 백성 가운데서 살고 있는 몸입니다. 9. 그러하오니 소인에게 명석한 머리를 주시어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고 흑백을 잘 가려 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감히 그 누가 당신의 이 큰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10. 이러한 솔로몬의 청이 야훼의 마음에 들었다. 11.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네가 장수나 부귀나 원수 갚는 것을 청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옳은 것을 가려내는 머리를 달라고 하니 12. 자, 내가 네 말대로 해 주리라. 이제 너는 슬기롭고 명석하게 되었다. 너 같은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으리라. 13. 뿐만 아니라 네가 청하지 않은 것, 부귀와 명예도 주리라. 네 평생에 너와 비교될 만한 왕을 보지 못할 것이다. 14. 네가 만일 네 아비 다윗이 내 길을 따라 살았듯이 내 길을 따라 살아 내 법도와 내 계명을 지킨다면 네 수명도 길게 해 주리라.” 15. 솔로몬이 깨어 보니 꿈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야훼의 계약 궤 앞에 나아가 서서 번제와 친교제를 드리고 또 모든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16. 그런데 창녀 둘이 왕에게 나와 섰다. 17. 그 가운데 한 여자가 말을 꺼냈다. “임금님, 이 여자와 저는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을 때에 이 여자도 집에 있었습니다. 18. 그런데 제가 해산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이 여자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집에는 우리 둘만 있었습니다. 19. 그런데 그 날 밤, 이 여자는 자기의 아들을

칼아 몽개어 죽였습니다. 20. 그리고 나서 이 여자는 한밤중에 일어나 이 계집종이 잠자는 사이에 제 곁에 있던 제 아들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제 아들을 가져다 자기 품에 두고 죽은 자기 아들을 제 품에 놓고 간 것입니다. 21. 제가 아침에 일어나 젖을 먹이려다 보니 아이는 죽어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서야 그 아이가 제 몸에서 낳은 아이가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22. 그러자 다른 여자가 “무슨 말을 하느냐? 산 아이는 내 아이이고 죽은 아이가 네 아이야”하고 우겼다. 첫 번째 여자도 “천만에! 죽은 아이가 네 아이이고 산 아이는 내 아이야”하고 우겼다. 그렇게 그들은 왕 앞에서 말싸움을 벌였다. 23. 그 때 왕이 입을 열었다. “한 사람은 ‘산 이 아이가 내 아들이고 네 아들은 죽었다’ 하고 또 한 사람은 ‘아니다. 네 아들은 죽었고 내 아들이 산 아이다’라고 하는구나.” 24. 그러면서 왕은 칼 하나를 가져오라고 하였다. 신하들이 왕 앞으로 칼을 내오자 25. 왕은 명령을 내렸다. “그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쪽은 이 여자에게 또 반쪽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26. 그러자 산 아이의 어머니는 제 자식을 생각하여 가슴이 메어지는 듯하여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고 아이를 죽이지만 마십시오.” 그러나 다른 여자는 “어차피 내 아이도 네 아이도 아니니 나누어 갖자”고 하였다. 27. 그러자 왕의 분부가 떨어졌다. “산 아이를 죽이지 말고 처음 여자에게 내주어라. 그가 참 어머니다.” 28. 온 이스라엘이 이 판결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왕에게 하느님의 슬기가 있어 정의를 베푼다는 것을 알고는 모두들 왕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교리 요점

* 의를 사랑할 때만이 평화를 가질 수 있다.

해설

다윗은 용맹스러운 왕이었다. 다윗에 의해 이스라엘 모든 적들이 굴복되었고 예루살렘 또한 정복되었으며, 시온산에 세운 새 성막에 궤도 안치되었다. 그는 궤를 위해 성전을 짓기 원했으나, 주님은 그가 “용사”였기 때문에 이것을 금하셨다. 성전은

천적 인격을 표현한다. 우리는 시험에 맞서 싸워야 하지만, 투쟁하는 상태는 완성된 상태가 아니며 단지 인격의 건설을 위한 준비에 불과하다. 인격 속의 성전은 주님에 의해 우리 안에 건설된다. 그러나 이는 주님이 우리의 심정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 안의 길을 깨끗이 할 때만이 가능하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보좌에 앉았을 때, 그가 처음으로 한 일은 기브온에서 주님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이었다. 그곳은 성막의 가구들을 가진 옛 성막이 마지막으로 지어졌던 곳이다. (역대기하 1:1-6 참조) 백성들은 제가 그곳에 없더라도 여전히 옛 성막을 그들의 주요한 예배 장소로 여겼고, 사무엘 때에 실로에서 있었던 것 같이 모든 정규적인 예배 행사를 그곳에서 계속 행했다. 솔로몬이 그곳에 오가는 동안, 그는 주님을 섬기는데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헌납하였는데 유명한 그의 꿈도 그곳에서 있게 된다. 그 꿈에서 주님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라고 그에게 물으셨다. 솔로몬은 주님이 줄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이해력이 있는 심정(understanding heart)” 즉 가장 슬기로운 선택을 했다. “Understanding”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실제로는 “들음(hearing)”을 의미한다. 귀(ear)와 듣는 것(hearing)은 순종(obedience)과 상응한다.

이해력이 있는 심정(Understanding Heart) -순종하는 심정(obedient heart)은 진정한 지혜의 상징으로서 시비(是非)를 분별하는 능력이다. 이는 주님의 뜻에 맞는 의를 행하고 싶은 순수한 바람(desire)으로부터 비롯된다. 스웨덴북은 우리가 진실한 것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그렇게 배운 내용을 실천할 때만이 주님에 의하여 우리의 영혼이 계발되어 진다고 거듭 강조한다. 솔로몬의 지혜는 유명해져서 여러 왕들과 여왕들이 그의 고견을 듣기 위해 그를 찾아 왔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다. 솔로몬의 이름은 “평화스러움(peaceful)”을 뜻한다. 우리는 의를 행함을 사랑하게 될 때 평화를 얻게 된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이 사랑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천국적 인격을 지으신다. 열왕기상 6장 7절을 읽도록 하자. 성전은 우리의 심정(heart)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성전은 우리가 준비한 재료들로 주님에 의해 아주 조용하게 지어진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 중 하나라도 기억하고 그것에 순종할 때, 그것을 영적으로 보면 주님이 우리 안에 성전을 지을 때 쓰실 돌이나 목재를 다듬고 있는 것이 된다. 성전이 지어지는 데는 7년이 걸렸다.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 주님께서 6일간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7일째에는 휴식하신 것을 안다. 이것은 우리 삶 전체가 우리 안의 성전을 완성하는데 요구되어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울은 우리의 힘으로 옳은 것을 행하고 우리의 사상으로 옳은 것을 판단하려는 시도를 묘사한다. 이러한 기초로 하늘의 왕국은 우리 안에 결코 건설될 수 없다. 다윗은 우리가 말씀에서 발견한 진리에 따라 의를 행하고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며 힘을 주시는 분으로 신뢰함을 표현한다. 우리는 이로 인해 우리의 내적 악들을 인식하고 정복하게 되어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시도록 하고 우리의 바깥쪽 삶도 정리정돈 하게 된다. 솔로몬은 우리가 말씀의 행함을 사랑하여 주님의 뜻을 행하는 거듭남의 마지막 상태를 묘사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평화가 있게 된다. 열왕기상 일부 내용을 통한 솔로몬의 부귀영화와 소유물 등은 우리의 영혼 안에 갖게 되는 아름다운 것들을 표현한다.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두 여인의 송사를 다루는 광경은 솔로몬의 지혜로움의 한 예이다.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두 여인 중에서 진정한 어머니는 아들을 죽이기 보다는 차라리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고 이해하는 솔로몬의 재판을 본다.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다. 어머니인 체 하는 가짜 어머니는 진리에는 실제 관심이 없고 다만 진리들을 소유한 것처럼 보이기 원하는 사람들을 표현한다. 반면, 진짜 어머니는 실제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진리를 보존함에 있어서 그것이 자신의 소유물이 아닌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표현한다. 지혜로운 마음이란 모든 진리와 선이 자신의 소유물이 아닌 주님의 소유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기본 상응 공부

귀와 듣는 것 = 순종

성전 = 주님이 거처하시는 진정한 인격

질문 정리

- 1) 다윗은 사울과 무엇이 다른가?
- 2) 다윗이 가진 특별한 재능은 무엇인가?
- 3) 성경의 어느 책이 다윗을 통해 주어졌는가?
- 4) 다윗의 통치 때에 성취된 것은 무엇인가?
- 5) 다윗은 궤를 어디에 놓았는가?
- 6)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은 누구인가?
- 7)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인가?
- 8) 솔로몬의 이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9) 솔로몬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어디로 갔는가?
- 10) 기브온에 무엇이 있었는가?
- 11) 기브온에서 꿇던 솔로몬의 꿈속에서 말한 이는 누구인가?
- 12) 주님은 솔로몬에게 어떻게 물었는가?
- 13) 솔로몬은 주님에게 무엇을 요구했는가?
- 14)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무엇을 지었는가?
- 15) 솔로몬의 통치는 몇 년간 지속되었는가?

질문의 답

- 1) 주님의 직접적인 명령들에 순종했다 2) 음악, 시인 3) 시편 4) 평화 5) 예루살렘 6) 솔로몬 7) 다윗 8) 평화스러움 9) 기브온 10) 성막(tabernacle)
- 11) 주님 12)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13) 이해력이 있는 심정 (Understanding heart) 14) 성전(temple) 15) 40년

19

엘리야와 아합

머리말

본과의 역사적 시대는 솔로몬 왕국의 분열 이후이다. 따라서 역사적 배경에 대한 자료는 본문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열왕기상 12장을 통해 왕국의 분열에 관한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왕국이 분단된 이유도 이해하도록 하자.

성 서 본 문: 열왕기상 17, 18장

17장: 1. 길르앗의 티스베에 살고 있던 티스베 사람 엘리야가 아합왕에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 전에는 앞으로 몇 해 동안 비는 물론 이슬도 한 방울 이 땅에 내리지 않을 것이요.” 2.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내렸다. 3. “이 곳을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르단강 동편에 있는 그릿 개울에서 숨어 지내며 4. 개울물을 마셔라. 음식은 까마귀들을 시켜 날라다 주도록 하리라.” 5. 엘리야는 야훼의 말씀을 따라 요르단강 동편에 있는 그릿 개울로 가서 살았다. 6. 까마귀들이 아침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날라다 주었다. 그는 계곡의 물을 마셨다. 7. 그렇게 얼마를 지내는데 개울의 물마저 말라 버렸다. 온 땅에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8.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내렸다. 9. “여기를 떠나 시돈 지방의 사렙다로 가서 그 곳에서 살도록 하여라. 거기에 한 과부가 살고 있는데 내가 그 과부로 하여금

너에게 음식을 주도록 해 놓았다.” 10. 그래서 엘리야는 그 곳을 떠나 사렙다로 갔다. 마을에 들어서 보니 한 여인이 뿔감을 줍고 있었는데 과부였다.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넸다. “목이 마른데 물 한 그릇 떠 주실 수 없겠소?” 11. 여인이 물을 뜨러 가는데 엘리야가 다시 불러서 말했다. “기왕이면 떡도 한 조각만 가져다 주시오.” 12. 여인이 대답하였다. “군 떡은 없습니다. 있다면 천벌을 받아도 좋습니다. 저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뉘주에 밀가루 한 줍과 병에 기름 몇 방울이 있을 뿐입니다. 저는 지금 뿔감을 조금 주워 다가 저희 모자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있는 것이나 모두 먹을 작정이었습니다.” 13. 엘리야가 과부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오. 집에 들어가서 방금 말한 대로 음식을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 나에게 먼저 한 조각 가져오고 그 후에 아들과 함께 드도록 하시오.

14.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이 땅에 비를 다시 내릴 때까지 뉘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15. 이 말을 듣자 과부는 곧 집 안에 들어 가 엘리야가 말한 대로 하였다. 그리하여 엘리야와 과부 모자에게는 먹을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다. 16. 엘리야가 전한 야훼의 말씀 그대로 뉘주에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병의 기름도 동이 나지 않았다. 17. 이 일이 있는 후에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눕게 되었는데 병이 매우 심하여져서 마침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18. 여인이 엘리야를 추궁하였다. “오, 하느님의 사람이여! 어른께서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오시어 내 죄를 일깨워 주시고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19. 그가 말하였다. “부인, 아이를 좀 봅시다.” 그는 과부의 품에서 아이를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자기 잠자리에 뉘었다. 20. 그리고 그는 야훼를 소리쳐 불렀다. “오, 나의 하느님 야훼여, 당신께서는 기어이 제가 머무르고 있는 과부의 집에 슬픔을 내리시어 아이를 죽이시렵니까?” 21. 그는 아이 위에 세 번 엎드려 몸과 몸을 맞추고 나서 야훼께 기도하였다. “오, 야훼 나의 하느님, 제가 당신께 기도합니다. 이 아이의 몸에 다시 생명의 호흡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22. 야훼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에게 다시 생명의 호흡을 주시어 마침내 아이는 살아났다. 23. 엘리야는 그 아이를 안고 아래층으로 내려 와 아이 어머니에게 주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부인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24. 그러자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는 과연 하느님의 사람이십니다. 어른께서

전하신 야훼의 말씀도 참이심을 이제 알았습니다.”

18장: 1. 삼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내려왔다.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비를 땅 위에 내리리라.” 2. 그리하여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러 갔다. 3. 가면서 보니 사마리아에 기근이 매우 심하였다. 아합은 궁내대신인 오바디야를 불렀다. 오바디야는 야훼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4. 그는 왕후 이세벨이 야훼의 예언자들을 학살할 때 예언자 백 명을 오십 명씩 동굴에 숨기고 먹을 것과 물을 날라다 주어 살려 낸 사람이었다. 5. 아합이 그 오바디야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나와 둘이서 전국을 다녀 보자. 어쩌다가 풀이 있는 곳을 만날지도 모르니 모든 샘과 계곡을 살살이 뒤져 보자. 어떻게든 말과 노새를 살려야지 그냥 죽일 수는 없지 않겠느냐?” 6. 이리하여 그들은 전 국토를 둘로 나누고 한쪽은 아합 자신이, 다른 쪽은 오바디야가 담당하여 두루 다니면서 물을 찾기 시작하였다. 7. 오바디야는 돌아다니다가 자기를 만나러 온 엘리야와 마주치게 되었다. 그는 엘리야를 알아보고 그 앞에 엎드려 인사를 하였다. “아니, 엘리야 선생님이 아니십니까?” 8.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그렇소. 가서 왕에게 엘리야가 여기에 와 있다고 전하십시오.” 9. 그러나 오바디야는 놀라며 말하였다.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나를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시려는 것입니까? 10. 선생님의 하느님 야훼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말씀드립니다. 왕은 선생님을 찾기 위하여 모든 나라, 모든 왕국을 걸고 선생님이 없다는 것을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11. 그런데 나더러 왕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보고하라는 말씀입니까? 12. 내가 선생님을 떠난 즉시 야훼의 영이 선생님을 알지 못하는 곳으로 옮겨 가면 어떻게 합니까? 나의 보고를 듣고 왕이 왔을 때 선생님은 여기 계시지 않겠지요. 그렇게 되면 그는 나를 죽일 것입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야훼를 경외한 사람입니다. 13. 내가 한 일은 들어서 아시겠습니까만, 전에 이세벨이 야훼의 예언자들을 학살했을 때, 야훼의 예언자 백 명을 오십 명씩 동굴에 숨기고 먹을 것과 물을 날라다 주어 살려 내었습니다. 14. 그런데 선생님은 지금 나더러 왕에게 가서 엘리야가 있는 곳을 안다고 보고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그는 나를 죽일 것입니다.” 15.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야훼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내가 기필코 오늘 왕을 만나리다.” 16. 그러자 오바디야는 아합을 찾아 소식을 전하였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왔다. 17.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

말을 건넸다. “그대가 이스라엘을 망치는 장본인인가?” 18.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이스라엘을 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사람은 바로 왕 자신과 왕의 가문입니다. 왕께서는 야훼의 계명을 버리고 바알을 받들어 섬겼습니다. 19.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멜산으로 모이게 하여 나에게 보내십시오. 그리고 이세벨 왕비에게서 녹을 받아 살고 있는 바알의 예언자 사백 오십 명과 아세라의 예언자 사백 명도 함께 모아 주십시오.” 20. 아합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예언자들에게 가르멜산으로 모이라고 하였다. 21. 엘리야가 백성들 앞에 나서서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 작정입니까? 만일 야훼가 하느님이라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느님이라면 그를 따르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22.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야훼의 예언자로서 살아남은 사람은 나 하나요. 그러나 바알의 예언자는 사백 오십 명이나 있습니다. 23. 이제 우리에게 황소 두 마리를 끌어다 주시오. 그들에게 한 마리를 잡아 장작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이지 않은 채 그냥 두게 합시다. 나도 한 마리를 잡아 장작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이지 않겠습니다. 24. 당신들은 당신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르시오. 나는 나의 하느님 야훼의 이름을 부르겠소. 어느 쪽이든 불을 내려 응답하는 신이 참 하느님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두 그렇게 하자고 하였다. 25.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수가 많으니 먼저 시작하십시오. 황소 한 마리를 택하여 제물로 드리고 당신들 신의 이름을 부르시오. 그러나 불을 붙이지는 마시오.” 26. 그들이 준비한 황소를 받아 잡아 놓고는 아침부터 한낮이 되기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다. “오, 바알이여, 대답하소서.” 그러나 대답은커녕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들 예언자들은 자기네가 만든 제단을 돌면서 절뚝거리는 춤을 추었다. 27. 한낮이 되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말하였다. “바알은 신중인지 아니면 여행 중인지 혹은 잠이 드셨는지도 모르니 어서 깨워 보아라.” 28. 그들은 더 크게 소리쳤다. 자기네 의식을 따라 칼과 창으로 몸에 상처를 내어 피까지 흘렸다. 29. 한낮이 지나 제사 시간이 될 때까지 그들은 신접한 모습으로 날뛰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답은커녕 아무 소리도, 아무 기척도 없었다. 30. 그러자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자기 앞으로 다가오라고 말하였다. 백성들이 모두 다가 오자 그는 허물어진 야훼의 제단을 고쳐 쌓았다.

31. 엘리야는 일찍이 야훼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내려 주신 야곱의 열 두 아들들에게서 나온 지파의 수대로 돌을 열 두개 모았다. 32. 엘리야는 그 돌 열 두 개로 야훼의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제단 주위에는 곡식 두 가마 정도 들어 갈 만큼 큰 도랑을 팠다. 33. 그는 장작을 쌓은 다음 송아지를 잡아 그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나서 물을 네 동이 가득 채워다가 번제물과 장작 위에 쏟으라고 하였다. 그들이 그대로 하자 34. 그는 그렇게 한 번 더 하라고 하였다. 그들이 그대로 하자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세 번을 붓자 35. 물이 제단 주위로 넘쳐흘렀고 옆 도랑에 가득 괴었다.

36. 제사 드리는 시간이 되어 예언자 엘리야가 앞으로 나와서 외쳤다. “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여, 이제 당신께서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시고 제가 당신의 종이며 제가 한 모든 일이 당신의 말씀을 좇아 한 것임을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십시오. 37. 응답해 주십시오. 야훼여, 저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백성으로 하여금 야훼께서 하느님이심을 깨닫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신 분이 당신이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38. 그러자 야훼의 불길이 내려 와 제물과 함께 나무와 돌과 흙을 모두 태웠고 도랑에 괴어 있던 물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말려 버렸다.

39. 온 백성이 이 광경을 보고 땅에 엎드려서 부르짖었다. “야훼께서 하느님이십니다. 야훼께서 하느님이십니다.”

40.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소리쳤다. “바알의 예언자들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모조리 사로잡으시오.” 엘리야는 백성들이 사로잡아 온 그 예언자들을 키손 개울로 끌고가 거기에서 죽였다. 41.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이젠 돌아 가셔서 음식을 드십시오. 내 귀에 비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42. 아합이 돌아가서 음식을 드는데 엘리야는 가르멜산 꼭대기에 올라 가 무릎을 꿇고 얼굴을 양 무릎 사이에 묻었다. 43. 엘리야는 그의 시종에게 올라가서 서쪽 하늘을 바라보라고 일렀다. 시종이 올라가 서쪽 하늘을 바라보고 와서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엘리야는 일곱 번이나 되풀이하여 가 보라고 명하였다.

44. 시종은 일곱 번째 보고 와서는 바다에서 손바닥 만한 구름이 한 장 떠올랐다고 보고하였다. 그러자 엘리야가 시종에게 명령하였다. “아합에게 가서, 비가 쏟아져

길이 막히기 전에 어서 병거를 채비하여 내려가시라고 일러라.” 45. 그러는 동안 하늘이 구름으로 덮이어 캄캄해지면서 바람이 일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아합이 병거를 몰아 이즈르엘을 향하여 가는데 46. 엘리야는 야훼의 힘에 사로잡혀 옷을 걷어붙이고 아합을 앞질러 이즈르엘 어귀까지 뛰어 갔다.

교리 요약

- * 우리가 거듭남의 상태에 들어서게 되면, 우리의 지성 부분은 심정부분 보다 더 즉각적으로 시험에 복종 당한다.
- * 심정 속에 있는 이타적인 사랑 즉 주님을 사랑함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준다.

해설

솔로몬의 통치는 천국적 삶의 이상적인 모습을 표현한다. 솔로몬의 통치하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최고의 번영을 누렸고 그들의 이름도 해외까지 널리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는 오래 지속될 수 없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진보만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하나의 시험을 극복하고 나면 또 다른 시험에 직면하게 된다. 승리는 그것에 따른 고질적 시험을 갖고 있다. 고질적 시험이란 자기만족으로, 승리로 기뻐하며 스스로가 충분히 강하다고 인식하는 순간 시험과의 투쟁은 다시 시작된다는 것이다.

솔로몬은 통치 후반기 동안 그의 번영과 부귀에 취해서 여러 국가로부터 아내들을 취하였고, 여러 나라의 신들을 위한 신전을 지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영화로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징수했다. 결국 이로 인해 국가는 분열되기 시작했고, 통치의 말기에는 솔로몬 또한 우상을 숭배하였다. 우리는 천국에 도착한 후에야 비로소 진정한 평화에 이를 수 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격이 자랄수록 새롭고 더 깊은 악들을 우리 내에서 발견하고 그들과 싸워 승리해야 한다.

솔로몬이 죽은 후 나라는 둘로 분열되었다. 남쪽의 유다왕국은 솔로몬 왕권을 유지하며 수도를 예루살렘에 두었다,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처음에는 세겜을 수도로 하고 후에는 사마리아를 수도로 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인간을 이루는 근본적인 두 부분 즉 이해성과 의지를 표현한다. 우리는 두 부분이 일치할 때 평화로운 상태에 있게 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안의 이 두 부분이 서로 교착 상태에 있는 경우가 더 흔하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꼭 옳은 것만을 본다고는 할 수가 없다. 또한 옳은 것을 행하기 원하였지만 실패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우리 마음에 있는 잘못된 사상들로 인한 것이다. 본문 이후 구약성서 대부분은 구세주가 오시기까지 대치하는 두 왕국에 대한 이야기이다. 결국 두 왕국은 적들의 포로가 되고 만다. 유다 왕국에는 선왕들이 몇이라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왕국은 악한 왕들 뿐이었다. 이것은 우리의 사상이 거짓화 되어 가는 때에도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선한 의지가 우리를 움직여 선한 일을 하게 하는 때도 있다는 것을 그려준다. 거짓 신상들을 세워 놓음은 우리를 황폐하게 하는 특수한 악들을 의미한다. 우리의 삶의 측면에서 이러한 악들이란 자신만 추켜올리는 경향과 세상의 이러한 경향으로 빠지게 됨을 뜻한다.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은 외세에 저항하기에는 모두 약했다. 이는 그들의 힘이 여호와에 의존해 있었음에 불구하고 그들이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이다. 우리 또한 주님께게서 등을 돌리게 되면 약해진다.

여로보암은 그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금송아지 신상을 세웠는데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어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들을 숭배하도록 했다. 이것의 의미는 영에 속한 것을 우선하지 않고 “자연적 선택, 학식 또는 세속적 성공”을 우선으로 하는 것을 표현한다. 세겜과 베델은 아브라함의 첫 번째 두 제단들이 있었던 곳임을 배웠다. 그러나 여기서 그들은 지금 전적으로 거꾸로 되어 있다.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는 폭동과 반정의 역사였다. 그들의 악은 금송아지를 세워 놓도록 만드는 것과 같이 끊임이 없었다. 이스라엘 왕국의 역대 왕들에 대해서,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걸었던 죄의 길을 따라 갔고, 그의 죄로 이스라엘 왕국 백성을 죄짓게 만든 자”라고 반복되어 말해진다.

엘리아는 이스라엘 왕국의 왕들 중에서도 가장 강하며 많은 우상을 숭배했던 아합의 통치 시대에 출현 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 아합의 통치는 오래 지속되고 번영했다.

비종교적 역사가들은 아합을 위대한 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에 대한 칭찬이 한 구절도 없다. 그는 시돈왕 에드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다. 이세벨은 역사상의 여인들 중 가장 사악한 여자들 중의 한명이라고 평가되는 인물이다. 그녀는 아합과 이스라엘 왕국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하도록 유인했다. 바알 숭배는 자아 사랑으로 통치됨을 뜻한다.

아합과 이세벨 통치하의 이스라엘 왕국은 거짓과 이기적인 것으로 통치되는 우리의 마음을 뜻한다. 인간은 대체로 무엇보다도 자신을 우선한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상태에 이르면 우리는 하느님의 가르침을 잊기 원한다. 주님의 예언자인 엘리야는 말씀을 표현한다.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없애려고 애썼지만, 주님은 그를 보존하셨다. 주님은 처음엔 그를 요르단강 동편에 있는 그릿 개울에서 시냇물이 마를 때까지 숨어 있도록 하였고, 후에는 지중해에서 북쪽 방향으로 떨어져 있는 사렘과 지방에서 살도록 하셨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후방”을 상기하도록 그려주고 있다. 우리는 본문에서 묘사된 이스라엘 왕국의 과격한 상태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여길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길만을 고집하면,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진리임을 알면서도 그것을 모른척하고 이스라엘 왕국과 같은 극도의 악한 상태로 진입하게 된다.

성경에서 엘리야의 첫 등장은 가뭄과 흉년에 대한 예언으로 시작된다. 우리의 생각과 삶의 중심이 자아가 될 때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진리의 비”가 우리의 마음에 내려질 수 없게 되므로 “선함의 열매” 또한 우리의 행동에서 맺혀질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와 더불어 번성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끼며, 우리의 “땅”은 황폐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자신과의 합의 하에 스스로에게 잘못된 것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진리를 상징하는 아합 왕은 마침내 물을 찾아 나서게 된다. 이때가 주님이 다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그리고 아합은 “야훼를 지극히 경외하는” 오바디야를 궁내 대신으로 데리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늘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시는 주님의 섭리인 것이다. 우리 속의 모든 것이 옳음에서 멀어져 있더라도, 행실에 대한 질서를 확립하는 옳음에 대한 우리의 기억적 지식은 존재한다. 이것이 아합의 궁내 대신으로 오바디야가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주님은 이 기억적 지식을 수단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물을 찾아 나설 때 아합과

오바디아는 서로 다른 방향에서 찾아야 했으며 엘리야가 만난 사람은 오바디아여야만 했다.

엘리야는 대결을 위해서 아합에게 바알의 모든 예언자를 가르멜산에 모이게 하라고 말했다. 가르멜(carmel)산은 한쪽에서는 지중해를 바라볼 수 있고, 다른 한쪽으로는 이즈르엘 계곡을 관망할 수 있는 낙타의 등과 같은 형태다. 이즈르엘 계곡은 과거에 바락과 시스라의 군대 사이에 결정적 싸움이 있었던 장소이기도 하다. 가르멜산으로 올라감은 우리의 모든 축적된 지식, 시험을 이긴 승리, 극복 못한 시험 등 과거의 모든 경험을 관망할 수 있는 수준까지 우리의 생각을 끌어올림을 뜻한다.

바알의 예언자들 즉 자아를 두둔 하려는 논쟁들은 아주 열심히 노력했지만, 하늘로부터 불을 끌어 낼 수 없었다. 하늘로부터의 불이란 이타적 사랑을 의미하며, 그것만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준다. 열두 개의 돌로 쌓인 엘리야의 제단은 계명예의 순종을 의미한다. 그리고 제단에 네 동이씩 세 번이나 부은 물은 엘리야에 대항하는 모든 논쟁을 의미한다. 이 물이 쏟아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늘로부터의 불은 떨어져 당겨졌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사실을 보고 이기심에서 벗어나 주님을 섬기려고 결정하면, 우리의 땅은 큰 비로 한 번 더 적셔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기본 상응 공부

유다왕국 = 의지 부분

이스라엘 왕국 = 이해성 부분

질문 정리

- 1) 솔로몬은 무엇을 지었는가?
- 2) 솔로몬은 말기에 어떤 실수를 범했는가?
- 3) 실수의 결과는 무엇인가?
- 4) 분열된 두 왕국의 이름은 무엇인가?
- 5) 어느 왕국에 예루살렘이 있었는가?

- 6) 북쪽 왕국의 왕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감을 막기 위해 어떻게 했는가?
- 7) 역사가들은 북쪽 왕국에서 어느 왕이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가?
- 8) 아합의 아내 이름은 무엇인가?
- 9) 아합의 통치기간에는 어떤 재난이 발생했는가?
- 10) 어떤 예언자가 아합에게 경고하기 위해 보내졌는가?
- 11) 아합은 엘리야를 어떻게 대하려 했는가?
- 12) 주님은 엘리야를 어떻게 돌보셨는가?
- 13) 엘리야가 아합에게 되돌아 와서 어떤 대결을 제시했는가?
- 14) 대결은 어디서 있었는가?
- 15) 바알 예언자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그들의 하느님을 불렀는가?
- 16) 엘리야는 그의 제단을 어떻게 지었는가?
- 17) 엘리야가 주님을 부르자 어떻게 되었는가?
- 18)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는가?
- 19) 바알 예언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 20) 대결의 결과로 무엇이 왔는가?

질문의 답

- 1) 성전 2) 우상에게 예배했음 3) 왕국이 갈라짐 4) 이스라엘, 유다 5) 유다
- 6) 두 개의 금송아지를 세웠다 7) 아합 8) 이세벨 9) 가뭄 10) 엘리야 11) 죽이려고 했음
- 12) 까마귀가 그를 먹였음 13) “불로 응답하는 하느님...” 14) 가르멜산
- 15) 한 낮이 되기까지 불렀다 16) 열 두 개의 돌로 쌓고, 물 열 두 동이를 부었음
- 17) 불이 내려왔다 18) “야훼가 하느님이십니다” 19) 엘리야가 그들을 죽였다
- 20) 비가 내렸다

20

아사왕의 통치

머리말

본과에 앞서 미리 알아야 할 것은 솔로몬 왕국이 두 왕국으로 분열됨과 그 두 왕국인 이스라엘과 유다의 차이점이다.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 주변의 이야기를 재정리하고, 유다 왕국이 다윗과 솔로몬의 계보에 충실하며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도 지속했음도 언급한다.

성서 본문: 열왕기상 15장

15장: 9.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이십 년에 아사가 유다 왕위에 올라 10. 예루살렘에서 사십 일 년간 다스렸다. 그의 할머니는 압살롬의 딸인 마아가였다. 11. 그런데 아사는 조상 다윗을 본받아 야훼께서 보시기에 곧바른 일을 하였다. 12. 왕은 전국에서 남창들을 소멸하고 그의 선왕들이 만든 우상들을 없애 버렸다. 13. 왕은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여신에게 바치는 음탕한 것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대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아사는 그것을 토막 내어 키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라 버렸다. 14. 산당은 그대로 보존되었지만 아사는 일생 동안 야훼께 한결같이 신실하였다. 15. 그는 자기의 부친과 자기 자신이 거룩하게 바친 각종 금은잡기들을 야훼의 전에 바쳤다. 16.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는 그들이 살아 있는 동안 계속 전쟁을 하였다. 17. 이스라엘

왕 바아사는 유다를 침략하였다. 또 라마성을 튼튼하게 보수하여 유다 왕 아사로 하여금 군대를 출동시키지 못하게 하였다. 18. 그러자 아사는 야훼의 전과 왕실창고에 남아 있던 은과 금을 모조리 거두어서 사신을 시켜 시리아 왕에게 예물로 보내며 청을 넣었다. 당시 시리아는 헤지온의 손자이고 타브림몬의 아들인 벤하닷왕이 다스리고 있는데, 다마스커스를 수도로 정하고 있었다. 19. “나의 부친과 당신의 부친 사이에 맺으신 동맹은 나와 당신 사이에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은과 금을 예물로 보냅니다. 부디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맺으신 동맹을 파기하시고 바아사로 하여금 우리 영토에서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20. 벤하닷은 아사왕의 청을 받아들여 군사령관을 불러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게 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의 이룬, 단, 아벨벳마아가, 긴네렛, 그리고 납달리 전 지역을 짓부수었다. 21. 바아사왕은 이 소식을 듣자 라마성을 보수하다 말고 다르사 지방으로 철수하였다. 22. 이에 아사왕은 유다 전국에 총동원령을 선포하여 바아사가 라마성을 보수하는데 쓰던 돌과 목재를 옮겨 와서 미스바와 베냐민 지방의 게바를 견고한 요새로 만들게 하였다. 23. 나머지 행적, 치적 및 그가 축성한 성읍들에 관하여는 유다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왕은 나이가 많아지자 다리를 앓았다. 24. 아사는 열조와 함께 잠들어 조상 다윗의 성에 있는 그의 왕실 묘지에 묻혔다.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교리 요점

* 우리는 삶의 첫째에 주님을 섬김 이외의 것을 놓는 일에 끊임없이 대항해야 한다.

해설

주님은 다윗과의 약속을 지켜서 유다 왕국의 계보는 언제나 다윗의 아들들이 지켜왔다. 후대 왕들 중에는 악한 자도 있었지만, 그들 모두는 다윗의 후손이었다. 이것은 우리의 심정이 주님의 진리에 의해 한번 움직여진 후에는 주님의 진리에 대한 우월성이 우리의 심정에서 완전히 잊혀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유다에는 나쁜 왕들과

좋은 왕들이 같이 있었다. 나쁜 왕은 우상을 세우는 것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이렇게 악한 상태에 빠졌다가도 때로 멈추어 스스로 점검하기도 하며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기도 한다. 그것이 선한 왕들이 우상들을 제거했다는 것으로 표현되어 진다. 우상이란 주님을 섬기는 것 외의 다른 것을 삶의 궁극의 목표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

영적인 우상들은 우리가 그것을 우상으로 인식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한다. 유다 백성들은 아사의 통치 전까지는 성전 예배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상들은 예루살렘 밖 “높은 장소” 즉 산당(high place)에 세워져 있었다. 이는 주일에 교회에 참석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게을리 하지 않으나 자기가 집착하는 지식, 돈 혹은 쾌락 등을 추구하는 때에는 주님을 잊을 수 있음을 뜻한다. 아사왕은 우상들을 제거했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는 것이 나뭇을 발견했을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악으로 물들이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대개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미 발견된 악조차도 말끔히 제거하지 못한다. 그 이유가 악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 악은 스스로를 변론하고 보호할 거짓을 우리의 생각에 심는데 우리는 그것이 우리 스스로의 생각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합리화하여 옳다고 간주해 버리기 때문이다. 그 결과 우리는 “나”의 판단만을 신뢰하려드는 경향이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던 높은 장소가 상징하는 것이고,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이 높은 장소를 헐어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나쁜 의미의 “높은 장소”가 주님 앞에 있어야 할 진정한 인간성에 반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아사왕이 산당처리 문제를 소홀히 함으로 초래한 결과를 이해할 수 있다. 다른 선한 왕들도 이와 유사하게 의지력이 강하지 않아서 산당(높은 장소)을 보존하였고, 그 결과 백성들은 선한 왕이 죽은 후에 그곳에다 새로운 우상들을 세우고 그것을 숭배하는 것을 지속해 갔다. 이것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자기 총명을 자랑하는 자만심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세속적 목적이 생겨서 주님에 대한 예배를 우리 삶의 외곽으로 서서히 밀어놓게 된다. 본문 후반부의 유다 왕국은 성전을 보수하지 않고 내버려 두어 결국 성전 마당에까지 우상들이 침범하게 된다.

시리아왕은 본문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그는 유다와 이스라엘 왕국 역사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시리아와 아시리아는 우리의 합리적 능력을 상징한다. 특히 시리아는 우리 마음의 자연적 평면에 있는 합리적 능력을 뜻한다. 우리의 이성인 진리

혹은 거짓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데 사용되며, 우리가 지지하는 쪽을 위해 작용을 한다. 우리의 이성(heart)은 선한 능력과 악한 능력 모두를 발휘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추론능력이 선하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선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를 선하게 만드는 것은 오로지 주님과 이웃을 섬기겠다는 심정(heart)속의 바램(desire)이다. 시리아는 아사왕의 동맹국으로 활약했다, 아사왕은 시리아의 원조를 얻기 위해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을 포기했다. 그래서 아사왕은 잠깐 동안 그의 나라를 구했지만, 그 인과에 따른 재난이 후대에 닥쳐서 대가를 치르게 했다. 그 이유가 아사왕은 주님을 신뢰하는 대신 시리아왕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다. (역대기하 14장부터 16장을 참조) 아사왕이 시리아에 도움을 청한 것은 세상적인 것을 수단으로 하여 주님과 말씀에 대한 믿음을 뒷받침 하려는 것과 유사하다. 이것은 또한 학자들이 노아의 홍수에 관한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홍수의 흔적을 추적하고 방주를 발견하려는 노력과 같다. 고난이 닥치자 하느님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시리아의 왕에게 원조를 구한 아사왕이 성전의 금과 은을 포기했다는 것은 우리가 자연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어 우리의 영적인 시험을 이겨내고자 결심하며 주님과 말씀에 관한 내적 확실성을 실제로는 포기해 버리는 것을 뜻한다.

아사왕의 이러한 신뢰부족은 그 직접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제 23절에서는 “왕은 나이가 많아지자, 다리를 앓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다리란 우리의 외향적 지침(outward conduct)을 표현한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탱하기 위해 전심전력으로 주님을 신뢰함 대신 자연 혹은 인간을 신뢰하면, 우리는 주님의 법으로 규율하려는 대신 다른 것으로 움직여진다. 이러한 움직임이 영적 다리를 앓게 됨으로 묘사된다.

기본 상응 공부

시리아 = 자연적 평면에서 쓰이는 합리적 능력

발 = 외향적 지침 (outward conduct)

질문 정리

- 1) 오늘 공부에 등장한 유다의 왕은 누구입니까?
- 2) 그는 선왕입니까, 악한 왕입니까?
- 3) 그가 행한 일 중 좋은 일은 무엇입니까?
- 4) 그가 못한 일은 무엇입니까?
- 5) 이스라엘 왕은 아사왕을 이겨보려고 무엇을 했습니까?
- 6) 누구에게 아사왕은 도움을 청했습니까?
- 7) 아사왕은 무슨 선물을 시리아 왕에게 보냈습니까?
- 8) 노령 때에 아사왕은 무슨 병을 앓았습니까?

질문의 답

- 1) 아사(Asa) 2) 선왕 3) 우상을 파괴한 일 4) 산당의 제거
- 5) 라마를 지었다 6) 시리아왕 벤하닷 7) 성전의 금과 은 8) 발병

21

시편에 관해서

머리말

본과의 내용은 시편 19편과도 연관 된다. 시편서의 역사와 성전 예배 때 시편의 사용에 관한 것들을 언급한다. 그리고 개인 생활에 있어서 시편의 활용 및 시편서의 영적 특성을 강조한다. 사무엘하 23장 1-2절과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있는 다윗의 증언과 주님의 말씀을 꼭 읽어 두자.

성 서 본 문: 시편 1편, 사무엘하 23장 1-2절

1편: 1. 복되이라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거닐지 아니하며
조소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2. 야훼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 3.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랴! 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서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고
제 철 따라 열매 맺으리. 4. 사악한 자는 그렇지 아니하니 바람에 까불리는 겨와도
같아, 5. 야훼께서 심판하실 때에 머리조차 들지 못하고, 죄인이라 의인들 모임에
끼지 못하리라. 6. 악한 자의 길은 멸망에 이르나, 의인의 길은 야훼께서 보살피신다.
사무엘하 23장: 1. 이것은 다윗이 남긴 마지막 말이다. 야곱의 하느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요, 이스라엘의 수호자가 귀여워하시는 자,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이다.
가장 높으신 분이 세우신 영웅의 말이다. 2. 야훼께서 나에게 영감을 주시어 말씀하셨
다. 당신의 말씀을 내 혀에 담아 주셨다.

교리 요점

- *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안내자로 꾸준히 찾고 있을 때에 행복하게 된다.
- * 우리가 무신론적 주장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마음은 하향한다.

해설

부활 후 주님은 일부 제자들의 이해성을 열어 주셔서 그들이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셨고, 그들을 당황케 한 많은 일들을 설명해 주셨음을 누가복음 24장을 통해 알
수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 전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이해할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말씀도 있다. 주님은 특별히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말했거니와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한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셨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모세의 율법은 우리가
가진 구약 성경의 첫 5책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이다.
여호수아, 판관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그리고 열왕기하를 전기 예언서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사야서로부터 말라기서까지를 후기 예언서라고 부른다. 유대인들은

예레미야 애가서와 다니엘서를 그들의 정경(canon)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또한 유대인들은 위의 두 권과 롯기서 그리고 열왕기하서와 이사야서 사이의 열 책들은 정경과 똑같은 영감(inspiration)이 있다고 여겨지지 않아서 게투빔(Kethubim) 또는 거룩한 저술(Sacred Writings)라고 하여 따로 모아 놓았다.

새 교회에서 정경(cannon), 즉 하느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책들은 유대인의 정경(canon)에 시편서와 예레미야 애가, 다니엘서, 그리고 신약성경 중에서는 네 복음서와 요한 계시록을 더한 것이다. 스웨덴북에 의하면 이러한 책들은 주님의 생애(Lord's Life)에 관련된 내적 의미를 지닌 말씀들로서 그 연계성이 분명하다고 한다. 상응(correspondence)을 알아야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책들이 지니는 내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함이다. 앞으로 다니엘서와 예레미야 애가도 공부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특별히 주님이 시편서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시편에 나를 두고 한 말씀은...”이라고 하셨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시편은 많이 읽히며 성경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책이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심정상태에 대한 표현과 필요성을 시편에서 발견하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나은 것들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의 각기 다른 심정상태들에 주님이 뜻하실 수 있는 것 혹은 뜻하시려는 것들에 관한 서술이 간단명료하게 담겨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만족한 상태에 있거나 자기 자량에 빠져 있을 때는 시편을 읽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의 약함을 인식하여 주님의 필요성을 절감할 때는 시편을 자주 읽게 된다.

시편 제 1편에서 말하는 “복 있음”이란 행복함을 의미한다. 우리는 세상적 충고에 귀 기울려 주님을 도외시하는 이들에 합세하거나 스스로의 주장만을 내세우며 그와 반대된 주장을 가진 이들을 무시하면 행복해 질 수 없다. 우리는 주님을 우리 삶의 길잡이로 삼고 말씀을 날마다 읽고 되새길 때 행복해 질 수 있다. 이는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할 때만이 우리의 심정에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으며, 행복이 따르는 이타적 사랑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3절은 거듭남을 완성한 사람들의 삶에 대한 아름다운 그림이다. 나무는 일반적 원리들(general principle)을 뜻하고, 강(냇가)은 우리의 마음 안으로 흘러오는 주님의 진리를 뜻한다. 주님의 진리만이 우리의 원리들을 건전하고 강건하게 하며, 우리

생각을 온전하고 분별력 있게 한다. 주님께 순종함을 삶의 기초로 삼고 말씀 속에서 진리를 꾸준히 공급받아 자양분을 얻는 사람은 냇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 나무의 잎사귀란 이런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진정한 생각들을 의미한다. 진정한 생각들은 주님의 진리에 의거하므로 시들지 않으며 결코 버려지거나 바뀌질 수도 없다. 나무의 열매란 유용한 삶을 뜻하며, 그 삶은 하느님과 인간을 섬기는 삶이다.

4절의 바람에 까불리는 겨란 주님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상상하는 사람들의 어리석고 무가치한 생각을 뜻한다. 인간의 총명에 의존한 사람들은 그들의 사상이 변해야 하는 필요성에 항상 직면한다. 우리는 종종 주위에서 “이 세대를 위해 진리인 것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진리가 안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절대 진리는 있을 수 없어”라고 말하는 것을 듣는다. 이것은 하느님이 없는 마음의 상태를 그린 것이며 이러한 마음 상태를 가진 사람들은 사고에 뿌리가 없는 즉 바람이 불면 바람과 함께 날아가 버린다. 본문은 어느 시대와 어느 환경에서나 적용될 불변하는 진리의 시냇물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우리는 이사야 40장 7-8절의 “풀은 시들고 꽃은 진다, 스쳐 가는 야훼의 입김에. 백성이란 실로 풀과 같은 존재이다. 풀은 시들고 꽃은 지지만 우리 하느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으리라.”라는 구절을 기억해야 한다.

기본 상응 공부

강 = 주님에게서 나와 흐르는 진리

잎 = 원리들이 자란 생각들

질문 정리

- 1) 왕국이 분단되기 전의 두 번째 왕은 누구인가?
- 2) 다윗의 특별한 재능은 무엇인가?
- 3) 다윗은 그가 쓴 것들에 관하여 뭐라고 말했는가?
- 4) 다윗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쓰인 책은 무엇인가?
- 5) 시편이란 무엇인가?

- 6) 유대인들은 시편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 7) 주님은 시편에 대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8) 우리는 시편 1편을 기억하는가?
- 9) “복된 자”란 무엇을 뜻하는가?
- 10) 행복해지고자 하면, 금해야하는 세 가지는 무엇인가?
- 11)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
- 12) 선한 사람은 무엇에 비유되는가?
- 13) 악한 자는 무엇에 비유되는가?
- 14) 주님은 시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시는가?
- 15)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성경을 어떻게 대하라고 말하는가?

질문의 답

- 1) 다윗 2) 음악과 시 3)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다 4) 시편 5) 노래
- 6) 찬송가(hymns) 7) 시편은 주님께 관해 쓰여 있다고... 8) “복되어라...” 9) “행복한 자” 10)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거닐지 아니하며, 조소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11) “주님이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12) 나무(tree) 13) 겨(chaff) 14) 우리의 영적 상태와 필요성을 표현할 수 있게 해 주심 15) 주님이 법을 주신 것에 기뻐하고, 그것을 날마다 되새겨야 한다..

22

이사야를 부르심

머리말

본과에서는 성경의 예언서를 공부하게 된다. 따라서 대 예언서들의 역사적 개요를 간략하게 언급한다.

이사야는 아모스의 아들로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다. 그는 우찌야 통치 13년 또는 서기 전 780년쯤에 태어났으며, 예언자로서 그의 활동기간은 약 60년간으로 추정된다. 또한 그는 아모스, 호세아, 요엘 그리고 미가(소 예언서 부분)와 동시대에 존재한다. 이사야서는 크게 3부분으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1장부터 35장까지의 예언들이다. 두 번째는 36장에서 39장까지의 히즈키야 왕의 역사적 전말에 관한 것들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로 분류된다.

예레미야는 힐기야의 아들이다. 그는 아나돗(Anathoth)이라는 베냐민 지파 영토에서 태어났으며 사제 중의 한사람이다. 그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4마일 정도 떨어진 북쪽에 위치한다. 대부분의 다른 예언서와 달리 이 책은 예레미야라는 개인에 관한 언급이 많다. 그는 젊은 시절에 고향에서 살았으며 예언하도록 부름을 받았고, 이로 인해 혹독한 시달림을 겪었다. 그가 처음 모습을 나타낸 때는 이사야 시대로부터 약 130년 후였다. 그는 하느님이 내린 직분을 그의 고향땅에서 약 41년간 수행했고, 그 후는 이집트에서 예언했다.

에제키엘은 예루살렘이 붕괴되기 약 11년 전 즉 서기 전 599년에 여호야김과 그의 시종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갔다. 포로들은 유프라테스강 줄기의 하나인 「그발」강가에서 식민지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는 「텔아브」에 집이 있었고 결혼도 했었다. 그는 타향 생활 15년째 되던 해(B.C 593)에 예언하기 시작했으며, 예루살렘 붕괴 후 16년 동안 예언직분을 수행했다. 그는 타향살이 동안 줄곧 백성들에게 존경 받았고, 많은 장로들 역시 그에게 의견을 물었다. 그는 타향생활 중에 자연사했다, 그의 무덤은 바그다드에서 좀 떨어진 「케펠(Kefel)」에 있고, 수많은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그곳을 방문했다. 그는 다니엘과 엇비슷한 시대의 인물이었다.

다니엘은 유다 왕국 왕족의 일원으로 여호야김왕의 집권 3년째 되던 해 (604 B.C)에 느브갓네살 왕에 의해 바빌론으로 잡혀 갔다. 그는 세상적 부귀를 누린 유일한 히브리 예언자이기도 했다.

성서 본문: 이사야 6장

6장: 1. 우찌야왕이 죽던 해에 나는 야훼께서 드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다. 그의 옷자락은 성소를 덮고 있었다. 2. 날개가 여섯씩 달린 스랍들이 그를 모시고 있었는데, 날개 둘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둘로는 발을 가리우고 나머지 둘로 훨훨 날아 다녔다. 3. 그들이 서로 주고받으며 외쳤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야훼 그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시다.” 4. 그 외침으로 문설주들이 흔들렸고 성전의 연기가 자욱하였다. 5. 내가 부르짖었다. “큰일 났구나. 이제 나는 죽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틈에 끼어 살면서 만군의 야훼, 나의 왕을 눈으로 뵈다니.....”

6. 그러자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뜨거운 돌을 불집게로 집어 가지고 날아 와서 7. 그것을 내 입에 대고 말하였다.

“보아라, 이제 너의 입술에 이것이 닿았으니 너의 악은 가시고 너의 죄는 사라졌다.”

8. 그 때 주의 음성이 들려 왔다.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하고 내가 여쭙었더니 9. 주께서 이르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일러라. 듣기는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말아라. 보기는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말아라.” 10.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어둡게 하며 눈을 뜨지 못하게 하여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 와서 성해지면 어찌 하겠느냐?”

11. 나는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하고 여쭙었다. 주께서 대답하셨다.

“도시들은 헐려 주민이 없고 집에는 사람의 그림자도 없고 농토는 짓밟혀 황무지가 될 때까지다. 12. 야훼께서 사람을 멀리 쫓아 내시고 나면 이 곳엔 버려진 땅이 많으리라. 13. 주민의 십분의 일이 그 땅에 남아 있다 하더라도 그들마저 상수리나무, 참나무가 찍히듯이 쓰러지리라. 이렇듯 찍혀도 그루터기는 남을 것인데 그 그루터기가 곧 거룩한 씨다.”

교리 요약

* 말씀으로부터 순수한 진리를 얻으려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겸손하며 주님을 기꺼이 섬기려는 강한 의지가 반드시 있어야한다.

해설

예언서들은 역사적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지 않다. 대 예언서 가운데 첫 두 권은 거룩한 땅에서 예언되었고, 예레미야 애가는 유다왕국이 점령된 후 이집트에서 예언된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두 권은 거룩한 땅 밖이 아닌 포로 생활지에서 예언되었다. 히브리인들은 예레미야 애가와 다니엘서를 영감 있는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그 책의 예언들이 거룩한 땅 내에서 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에제키엘서는 영감 있는 책으로 인정했다. 그 이유는 에제키엘이 자주, “예루살렘에 내 영이 옮겨져서”라고 말했고, 예언의 대부분이 당시의 상황에 대한 환상이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유다왕국의 말기에 예언했다. 그들의 예언 내용들은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나라의 숙명적 파멸을 예언했으므로 대중적 인기를 누릴 수 없었고 심지어 그들 모두 심한 박해까지 당했다. 반면, 다니엘과 에제키엘은 포로 생활을 하였지만 존경 받고 권세도 누렸다. 에제키엘은 포로들 중에 존경 받았으므로, 사람들은 언제나 그에게 자문을 구했고 그의 환상도 기쁘게 받아들였다. 다니엘은 바빌론 왕의 특별자문이 되도록 훈련받은 사람 중의 하나로서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다. 또한 그는 주님이 주신 꿈을 해석하는 능력, 지혜롭게 자문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기적적인 보호하심 때문에 대대로 왕들의 총애를 받았다.

이사야서는 성서에서 긴 책 중 하나이며, 우리에게 익숙한 성경 구절도 많다. 열왕기서의 히즈키야왕과 연결지어 이사야서를 읽게 되면, 우리 마음에서 이사야서가 두드러지게 부각될 때가 많다. 이 책에 대한 다양한 시각에서의 연구와 사적 조사에 따르면, 이사야서의 27장은 이사야가 죽은 후 소수의 저자들에 의해 삽입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신약성서의 증거들은 27장의 저자가 이사야임을 지지한다. 말씀의 저자가 주님이라고 확신한다면 그것을 쓴 저자가 누구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성경이 단지 인간의 작품이라고 가정하는 많은 무신론적 성경 연구가의 학설들에 대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본문은 주님을 대면하게 될 사람이 지녀야 할 요소들을 문자적으로 뿐만 아니라 의미적으로도 명백히 보여준다. 그 중에서 첫째가 바로 주님을 “뵙는” 것이다. 보좌위에 계신 주님을 본 이사야의 환상이란 요한 계시록 1장의 요한의 환상과 같이 주님이 진리이고 그분이 통치하심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섯 날개가 달린 스랍”이란 하느님의 진리의 힘을, “얼굴을 가리우고”란 내적 인격을 보호하시는 힘을 뜻한다. 그리고 “발을 가리우고”란 행동을, “훨훨 날아 다닌다”란 우리의 생각이 물질적 세계를 초월하게 됨을 의미한다.

환상에 대한 이사야의 첫 반응은 자신의 무가치함으로 두려워 떤 것이다. 이러한 반응 또한 진정한 예언자를 위한 요소이다. 시편 111편 10절에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한다. 스랍이 이사야의 입술에 갖다 댄 제단의 뜨거운 돌은 하느님의 사랑 즉 순수하며 이타적인 사랑이 점화되는 순간을 의미하며, 이때서야 비로소 무가치했던 심정이 깨끗해지며 입술이 진리를 말할 수 있다. 이 후에 그는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 말씀은 세상에서 주님의 일이 행해지기 위해서는 부름을 들은 사람이 필요함을 이해하게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며,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희생과 곤경이 뒤따른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좋은 백성이 되고자 하면, 우리는 이사야가 그랬듯이 각자의 부름에 기꺼이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라고 대답해야 한다.

본문의 후반부는 이사야에게 백성들이 어떻게 메시지를 받게 되는지를 말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자신감으로 가득하여 그들의 귀를 틀어막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메시지를 경청하고 심정으로 그것을 받아서 주님의 교회가 재건되기 위한 씨앗으로서 봉사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발견하는 교훈이다.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경청하지 않는 자만심으로 가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때때로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새 교회의 진리를 이웃에 전달할 기회가 생기게 됨으로 격려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귀를 닫고 우리가 전하는 진리를 듣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때마다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노력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적은 수일 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진리들을 환영하는 이웃들을 만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의

영적 성장에 힘쓰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진리를 전하는 데 힘을 씀으로
하늘과 땅위에서 주님의 왕국이 보존되며 번성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기본 상응 공부

보좌 = 심판

스랍(Seraphim or Cherubim) = 보호하시는 하느님의 섭리

질문 정리

- 1) 예언자의 직분은 무엇인가?
- 2) 이스라엘 왕국에 보내진 큰 예언자는 누구인가?
- 3) 어떤 관관이 예언자였는가?
- 4) 히브리인들은 성경을 어떻게 분류하는가?
- 5) 우리가 역사서라고 하는 히브리인들의 예언서는 어떤 책들인가?
- 6) 예언서는 어떻게 분류되는가?
- 7) 왜 대 또는 소 예언서라고 부르는가?
- 8) 대 예언서는 몇 권인가?
- 9) 대 예언서의 책 이름들은 무엇인가?
- 10) 본문의 책 이름은 무엇인가?
- 11) 이사야는 언제, 어디서 예언했는가?
- 12) 이사야는 환상 중에 누구를 보았는가?
- 13) 거룩은 특별히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가?
- 14) 이사야는 왜 놀랐는가?
- 15) 주님은 이사야의 입술이 순수하게 되도록 어떻게 하셨는가?
- 16) 주님은 무엇을 물으셨는가?
- 17) 이사야는 뭐라고 답변했는가?
- 18) 예언자들의 선교란 무엇인가?

19)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기 위해 갖추어야 할 자질은 무엇인가?

질문의 답

1) 주님을 대변하는 사람 2) 엘리야 3) 사무엘 4) 율법서, 예언서, 기타서적
5) 여호수아, 판관기, 사무엘, 열왕기 6) 대 예언서; 소 예언서 7) 책의 부피에
따라서 8) 네 권 9) 이사야, 예레미야, 에제키엘, 다니엘 10) 이사야서 11)
우찌야, 요담, 아하즈 그리고 히즈키야왕 시대에 유다에서 예언했다. 12) 주님 13)
여섯 날개 14) “불순한(unclean)” 입술 때문이다 15) 뜨거운 돌을 입에다 대었다
16)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17)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18)
악을 지적하고 회개를 요구함 19) 주님의 환상을 볼 것, 겸손할 것, 성별 되어야
할 것, 그리고 자발적으로 섬길 것

23

활활 타는 화덕

머리말

앞서 공부했던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이 멸망되는 과정과 포로가 된 상황을 다시
한 번 살펴보자. 바빌론에서 포로 출신이었던 다니엘이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 가야 할 것이다. 또한 포로라는 단순한 사실의
의미도 언급한다.

성 서 본 문: 다니엘 3장

3장: 1. 느부갓네살왕은 금으로 신상 하나를 만들어 바빌론 지방 두라 벌에 세웠다. 그 높이는 육십 척이요, 나비는 육 척이나 되었다. 2. 느부갓네살왕은 지방장관들과 대신들, 총독들, 고문관들, 재무관들, 판사들, 법률가들, 지방 모든 관리들을 자기가 세운 신상의 제막식에 참석하도록 불러 들였다. 3. 그래서 지방장관들과, 대신들, 총독들, 고문관들, 재무관들, 판사들, 법률가들, 지방 모든 관리들이 느부갓네살왕이 세운 신상 앞에 나와 제막식에 참석하였다. 4. 그 때 전령이 큰 소리로 외쳤다. “인종과 말이 다른 못 백성들은 들으시오. 4. 나팔, 피리, 거문고, 사현금, 칠현금, 통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나거든 곧 엎드려 느부갓네살왕께서 세우신 금신상 앞에 절을 하시오. 6. 누구든지 엎드리어 절하지 않으면 당장 활활 타는 화덕에 집어넣을 것이요.” 7. 그리하여 나팔, 피리, 거문고, 사현금, 칠현금, 통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자 인종과 말이 다른 못 백성들은 엎드리어, 느부갓네살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을 했다. 8. 이 때 어떤 바빌론 사람들이 나서서 유다인들을 고발하였다. 9. 그들은 느부갓네살왕에게 이렇게 일러 바쳤다. “임금님! 만수무강을 빕니다. 10. 임금님께서 영을 내리시어 나팔, 피리, 거문고, 사현금, 칠현금, 통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나면 누구나 엎드리어 금신상 앞에 절을 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11. 엎드리어 절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활활 타는 화덕에 집어넣는다고 칙령을 내리시지 않으셨습니까? 12. 그런데 임금님의 칙령을 무시하고 임금님께서 위하시는 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임금님께서 바빌론 지방 관리로 임명하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유다인들입니다. 그들은 임금님께서 세우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13. 느부갓네살은 몹시 화가 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잡아들이라고 명령하였다. 그들이 왕 앞에 끌려 오자, 14. 느부갓네살이 물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너희는 내가 세운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고 내가 위하는 신을 섬기지 않았다니, 그게 사실이냐? 15. 이제라도 나팔, 피리, 거문고, 사현금, 칠현금, 통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나는 대로 곧 엎드리어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할 마음이 없느냐? 절하지 않으면 활활 타는 화덕 속에 던질 터인데, 그래도 좋으냐?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해 줄 신이 과연 있겠느냐?” 16.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왕에게 대답했다. “저희는 임금님께서 물으시는 말씀에 대답할 마음이 없습니다. 17. 저희가 섬기는 하느님께서 저희를

구해 주실 힘이 있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들을 활활 타는 화덕에 집어 넣으셔도 저희를 거기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18.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저희는 임금님의 신을 섬기거나 임금님께서 세우신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19. 느부갓네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말을 듣고는 금방 안색이 달라지며 노기에 차서 화덕의 불을 여느 때보다 일곱 배나 뜨겁게 지피도록 하고, 20. 군인들 가운데서도 힘센 장정들을 뽑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 활활 타는 화덕에 집어넣으라고 명령하였다. 21. 사람들은 그들을 도포와 속옷 등 옷을 입고 관을 쓴 채로 묶어서 활활 타는 화덕 속에 집어넣었다. 22. 왕명이 그만큼 급했던 것이다. 화덕이 너무나 달아 있었으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넣던 사람들이 불길에 타 죽고 말았다. 23.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은 뽕뽕 묶인 채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졌다. 24. 그런데 느부갓네살왕이 깜짝 놀랄 일이 생겼다. 그는 벌떡 일어나 측근자에게 물었다. “뽕뽕 묶어서 화덕에 집어넣은 것이 세 명 아니었더냐?” 그들이 대답했다. “임금님, 그렇습니다.” 25. “그런데 네 사람이 아무 탈없이 화덕 속에서 거닐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나? 저 네 제 사람의 모습은 신의 모습을 닮았구나”하면서 26. 느부갓네살은 활활 타는 화덕 어귀에 가서 이렇게 외쳤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을 섬기는 자들아 어서 나오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화덕에서 나온 다음 27. 지방장관들과 대신들, 총독들, 왕의 측근들이 모여 와 그들을 살펴보니, 몸이 불에 데기는커녕 머리카락 하나 그슬리지 않았고 도포도 눈지 않았으며 불길이 닿은 냄새조차 나지 않았다. 28.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신이야말로 찬양받으실 분이구나”하며 느부갓네살은 외쳤다. “저들의 하느님께서, 어명을 어기면서까지 목숨 걸고 당신만을 믿고 저희의 신 아닌 다른 신 앞에서는 절하지도, 섬기지도 않는 이 신하들을 천사를 보내시어 구해 내셨구나. 29. 이제 나는 영을 내린다. 인종이나 말이 다른 못 백성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신에게 욕된 말을 하지 못한다. 욕하는 자는 토막 내어 죽이고 그의 집은 거름더미로 만들리라. 이처럼 자기를 믿는 자를 구해 줄 수 있는 신은 다시 없으리라.” 30. 그리고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바빌론 지방에서 더 높은 벼슬을 내렸다. 31. “인종과 말이 다른 천하 만민은 이 느부갓네살왕의 말을 들어라. 너희에게 행운이 깃들기를 빈다. 32. 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표적을 너희에

게 들려주는 것이 더없이 기쁘다. 33. 그가 보이신 표적은 놀라왔다. 그 베푸신 기적은 굉장하였다. 그는 영원히 왕위에 앉으시어 만대에 이르도록 다스릴 왕이시다.

교리 요점

* 주님은 우리가 곤란과 시험의 상태일 때 우리에게 더욱 가까이 계신다.

해설

아시리아는 유다왕국을 정복하지 못했다. 적이란 측면에서 아시리아는 거짓추론을 표현한다. 거짓추론은 이해성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지만, 심정 속에 있는 선한 동기 자체는 파괴할 수 없다. 그러나 심정(heart)을 부패하도록 영향을 줄 수는 있다. 유다의 후대 왕인 히즈키야는 당시의 왕 중에서 개혁을 과감히 실행했던 선한 왕이었지만, 친구인 체 하고 내왕한 바빌론의 사절단을 입궁 시키고 그들에게 모든 보물을 보여주는 큰 실수를 행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바빌론은 유다를 정복했고 지속적으로 유다의 보물과 지도자들을 빼앗아 갔다. 결국 바빌론은 예루살렘과 성전 자체까지도 파괴했다. 바빌론이란 “자아사랑에서 비롯된 지배욕”을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의 심정에 있을 수 있는 적을 뜻하고, 점차적으로 우리의 모든 선한 의도들을 강탈한다.

다니엘은 바빌론 왕의 포로 잡이가 있기 전에 최초로 끌려간 집단의 일원이었다. 그 후 왕국의 젊은이들은 바빌론 왕의 자문위원으로 훈련되도록 선발되었고 후한 대접을 받았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후한 대접으로 인해 바빌론을 숭배하며 그것에 만족하게 되었다. 그들 중 네 명 즉 다니엘, 하나니야, 미사엘 그리고 아자리야는 여호와께 충실하겠다고 결심하고 유다에서 양육되던 시절에 익혔던 것들을 계속 수행해갔다. 또한 그들은 갈대아어로 이름이 주어져 벨트사살, 사드락,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라고도 불렸다. 그들은 먼저 왕의 풍요한 음식을 먹기를 거절했다. 이는 세상적인 보상과 기쁨을 위해 살아가려는 습관을 지지하는 생각이나 욕망이 우리의 심정과 지성을 채우게 되는 것을 거절함을 표현한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길을

가려고 할 때 그것이 옳고 그름을 고려하지 않거나 그 길에 대한 적절한 이유를 내세우려 하면, 우리는 바빌론 왕의 포도주를 마시고 왕이 제공하는 풍요로운 음식을 먹게 되는 것이다.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 자신을 첫째 자리에 놓게 되는 시험을 예배와 관련지어 밝혀준다. 느부갓네살 즉 바빌론의 왕이란 자아사랑(self-love)에 근거한 원리가 우리를 주도함을 뜻한다. 원리란 자기 총명이며, 자기 총명(self-intelligence)이란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야만 한다”는 생각 즉 독단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은 말씀 속의 모든 진리를 왜곡하게 되며 자기의 영예를 위해 교회를 악용할 수 있게 말씀의 의미들을 사사로이 해석한다. 느부갓네살은 금 신상을 세워놓고 사람들에게 그것에 예배하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그는 불복종하는 자에 대해서는 “활활 타는 화덕”에 던져 넣겠다고 했다. 세상적인 쾌락에 가득한 사람들은 선한 생활은 어렵고 고달픈 것이어서 불만족스런 욕구가 불타고 있는 것, 즉 고통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상상하기가 쉽다. 그러나 사드락,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는 그 신상에 절하는 것을 거절했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이 고통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확신하며, 불가마 속에서 고통당할 때조차 주님께 신신했다. 그들의 믿음이 의로웠기 때문에 주님은 불가마 속에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보호하셨다. 주님은 지상에 계신 동안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시험을 수행 하셨다. 따라서 주님은 시험가운데 있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극복할 힘을 주신다. 세 젊은이들은 불에서 보호되었을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의 진정한 하느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어떤 누구도 그들의 하느님을 욕하지 못한다는 칙령을 내리도록 했다.

다니엘도 이와 비슷한 것을 겪게 되는데, 주님은 사자의 입에서 그를 구해 내셨다. 그리고 네 명의 청년은 바빌론의 권력의 중심으로 부상되어졌다. 주님은 다니엘에게 오래 전 요셉에게 주셨던 능력 즉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다. 이로 인해 후대 왕들은 그를 높은 벼슬자리에 계속 앉혀 놓았다. 그를 제외한 다른 세 명에게는 성들을 다스리는 지방장관의 임무가 주어졌다. 느부갓네살은 네 청년들을 통한 경험으로 인해 여호와가 가장 높은 하느님이심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의 아들인 벨사살 역시 다니엘의 능력을 인정하였다. 또한 그의 승계자 다리우스는 반정으로 정권을

잡았으나, 다니엘만은 여전히 전 국토의 통치자로 남겨 두었다. 다니엘은 페르시아 시대 고레스 통치시대까지 영화 를 누렸다고 기록되어 있다. 고레스는 유다의 백성들이 유다로 귀향해도 좋다고 선포한 왕이다.

기본 상용 공부

아시리아 = 마음의 합리적 평면

바빌론 = 자아사랑에 근거한 지배욕

질문 정리

- 1) 유다왕국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 2) 포로들 중 어느 왕족 청년이 성경을 썼는가?
- 3)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누구인가?
- 4) 주님께 대한 그들의 믿음은 그들을 해롭게 했는가?
- 5) 바빌론 왕은 누구인가?
- 6) 느부갓네살은 무엇을 만들었는가?
- 7) 그는 무슨 명령을 내렸는가?
- 8) 사드락,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는 절했는가?
- 9) 느부갓네살은 세 청년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했는가?
- 10) 그들은 불에 태워졌는가?
- 11) 불가마 안에서 세 청년과 함께 있었던 사람은 누구인가?
- 12) 불가마에 세 청년을 던졌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 13) 느부갓네살은 결국 어떤 명령을 내렸는가?

질문의 답

- 1) 바빌론의 포로가 되었다 2) 다니엘 3)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4) 아님

- 5) 느부갓네살 6) 금 신상 7) 음악이 울려 퍼지면 금 신상에 절하라
 8) 아님 9) 활활 타는 화덕에 던지라고 했다 10) 아님 11) 주님 12) 죽었다
 13) 어느 누구도 주님에 대하여 욕된 말을 하지 못한다.

24

예언자 미가

머리말

본과는 소 예언서에 관한 공부의 준비라고 할 수 있다. “소 예언자들”과 “소”라 불리는 이유를 알아본다. 그리고 본문 6장 8절을 읽고 의미를 파악해 보자.

성 서 본 문: 미가서 6장

6장: 1. 잘 들어라.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일어나 산악을 향해 변명해 보아라. 할 말이 있거든 언덕들에게 말해 보아라.” 2. 산악은 야훼의 논고를 들어라. 땅의 주춧돌들은 귀를 기울여라. 야훼께서 당신의 백성을 걸어 논고를 펴신다.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죄상을 밝히신다. 3. “내 백성이라는 것들아, 대답해 보아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으며, 너희에게 무슨 못할 일을 했느냐? 4.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앞장세워 종살이하던 데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5. 내 백성이라는 것들아, 모압 왕 발락이 꾸민 계략과 브올의 아들 발람이 한 말, 시냇에서 길갈에 이르는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해 보아라. 그래도 이 야훼에겐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을 모르겠느냐? 6. “높이 계시는 하느님 야훼께 예배를 드리려면, 무엇을 가지고 나가면 됩니까? 번제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까?” 송아지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까? 7. 수양 몇 천 마리 바치면 야훼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거역하기만 하던 죄를 벗어나려면, 만아들이라도 바쳐야 합니까? 이 죽을 죄를 벗어나려면, 이 몸에서 난 자식이라도 바쳐야 합니까?” 8. 이 사람아, 야훼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어서 알지 않느냐? 정의를 실천하는 일, 기꺼이 은덕에 보답하는 일 조심스레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 그 일밖에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의 이름을 어려워하는 자에게 앞길이 열린다. 9. 야훼께서 이 성읍에 외치시는 소리, 유다 지파는 들어라. 이 성읍에서 사는 무리들은 들어라. 12. 남을 등쳐 치부한 것들아, 거짓말만 내뱉는 도시 놔들아, 말끝마다 사기를 하는 것들아, 들어라. 10. “천벌 받을 것들, 부정한 되로 부정 축재한 것들을 나 어찌 용서하겠느냐? 11. 자루에는 엉터리 추를 넣어 가지고 다니며 맞지도 않는 저울을 쓰는데 어떻게 죄 없다고 하겠느냐? 13.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너희를 치리라. 그런 죄를 보고 어찌 멸망시키지 않겠느냐? 15. 너희는 심어도 거두지 못하고 올리브기름을 짜도 몸에 발라 보지 못하며 포도를 짜 술을 빚어도 마시지 못하리라. 14.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먹은 것마저도 살이 되지 않으리라. 살아 보려고 버둥거리도 빠져 나갈 길 없고, 빠져 나가더라도 칼에 맞아 죽으리라. 너희는 오므리의 정책을 따르고 16. 그 아들 아합 왕조의 시정을 그대로 본 따며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멸망시키리니, 사람들은 그 끔찍스런 꼴을 보고 빈정거리며 너희를 조롱할 것이다.”

교리 요점

* 선행(charity)은 삶의 근본이다.

해설

예언서들은 역사적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지 않다. 성경 연구가들은 성경에 있는 증거를 통해 소 예언서의 순서를 확인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이며 노력한다. 그들은 책 속에서 사용된 언어형태와 말해진 상황 등을 분석하고 종합한다. 예언자 미가는 미가서 제 1장 첫 절에서 자신의 연대를 말하고 있다. 그는 이사야와 동시대

인물로 유다에 살았다. 아모스와 호세아는 이보다 조금 이른 시대에 살았던 것으로 추측되며, 요나는 모든 예언자 중 가장 이른 시대의 인물로 추측된다. 스바니야는 유다의 웃시아 통치시대에 예언했고, 하박국은 유다왕국의 말기부터 포로 신세가 되는 초기시대까지 예언했다. 요엘, 오바디아 그리고 나훔의 시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 소 예언서의 메시지는 연장자에게 아주 적합하지만,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미가서는 특별한 내용을 담은 두 단원이 있다. 그 중 하나는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동방 박사들에게 길잡이가 된 예언으로서 본문 5장 2절이다. 다른 하나는 본문 6장 8절이다. 이 구절은 성경 가운데서 잘 알려진 아름다운 내용으로서, 우리 모두 가슴 깊이 새기고 늘 되새겨야 할 중요한 구절이다. 선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 단계에서 올바르게 서야 한다. 첫째는 자연적 단계로서 시작에 해당되는 인간의 바깥이 되는 행위가 그 중심이다.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인간의 안쪽이 되는 영 또는 이해성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인간의 가장 깊고 높은 곳인 혼 또는 심정에 해당된다. 이러한 삶의 지침이 필요한 것은 지상에서의 삶이 끝난 후 우리는 영계에서 살게 되는 데 그 때 있게 되는 우리의 영원한 삶은 전적으로 지상에서의 삶의 내적인 질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천국은 주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지배하는 곳이다. 우리가 그러한 사랑들을 이 세상에서 지속적으로 발달시켜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저세상에서 천국에 속 할 수 없게 된다.

어느 누구도 결코 단시간 혹은 한 번에 내적 선량함(inner goodness)을 달성할 수 없다. 내적 선량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행동을 올바르게 해야 한다. 그 다음 우리가 우리의 생각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러한 행동과 생각들을 지키고 보호해 가면, 주님은 우리의 이기적 경향성 대신 새 심정(new heart)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것은 재구성(reformation)과 거듭남(regeneration)의 과정이요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뜻을 배우고 실천하되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매일 매일 쌓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미가는 다른 예언자들처럼 백성들이 범한 죄들을 낱알이 드러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심판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우리는 스스로를 검토하며, 우리 안에

내재된 죄들과 싸워 나가야 한다. 이러한 영적인 전투에 단순한 선한 행위나 입으로만 하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와 같은 고백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다만 우리는 꾸준한 자기반성과 객관적인 자아성찰을 통해 내 안에 잠재된 악들을 인식하고 그것들을 죄처럼 여길 때 재구성과 거듭남이 있게 된다.

각각의 소 예언서는 그 나름의 특별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고 삶의 많은 경험을 쌓게 되면, 우리는 예언서의 말씀들을 더욱 명확히 이해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삶을 위한 규칙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야하므로, 그것을(6:8) 날마다 암기하면서 우리 삶의 길잡이로 삼아야 할 것이다.

기본 상응 공부

베들레헴 = 선과 하나되는 진리

번제물 = 내적 예배의 표현물

질문 정리

- 1) 본문의 예언서의 이름은 무엇인가?
- 2) 미가는 분단된 두 왕국 중 어느 곳에서 예언했는가?
- 3) 미가는 세 왕의 통치 시대에 예언했다. 세 왕은 누구인가?
- 4) 주님은 왜 예언자를 보내셨는가?
- 5) 미가 예언시대에 백성들이 저지른 잘못은 무엇인가?
- 6) 백성들은 어떤 예배를 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 했는가?
- 7) 미가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 8) “to do justly”는 어떤 의미인가?
- 9) “to love mercy”는 어떤 의미인가?
- 10) “to walk humbly with thy God”은 어떤 의미인가?
- 11) 선한 생활에 대한 요구 사항은 우리 삶의 어떤 세 가지 단계에 있어야 하는가?

12) 왜 미가의 예언에서 이 세 가지 순서로 말씀이 주어졌는가?

질문의 답

1) 미가(Micah) 2) 유다 3) 요담, 아하즈, 히즈키야 4) 백성들의 잘못을 경고해 주기 위해서이다. 5) 속이고, 거짓말하고, 모독함 6) 희생 제물 7) 공의를 행하며(to do justly), 자비를 사랑하며(love mercy), 겸손히 주님과 동행함(walk humbly) 8) 공정하고 정직함 9) 친절하고 도와주며 용서함 10)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에 참석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함 11) 행위(conduct), 생각(thought), 의지(will) 12) 우선, 행위를 바르게 하고, 그것을 통해 생각을 깨끗케 하는 단계로 발전한 후에야 주님으로부터 오는 새 의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5

성전의 재건

머리말

성전의 재건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성막의 가구와 재건에 관한 근본적 계획을 고찰한다.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을 때 궤 또한 사라져 더 이상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이 허용된 것은 모두 주님이 거룩한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태어나셔야만 했기 때문이다.

성 서 본 문: 하깨서 1장

1장: 1. 다리우스왕 제 이년 유월 초하루였다. 야훼께서 예언자 하깨를 시켜 스알디엘의 아들 즈루빠벨 유다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사제에게 말씀을 내리셨다. 2. 만군의 야훼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 백성은 아직 주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라고 말한다.” 3. 야훼께서 예언자 하깨를 시켜 하신 말씀은 이러하다. 4. “너희는 어찌하여 성전이 무너졌는데도 아랑곳없이 벽을 널빤지로 꾸민 집에서 사느냐? 5. 나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너희가 어떻게 지내 왔는지 돌아보아라. 6. 씨는 많이 뿌렸어도 수확은 적었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며, 마셔도 성이 차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으며, 아무리 벌어 들여도 밀 빠진 독에 물붓기다. 7. 산에 가서 나무를 찍어다가 나의 성전을 지어라. 나는 그 집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리라. 나 야훼의 말이다. 8. 나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너희가 어떻게 지내 왔는지 돌아보아라. 9. 많이 거두려니 했지만, 거두고 보니 얼마나 되더냐? 집에 들여 온 것마저도 내가 날려 버리리라. 만군의 야훼가 그 곡절을 일러 주리라. 너희가 나의 성전 무너진 것은 아랑곳 하지 않고 제 집만 짓느라고 바빠 돌아다닌 탓이다. 10. 그러니, 하늘이 이슬을 내릴 성싶으냐? 땅이 소출을 낼 성싶으냐? 11. 나는 평지에도 산에도 가뭄이 들라고 선포하였다. 땅은 밀도, 포도주도, 올리브기름도, 밖의 어떤 소출도 내지 않아 사람도 짐승도 모두 배를 곯게 되었다. 너희가 손이 닳도록 한 일이 모두 허사가 되었다!” 12. 스알디엘의 아들 즈루빠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사제와 그밖에 살아남은 모든 백성은 저희의 하느님 야훼께서 보내신 예언자 하깨가 전하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야훼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13. 그래서, 하깨는 야훼의 특사로서 야훼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였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나 야훼의 말이다.” 14. 야훼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즈루빠벨 유다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사제와 그 밖에 살아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래서, 그들은 저희의 하느님, 만군의 야훼의 성전에 들어 가 일을 시작하였다. 15. 때는 유월 이십사일 이었다.

교리 요점

* 건전한 인격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안에 주님이 먼저 오셔야만 한다.

해설

페르샤의 고레스왕은 바빌론을 정복한 후 유다에서 온 포로들이 그들의 고향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바빌론에 머물러 있기를 선호했다. 그러나 소수의 귀환을 결심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의 미래에 대한 어떤 보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종교와 고향을 지켜야겠다고 여기며 바빌론의 안락한 생활을 포기했다. 바빌론이란 자아 사랑에 근거한 지배욕을 표현한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바빌론의 상태란 모든 것의 중심이 자아이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타인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우리의 경향성을 뜻한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러한 사람들이 성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바빌론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곳을 떠나 영적 삶인 거룩한 땅으로 되돌아가도록 요구된다.

예루살렘의 몰락과 더불어 바빌론의 신전에 보존되었던 성전의 금과 은 집기들은 고레스에 의해 그 집기들의 용도에 알맞도록 돌려보내졌다. 성경에서의 그릇(container)은 교리(doctrine)를 상징한다. 따라서 성전의 금과 은 집기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 주는 말씀에 있는 선과 진리의 교리를 뜻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은 자아를 섬김(service of self)에 쓰이기도 한다. 이를테면 “사리추구에 눈이 먼” 사람들조차도 자기들의 행동적인 면에 있어서는 계명을 준수하는 척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바빌론 신전 안에 보관된 성전의 집기가 갖는 의미이다. 우리는 자아가 아닌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바램으로 주님의 교리에 순종하고, 바르게 처신하고자 하는 바램으로 의를 행해야 한다. 우리는 스스로를 위해 그리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의를 행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세상적 원리와 이기적 중심의 포로가 된 상황에서 벗어나 주님으로 귀향하고자 하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

유다의 남은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의 터에 성전을 재건해야 했다. 그들이 성전을 재건해야 했던 이유는 지상에서 있게 될 주님의 삶의 무대가 바로 거룩한 땅이었으며, 말씀에서 예언된 것들의 성취와 고대 교회 시대에 건설된 성경의

각 장소들의 상응 때문이다.

그들은 귀환한 후 성전을 재건하는데 20년 이상을 소요했다. 에즈라서는 내적 의미는 없지만, 성전 재건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사마리아인들은 거룩한 땅의 북쪽지역인 이스라엘 왕국의 자리에 아시리아가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강제로 이주 시킨 사람들이다. 귀환한 백성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재건에 참여함을 허용하지 않았다. 사마리아인들은 바빌론 왕에게 이를 잘못 전달하여 그는 성전 재건을 중지 하도록 명령했다. 이것은 성전 건축을 포기하는 적절한 구실로 사용되었다.

예언자 하깨는 백성들에게 “이 백성은 아직 주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라고 말한다. 너희는 어찌하여 성전이 무너졌는데도 아랑곳없이 벽을 널빤지로 꾸민 집에서 사느냐?”라고 성전 건축의 중단에 대해 말했다. 우리의 “널빤지로 꾸민 집”이란 우리의 아주 협소한 만족감, 위로 혹은 쾌락과 같은 밑바닥에 속한 선을 돌보려는 우리의 “권리(rights)”를 뜻한다. 우리가 먼저 재건해야 할 주님의 집이란 주님을 섬기는 자세와 겸손에 기초를 둔 인격이다. 주님의 집(인격)은 우리가 원하는 것 혹은 우리의 물질적 삶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얻는데 방해 요소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인격의 사람들에게 하깨는 경고하기를, 삶 중심에 주님의 집을 짓지 않으면 그들이 원하는 어떤 번영이나 만족도 없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하깨 서에는 “너희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돌아보아라. 씨는 많이 뿌렸어도 수확은 적었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며, 마셔도 성이 차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으며, 아무리 벌어들여도 밑 빠진 독에 물붓기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자신만을 고집하는 사람 혹은 자신을 모든 것의 기준으로 하는 사람은 무엇을 소유하든지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

기본 상응 공부

용기, 그릇 = 교리 (doctrine)

성전의 금과 은 집기들 = 말씀에서 온 선과 진리의 교리들

질문 정리

- 1) 어떤 통치자 때에 유다 백성들의 귀환이 허용 되었는가?
- 2) 그들의 포로생활은 얼마동안 지속되었는가?
- 3) 고레스왕은 귀환하려는 백성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 했는가?
- 4) 왕은 귀환 백성들에게 무엇까지 되돌려 주었는가?
- 5) 귀환자들은 성전재건의 지연 원인으로 어떤 것을 핑계 삼았는가?
- 6) 어떤 예언자가 핑계 많은 백성을 일깨우기 위해 보내졌는가?
- 7) 예언자는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멈춘 진짜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는가?
- 8) 성전의 금과 은 집기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9) 유대인들이 거룩한 땅에 되돌아가야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고레스 2) 70년 3) 성전을 재건하라고 4) 성전에서 강탈해왔던 금과 은 집기들 5) 아직은 주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다 6) 하깨(Haggi) 7) 자신들의 안락에 더 관심이 있었다. 8) 어떻게 올바르게 사느냐에 관한 말씀의 가르침 9)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도록 유대주의의 재 건립과 성전 재건을 위함이다.

26

주님이 세상에 오시다

머리말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 하나의 연속적인 성서임을 주지해야 한다. 신약과 구약 사이는 약 400여 년이라는 시간적 공백이 있었다. 그 기간 동안 유대 민족은 거룩한 땅에 정착함과 더불어 옛날의 예배를 재건했다. 모든 신약 성서의 공부는 구약성서의

내용에 의존되어 연속된다. 따라서 우리는 신, 구약 관계의 중요성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것이다.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이뤄져 있듯이, 우리는 지상에서의 주님의 삶에 관해 공부할 때에도 주님의 이중적 본성 즉 아버지로부터 온 신성(the divine)과 신성을 옷 입힌 마리아로부터 온 유한한 인성(the finite humanity)을 기억해야 한다.

성서 본문: 마태복음 1장 18-25절, 2장 13-23절

1장: 18.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하고 같이 살기 전에 잉태한 것이 드러났다. 그 잉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19.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법대로 사는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낼 생각도 없었으므로 남모르게 과혼하기로 마음먹었다. 20.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무렵에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어라. 그의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21.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하고 일러 주었다. 22. 이 모든 일로써 주께서 예언자를 시켜, 23.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임마누엘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다. 24.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의 천사가 일러 준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 들였다. 25.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고 지내다가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 그 아기를 예수라고 불렀다.

2장: 13. 박사들이 몰려 간 뒤에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어서 일어나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알려 줄 때까지 거기에 있거라”하고 일러 주었다. 14. 요셉은 일어나 그 밤으로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15.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살았다. 이리하여 주께서 예언자를 시켜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16. 헤로데는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박사들에게 알아 본 때를 대중하여 베들레헴과 그 일대에

사는 두 살 이하의 사내아이를 모조리 죽여 버렸다. 17.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 18. “라마에서 들려오는 소리, 울부짖고 애통하는 소리, 자식 잃고 우는 라헬, 위로마저 마다는구나!”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19. 헤로데가 죽은 뒤에 주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20.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이미 죽었으니 일어나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하고 일러 주었다. 21. 요셉은 일어나서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 왔다. 22. 그러나 아르켈라오가 자기 아버지 헤로데를 이어 유다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리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다가 그는 다시 꿈에 지시를 받고 갈릴래아 지방으로 가서 23. 나자렛이라는 동네에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를 시켜 “그를 나자렛 사람이라 부르리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교리 요약

- *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곡해하여 더 이상 주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진리를 통해 인도하실 수 없게 되자 주님은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다.
- * 어린 시절 주님이 받은 교육은 말씀의 글자에 관한 것이었다.

해설

성경의 첫 절 즉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 내셨다”의 의미를 상기해보자.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의 영(spirit)이 자연적인 면과 영적인 면 모두를 지니게 되며, 삶을 통해 두 가지 중에서 스스로에게 우선이 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졌음을 뜻한다. 주님은 성서의 시작에서부터 인간이 자연적 원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 그 마음의 중심으로 삼는 것은 불행만을 초래하게 됨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다. 우리가 공부해온 성경의 이야기들을 대략 훑어보면, 사람들은 주님의 경고를 지속적으로 무시하며 그들의 자연적 감각만을 신뢰했다. 그들은 점차 삶의 내적 즉 높은 평면에 대한 의식을 잃어 순수한 영적 진리의 어떤 것도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주님은 이 세상에서 명령을 지키면 보상이 따르고 안 지키면 벌을 받는다는

식의 방법만으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가시적이고 즉각적인 상과 벌을 통한 방법조차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간직하게 하는데 성과를 보지 못하는 때가 왔다. 성경은 성경을 읽을 수 있었던 자들 즉 바리사이와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 의해 무지한 백성들을 현혹시키고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유대인과 이방인들 중에는 정말로 의를 행하기 원하고 하느님을 믿으며 그분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진리를 배울 수 없었고, 인간이 창조되고 도달해야 하는 천적 수준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더 이상 알 수 없었다. 인류가 하느님과의 모든 연결을 잃어버리고 파멸의 위기에 놓이게 되자 주님은 새로운 방법으로 인간에게 다가 오셔야만 했다. 주님께서 진리를 삶으로 완성하는 것을 인간들에게 직접 보여주고 또 그것이 가능한 것임을 가르치시기 위해 지상에 오셔야만 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고난과 시험을 극복케 하는 그분의 권능을 입증해 보이고 진정한 인간 삶의 본모습을 보여 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던 것이다.

구약성서에는 주님의 강림에 대한 많은 예언이 있다. 그 중 두 예언은 마태복음 1장과 2장 (1:23, 2:6)에 인용되어 있다. 사람들은 강림의 예언들을 알고 있었고 이론적으로도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통 받고 억압받는 가난한 자들을 제외하고는 메시아가 오기를 원하지 않았다. 헤로데와 같은 통치자, 율법학자 그리고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모든 것을 착복하기에 바빴고, 종교는 그들의 행동을 은폐하거나 명예를 취하는 수단으로만 이용했다. 헤로데는 가장 큰 성전을 짓고 있었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 그곳에서의 예배가 부패했음을 알 수 있다. 본문에서 헤로데의 행동을 통해 그들의 종교가 겉치레에 불과했음을 알 수 있다. 본문 2장 7-8절과 2장 16절에서 유다의 왕인 헤로데는 우리의 심정을 주도하는 이기심을 표현한다. 이기심은 진리가 마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언제나 완강히 저항한다. 이는 진리가 들어오면 거짓이 드러나게 되어 결국 이기심이 멸망하기 때문이다. 메시아란 “기름 부은 자”로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이다. 본문은 주님이 메시아임을 명확히 가르치고 있으므로 기독교인이라면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다. 예수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의미이다. 예수 그리스도란 구세주 즉 약속되어진 메시아를 의미한다. 그리고 임마누

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으로서 인간 형태로 세상에 오신 하느님 자신을 뜻한다.

요셉은 본문 1장과 2장에서 여러 번 주님에 의해 꿈속에서 혼계되고 있다. 본문의 신약성서는 구약성서와 연결되는 부분을 찾을 수 있는데, 이는 구약과 신약은 계속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예증으로서 마태복음 1장의 시작에서 예수의 계보를 설명한다는 것, 본문의 예언들 그리고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이 이집트로 피신하여 살게 된 것 등이다. 앞서 우리는 수차례에 걸쳐 이집트에 대해서 공부했다. 히브리인들은 초기에 이집트로 내려간 일이 꽤 많았다. 이집트는 고대 세계의 곡식 창고로 기억적 지식을 뜻한다. 우리가 학교 혹은 교회 등에서 삶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을 때는 “이집트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주님 역시 우리처럼 아기로 태어날 때 무기력하고 무지하여 지식을 습득해 나가야 했다. 하지만 주님은 어느 인간보다도 더 빨리 완전하게 습득해 갔다. 또한 주님은 특별히 구약성서의 글자적 지식을 완전하게 배우셨기 때문에 신성은 늘 그분에게 흐르고 있었고 전 삶이 성서로 충만할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 성서를 자주 인용하신 것은 이러한 것을 증거 한다. 주님이 유아기 때 직접 이집트로 피신하셨던 것은 그분의 삶의 단계 중에서 배움의 단계를 표현한다.

주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 거룩한 땅은 3 구역으로 나뉘져 있었다. 남쪽의 유다는 우리 삶의 가장 깊은 면 즉 의지를 표현한다. 중앙의 사마리아는 삶 가운데서 생각하는 면을 표현한다. 그리고 북쪽의 갈릴래아는 우리 삶 가운데서 행동(conduct)하는 측면을 표현한다. 주님은 유다의 베들레헬에서 탄생하셨다. 이는 우리가 태어날 때 신뢰심과 순진함을 가지고 태어남과 같다. 그리고 주님은 이집트로 가셨는데, 이는 우리의 배우는 상태를 표현한다. 그 후 주님은 거룩한 땅으로 되돌아 가셨는데, 그 땅은 베들레헬이 아닌 갈릴래아였다. 주님은 갈릴래아에서 성장하셨는데,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거듭날 때 보다 바깥쪽, 곧 자연적인 면에서부터 거듭남을 시작하여야 주님의 질서에 맞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님의 선교하는 삶 즉 그분의 마지막 지상 생활의 3년은 갈릴래아의 가버나움에서 지내셨으며, 큰 축제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예루살렘에 가실 때는 늘 사마리아를 거쳐 내려가시고 되돌아 오셨다. 이는 우리의 삶이 말씀에 맞아 질서 있게 되는 것을 표현한다.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자연적인 면이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육신만을 위한 삶 즉 의식주 해결을 위한 것으로 보이거나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보다 깊은 삶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영적으로 발전하는 삶은 느리지만 규칙적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 함을 알게 된다. 이렇게 주님을 향해 규칙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이유는 이렇게 규칙적으로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음으로 영혼이 성장을 할 영감을 얻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삶의 두 가지 다른 면들로 보이는 자연적인 삶(육체적인 행위가 근본이 되는 삶)과 영적인 삶(마음의 작용이 근본이 되는 삶)이 결국은 하나라는 것을 지각하게 된다.

기본 상응 공부

유다 = 교인들이 갖는 의지 또는 동기적인 측면
 사마리아 = 사고적인 측면

질문 정리

- 1) 성경은 크게 어떻게 나뉘는가?
- 2) 글자상의 역사로 구약성서는 어떤 국가에 대한 것인가?
- 3) 이스라엘 민족은 몇 지파인가?
- 4) 그 땅의 큰 두 부분에 정착된 국가는 무엇인가?
- 5) 이스라엘 왕국에 속했던 백성들은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 6) 어떤 나라가 유다 백성을 포로가 되게 했는가?
- 7) 유다 백성은 얼마나 오랫동안 바빌론에 붙잡혀 있었는가?
- 8) 포로가 된 백성 중 일부는 귀환했는데, 이것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 9) 귀환한 백성은 무엇을 다시 지었는가?
- 10) 신약 시대의 거룩한 땅은 어떻게 세 부분으로 구분되었는가?
- 11) 예수는 어디서 태어나셨는가?
- 12) 예수의 어머니는 누구인가?

- 13) 예수 아버지 누구인가?
- 14) 주님은 요셉의 꿈에서 어떻게 아기를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 15) 당시 유다의 왕은 누구인가?
- 16) 아기가 태어났을 때 하느님은 요셉에게 무엇을 지시하셨는가?
- 17) 헤로데 왕은 왜 주님을 죽이려고 했는가?
- 18) 헤로데는 이를 어떻게 실행했는가?
- 19) 요셉에게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언제였는가?
- 20) 요셉의 가족은 어디에 정착했는가?

질문의 답

1)신약과 구약성서 2)히브리인 국가 3)열 두 지파 4)이스라엘, 유다 왕국 5)아시리아로 끌려갔다 6)바빌론 7)70년 8)유대주의의 재 건립 9)성전 10)갈릴래아, 사마리아, 유다 11)베들레헴 12)마리아 13)하느님 14)예수 15)헤로데 16)이집트로 피신하라고 하심 17)자기 왕권을 뺏길까봐 18)베들레헴에 있는 어린 사내 아기들을 죽였다 19)헤로데가 죽은 때이다 20)나자렛

27

동방 박사의 방문

머리말

이 공과는 절기를 위한 특별 공과이다. 이 공과에서 지적해주어야 할 것은 말씀에서 동방의 박사의 이름이나 그 수가 몇 명인지는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단지 말씀에서 세가지 선물이 말해진 것으로 미루어 아마 현인들(박사들)의 숫자도 셋일

것 같다는 대중의 추측이 이어져 오다가 전통으로 굳혀진 것 뿐이다. 이 세 명에게 주어진 이름, 가스팔(Gaspar), 멜키올(Melchior), 벨다살(Balthazar) 역시 전설적일 뿐인바, 말씀의 일부로 오인해서는 안된다. 성탄절의 많은 연극 혹은 이야기들은 이러한 전통에 기반 한다. 우리는 성경 교육과정 처음부터(어린 아이들을 포함) 성경과 전통(tradition)을 구분하여 알아야 한다. 이는 성경과 전통의 혼동은 시간이 지나면 고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성서 본문: 마태복음 2장

2장: 1. 예수께서 헤로데왕 때에 유다 베들레헬에서 나셨는데 그 때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2. “유다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하고 말하였다. 3.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왕이 당황한 것은 물론, 예루살렘이 온통 술렁거렸다. 4. 왕은 백성의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다 모아 놓고 그리스도께서 나실 곳이 어디냐고 물었다. 5.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유다 베들레헬입니다. 예언서의 기록을 보면, 6. ‘유다의 땅 베들레헬아, 너는 결코 유다의 땅에서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영도자가 너에게서 나리라’고 하였습니다.” 7. 그 때에 헤로데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정확히 알아보고 8. 그들을 베들레헬으로 보내면서 “가서 그 아기를 잘 찾아보시오. 나도 가서 경배할 터이니 찾거든 알려 주시오”하고 부탁하였다. 9. 왕의 부탁을 듣고 박사들은 길을 떠났다. 그 때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마침내 그 아이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10. 이를 보고 그들은 대단히 기뻐하면서 11. 그 집에 들어 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리고 보물 상자를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12. 박사들은 꿈에 헤로데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하느님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13. 박사들이 물러 간 뒤에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헤로데가 아이를 찾아 죽이려 하니 어서 일어나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알려 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하고 일러 주었다. 14. 요셉은 일어나 그 밤으로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14.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살았다. 이리하여 주께서 예언자를 시켜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16. 헤로데는 박사들에게 숙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어 박사들에게 알아 본 때를 대중하여 베들레헴과 그 일대에 사는 두 살 이하의 사내아이를 모조리 죽여 버렸다. 17. 그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 18. “라마에서 들려오는 소리, 울부짖고 애통하는 소리, 자식 잃고 우는 라헬 위로마저 마다는구나!”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19. 헤로데가 죽은 뒤에 주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의 꿈에 나타나 20.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이미 죽었으니 일어나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하고 일러 주었다. 21. 요셉은 일어나서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 왔다. 22. 그러나 아르켈라오가 자기 아버지 헤로데를 이어 유다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리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다가 그는 다시 꿈에 지시를 받고 갈릴래아 지방으로 가서 23. 나자렛이라는 동네에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를 시켜 “그를 나자렛 사람이라 부르리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교리 요점

- *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예물은 우리의 사랑과 믿음 그리고 그분에 대한 순종이다.
- * 주님은 때가 찼을 때(in the fullness of time, plenitudo temporis)오셨다. 즉 어떤 선과 진리도 인간 중에 더 이상 없을 때 주님은 오신 것이다.

해설

구약성서는 인간이 주님대신 자아를 찾음으로 인해서 인류가 영적 하향 길로 접어드는 과정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그리하여 사람들의 마음은 점차 진리에 문을 닫게 되었다. 우리는 자신의 길만을 고집하면 진리를 볼 수 없다. 사람들은 모세 시대 때부터 성경과 모세의 법을 가졌다. 그러나 그들은 법이 의미하는 바를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율법을 교묘히 피해가는 방법을 만들어 갔다. 그러나 율법은 그들 중 학식 있는 자들에 의해 책으로 만들어져 대대로 물려졌기

때문에 거룩한 것으로 여겨졌다. 주님은 “하느님의 계명을 무익한 결과로 만든 자들”이라며 그들을 질책하셨다. 결국 신약 성서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는 선해지기를 간절히 바란 사람들까지도 진실로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헤아릴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악은 점점 더 강해져 이 세상뿐 아니라 영계에서도 극성을 부리게 되었다. 이는 수많은 악인들이 영계로 갔기 때문이다. 주님은 지옥의 권세와 싸워 극복하고 영계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 주시기 위해 세상으로 오셔야 했다. 주님께서 이 과업을 수행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육체를 입어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셨다. 이는 신성이 신성 그대로 존재할 때에는 그분 근처에 악이 절대로 올 수 없기 때문이다. 주님은 마리아가 어머니로 선택되고 그 여인을 통해 인간의 몸과 마음의 형체를 얻음으로써 세상에 태어나셨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에게는 인간의 아버지는 없으며 그분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이셨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주님의 탄생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마태와 누가복음서에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의 탄생에 대해 정확히 말하지 못한다. 무관심한 자는 주님의 탄생에 신경조차 쓰지 않을 것이며, 사악한 자는 그것을 말하되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다. 주님의 탄생은 단순한 선행과 슬기로움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만 말해질 수 있다. 이는 그들이 주님을 환영하기 때문이다. 목자와 동방의 박사들 또한 위의 두 계층에 속한다.

동방의 박사들은 별에 의해 인도되었다. 그들은 고대 말씀의 일부를 전승 받은 고대 교회로부터 남아 있게 된 선한 자들(a good remnant of the Ancient Church)에 해당된다. 발람의 예언(민수기 24:17절) 역시 별에 대해서 말한다. 우리는 그 별을 물리적 별로 여겨서는 안 된다. 그 별은 영계로부터 온 빛을 의미하며, 천적인 것들에 관한 지식을 표현한다. 별은 안내하는 빛이다. 이는 오래 전 항해 때에 별이 안내 역할을 했음을 상기하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목자들은 큰 빛을 보았는데, 그것은 박사들이 본 빛과 같은 것이었다. 성경에는 박사와 목자들을 제외하고는 별 혹은 빛을 본 사람에 대한 기록이 없다.

박사들이 가져온 선물인 황금과 유향 그리고 몰약은 사랑과 믿음 그리고 순종을 상징한다. 진실로 슬기로운 사람은 그 선물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 우리가 주고받는

성탄절의 선물에도 그것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주님은 첫 성탄절에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주셨다. 우리의 심정 안에 주님의 이타적 사랑을 갖게 되면, 우리는 선물을 많이 받아서 기뻐하기 보다는 남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들로 인해 행복하게 된다. 즉,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해줄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때 진정한 행복이 있게 됨을 명심해야 한다.

이집트는 우리의 기억적 지식을 표현한다. 주님은 우리와 같이 어린 시절을 거쳐 기억적 지식을 획득하셔야 했다. 이는 주님이 그분 내에 신성한 생명이 담기고 표현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을 가져야 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님이 태어나신 후 이집트로 피신하신 것을 통해 기술된다.

동방 박사와 요셉은 “꿈에” 지시를 받았다. 잠자는 시간은 우리의 세상적 생각과 관심이 한 쪽에 놓이게 되므로, 주님은 우리가 깨어 있을 때 보다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실 수 있다. 많은 이들이 말씀 안에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 가르쳐졌다. 주님은 더 이상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가르치시지는 않지만, 우리가 잠 잘 때 우리의 몸과 영혼을 위해서 아주 많은 일을 하신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

「씨뿌리는 자(The Sower)」라는 책에서는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문의 이야기들은 두 왕들을 대비시켜 준다. 그중 하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헤로데왕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 태어난 유대인의 왕이다. 주님은 신성한 사랑과 진리의 권능을 가진 왕이며, 헤로데 왕은 인간의 심정을 장악하고 있는 악과 거짓의 권세를 대표한다. 악마가 주님의 면전에서 발악을 했던 것 같이 새로운 왕의 출현은 헤로데를 당혹하게 했음이 당연하다.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추구하며 인정해야 한다. 특히, 우리는 그분의 진리를 배우고 그것에 우리의 삶을 맞춰 감으로써 그분이 우리의 왕임을 표현해야 한다. 주님의 진리들을 추구하는 이들은 영적으로 슬기로운 자 즉 동방의 박사이다. 동방의 박사들이 지닌 지식은 바로 그들이 본 별이다. 그들은 그 별을 기쁨으로 따라갔기 때문에 주님에게로 확실히 인도될 수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기본 상응 공부

금 = 사랑
유향 = 믿음

질문 정리

- 1) 성탄절은 누구의 생일인가?
- 2) 주님은 언제 세상에 오셨는가?
- 3) 그분은 어디서 태어나셨는가?
- 4) 주님 외에 누가 그곳에서 태어났는가?
- 5) 박사들은 어디에서 왔는가?
- 6) 왜 그들이 오게 되었는가?
- 7) 그들은 별의 의미를 어떻게 알았는가?
- 8) 그들은 먼저 어디로 갔는가?
- 9) 헤로데는 박사들이 찾는 곳을 어떻게 알았는가?
- 10) 박사들은 주님이 탄생하신 정확한 장소를 어떻게 발견했는가?
- 11) 그들은 어떤 예물을 주님께 바쳤는가?
- 12) 박사들은 왜 헤로데에게 되돌아가지 않았는가?
- 13) 요셉은 주님을 어디로 피신시켰는가?
- 14) 요셉은 어떻게 지시를 받았는가?
- 15) 헤로데는 어떤 참혹한 짓을 행했는가?
- 16) 주님을 거룩한 땅으로 다시 모시도록 요셉에게 언제 말해졌는가?
- 17) 그들은 어디를 거주지로 정했는가?
- 18) 첫 성탄절 날 주님은 어떤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 19)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세 가지 선물은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예수 2) 각 년도가 해당됨 3) 베들레헴 4) 베냐민, 다윗 5) 동쪽 6)

별을 보았기 때문 7) 상응에 관한 고대 지식으로 8) 예루살렘 9) 율법 학자들이
예언서에서 발견했다 10) 별의 인도로 11) 금, 유황, 몰약 12) 꿈에 지시를
받았기 때문 13) 이집트 14) 꿈으로 15) 베들레헴 주위의 모든 사내아이들을
죽였다 16) 헤로데가 죽은 후 17) 갈릴래아의 나자렛 18) 그분 자신 19)
사랑, 믿음, 순종

28

세례를 받으신 주님

머리말

세례자 요한에 관한 면모를 살피기 위해 마태복음 11장 7-15절과 14장 1-12절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11절을 읽어 보자. 또한 누가복음 1장 5-20절과 39-45절
그리고 57-80절, 누가복음 3장 10-14절, 요한복음 1장 19-30절, 이사야 40장 3절
그리고 말라기 4장 5-6절을 읽고 본문을 공부하기 위한 준비를 하자.

성 서 본 문: 마태복음 3장

3장: 1.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다 광야에서 2.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다가 왔다!”하고 선포하였다. 3.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들린다. 너희는 주의 길을 닦고 그의 길을 고르게
하여라.” 4.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며
살았다. 5. 그 때에 예루살렘을 비롯하여 유다 각 지방과 요르단 강 부근의 사람들이

다 요르단강으로 요한을 찾아 가서 6. 자기 죄를 고백하며 세례를 받았다. 7. 그러나 많은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사두가이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요한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 독사의 족속들이! 닥쳐 올 그 징벌을 피하라고 누가 일러 주더냐? 8. 너희는 회개했다는 증거를 행실로써 보여라. 9.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는 말은 아예 할 생각도 말아라. 사실 하느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드실 수 있다. 10.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닿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11.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분은 나보다 훌륭한 분이어서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12. 그분은 손에 키를 드시고 타작마당의 곡식을 깨끗이 가려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13.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래아를 떠나 요르단강으로 요한을 찾아 오셨다. 14. 그러나 요한은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선생님께서 제게 오십니까?”하며 굳이 사양하였다. 15. 예수께서 요한에게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하고 대답하였다. 그제야 요한은 예수께서 하하시는 대로 하였다. 16.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홀연히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당신 위에 내려오시는 것이 보였다. 17. 그 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 왔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교리 요점

* 세례란 거듭남이 있기 전에 있어야 할 회개와 개혁신을 뜻한다.

해설

마태복음서에는 주님이 이집트에서 되돌아오신 후 나자렛에서 성장하셨다는 기록 외에는 그분의 어린 시절에 대한 설명이 없다. 본문은 그분이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오신 때부터 그분의 적극적 공생애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준다. 그때 그분의 나이는

30세였다.

이사야 40장 3절과 말라기 3장 1절을 읽어 보자. 주님이 태어날 당시, 소수의 사람만이 그분의 출생을 말할 수 있는 심정 상태를 갖고 있었다. 선해지기를 원했던 이들을 포함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모든 지식을 잃은 상태였다. 따라서 그들은 무지하고 악한 삶을 영위했다. 이런 심정상태에서 그들은 주님을 받을 수 없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이 악함을 인식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기 전에 개혁하려는 시작이라도 해야 했다. 이는 히브리 민족이 국가 형태를 갖추기 전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 그들의 주님에 대한 반역적 소질을 청산하고 거룩한 땅에 발 디딜 수 있었음과 유사하다. 따라서 세례 요한은 주님 앞에 보내져서 회개를 촉구하고 삶을 정화하고자 한 이들이 세례를 받도록 조처된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삶 안에 있는 잘못을 인식하고 그것을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올바른 것을 행함을 배울 수 없다. 이것은 회개라고 한다. 우리의 심정은 아주 이기적이고 우리의 지성은 스스로의 행위를 위한 핑계나 변명을 찾는데 영특하기 때문에 회개는 무척 힘들다. 요한은 과거 예언자들처럼 야생적이고 거칠었으며, 낙타 털옷과 가죽띠를 허리에 두르고 있었다. 이러한 세례자 요한의 차림새는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려고 결심하고 진리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세상살이를 아주 팍팍하게 느끼는 우리의 심정을 그린다. 물로 베푸는 요한의 세례는 우리가 받는 세례와 같다. 이는 주님의 진리에 따라 자신의 삶을 정화하고자 하는 바램을 뜻한다.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진 후에야 비로소 주님은 우리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게 된다. 그때 그분의 영은 사랑으로 우리의 심정을 채우고, 그런 후에 팍팍하게 느껴지던 삶이 변화하여 의를 행할 때 우리의 마음은 진정으로 기뻐하게 된다. 물세례란 우리의 일상생활을 정화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책임 부분이다. 성령 세례는 주님의 진리가 우리의 지성(mind)에 이를 때 우리의 생각이 정화되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불세례는 우리의 심정(heart)안으로 주님의 이타적 사랑이 진입하여 자리 잡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때로 스스로의 잘못이 들어나게 될 때 잘못을 인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요한 앞에 세례를 받기위해 나선 이유는 스스로의 선함을 인정받고 죄악에 대한 벌을 피해 보려는

속셈에서였다. 그래서 요한은 그들에게 “회개했다는 증거를 행실로써 보여라”라고 말했다. 즉, 그는 악을 멈추지 않는 한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들을 호통한 것이다. 악행을 끊고 선한 행실을 배우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지켜야 할 규율이다.

요한에게 세례 받으심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하나는 주님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주님이 세례 받으신 후 그분 위에 내려 온 비둘기가 상징하듯이 그분은 회개해야 할 어떤 악도 행하지 않으셨음에도 진리를 수단으로 모든 악들과 싸우는 시험들이 가득한 삶을 사셔야 했기 때문이다. 새 중에 비둘기, 동물 중에 양은 순진함을 상징한다.

주님은 복음서에서 자주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진다. 그분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선조 대대로 유전되어 온 모든 악들을 지니고 태어나듯이, 그분은 어머니인 마리아로부터 태초부터 인류가 쌓아온 모든 악들을 지닌 인성을 입으셔서 모든 악들을 정복하게 된다. 그럼으로써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받아 어떻게 악을 극복해 갈 수 있는지 보여주시는 것이다. 유한한 인간 본성은 하느님이 아니다. 당시 사람들은 주님 내에 있는 신성한 영혼이 아닌 인간 본성만을 보았다. 따라서 그분의 지상 생활에 대한 기록은 그분을 하느님의 아들 또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한다.

기본 상응 공부

물세례 = 말씀속의 진리로 생활을 정화함

성령세례 = 주님의 진리로 생각을 정화함

질문 정리

- 1) 주님은 어디서 태어나셨는가?
- 2) 주님은 헤로데로부터 구원되기 위해 어느 곳으로 피신하셨는가?
- 3) 주님의 공생애는 몇세에 시작 되었는가?

- 4) 누가 주님의 길을 준비하도록 보내졌는가?
- 5) 세례자 요한은 어떤 옷을 걸치고 있었는가?
- 6) 그의 음식은 무엇인가?
- 7) 그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 8) 그는 어디서 세례를 베풀었는가?
- 9) 요한이 말한 세 가지 세례란 무엇인가?
- 10) 누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나왔는가?
- 11) 예수를 보고 요한은 무엇을 느꼈는가?
- 12) 주님은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 13) 주님이 세례 받으신 후 하늘로부터 내려 온 것은 무엇인가?
- 14) 하늘로부터의 음성은 어떻게 말했는가?

질문의 답

- 1) 베들레헴 2) 이집트 3) 30세 4) 세례자 요한
- 5) 낙타 털옷에 가죽 띠 6) 메뚜기와 들 풀 7) 회개하라! 8) 요르단 강
- 9) 물, 성령, 불세례 10) 예수 11) 자신의 무가치함
- 12) “이렇게 해야... 하느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이...”
- 13) 비둘기 14)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29

시험을 받으신 주님

머리말

본과의 내용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매우 실제적인 문제로 여겨질 것이다. 우리는 각자에게 오는 시험을 똑바로 보고 굳세게 싸워나감을 배워갈 때만이 영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의를 행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 바램은 총명한 방향을 정하지 못하면 허사가 된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아주 이기적이고 고집스러운 상태에 있을 때 이를 고치려거나 제지하려고 애쓴다. 그들은 때로 그것을 단행하기 위해 심한 꾸지람이나 매를 들지만 쉽게 교정하지 못하기도 한다. 우리는 본과를 통해 시험은 지옥에서 오는 것이며 각 사람의 지성과 심정을 장악하기 위한 악령과 천사들의 싸움임을 알아야 한다. 또한 싸움의 결정적 요소는 각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성서: 마태복음 4장 1-11절

4장: 1. 그 뒤에 예수께서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2. 사십 주야를 단식하시고 나서 몹시 시장하셨을 때에 3. 유혹하는 자가 와서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4. 예수께서는 “성서에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하고 대답하셨다. 5. 그러자 악마는 예수를 거룩한 도시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뛰어 내려 보시오. 성서에, ‘하느님이 천사들을 시켜 너를 시중들게 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지 않았소?” 하고 말하였다. 7. 예수께서는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떠보지 말라’는 말씀도 성서에 있다”하고 대답하셨다. 8. 악마는 다시 아주 높은 산으로 예수를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화려한 모습을 보여 주며 9. “당신이 내 앞에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하고 말하였다. 10. 그러자 예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성서에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고 하시지 않았느냐?”하고 대답하셨다. 11. 마침내 악마는 물러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들었다.

교리 요점

- * 주님은 지상생활 동안 많은 시험들을 받으셨다.
- * 우리의 영은 처음부터 영계에 존재하여서 좋은 영들과 나쁜 영들 양쪽 모두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해설

앞서 공부했듯이, 세례는 주님의 진리에 따라 우리의 생활을 정화하겠다는 바램의 표시이다. 우리는 이러한 결심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종종 어려운 시기를 맞는다. 이때에 미덕을 행하는 것은 괴팍하고 메마른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기적 탐욕은 전보다 더 달콤하게 느껴진다. 이는 주님이 세례 받으신 직후 광야에서 단식하시며 시험받으신 이유이다.

주님이 악마에게 시험받으신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의 비유이다. 세상에는 왕이라 할 수 있는 큰 악마는 존재하지 않는다. 악을 사랑함으로 통치되는 지옥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악마라 불린다. 악마 (the devil)란 악에서 나오는 모든 힘을 인격화한 것이고, 사탄 (Satan)은 거짓에서 나오는 모든 힘을 인격화한 것이다. 이처럼 본문에 기록된 세 개의 시험들은 주님이 지상 생활을 통해 겪게 되는 것들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시험이다.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빵을 만들어 보라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만족케 만들라는 것, 즉 하느님에 관한 지식과 영적인 것이 없이 외적 선한 일(external good work)을 행하는 것만으로 선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험이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 내리라는 것이며, 스스로 돌보아 주시는 분이 하느님이라 했으니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것이었다. 이는 우리의 영혼에 해가 되는 줄 알면서도 무언가를 시도하려는 시험이며, 우리의 어리석은 행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다. 즉, 우리는 매주 교회에 나가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하고 입으로 말하면 나머지 6일 동안 자신을 기쁘게 할 이기적인 일에 집중하여 어떤 과오를 행하게 되더라도 주님이 사랑으로 용서하실

것이므로 우리의 구원에는 전혀 상관없다고 여길지 모른다. 그러나 본문은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임을 가르쳐 준다.

세 번째 시험은 악마에게 절하며 예배하라는 것이다. 이는 주님의 뜻을 배우며 실천하는 것을 포기하고 사리추구와 자기만족만을 추구하는 시험이다.

이 세 가지 시험은 행동과 사고 그리고 의지라는 세 단계에서 있게 되는 우리의 모든 시험을 요약해 주고 있다. 주님은 세례 받으신 후 공생애를 준비하시는 과정으로, 그분의 인성 안에 있는 악한 경향성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40일간 계셨다. 그러나 그것은 그분에게 있어 단 한 번의 시험으로만 끝나지 않았다. 즉, 우리가 글자에서 느끼듯이 한 번의 큰 전투로 그분이 모든 시험을 통과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주님께서도 우리의 거듭남과 아주 비슷한 과정을 겪으셨다. 우리는 주님께서 유아기 때부터 항상 시험들을 접하셨고 그것들이 점차 어려워져 마지막으로 가장 크고 어려운 시험인 십자가에서의 고난에 이르는 더욱 깊은 형태의 시험들을 극복해 가셨음을 주지해야 한다. 이런 시험들은 본문에서 세 가지로 함축되어 있을 뿐이다. 앞서 공부했듯이, 광야는 메마른 심정상태를 상징하며 숫자 40은 시험을 상징하는 것 중 하나이다.

우리는 주님이 시험자를 어떻게 만나셨는지 주목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주님이 어린 시절에 이집트에 체류하셨던 것은 그분도 우리처럼 어린 시절에 배워야 하셨음과 특별히 그분이 배우려고 선택한 것은 구약성서의 글자였음을 상기해야 한다. 그래서 주님은 시험 때마다 “성경에....라고 쓰여 있나니...”하고 답하시고, 제시된 악을 금하는 가장 명확한 성서의 구절을 인용하실 수 있었다. 이것은 우리들을 위한 최상의 본보기이다. 주님은 그분의 말씀 안에 계신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경의 구절들을 배워 나가고 시험을 겪을 때 마다 그것들을 반복하면, 주님의 권능은 구절들을 통해 우리의 심정 안으로 들어와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힘을 우리에게 주시게 된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있는 어떤 나쁜 점을 깨달아서 그것을 고치기 원한다면, 우리는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있는 나쁜 점을 꼬집고 나무라는 구절이나 그것에 대치되는 선함을 명령하는 구절을 찾아서 늘 암송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특별히 어떤 구절을 갖지 못하거나 갑자기 시험이 닥쳐 준비되지 않았을 때도 있다. 이러한 때에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구절이 제 10절의 “사탄아! 물러가라!” 이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를

위해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사탄과 악마”는 우리의 자연적 이기심을 충동질하기 위해 언제나 우리 곁에 바짝 붙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용감하게 시험들을 극복하려고 하면, 우리는 악마 대신에 우리를 도우려고 하는 천사들을 선택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11절을 읽어 보자. 앞서 배웠듯이, 우리는 언제나 두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의 육체적 몸과 자연적 감각은 우리들 주위의 물질적 세계에 우리의 의식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의 세계인 우리의 바램과 생각들은 물질이 아니며, 우리 영혼은 영적인 세계에 있다. 스웨덴북은 우리는 때로 천사들에 의하여 일종의 그림자 같이 보이기도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지옥 혹은 천국에서 있음을 선택한다.

기본 상응 공부

돌 = 진리, 특히 자연적 평면의 진리

빵 = 사랑의 선

질문 정리

- 1)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누가 왔었는가?
- 2) 세례자 요한은 어디에서 살았는가?
- 3) 그는 무슨 옷을 입고 어떤 음식을 먹었는가?
- 4) 그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 5) 주님이 세례 받으러 오시자, 요한은 뭐라고 말했는가?
- 6) 주님은 뭐라고 답변 하셨는가?
- 7) 주님이 세례 받으시자, 하늘로부터 무엇이 내려왔는가?
- 8) 하늘의 음성은 뭐라고 말했는가?
- 9) 세례 받으신 후 주님은 어디로 가셨는가?
- 10) 주님은 광야에서 얼마 동안 계셨는가?

- 11) 거기서 누가 주님을 시험했는가?
- 12) 첫 시험은 무엇인가?
- 13)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인가?
- 14)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인가?
- 15) 매 시험마다 주님은 어떻게 답하셨는가?
- 16) 우리가 잘못된 것을 하도록 유혹될 때 재빨리 사용할 수 있는 두 마디의 말은 무엇인가?
- 17) 시험이 끝나자 누가 와서 주님을 시중들었는가?

질문의 답

- 1) 세례자 요한 2) 유다 광야 3)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었음
- 4) 회개하라! 5) “제가 선생님께 세례 받아야 합니다.” 6)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느님께서 원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7) 비둘기 8)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 9) 광야 10) 40일 11) “악마”
- 12) 돌이 빵이 되게 해 보라 13) 스스로 뛰어 내려 보라 14) 악마에게 절해보라
- 15) “성서에 ...라고 쓰여 있다” 16) “사탄아 물러가라!” 17) 천사

30

주님의 첫 제자들

머리말

본과를 통해 제자와 사도의 의미를 확실히 알아 두자.

성서: 마태복음 4장 12-25절

4장: 12.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예수께서는 다시 갈릴래아로 가셨다. 13. 그러나 나자렛에 머물지 않으시고 즈불룬과 납달리 지방 호숫가에 있는 가파르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14. 이리하여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 15. “즈불룬과 납달리, 호수로 가는 길, 요르단강 건너편, 이방인의 갈릴래아. 16.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겠고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리라”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17. 이때부터 예수께서는 전도를 시작하시며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다가 왔다”하고 말씀하셨다. 18. 예수께서 갈릴래아 호숫가를 걸어가시다 베드로라는 시몬과 안드레아 형제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19.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의 어부로 만들겠다.”하시자 20.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갔다. 21. 예수께서는 거기서 조금 더 가시다 이번에는 제베대오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보셨는데 그들은 자기 아버지 제베대오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22.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시자. 22. 그들은 곧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떠나 예수를 따라 갔다. 23. 예수께서 온 갈릴래아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병자와 허약한 사람들을 모두 고쳐 주셨다. 24.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지자 사람들은 갖가지 병에 걸려 신음하는 환자들과 마귀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자들과 중풍병자들을 예수께 데려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도 모두 고쳐 주셨다. 25. 그러자 갈릴래아와 데카폴리스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르단강 건너편에서 온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랐다.

교리 요점

- * 주님은 지상에 계셨을 때 물질적으로 인간을 위하여 행하신 것과 똑같은 기적을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다.
- *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자신의 사상을 버리고 그분을 따라야 할 것이다.

해설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의 이름은 우리 모두에게 꽤 친숙하다. 그들은 주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어서 그분의 공생애 기간 동안 늘 함께 했다. 또한 그들과 더불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아는 주님이 부르신 첫 네 제자였다.

그들은 갈릴래아 바다 근처인 가버나움에 거처했고, 그들 모두는 어부였다. 바다란 기억에 모인 지식을 표현하므로, 이는 우연이 아니다. 고기란 이 같은 지식에 대한 애착 즉 이 같은 지식에 대한 애착심을 뜻한다. 영적인 어부란 삶에 유용한 지식을 기억으로부터 발견하기를 사랑하는 이들을 뜻한다. 이들이 바로 주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다. 네 명의 사람들은 주님과 처음 대면했을 때 배 안에 있었다. 그들 중 두 명은 그물을 던지고 있었고, 다른 두 명은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중 이었다. 스웨덴북은 배 혹은 그물은 교리를 표현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면 교리(doctrine)란 무엇인가? 간단히 설명하자면, 교리는 가르침이며 말로 표현되도록 체계화한 진리를 뜻한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나 선에 관해 말할 때 교리를 말하게 된다. 또한 선행과 선함을 말할 때에도 교리를 말하게 된다. 따라서 교리를 언급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말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교리가 진실 혹은 거짓인지와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우리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점검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때때로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이 진정한 진리인지 점검하지 않고 자신이 믿기 원하는 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말하기 때문이다.

교리는 어떤 때는 배(ship)와 같이 그리고 어떤 때는 그물처럼 비유될 수가 있다. 네 제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듣기 전 앉아 있던 배는 그들이 양육되어 왔던 교회 속의 포괄적 교리들을 의미한다. 그들의 그물이란 그들 스스로 “고기를 잡기 위하여” 즉 그들의 지식이 일상생활에서 쓸모 있도록 하기 위해 엮어진 사상을 묘사한다. 그들은 그들의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도록 불려졌다. 즉, 그들은 그들의 종교적 교리 혹은 사상으로부터 벗어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을 보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불려진 것이다. 이러한 부름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있다. 즉, 우리는 일상생활 중에 우리의 주장만을 고집하려는 자연적 생각과 사상을 떠나 주님이 우리의 지도자이며 선생이심을 인식하도록 불려진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본문은 주님이 행하신 몇 가지 일을 보여주고 있다. 제 23절을 자세히 읽어 보면, 주님이 하셨던 세 가지 일을 알 수 있다. 주님은 전도하시며 가르치셨고, 병을 고치셨다. 제 24절을 읽고, 주님께 치료받기 위해 온 아픈 사람들의 병은 어떤 것들이며 그것들은 어떤 영적 병을 표현하는지 생각해 보자.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때, 두려워 할 때,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 혹은 나쁜 감정을 갖게 될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갖가지 병에 걸려 신음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나쁜 성격, 증오, 또는 폭력적인 욕구 등의 해로운 감정들을 조절할 수 없게 느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아 복음서에서 등장하는 마귀 들린 사람의 상태처럼 되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스스로의 방식이 잘못 되어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전혀 이해할 수 없게 될 때, 우리의 마음 상태는 마치 미친 사람 같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올바른 것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 우리는 중풍에 걸린 자와 같다. 말씀에 언급된 모든 약함이나 질병들은 각각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다. 주님을 따르는 데는 어떤 조건, 인간적인 부귀, 혹은 능력도 중요하지 않다. 모든 인간들은 이미 창조 때부터 주님의 추종자였으며, 그분은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신다. 주님은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우실 수 있다. 주님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하여 그 안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밝혀주시는 데, 지금의 우리는 그 때의 제자들이 이해했던 것보다 더 낮게 그분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다. 당시 주님의 제자들은 육안으로 그분을 보고 들었지만, 우리는 영 안에서 심정과 지성으로 그분을 뵈고 그분의 소리를 듣고 있다.

기본 상응 공부

고기 = 기억적 지식에 대한 애착

배 = 넓은 측면의 교리

질문 정리

- 1) 주님은 공생애 기간 동안 어떤 바다 근처에 주거지를 두셨는가?
- 2) 그분이 사신 곳의 이름은 무엇인가?
- 3) 주님이 부르신 첫 제자들은 누구인가?
- 4) 그들의 직업은 무엇인가?
- 5) 그들은 부름 받을 당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 6) 주님은 그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7) 주님이 부르시자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 8) 주님의 공생애를 구성하는 세 가지 형태는 무엇인가?
- 9)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형태는 무엇인가?
- 10) 주님을 따른 수많은 무리들은 어디에서 왔는가?
- 11) 바다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질문의 답

- 1) 갈릴래아 2) 가버나움 3) 베드로,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 4) 어부
- 5) 그물을 가지고 일하고 있었다. 6) “나를 따라 오라” 7) 즉각 따라 나섰다.
- 8) 가르침, 전도하심, 병을 고치심 9) 마귀 들린 자, 간질병자, 중풍병자
- 10) 사방 각처에서 왔음 11) 기억 안에 모아진 지식

31

산 위에서의 설교

머리말

산 위에서의 설교 규모를 가늠해 봄으로써 세심하게 공부하는 기회를 가져보자.

그리고 최소한 마지막 비유는 기억하도록 하자.

성서: 마태복음 5, 6, 7장

5장: 1.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가 앉으시자 제자들이 곁으로 다가왔다. 2. 예수께서는 비로소 입을 열어 이렇게 가르치셨다. 3.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4.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5.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6. 옳은 일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만족할 것이다. 7.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8.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을 뵈게 될 것이다. 9.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10.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11.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터무니없는 말로 갇은 비난을 다 받게 되면 너희는 행복하다. 12.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받을 큰 상이 하늘에 마련되어 있다. 옛 예언자들도 너희에 앞서 같은 박해를 받았다.” 13.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만들겠느냐? 그런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 없어 밖에 내버려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15. 등불을 켜서 뒷박으로 덮어 두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등경 위에 얹어 둔다. 그래야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밝게 비출 수 있지 않겠느냐? 16.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17.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의 말씀을 없애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18. 분명히 말해 두는데, 천지가 없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율법은 일 점 일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19. 그러므로 가장 작은 계명 중에 하나라도 스스로 어기거나, 어기도록 남을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 대접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계명을 지키고, 남에게도 지키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 대접을 받을 것이다. 20. 잘 들어라. 너희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파 사람들보다 더 옳게

살지 못한다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21.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자는 누구든지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옛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22.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사람은 누구나 재판을 받아야 하며 자기 형제를 가리켜 바보라고 욕하는 사람은 중앙 법정에서 넘겨질 것이다. 또 자기 형제더러 미친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붙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23. 그러므로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 할 때에 너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형제가 생각나거든 24.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그를 찾아 가 화해하고 나서 돌아 와 예물을 드리라. 25. 누가 너를 고소하여 그와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서 일른 화해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형리에게 내 주어 감옥에 가둘 것이다. 26. 분명히 말해 둔다. 네가 마지막 한 톨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풀려 나오지 못할 것이다. 27.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28.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는 사람은 벌써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했다. 29. 오른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눈을 빼어 던져 버려라.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30. 또 오른손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손을 찍어 던져 버려라.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31. “또한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면 그에게 이혼장을 써 주어라’고 하신 말씀이 있다. 32.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누구든지 음행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면, 이것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또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면 그것도 간음하는 것이다.” 33. “또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그리고 주님께 맹세한 것은 다 지켜라’고 옛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34.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하늘은 하느님의 옥좌이다. 35. 땅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 땅은 하느님의 발판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예루살렘은 그 크신 임금님의 도성이다. 36. 네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도 회개나 검게 할 수 없다. 37. 너희는 그저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말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38.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양갓음하지 말아라.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고 또 재판에 걸어 속옷을 가지려고

하거든 겹옷까지도 내 주어라. 41. 누가 억지로 오 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 리를 같이 가주어라. 42.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꾸려는 사람의 청을 물리치지 말아라.” 43. “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여라’고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44.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45. 그래야만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 주신다. 46.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47. 또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를 한다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48.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같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6장: 1. “너희는 일부러 남들이 보는 앞에서 선행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서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한다.” 2.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말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그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3.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4. 그 자선을 숨겨 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아 주실 것이다.” 5. “기도할 때에도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남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그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6.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보이지 않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다 들어 주실 것이다.” 7.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 하느님께서 들어 주시는 줄 안다. 그러니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께서는 구하기도 전에 벌써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다. 9.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10.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11.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12.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이를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13.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4.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15. 그러나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16. “너희는 단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얼굴을 하지 말아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에 그 기색을 하고 다닌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그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17. 단식할 때에는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18. 그리하여 단식하는 것을 남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네 아버지께 보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 주실 것이다.” 19. “재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먹거나 녹이 슬어 못쓰게 되며 도둑이 뚫고 들어 와 훔쳐 간다. 그러므로 재물을 하늘에 쌓아 두어라. 거기서는 좀먹거나 녹슬어 못쓰게 되는 일도 없고 도둑이 뚫고 들어 와 훔쳐 가지도 못한다. 21.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22.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며 23. 네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리니 만일 네 마음의 빛이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24.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거나 한 편을 존중하고 다른 편을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25. “그러므로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무엇을 먹고 마시며 살아갈까, 또 몸에는 무엇을 걸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26. 공중의 새들을 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거나 거두거나 곳간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 먹여 주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귀하지 않느냐? 27.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목숨을 한 시간인들 더 늘일 수 있겠느냐? 28. 또 너희는 어찌하여 옷 걱정을 하느냐? 들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그것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29. 그러나 온갖 신성화 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한 송이만큼 화려하게 차려 입지 못하였다. 30. 너희는 어찌하여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꽃도 하느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야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31.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라. 32.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찾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잘 알고 계신다. 33.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34. 그러므로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겨라. 하루의 괴로움은 그 날에 겪는 것만으로 족하다.”

7장: 1.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 받지 않을 것이다. 2. 남을 판단하는 대로 너희도 하느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남을 저울질하는 대로 너희도 저울질을 당할 것이다. 3. 어찌하여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제 눈 속에 들어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 제 눈 속에 있는 들보도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네 눈의 티를 빼내어 주겠다’고 하겠느냐? 5. 이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눈이 잘 보여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낼 수 있지 않겠느냐?” 6.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것들이 밟고 그것을 짓밟고 돌아 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7. “구하라, 받을 것이다. 찾으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8. 누구든지 구하면 받고, 찾으면 얻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9. 너희 중에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10.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11. 너희는 악하면서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12.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 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13.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에 이르는 문은 크고 또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지만 14.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험해서 그리로 찾아 드는 사람이 적다.” 15.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나타나지마는 속에는 사나운 이리가 들어 있다. 16. 너희는 행위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딸 수 있으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17.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마련이다. 18.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19.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모두 찍혀 불에 던져지는 것이다. 20. 그러므로 너희는 그 행위를 보아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 21. “나더러 ‘주님, 주님’하고 부른다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들어간다. 22. 그 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하고 말할 것이다. 23. 그러나 그 때에 나는 분명히 그들에게 ‘악한 일을 일삼는 자들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할 것이다.” 24.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한 말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 25. 비가 내려 큰물이 밀려오고 또 바람이 불어 들이쳐도 그 집은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26. 그러나 지금 내가 한 말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27. 비가 내려 큰물이 밀려오고 또 바람이 불어 들이치면 그 집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 것이다.” 28.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자 군중은 그의 가르치심을 듣고 놀랐다. 29. 그 가르치시는 것이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가 있기 때문이었다.

교리 요점

- * 주님의 진리 위에 인격이 세워져야 한다.
- * 복이란 주님에 의해 주어진 행복을 위한 규율이다.

해설

산이란 주님께 더욱 가까이 있는 상태 즉 생각과 느낌의 보다 높은 평면을 뜻하고, 갈릴리란 세상에서의 일상생활을 의미한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살피기를 원한다면, 세상적인 평면위로 우리의 마음을 한 단계 높이 들어 올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들어 올림 즉 산에 오르는 마음의 상태 없이 우리는 산상 설교 즉 산 위에서의 설교인 주님의 가르침의 참된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게 된다.

설교는 행복으로 인도되는 삶의 특질을 서술함으로 시작된다. “복 있음”은 시편 1편에서 공부한 바와 같이 행복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외적 아름다움, 뛰어난 사업능력, 재력, 건강 혹은 자아신뢰 등을 갖게 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여긴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태어날 당시 가지거나 우리가 쟁취해야 할 최상의 것이라고 간주하기도 한다. 또한 우리가 이것들을 소유하거나 쟁취하면 우리는 성공했다고 인식한다. 그러나 우리는 주위에서 이것들을 소유하더라도 행복하지 못한 이들을 보게 된다. 주님은 복 안에서 행복을 위한 확실하고 유일한 규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 제 17절을 읽어 보자. 복 있음이란 계명을 성취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계명을 지킨 결과가 산상 설교에서의 복들이 가지는 특성(quality)으로 표현된다. 이사야는 “악을 행함을 중단하고 선하기를 배우라”라고 말한다.

산 위에서의 설교의 가르침들은 복의 특질들이 일상생활에서 실현되는 실제적인 예들이다. 산 위에서의 설교의 나머지를 다시 읽고, 주님이 올바른 내적 삶을 어떻게 지적하고 계시는지 정리해 보자. 또한 설교들은 방대한 내용이 글자 속에 들어 있으므로, 한 번에 읽기보다는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읽어야 한다. 우리는 본문의 각 장마다 유명한 단원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즉, 5장에서의 복과 6장에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그리고 7장에서의 황금률이 그러하다. 각 절들의 내용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 친숙할 것이다. 이는 수많은 설교 혹은 강연 등에서 이를 인용하고 사용해왔기 때문이다. 산상 설교의 가르침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에 자극을 주어 스스로를 점검하도록 인도한다. 우리는 때로 주님의 설교를 들었던 신약시대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가르침에 의문을 표시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어떻게 행복하단 말인가?”라고 중얼거리기도 한다. 이런 질문이 있게 되는 것은 “마음이 가난함(poor in spirit)”을 “연약한 마음, 겁쟁이(poor-spirited)”와 같은 의미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님이 의미하신 것이 아니다. 마음이 가난함이란 자신에만 집착하지 않는 이들 즉 스스로가 약한 존재임을 실감하고 주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다. “슬퍼하는 사람”이란 진정으로 자신의 악들을 후회하며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이들이다. “온유한 자”란 다른 사람이 해를 당하기보다 자신이 해함을 당하기를 선택하는 이들이다. 우리는 산 위에서의 설교를 읽어 가면서 주님의 말씀에 자신의 사상을 놓지 말고 주님이 뜻하시는 바를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비유는 산 위에서의 설교를 마무리 하는데 가장 적합하다. 집은 우리의 인격이며, 반석(rock)은 주님의 진리이다. 모래란

인간들의 의견들이다. 비와 홍수 그리고 바람은 선함과 악함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삶에 있게 되는 시험과 시련들을 의미한다. 우리가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여 그 위에 인격의 집을 짓고 그분이 가르치신 대로 느끼고 생각하려고 언제나 노력하면, 시련과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대처하게 된다. 그럼으로 시련과 시험 또는 사별과 실망을 겪게 되는 것, 즉 주님이 허용하시어 우리에게 오는 어떤 시험과 시련도 우리의 영혼에 간직될 선함을 위한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대처하게 된다. 이리하여 주님이 우리의 집 안에 거하시게 되어 우리가 언제나 행복하게 되고, 그분의 이타적 사랑인 행복의 원천이 우리 심정 안에 있게 된다. 행복이란 내적인 느낌이며,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마침내 주님은 권위 있게 말씀하실 수 있었다. 이는 그분만이 권위를 가지셨고, 그분은 하느님이셨기 때문이다.

기본 상응 공부

모래 = 인간의 의견들

폭풍 = 시련이나 시험

질문 정리

- 1) 주님은 세례 받으신 후 어디로 가셨는가?
- 2)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 3) 매 시험 때마다 주님은 악마에게 어떤 형식으로 대답 하셨는가?
- 4) 본문의 내용은 무엇인가?
- 5) 산 위에서의 설교는 무엇으로 시작되는가?
- 6) 복 있음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 7) 주님은 우리가 늘 예상하는 것과 같은 복을 열거하셨는가?
- 8) 주님은 행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가르치셨는가?
- 9) 산 위에서의 설교는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10) 6장에서의 유명한 단원은 무엇인가?
- 11) 7장에서는 유명한 단원은 무엇인가?
- 12) 황금률의 구절을 기억하는가?
- 13) 산 위에서의 설교는 어떤 비유로 마무리되는가?
- 14) 우리의 집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 15) 집을 세우기 위한 안전한 반석은 무엇을 뜻하는가?
- 16) 인간의 견해는 왜 모래와 같은가?
- 17) 주님은 왜 권위를 갖고 말씀하실 수 있었는가?

질문의 답

- 1) 광야 2) 시험 받으셨다 3) “성서에... 라고 씌였나니...” 4) 산 위에서의 설교
- 5) 복(blessings), Beatitude 6) 행복(happy) 7) 아님 8) 주님 9) 3장
- 10)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11) 황금률 (the Golden Rule)
- 12) 성서참조 (마태 7:12, 누가 6:31) 13)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14) 우리의 인격 15) 말씀에서 온 진리 16) 흔들리고, 떠나려가고... 통일된 요소가 없기 때문이다 17) 그분은 권위를 가졌기 때문이다

32

주님의 공생애

머리말

본문은 주님의 공생애를 간략히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다.

성서: 마태복음 8장

8장: 1.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많은 군중이 뒤따랐다. 2. 그 때에 나병환자 하나가 예수께 와서 절하며 “주님, 주님은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하고 간청하였다. 3. 예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시며 “그렇게 해 주마. 깨끗하게 되어라”하고 말씀하시자 대뜸 나병이 깨끗이 나았다. 4.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정해 준 대로 예물을 드려 네 몸이 깨끗해진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하여라”하고 말씀하셨다. 5. 예수께서 가파르나움에 들어 가셨을 때에 한 백인대장이 예수께 와서 6. “주님, 제 하인이 중풍 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하고 사정하였다. 7. 예수께서 “내가 가서 고쳐 주마”하시자 8. 백인대장은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9. 저도 남의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만 제 밑에도 부하들이 있어서 제가 이 사람더러 가라 하면 가고 또 저 사람더러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하고 대답하였다. 10.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께서는 감탄하시며 따라 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정말 어떤 이스라엘 사람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11. 잘 들어라. 많은 사람이 사방에서 모여 들어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에 참석하겠으나 12. 이 나라의 백성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땅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13. 그리고 나서 백인대장에게 “가 보아라. 네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시간에 그 하인의 병이 나았다. 14.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 가셨을 때에 베드로의 장모가 마침 열병으로 앓아누워 있었다. 그것을 보시고 15. 예수께서 부인의 손을 잡으시자 그는 곧 열이 내려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께 시중들었다. 16. 날이 저물었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께 마귀 들린 사람을 많이 데려 왔다. 예수께서는 말씀 한 마디로 악령을 쫓아내시고 다른 병자들도 모두 고쳐 주셨다. 17. 이리하여 예언자 이사야가, “그분은 몸소 우리의 허약함을 말아 주시고 우리의 병고를 짊어지셨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18. 예수께서는 둘러서 있는 군중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다. 19. 그런데 한 율법학자가 와서 “선생님, 저는 선생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 가겠습니다

다.”하고 말하였다. 20. 그러나 예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하고 말씀하셨다. 21. 제자 중 한 사람이 와서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게 해 주십시오”하고 청하였다. 22. 그러나 예수께서는 “죽은 자들의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 두고 너는 나를 따라라”하고 말씀하셨다. 23.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도 따라 올랐다. 24. 그 때 마침 바다에 거센 풍랑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뒤덮이게 되었는데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25. 제자들이 곁에 가서 예수를 깨우며 “주님, 살려 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하고 부르짖었다. 26.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도 믿음이 없느냐? 왜 그렇게 겁이 많으냐?”하시며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자 사방이 아주 고요해졌다. 27.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도대체 이분은 누구인데 바람과 바다까지 복종하는가?”하며 수군거렸다. 28. 예수께서 호수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마귀 들린 사람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오다가 예수를 만났다. 그들은 너무나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다닐 수가 없었다. 29.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하느님의 아들이여, 어찌하여 우리를 간섭하시려는 것입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 오셨습니까?”하고 소리 질렀다. 30. 마침 거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놓아끼르는 돼지 떼가 우글거리고 있었는데 31. 마귀들은 예수께 “당신이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저 돼지들 속으로나 들여보내 주십시오.”하고 간청하였다. 32. 예수께서 “가라”하고 명령하시자 마귀들은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돼지 떼는 온통 비탈을 내리달려 바다에 떨어져 물속에 빠져 죽었다. 33. 돼지 치던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읍내로 달려가서 이 모든 일과 마귀 들렸던 사람들의 일을 알렸다. 34. 그러자 온 읍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나와서 예수를 보고는 저희 고향에서 떠나 가 달라고 간청하였다.

교리 요점

- * 모든 치료의 능력은 주님 안에 있다.
- * 기적은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 행하시는 것을 가르쳐 준다.
- * 말씀 속의 모든 질병은 영혼의 결함 혹은 어떤 약함과 상응된다.

해설

본문은 주님의 공생애에 대한 몇 가지 기적들을 기술한다. 풍랑을 잔잔케 하신 것은 주님의 권능이 생명 없는 자연을 초월함을 보여준다. 사실 주님은 이 정도의 능력을 언제나 갖고 계시며 오늘날에도 변함없으시다. 우리는 종종 날씨를 자신의 기분에 빗대어 표현한다. 예를 들어, “그 사람, 오늘 일기가 아주 흐리던데”라는 표현은 그 사람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됨을 암시한다. 주님은 사람들의 마음에 필요한 것을 갖고 계시며, 자연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나병, 중풍, 열병의 치료는 그분의 능력이 육체를 초월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마귀를 쫓아내시는 것은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속까지 와 닿음을 보여준다.

병을 고쳐 주시는 유일한 조건은 그분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었음을 주지해야 한다. 이것은 자연적 평면에서도 동일하다. 우리는 어떤 일이 불가능하다고 믿으면 그것을 해내지 못한다. 이는 영적 평면인 우리의 애착이나 사고에서도 동일하다. 우리는 흔히 “나는 할 수 없어”, “어떻게 타고난 본성을 고칠 수 있지?” 혹은 “이것은 내 본성이고 내 운명이야.”라고 말하는 실수를 범한다. 이때에 주님은 우리를 똑바로 보시며,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 (마태복음 19:26)

말씀에 있는 모든 질병은 영혼의 특수한 약함 혹은 결함과 상응한다. 영적 문둥병이란 “진리의 모독”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심정으로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대로 살기 원하지 않고 그것을 거절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중풍이란 올바른 길을 꾸준히 걷지 못하는 것 혹은 우리의 선한 의도를 수행할 만한 능력이 없는 상태를 뜻한다. 열병이란 내적으로 잘못된 것을 바라는 것이 끊어 오르는 상태를 표현한다. 마귀 들린 사람이란 악한 생각과 악한 흥분을 의미한다. 이러한 것들은 사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닌 자연적 이기심의 결과들로서, 우리는 그것들을 극복하기 어려운 것처럼 느낀다. 그러나 본문의 기적들은 주님의 도움을 받으면 모든 결함들이 극복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먼저 주님이 하느님이시며 우리의 영적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한다. 이 후에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 도움을 청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분과 협동해야 한다.

건강한 육체를 행복의 필수요건으로 간주하는 이들은 육체적 기적이 오늘날에도 이뤄진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자아를 잊고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면, 우리는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을 보존할 수 있다. 스웨덴북은 주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 행하셨던 것과 같은 기적들을 수행하시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는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날 기적이 수행되면 인간이 주님을 따르기를 원치 않음에도 주님을 믿고 따르도록 인간을 강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업의 성공 혹은 질병의 치료를 위해 주님을 믿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늘날의 우리는 이성의 시대에 있다. 주님은 그분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려는 것을 인간이 자유롭게 선택하기를 원하신다. 그분이 세상에 계셨을 때의 사람들은 아주 세상적이고 물질적이어서 그분이 수행하신 기적을 통해서도 확신할 수 없었다. 이는 마태복음 9장 34절을 통해 알 수 있다. 주님의 기적들은 그분을 믿고 있던 이들의 믿음을 강건케 하였지만, 그분을 믿지 않은 이들에게는 확신을 주지 못했다. 주님이 기적들을 수행하신 제일가는 목적은 그것들이 말씀의 글자의 한 부분으로 기록되어져 상응을 통해 전 시대의 모든 이들에게 그분이 각 사람의 영혼을 위해 행하실 수 있는 것들을 가르치시기 위함이다. 각 기적은 그 자체가 하나의 공부라 되고, 기적의 중요성은 그것의 영적 의미에 있음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기적 속에 담긴 뜻을 헤아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기본 상응 공부

문둥병 = 진리의 모독

열병 = 내면의 나쁜 바람이 불타고 있음

질문 정리

- 1) 주님의 공생애 중에 그분이 행하신 세 가지는 무엇인가?
- 2) 본문은 주님의 세 가지 일 중 주로 무엇에 해당되는가?

- 3) 기적이란 무엇인가?
- 4) 주님이 고치신 질병들은 무엇인가?
- 5) 주님은 베드로의 장모가 지닌 어떤 병을 낫게 하셨는가?
- 6) 주님은 백인대장의 하인을 어떻게 낫게 하셨는가?
- 7) 주님은 제자들과 어디로 가셨는가?
- 8) 바다 한 가운데서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 9) 사람들이 주님을 깨우자,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10) 주님은 바다에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 11) 각기 다른 질병들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2) 주님이 병을 치료 하시게 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었는가?
- 13) 주님은 지상에 계신 동안 왜 기적을 수행하셨는가?
- 14) 오늘날의 우리는 왜 기적을 요구해서는 안 되는가?

질문의 답

- 1) 가르침, 전도, 병 고침 2) 병 고침 3) 주님에 의해 행해진 굉장한 일들
- 4) 나병, 중풍, 열병, 귀신들린 자 5) 열병 6) 그분의 말씀으로 7) 배를 타셨다
- 8) 풍랑을 만났다 9) “그렇게도 믿음이 없느냐”, “왜 그렇게 겁이 많으냐”
- 10) 풍랑을 잔잔케 하셨다 11) 영혼의 약함과 결점들
- 12) 주님이 낫게 해 주신다는 믿음을 환자가 지녀야 했다.
- 13) 믿음을 강건케 하시고 말씀에 기적들이 기록되게 하시려고
- 14) 믿음을 강요당할 염려가 크기 때문이다.

33

하늘나라에 관한 비유

머리말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우리가 천국에 가고자 하면 반드시 죽기 전에 우리들 속에 천국이 와 있어야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진리의 씨를 받아 잘 키우게 될 때 우리 속의 천국이 점진적으로 발달되어 감을 언급한다.

성서: 마태복음 13장

13장: 1. 그 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더니 2. 사람들이 또 많이 모여 들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군중은 그대로 모두 호숫가에서 있었다. 3. 예수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로 나갔다. 4.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바닥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다. 5. 어떤 것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싹은 곧 나왔지만 흙이 깊지 않아서 6. 해가 뜨자 타 버려 뿌리도 붙이지 못한 채 말랐다. 7.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다. 가시나무들이 자라자 숨이 막혔다. 8. 그러나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맺은 열매가 백배가 된 것도 있고 육십 배가 된 것도 있고 삼십 배가 된 것도 있었다. 9.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10. 제자들이 예수께 가까이 와서 “저 사람들에게는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묻자 11.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알 수 있는 특권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받지 못하였다. 12. 가진 사람은 더 받아 넉넉하게 되겠지만 못 가진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13.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14. 이사야가 일찍이,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15. 이 백성이 마음의 문을 닫고 귀를 막고 눈을 감은 탓이니, 그렇지만 앎다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 서서 마침내 나한테 온전하게 고침을 받으리라’고 말하지 않았더냐? 16.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17. 나는 분명히 말한다. 많은

예언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보려고 했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는 것을 들으려고 했으나 듣지 못하였다.” 18. “이제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내포한 뜻을 들어 보아라. 19.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간다. 길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20. 또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곧 기꺼이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21. 그 마음속에 뿌리가 내리지 않아 오래 가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런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닥쳐오면 곧 넘어지고 만다. 22. 또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23.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잘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 사람은 백 배 혹은 육십 배 혹은 삼십 배의 열매를 맺는다.” 24.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에 비길 수 있다. 25.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26. 밀이 자라서 이삭이 맺을 때 가라지도 드러났다. 27.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주인님, 밭에 뿌리신 것이 좋은 씨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고 묻자 28. 주인의 대답이 ‘원수가 그랬구나!’ 하였다.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것을 뽑아 버릴까요?’ 하고 종들이 다시 묻자 29. 주인은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30.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일러서 가라지를 먼저 뽑아서 단으로 묶어 불에 태워 버리게 하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들이게 하겠다.’ 고 대답하였다.” 31.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에 비길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밭에 겨자씨를 뿌렸다. 32. 겨자씨는 모든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지만 싹이 트고 자라나면 어느 푸성귀보다도 커져서 공중의 새들이 날아 와 그 가지에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된다.” 33.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여자가 누룩을 밀가루 서 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온통 부풀어 올랐다. 하늘나라는 어떤 누룩에 비길 수 있다.” 34. 예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군중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35. 그리하여 예언자를 시켜, “내가 말할 때에는 비유로 말하겠고 천지 창조

때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36. 그 뒤에 예수께서 군중을 떠나 집으로 들어 가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와서 “그 밀밭의 가라지 비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했다. 37. 예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다. 38.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사람의 아들이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요 가라지는 악한자의 자녀를 말하는 것이다. 39.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요 추수 때는 세상이 끝나는 날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40. 그러므로 추수 때에 가라지를 뽑아서 묶어 불에 태우듯이 세상 끝 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41. 그날이 오면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남을 죄짓게 하는 자들과 악행을 일삼는 자들을 모조리 자기 나라에서 추려내어 42. 불구덩이에 처넣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43. 그 때에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여라.” 44. “하늘나라는 밭에 묻혀 있는 보물에 비길 수 있다. 그 보물을 찾아낸 사람은 그것을 다시 묻어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있는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45. “또 하늘나라는 어떤 장사꾼이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것에 비길 수 있다. 46.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면 돌아가서 있는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산다.” 47.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쳐서 온갖 것을 끌어 올리는 것에 비길 수 있다. 48. 어부들은 그물이 가득차면 해변에 끌어 올려놓고 앉아서 좋은 것은 추려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버린다. 49. 세상 끝 날에도 이와 같을 것이다. 천사들이 나타나 선한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는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50. 불구덩이에 처넣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그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51.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지금 한 말을 다 알아 들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은 “예” 하고 대답하였다. 52.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맺으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교육을 받은 율법학자는 마치 자기 공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낡은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53. “예수께서는 이 비유들을 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 곳을 떠나 54. 고향으로 가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사람들은 놀라며 “저 사람이 저런 지혜와 능력을 어디서 받았을까? 55. 저 사람은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어머니는 마리아요,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닌가? 56. 그리고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 동네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저런 모든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생겼을까?” 하면서 57. 예수를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그들에

게 “어디서나 존경을 받는 예언자도 고향과 제 집에서만은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셨다. 58.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그곳에서는 별로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다.

교리 요점

- * 하늘나라의 비유들은 천국적 인격의 발달을 다룬다.
- * 모든 사람은 구원에 필요한 진리를 충분히 받고 있다.
- * 주님의 진리는 그분의 진리에 순종해야만 이해할 수 있다.

해설

본문의 34절은 주님이 언제나 비유로 가르치셨음을 알려 준다. 비유란 쉽게 이해되며 기억되는 단순한 이야기이다. 저장되어 있는 씨와 같이 진리의 씨는 아주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에 저장될 수도 있다. 씨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면, 그것은 뿌리를 내려 성장하기 시작한다. 이처럼 말씀도 마음속에서 움직인다.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풍부한 인생 경험을 갖게 되면, 우리는 말씀을 더욱 이해하고 말씀으로부터 더 많은 도움을 받게 된다.

본문의 세 가지 비유는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주님이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천국적 인격의 발달을 다루는 일련의 시리즈를 형성한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것으로 막을 연다. 씨란 “하늘의 말씀”을 의미한다. 주님이 바로 씨 뿌리는 자시며, 그분은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이들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말씀으로부터 오는 진리를 받을 수 있도록 예비하신다. 씨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부는 우리가 진리에 마음을 여는 정도와 진리를 흠모하는 정도 그리고 진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즉 씨를 위해 우리의 마음을 비워두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훈육된 자들이어서 비유의 깊은 이해가 주어질 수 있었다. 반면, 군중은 비유를 단지 이야기로만 들었다. 우리가 제자가 되는 여부는 각자에 의해 결정된다.

가라지의 비유는 우리가 모든 악을 한 번에 극복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한다. 그것은 스스로의 인격 안에 있는 것들을 선한 것은 선한 것으로, 악한 것을 악한 것으로 명확히 구분하는데 많은 세월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겨자씨의 비유는 말씀의 세부 사항까지 상세히 공부해야 할 필요성을 가르쳐 준다. 이는 우리가 처음에는 하찮은 진리라고 여기는 것도 나중에는 그것이 아주 중요하게 부각되기 때문이다. 누룩의 비유는 이기심이 우리의 행동에 대한 판단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심각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느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 후의 두 가지 비유는 우리가 천국적 인격을 형성하기 위해 대가를 치르는 것이 가치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진주란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에 기초하여 생활할 때 얻게 되는 주님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의미한다. 마지막의 그물의 비유는 저세상에서의 심판을 다룬다. 이때의 우리의 동기(motives)는 겉옷을 벗고 선과 악이 분리되어 진다. 요한 계시록 21장 27절은 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모든 비유를 통해서 천국 이라는 곳은 사후 심판에 의해 결정되어 가는 곳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 전체를 통해 조금씩 우리의 심정과 지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천국을 이루는 바탕은 말씀에서 온 진리여야 하며, 그 진리는 반드시 자발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속의 악과 거짓을 뽑아낼 때만이 자랄 수 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으로 천국을 바래야 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을 배우고 순종하며 사랑하라고 강요하시지는 않는다. 그분을 섬기는 여부는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 있으며, 그 선택은 일생에 걸쳐 이뤄진다.

기본 상응 공부

씨 = 말씀에서 온 진리

가라지 = 거짓

질문 정리

- 1) 비유란 무엇인가?
- 2) 주님은 왜 언제나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 3) 본문의 비유들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 4) 본문의 첫 비유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 5) 주님은 왜 비유를 제자들에게만 설명해 주셨는가?
- 6) 씨 뿌리는 사람은 누구인가?
- 7) 씨란 무엇인가?
- 8) 각기 다른 종류의 땅이란 무엇인가?
- 9)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서 살려면, 먼저 천국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 10) 본문에는 몇 가지의 비유가 있는가?
- 11) 그 비유들을 간단히 나열해보라?
- 12) 가라지의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가?
- 13) 비유 전체가 주는 일반적 교훈은 무엇인가?
- 14) 값진 진주란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속 뜻을 가진 이야기 2)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깊은 뜻을 지녔기 때문이다.
- 3) 하늘나라에 관한 비유이다. 4) 씨 뿌리는 사람
- 5) 그들은 열심히 배우려고 했다. 6) 주님 7) 말씀에서 온 진리
- 8) 각양각색의 마음들 9) 우리 속에 먼저 있어야 한다. 10) 일곱 개
- 11) 씨 뿌리는 사람, 가라지, 겨자씨, 누룩, 보물, 진주, 그물의 비유
- 12) 우리가 우리의 악을 한 번에 극복할 수 없는 이유를 가르쳐 준다.
- 13) 천국적 인격의 발달 14) 주님에 관한 지식과 인식

주님의 영광스러운 변모

머리말

주님의 열 두 제자, 특별히 첫 네 제자인 베드로와 안드레아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언급한다. 그리고 「변모(transfigure)」의 의미를 본문의 구절들을 통해 공부한다.

성 서 본 문: 마태복음 17장

17장: 1. 옛새 후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만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 가셨다. 2. 그 때 예수의 모습이 그들 앞에서 변하여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눈부셨다. 3. 그리고 난데없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다. 4. 그 때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께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편찮으시다면 제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드리겠습니다.”하고 말하였다. 5. 베드로의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하는 소리가 들려 왔다. 6. 이 소리를 듣고 제자들은 너무도 두려워서 땅에 엎드렸다. 7.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손으로 어루만지시며 “두려워하지 말고 모두 일어나라”하고 말씀하셨다. 8. 그들이 고개를 들고 쳐다보았을 때는 예수밖에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9.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시는 길에 “사람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하고 단단히 당부하셨다. 10. 그 때에 제자들이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물었다. 11. 예수께서는 “과연 엘리야가 와서 모든 준비를 갖추어 놓을 것이다. 12. 그런데 실상 엘리야는 벌써 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제멋대로 다루었다. 사람의 아들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하고 대답하셨다. 13. 그제야 비로소 제자들은 이것이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교리 요점

- * 이 세상 삶은 우리의 영혼에 감동을 주고 살찌울 때만이 중요하다.
- * 주님은 이해하지 못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준비도 되지 않은 진리로부터는 우리를 보호하신다.
- * 진리를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라 살지 않으면 신성모독이 된다.
- * 우리가 주님의 삶을 공부하고 그분의 삶대로 살고자 하면, 우리는 그분의 진정한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된다.

해설

주님은 공생애 3년 동안 거룩한 땅의 이곳저곳을 다니셨고, 때로는 요르단 강 건너편 까지 가서서 진도하며 가르치시고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셨다. 주님은 그분의 거처를 가파르나움에 두시고, 선교의 많은 시간을 갈릴리에 할애하셨다. 그분은 축제 때에 사마리아 땅을 거쳐 예루살렘에도 내왕하셨다. 그분의 모든 여행에는 열 두 제자들이 동행했다. 그들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 폭풍이 잔잔해지는 광경, 약간의 물고기와 빵으로 수많은 군중을 먹이시는 기적, 소경이 눈을 뜬 기적, 나병환자가 완전히 치료된 것, 죽은 자가 다시 깨어난 것 그리고 마귀를 쫓아내는 기적을 목격했다. 그들은 주님의 교훈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의 생각 속에 점차 주님이 자리 잡아 갔고, 마침내 그들은 주님이 진정한 메시아이셨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선생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했다. 이 고백은 기독교회의 기초가 되는 반석(rock)이며, 이 진리를 받고 인정하는 자에게 하늘이 열린다.

16장 16절과 18절을 읽어 보자. 베드로가 바위 혹은 문지기가 아님은 23절에서 그의 자연적 또는 세상적 사상이 그의 앞을 가로막자 주님이 그를 사탄이라고 부르신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칠 때만 중요함을 제자들에게 명백히 가르쳐 주셨다. 그러나 위험과 시험에 직면하면서 마음속에 그 진리를 굳건히 지켜 나가는 것은 그들에게 아주 힘든 것이었다.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주님의 변모가 베드로의 신앙고백에 뒤이어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그리스도가 하느님이시다는 믿음은 마음을 열게 하며 주님의 생애 속의 내적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게 하고, 율법과 예언서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분명히 알게 해준다. 이런 사항들은 주님의 변모하시는 이야기의 세부사항 속에 상징적으로 담겨 있다. 산으로 오른다 함은 우리의 마음을 높은 평면으로 들어 올려 하느님에게 더욱 가까이 감을 묘사한다. 얼굴은 내적 특질을 표현한다. 따라서 해같이 빛나는 주님의 얼굴은 그분의 특질 중 신성한 사랑에 대한 표현이다. 겉옷은 일반적으로 진리에 대한 그림이며, 이 진리가 우리의 애착들을 옷 입히고 있는 것이다. 빛 같이 흰 주님의 의복은 그분의 모든 행동과 말씀을 옷 입히고 있는 신성한 진리를 묘사한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예언들을 표현한다.

베드로는 처음에 환상으로 인해 혼란을 일으켰다. 초막이란 단순한 종류의 예배를 뜻한다. 환상을 본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주님 모두를 위해 초막을 짓자고 제안했는데, 이것은 그가 세 사람 모두 예배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는 즉각적으로 더 나은 가르침을 받게 되었다. 이들을 덮은 빛나는 구름이란 글자를 통해 빛나는 말씀의 내적 의미들을 상징한다. 구름 속에서 말하는 소리는 주님의 신성에 대한 증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제자들이 고개를 들고 보았을 때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후에 바울이 간증하는 바처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in him dwellth all the fullness of the Godhead bodily…….”(골로새서 1:19)와 같은 맥락으로 예수 안에 아버지 하느님과 성령이 함께 존재함을 의미한다.

세 제자들은 오랜 관찰과 훈육을 통해 환상을 볼 수 있도록 준비되었지만, 다른 제자들은 준비되지 못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인간이 그분의 부활을 믿게 될 때 까지 그들의 환상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도록 당부하셨다.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해주시는 것들이다. 주님은 우리가 진리를 받아서 올바르게 사용할 준비가 될 때까지 우리를 진리로부터 유보해 두신다. 스웨덴북은 진리를 인식하면서도 그에

따라 살아감을 거절하는 것은 “신성모독, profanation”이라고 말한다. 이는 우리가 행하는 잘못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이다.

주님을 진정으로 인식하는 준비는 회개와 더불어 시작된다. 이런 이유로 주님 앞에 세례자 요한이 보내지게 된 것이다. 엘리야와 세례자 요한은 모두 회개를 촉구했다. 율법학자들로부터 제자들이 들었던 예언은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알 수 있다.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14절에서 주님이 이미 그들에게 세례자 요한이 그 예언을 성취시켰다고 말해 주셨음을 알 수 있다. 요한은 엘리야는 아니었지만, 그는 엘리야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 왔던 것이다.

세 제자들은 그들의 육체적 눈으로 환상을 본 것이 아니다. 그들은 영적 눈이 열려져 주님의 내적 본성을 보았던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되면 지상과 천국에서 진실을 볼 수 있는 데, 그것은 곧 주님을 바로 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기본 상응 공부

넓은 측면에서의 겉옷 = 우리의 애착을 입히고 있는 진리들
모세 = 역사적 측면의 말씀

질문 정리

- 1) 주님이 처음 선택하신 네 제자는 누구인가?
- 2) 누가 주님의 변모하신 모습을 보았는가?
- 3) 변모란 무엇을 뜻하는가?
- 4) 변모하시는 모습을 어디서 보았는가?
- 5) 환상에서 주님과 더불어 누가 대화하고 있었는가?
- 6) 그때 베드로는 무엇을 제안했는가?
- 7) 제자들을 놀라게 한 것은 무엇인가?
- 8) 그 뒤 제자들은 누구를 보았는가?
- 9) 그들이 본 것에 대해 주님은 어떻게 당부하셨는가?

- 10) 제자들은 주님께 어떤 질문을 했는가?
- 11) 주님은 뭐라고 답변하셨는가?
- 12) 모세와 엘리야는 왜 주님과 함께 보여 졌는가?
- 13) 본문에서 세례자 요한이 거론된 이유는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2) 베드로, 야고보, 요한 3) 얼굴이 바뀔
- 4) 높은 산 5) 모세, 엘리야 6) 세 초막을 지읍시다.
- 7) 빛나는 구름과 소리 8) 예수님만 보았다 9)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 10)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하나이까?”
- 11) 세례자 요한이 예언을 성취시켰다 12) 주님이 율법과 예언들을 구체화(embody)하여 보여 주기 위해서이다 13) 회개를 가르치심 (첫 단계)

35

종려 주일

머리말

본과는 교회 절기 공부로 분류 되는데, 이는 특별한 날로 지키는 주일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내용이 비교적 간단하여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성서: 마태복음 21장 1-27절

21장: 1.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근처 벧파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는 두 제자를 보내시며 2. 이렇게 이르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 보아라. 그러면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터인데 그 새끼도 곁에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풀어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3. 혹시 누가 무어라고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습니다.’하고 말하여라. 그러면 곧 내어 줄 것이다.” 4. 이리하여 예언자를 시켜 5. “시온의 딸에게 알려라. 네 임금의 너에게 오신다. 그는 겸손하시어 암나귀를 타시고 멍에 메는 짐승의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6. 제자들은 가서 예수께서 일러 주신 대로 7.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 위에 겹옷을 엮어 놓았다. 예수께서 거기에 올라앉으시자 8. 많은 사람들은 겹옷을 벗어 길에 펴 놓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아 놓기도 하였다. 9. 그리고 앞뒤에서 따르는 사람들이 모두 환성을 올렸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도 호산나!” 10.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온 시민이 들떠서 “이분이 누구냐?”고 물었다. 11. 사람들은 “이분은 갈릴래아 나자렛에서 오신 예언자 예수요”하고 대답하였다. 12. 예수께서는 성전 뜰 안으로 들어 가 거기에서 팔고 사는 사람들을 다 쫓아 내시고 환금상들의 탁자와 비둘기 장수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다. 13. 그리고 그들에게 “성서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리리라’고 했는데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하고 나무라셨다. 14. 그 때 예수께서는 성전 뜰 안에 있던 소경들과 절름발이들이 앞으로 나오자 그들을 모두 고쳐 주셨다. 15.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이며 성전 뜰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화가 치밀어서 16. 예수께 “이 아이들이 하는 말이 들립니까?”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들린다. ‘주께서 어린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주를 찬양하게 하시리라’고 하신 말씀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하고 대답하셨다. 17.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 성밖에 있는 베다니아로 가서서 밤을 지내셨다. 18. 이튿날 아침에 예수께서 성안으로 들어오시다가 마침 시장하시던 참에 19. 길가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리로 가셨다. 그러나 잎사귀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므로 그 나무를 향하여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무화과나무는 곧 말라 버렸다. 20.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놀라서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그렇게 당장 말라 버렸습니까?”하고 물었다. 21.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면 이 무화과나무에서 본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번쩍 들러서 바다에 빠져라’ 하더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22.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23.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대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와서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들을 합니까? 누가 이런 권한을 주었습니까?” 하고 물었다. 24. “나도 한 가지 물어 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 일을 하는지 말하겠다. 25. 요한은 누구에게서 권한을 받아 세례를 베풀었느냐? 하늘이 준 것이냐? 사람이 준 것이냐?” 하고 반문하시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그 권한을 하늘이 주었다고 하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할 것이고 26. 사람이 주었다고 하면 모두들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으니 군중이 가만있지 않을 테지?” 하고 의논한 끝에 27.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교리 요점

- *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규율하는 원리가 우리 속의 “왕”이다.
- *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에 반대되는 사상을 포기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겉옷을 벗어 던지게 된다.
- * 주님만이 우리의 잘못된 사고와 이기적 바램들을 제거하셔서 우리 영혼 속의 “성전”을 깨끗케 하실 수 있다.

해설

우리는 성주간의 의미를 숙고해야 한다. 또한 오래전 종려주일에 주님을 왕으로서 환영하고 그 주일 금요일에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 사이에 우리 자신도 속하는지 반성해 보아야 한다.

종려주일은 주님의 지상 생활 마지막 주간의 첫 날이다. 주님과 그의 사도들은 과월절을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갔다. 주님은 자신이 죽음에 처할 것을 사도들

에게 말하자, 그들은 그곳에 가지 말자고 그분께 권유하기도 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꾸짖으시며, 세상에 오셔서 해야 될 일의 일부분으로서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셨다. 십자가는 자아를 극복한 승리의 상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신뢰하면, 그분은 우리에게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주님은 당시의 왕이나 판관의 관습처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 나귀란 우리가 흔히 상식이라 부르는 것 혹은 자연적 이성(추론)에 대한 상징이다. 흔히 상식은 우리 자신 혹은 타인에게 즉각적이고 실용적인 보상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상식은 주님의 시야에서 볼 때 현명하지 못하며 오래 지속되지 않는 원리일 뿐이다. 우리는 때로 일을 쉽게 처리하는 것보다 올바른 것을 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 시험을 겪게 되기도 한다. 우리가 “우리를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하는 것이 대체 뭐란 말인가?”라고 말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시험에 빠졌다는 신호인 것이다. 이럴 때 스스로에게 “그렇다. 이것은 내 안의 나귀가 하는 말이 구나!”라고 대답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나귀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오직 주님 한 분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의 왕으로 주님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만을 우리 삶의 통치자로 삼으며 그분의 법칙을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법칙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그분 앞에 종려나무가지를 던지는 것이다. 그 이유는 종려나무란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원리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이 후에 우리는 우리의 사상이 주님의 진리와 일치하지 않을 때 언제든지 우리의 사상을 포기하겠다고 결심해야 한다. 이것은 바로 주님 앞에 겹옷을 벗어 깔아 드리는 것으로 묘사된다. 우리의 겹옷이란 우리의 애착을 입히고 있는 사상들을 뜻한다.

주님은 환호성 속에 입성하신 후 제일 먼저 환전상과 비둘기 장사꾼들을 성전 밖으로 쫓아 내었다. 환전상과 비둘기 장수란 우리의 지성과 심정의 바닥을 맴돌며 주님에 대한 진정한 예배를 간섭하려는 우리 속의 이기적 생각과 느낌들을 상징한다. 사제와 원로들은 순진한 어린이들이 주님께 “호산나”라고 부르는 외침을 듣고 좋아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의 규칙이 간섭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성전에서 주님이 병을 고치시는 기적을 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에게 귀를 기울였다. 이것이 당시 유대 교회의 영적 상태이었기 때문에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의 사건이 첨가된 것이다.

즉, 그들은 예배같이 보이는 것을 수행했지만 그것은 선한 인격 혹은 선한 일의 열매가 없었다. 이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교회에 참석하고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배워간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고 늘 반복해야 할 일은 삶 중에서 이기심이 우리를 끌고 가도록 방치함으로써 주님과 그분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 밖으로 쫓겨나도록 방치하지 않는가에 대한 점검이다.

기본 상응 공부

나귀 = 자연적 이성

종려나무 = 주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는 원리

질문 정리

- 1) 오늘은 무슨 날인가?
- 2) 이 날은 무엇을 기념하는가?
- 3) 예루살렘 입성 때에 주님은 무엇을 타셨는가?
- 4) 제자들은 나귀 위에 무엇을 놓았는가?
- 5) 주님이 나귀를 타시자 그분 앞에 사람들은 무엇을 뿌렸는가?
- 6) 군중들은 뭐라고 외쳤는가?
- 7) 주님은 입성하신 후 어디로 가셨는가?
- 8) 그곳에서 주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 9) 성전에 관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10) 이외에 주님은 성전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 11) 주님은 밤을 어디서 보내셨는가?
- 12) 거기에는 누가 살고 있었는가?
- 13) 주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은 무엇을 그리는가?

질문의 답

- 1) 종려주일 2) 주님의 의기양양한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 3) 나귀 4) 그들의
겉 옷 5) 종려나무 가지와 겉옷 6) 호산나 7) 성전 8) 환전상과 비둘기
장수를 내쫓으셨다 9)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10) 소경들과 절름발이들을 고쳐
주셨다
11) 베다니아 12)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13) 그분만이 그분의 자연적 이성을 신성의 지배 아래로 가져올 수 있다는 것

36

주님의 지상 마지막 주간

머리말

주님의 심문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관한 사건의 순서를 글자적으로 확실히 아는데
중점 한다. 십자가란 주님의 선함과 진리가 모든 악의 권세를 정복한 승리를 상징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주님의 승리는 우리가 그분의 안내를 받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으면
우리 역시 악의 정복이 가능함을 암시한다. 배반에 관한 내용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믿겠다고 고백한 가르침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 그분을 배반하는

것임을 엄두 하자. 그리고 과월절 축제 동안에 주님이 제정하신 성만찬은 과월절을 대신하는 기독교회를 위한 것임도 기억하자.

성서: 마태복음 26; 27장

26장: 1. 예수께서 이 말씀을 모두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2. “너희가 알다시피 이제 이틀만 있으면 과월절이 되는데 그 때에는 사람의 아들이 잡혀 가 십자가형을 받게 될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3. 그 무렵 대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가야파라는 대사제 관저에 모여 4. 흥계를 꾸며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5. 그러면서도 “백성이 소동을 일으킬지 모르니 축제 기간만은 피하자”고 하였다. 6. 그 때 예수께서는 베다니에 있는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는데 7. 어떤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탁에 앉으신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8. 이것을 본 제자들은 분개하여 “이렇게 낭비를 하다니! 9. 이것을 팔면 많은 돈을 받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을 텐데”하고 말했다. 10. 예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이 여자는 나에게 야릇한 일을 했는데 왜 괴롭히느냐? 11.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 곁에 있겠지만 나는 너희와 언제까지나 함께 있지는 않을 것이다. 12.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장례를 위하여 한 것이다. 13. 나는 분명히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알려져서 사람들이 기억하게 될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14. 그 때에 열 두 제자의 하나인 가리옷 사람 유다가 대사제들에게 가서 15. “내가 당신들에게 예수를 넘겨 주면 그 값으로 얼마를 주겠소?”하자 그들은 은전 서른 닢을 내주었다. 16. 그 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 줄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17.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선생님께서 드실 과월절 음식을 어디에다 차렸으면 좋겠습니까?”하고 물었다. 18. 예수께서는 이렇게 일러 주셨다. “성 안에 들어가면 이러 이러한 사람이 있을 터이니 그 사람더러 ‘우리 선생님께서 자기 때가 가까왔다고 하시며 제자들과 함께 댁에서 과월절을 지내시겠다고 하십니다’고 말하여라.” 19. 제자들은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과월절 준비를 하였다. 20. 날이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 열 두 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아 21. 같이 음식을 나누시면서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22.

이 말씀에 제자들은 몹시 걱정이 되어 저마다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하고 물었다. 23.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지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사람이 바로 나를 배반할 것이다. 24. 사람의 아들은 성서에 기록된 대로 죽음의 길로 가겠지만 사람의 아들을 배반한 그 사람은 화를 입을 것이다. 그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 25. 그 때에 예수를 배반한 유다도 나서서 “선생님, 저는 아니지요?”하고 묻자 예수께서 “그것은 네 말이다”하고 대답하셨다. 26.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받아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하시고 27. 또 잔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고 그들에게 돌리시며 “너희는 모두 이 잔을 받아 마셔라. 28. 이것은 나의 피다.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계약의 피다. 29. 잘 들어 두어라.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 날까지 결코 포도로 빚은 것을 마시지 않겠다”하고 말씀하셨다. 30. 그들은 찬미의 노래를 부르고 올리브산으로 올라갔다. 31. 그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칼을 들어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고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오늘 밤 너희는 다 나를 버릴 것이다. 32.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난 후 너희보다 먼저 갈릴래아로 갈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그 때 베드로가 나서서 “비록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하였다. 34.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 말을 잘 들어라.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35. 베드로가 다시 “저는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주님을 모른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하고 장담하였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36.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게세마니라는 곳에 가셨다.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하시고 37. 베드로와 제베대오의 두 아들만을 따로 데리고 가셨다. 38. 예수께서 근심과 번민에 싸여 그들에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와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남아서 나와 같이 깨어 있어라”하시고는 39. 조금 더 나아가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하시고자만 하시면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40. 기도를 마치시고 세 제자에게 돌아 와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와 함께 단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단 말이나? 41.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말을 듣지 않는구나!” 하시며 한탄하셨다. 42. 예수께서 다시 가서서 “아버지, 이것이 제가 마시지 않고는 치워질 수 없는 잔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하고 기도하셨다. 43.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오시니 그들이 여전히 자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나 지쳐서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44. 하는 수 없이 제자들을 그대로 두시고 세 번째 가서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45.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자, 때가 왔다. 사람의 아들이 죄인들 손에 넘어 가게 되었다. 46. 일어나 가자. 나를 넘겨 줄 자가 가까이 와 있다.” 47.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열 두 제자의 하나인 유다가 다가왔다. 그를 따라 대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몰려 왔다. 48. 배반자는 그들과 미리 암호를 짜고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붙잡아라.”고 일러두었던 것이다. 49. 그는 예수께 다가 와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하고 인사하면서 입을 맞추었다. 50. 예수께서 “자 이 사람아, 어서 할 일이나 하라”하고 말씀하시자 무리가 달려들어 예수를 붙잡았다. 51. 그 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중 하나가 칼을 빼어 대사제의 종의 귀를 쳐서 잘라 버렸다. 52. 그것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그에게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하는 법이다. 53. 내가 아버지께 청하기만 하면 당장에 열 두 군단도 넘는 천사를 보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54.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한 성서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고는 55. 무리를 둘러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전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고 있을 때에는 나를 잡지 않다가 지금은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잡으러 왔으니 내가 강도란 말이나? 56.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예언자들이 기록한 말씀을 이루려고 일어난 것이다.” 그 때에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모두 달아났다. 57. 사람들은 예수를 붙잡아 대사제 가야파의 집으로 끌고 갔는데 거기에는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모여 있었다. 58.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사제의 관저에까지 가서 일의 결말을 보려고 안으로 들어 가 경비원들 틈에 끼어 앉아 있었다. 59. 대사제들과 온 의회는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에 대한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다. 60. 많은 사람이 와서 거짓 증언을 하였지만 이렇게 할 증거를 얻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마침내 두 사람이 나타나서 61. “이 사람이 하느님

의 성전을 헐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하고 증언하였다. 62. 이 말을 듣고 대사제가 일어나 예수께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이렇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할 말이 없는가?”하고 물었다. 63.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대사제는 다시 “내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분명히 대답하여라. 그대가 과연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하고 물었다. 64. 예수께서는 그에게 “그것은 너의 말이다”하시고는 “잘 들어 두어라. 너희는 이제부터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 편에 앉아 있는 것과 또 하늘의 구름 위에 오는 것을 볼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65. 이 말을 듣고 대사제가 자기 옷을 찢으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느님을 모독했으니 이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소? 여러분은 방금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듣지 않았소? 66. 자,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하고 묻자 사람들은 모두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하고 아우성쳤다. 67. 그리고 그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또 어떤 자들은 뺨을 때리면서 68. “그리스도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 맞추어 보아라.”하며 조롱하였다. 69. 그 동안 베드로는 바깥뜰에 앉아 있었는데 여중 하나가 그에게 다가 와 “당신도 저 갈릴래아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군요.”하고 말하였다. 70. 베드로는 여러 사람 앞에서 “무슨 소린지 나는 모르겠소.”하고 부인하였다. 71. 그리고 베드로가 대문가로 나가자 다른 여중이 그를 보고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나자렛의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오.”하고 말하였다. 72. 베드로는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하고 다시 부인하였다. 73. 조금 뒤에 거기 섰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 오며 “틀림없이 당신도 그들과 한 패요. 당신의 말씨만 들어도 알 수 있소”하고 말하였다. 74. 그러자 베드로는 거짓말이라면 천벌이라도 받겠다고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하고 잡아떼었다. 바로 그 때에 닭이 울었다. 75.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하신 예수의 말씀이 떠올라 밖으로 나가 몹시 울었다.

27장: 1. 이른 아침에 모든 대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예수를 죽일 계획을 짜고 2. 그를 결박하여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넘겨주었다. 3. 그 때에 배반자 유다는 예수께서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자기가 저지른 일을 뉘우쳤다. 그래서 은전 서른 닢을 대사제들과 원로들에게 돌려주며 4. “내가 죄 없는 사람을 배반하여 그의

피를 흘리게 하였으니 나는 죄인입니다”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알 바 아니다. 그대가 알아서 처리하라”하고 말하였다. 5. 유다는 그 은전을 성소에 내동댕이치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다. 6. 대사제들은 그 은전을 주워 들고 “이것은 피 값이니 현금 궤에 넣어서는 안 되겠소”하며 7. 의논한 끝에 그 돈으로 웅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8. 그래서 그 밭은 오늘날까지 “피의 밭”이라고 불린다. 9.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정한 한 사람의 몸값, 은전 서른 닢을 받아서 10. 주께서 나에게 명하신 대로 웅기장이의 밭 값을 치렀다”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11.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자 총독은 “네가 유다인의 왕인가?”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그것은 네 말이다”하고 대답하였다. 12. 그러나 대사제들과 원로들이 고발하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13. 그래서 빌라도가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 죄목을 들어서 고발하고 있는데 그 말이 들리지 않느냐?”하고 다시 물었지만 14. 예수께서는 총독이 매우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15. 명절이 되면 총독은 군중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 주는 관례가 있었다. 16. 마침 그 때에 (예수)바라빠라는 이름난 죄수가 있었다. 17. 빌라도는 모여든 군중에게 “누구를 놓아 주면 좋겠느냐? 바라빠라는 예수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하고 물었다. 18. 빌라도는 예수가 군중에게 끌려 온 것이 그들의 시기 때문임을 잘 알고 있었다. 19. 빌라도가 재판을 하고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전갈을 보내어 “당신은 그 무죄한 사람의 일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간밤에 저는 그 사람의 일로 꿈자리가 몹시 사나왔습니다.”하고 당부하였다. 20. 그 동안 대사제들과 원로들은 군중을 선동하여 바라빠를 놓아 주고 예수는 죽여 달라고 요구하게 하였다. 21. 총독이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구를 놓아 달라는 말이나?”하고 묻자 그들이 “바라빠요”하고 소리 질렀다. 22.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하자 모두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하고 소리 질렀다. 23. 빌라도가 “도대체 그 사람의 잘못이 무엇이나?”하고 물었으나 사람들은 더 악을 써가며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하고 외쳤다. 24. 빌라도는 그 이상 더 말해 보아야 아무런 소용도 없다는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폭동이 일어나려는 기세가 보였으므로 물을 가져다가 군중 앞에서 손을 씻으며 “너희가 알아서 처리하여라.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하고 말하였다. 25. 군중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지겠습니다.”하고 소리쳤다. 26. 그래서 빌라도는 바라빠를 놓아 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내어 주었다. 27. 총독의 병사들이 예수를 총독 관저로 끌고 들어가서 전 부대원을 불러 모아 예수를 에워쌌다. 28. 그리고 예수의 옷을 벗기고 대신 주홍색 옷을 입힌 뒤 29. 가시로 왕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린 다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유다인의 왕 만세!”하고 떠들며 조롱하였다. 30. 그리고 그에게 침을 뱉으며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때렸다. 31. 이렇게 희롱하고 나서 그 겹옷을 벗기고 예수의 옷을 도로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 끌고 나갔다. 32. 그들이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키레네 사람을 만나자 그를 붙들여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33. 그리고 골고타 곧 해골산이라는 데에 이르렀을 때에 34. 그들은 예수께 쓸개를 탄 포도주를 마시라고 주었으나 예수께서는 맛만 보시고 마시려 하지 않으셨다. 35.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주사위를 던져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갖고 36. 거기 앉아 예수를 지키고 있었다. 37. 그리고 예수의 머리 위에 죄목을 적어 붙였는데 거기에는 “유다인의 왕 예수”라고 적혀 있었다. 38. 그 때에 강도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형을 받았는데 그 하나는 예수의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달렸다. 39. 지나가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40. “성전을 헐고 사흘이면 다시 짓는다던 자야, 네 목숨이나 건져라. 네가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어서 십자가에서 내려 와 보아라.”하며 모욕하였다. 41. 같은 모양으로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도 42. “남은 살리면서 자기는 못 살리는구나. 저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래.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 와 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믿고말고. 43. 저 사람이 하느님을 믿고 또 제가 하느님의 아들입네 했으니 하느님이 원하시면 어디 살려 보시라지.”하며 조롱하였다. 44.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예수를 모욕하였다. 45. 낮 열 두 시부터 온 땅이 어둠에 덮여 오후 세 시까지 계속되었다. 46. 세 시쯤 되어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하고 부르짖으셨다. 이 말씀은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뜻이다. 47. 거기에 서 있던 몇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고 말하였다. 48. 그리고 그 중의 한 사람은 곧 달려 가 해면을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 끝에 꽂아 예수께 목을 축이라고 주었다. 49.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만두시오.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 주나 봅시다.”하고 말하였다. 50. 예수께서 다시 한 번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51. 바로 그 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지고 52. 무덤이 열리면서 잠들었던 많은 옛 성인들이 다시 살아났다. 53.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거룩한 도시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 54. 백인대장과 또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지진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었구나!”하며 몹시 두려워하였다.

55. 또 거기에는 멀리서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여자들도 많았는데 그들은 갈릴래아에 서부터 예수께 시중들며 따라 온 여자들이었다. 56. 그 중에는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있었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제베대오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다. 57. 날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태아 사람인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도 역시 예수의 제자였다. 58.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어 달라고 청하자 빌라도는 쾌히 승낙하여 내어 주라고 명령했다. 59. 그래서 요셉은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고운 베로 싸서 59. 바위를 파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신 다음 큰 돌을 굴러 무덤 입구를 막아 놓고 갔다. 61. 그 때에 무덤 맞은편에는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62. 그 날은 명절을 준비하는 날이었다. 그 다음 날 대사제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빌라도에게 몰려 와서 63. 이렇게 말하였다. “각하, 그 거짓말장이가 살아 있을 때에 사흘 만에 자기는 다시 살아난다고 말한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64. 그러니 사흘이 되는 날까지는 그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서 감추어 놓고 백성들에게는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떠들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심한 혼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65. 빌라도는 그들에게 “경비병을 내어 줄 터이니 가서 너희 생각대로 잘 지켜보아라.”하고 말하였다. 66. 그들은 물러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세워 무덤을 단단히 지키게 하였다.

교리 요점

- * 십자가란 악을 정복한 주님의 승리를 상징한다.
- * 우리는 주님이 맞서서 극복하지 못한 시험은 직면하지 않는다.
- * 성만찬은 기독교회를 위해 과월절 대신 거행된다.

해설

주님이 종려 주일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자, 그분의 도움을 절실히 원했던 사람들은 기쁘게 환영했다. 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자기들의 권력이 뺏겨질까봐 두려워 한 사람들은 그분의 입성을 불쾌하게 느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시지 않으셨다. 주님은 월요일과 화요일 동안은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 서슴없이 질책하셨고 그들을 본보기로 삼지 않도록 사람들을 훈계하셨다. 주님의 입성 초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분을 방해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점차 사람들이 그분에게서 등을 돌리도록 하는데 성공했다. 그래서 주님은 화요일 밤 성을 떠나서 목요일까지 되돌아오시지 않으셨고, 목요일 밤 과월절을 위해 되돌아 오셨다. 주님은 그분의 친구인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자로의 집에서 밤을 보내셨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때가 과월절 축제 때였음에는 깊은 영적 교훈이 담겨 있다. 주님은 과월절에 바쳐지는 어린 양(Paschal Lamb)이라고도 불린다. 십자가에 달리심은 주님의 기나긴 영적 전쟁의 최절정을 상징하며, 그 의미는 그를 통해 그분이 지옥을 정복하신 것이다. 이것은 곧 그동안 지속적으로 커진 악의 권세가 극에 달해서 어느 인간도 대항할 수 없을 만큼 커져 버린 지옥의 권세에 가장 큰 치명타를 가했다는 의미가 된다. 과월절은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을 기념하는 예식이다. 반면, 성만찬은 과월절 대신 모든 기독교인을 위해 주님이 설립하신 것이며 지옥의 속박으로부터 그분에 의해 우리가 해방됨을 기념하는 예식이다. 주님은 빵과 포도주는 그분의 몸과 피라고 하셨다. 빵과 포도주란 우리가 그분의 추종자가 되기 위해 우리의 심정과 지성에 받아야 할 그분의 신성한 사랑과 지혜에 대한 상징이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할지라도 그분 스스로를 구해내실 수 있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을 읽어 보자. 만약 주님이 육체적 죽음의 짧은 순간을 멈추셨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죽음을 통과하는 길을 보여주실 수 없었을 것이다. 그분은 큰 권능을 행사하여 스스로를 구해 내시고, 그분의 적들로 하여금 예수가 하느님이심을 억지로 인정하도록 하실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일은 그들의 심정까지 바꿀 수 없으며, 그들은 두려움으로 그분께 순종했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더 이상 행복해지지도 않았을 것이며, 악마의 노예가 아닌 주님의 노예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주님은 노예 상태를 원하지 않으신다.

사람들이 주님을 왕으로 영접한 후 그분을 거절하는 것은 주님의 현존(presence)을 수단으로 존재하는 그들의 교회가 완전히 끝났음을 의미한다. 사도중의 하나인 유다는 고대 유대교회를 그린다. 그는 주님을 배반했고 그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우리가 처음에는 진리를 인정하나 그것에 따라 살아 보려는 것을 거절한다면,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진리를 스스로 죽이고 결국은 영적 죽음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주님과 인간의 중간 관계로서 유대교회의 역할이 끝난 것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을 당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한다.

군인들이 주님의 겉옷을 나눠 갖거나 제비 뽑은 사건은 시편 22편 18절에 있는 예언의 성취이기도 하다. 요한복음 19장 23-24절은 우리에게 이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주고 있다. 주님의 겉옷은 말씀의 글자를 표현하고, 그분의 속옷(inner garment)은 말씀의 내적 의미를 그리는 것이다. 오늘날의 사람들도 “주님의 겉옷은 나눠” 가진다. 자기들이 믿기를 원하는 것을 떠받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말씀의 글자만을 인정하는 자세가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내적 의미는 이런 방식으로 취급될 수 없다. 그것은 “흔슬없이 통으로 짠 것(woven without seam)”이기 때문이다.

아리마태아 사람인 요셉과 니고데모(요한복음 19:38-40)는 그 당시 산헤드린(Sanhedrin, 공회, 고대 유대교의 최고 재판소)의 구성원이었다. 그들은 주님에게 죄목을 뒤집어씌우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그들은 다수가 떠들어 대는 군중 심리에 대항할 만큼 용감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후 빌라도에게 그분의 시신을 가져갈 수 있도록 간청하고 그의 허락을 얻어내 그분을 새 무덤에 안치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무덤을 봉인하고 군인들이 그것을 지켜주기를 빌라도에게 요구한 사실은 주님을 거절한 후에도 그들이 그분을 두려워했음을 보여준다. 오늘날의 사람들도 주님을 거절할 때 때로 불필요한 논쟁에 노력하고

정력을 낭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논쟁은 주님을 믿는 이들의 귀에는 어리석은 논쟁으로만 들린다. 또한 삶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들에게 그 논쟁들은 바람에 흩날리는 겨일 뿐이다.

기본 상응 공부

성찬에서의 빵 = 신성한 사랑

성찬에서의 포도주 = 신성한 지혜

질문 정리

- 1) 종려주일에 무엇이 발생했는가?
- 2) 주님은 왜 예루살렘으로 오셨는가?
- 3) 주님은 마지막 과월절 음식을 드신 후에 어떤 새로운 기념일을 설립하셨는가?
- 4) 주님은 열 두 제자 중 하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5) 제자들 각자는 뭐라고 물었는가?
- 6) 어떤 제자가 주님을 배반했는가?
- 7) 유다는 주님을 어떻게 배반했는가?
- 8) 주님이 붙잡히시자 제자들은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 9) 주님은 베드로에게 어떤 행동을 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는가?
- 10)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생각했는가?
- 11) 그는 몇 번이나 부인했습니까?
- 12) 베드로에게 자신의 예수에 대한 부인에 관해 주님이 말씀 하신 것을 기억나게 한 것은 무엇인가?
- 13) 주님은 누구 앞에서 처음으로 심문 받았는가?
- 14) 누가 주님의 사형선고를 내렸는가?
- 15) 빌라도는 군중에게 어떤 선택의 기회를 주었는가?
- 16) 주님은 어떻게 사형에 처하게 되었는가?

- 17) 그분의 시신은 어떻게 묻혔는가?
 18)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질문의 답

- 1)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2) 과일절을 지키기 위해서 3) 성찬식(Holy Supper)
 4) “나를 배반하리라” 5) “그게 저입니까?” 6) “가리옷 사람 유다(Juda Iscariot)”
 7) 키스함으로 8) 도망갔다 9) 주님을 부인함 10) 아님 11) 세 번이나 부인했다
 12) 닭의 울음 13) 가야파라는 대제사장 14) 빌라도, 로마제국 총독, 15) 예수를
 석방할 것이냐? 혹은 바라빠냐? 16) 십자가에 달리심 17) 바위를 파서 만든 새
 무덤에 모셨다 18) 무덤에 봉인하고, 경비병을 세워 두었다

37

부활하신 주님

머리말

종려주일부터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부분까지의 줄거리를 간략히 정리하며
 시작한다. 종려주일 주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 그분은 이틀 동안
 성전에서 가르치셨고 밤에는 성밖의 베다니아로 가셔서 그분의 친구들인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자로의 집에서 머무셨다. 목요일 저녁 주님은 성으로 다시 오셔서 제자들과 과월절을 기념하셨다. 이때에 주님이 성만찬을 제정하셨는데, 이는 과월절 대신 기독교계에서 거행되는 기념일이다. 주님은 만찬 후에 기도하시기 위해 게세마니 동산으로 가셨고, 그곳에서 유다가 이끌고 온 무리들이 그분을 붙잡았다. 그분은 대제사장 가야파, 헤로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독 빌라도 앞에서 심문받으셨다. 그들은 그들이 사용한 거짓 증거 외에는 어떤 결점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사형에 처하라고 요구했고, 금요일에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셨다.

성서: 마태복음 28장

28장: 1. 안식일이 지나고 그 이튿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2.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하늘에서 주의 천사가 내려 와 그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다. 3.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처럼 빛났고 옷은 눈같이 희었다. 4. 이 광경을 본 경비병들은 겁에 질려 떨다가 까무러쳤다. 5. 그 때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는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을 찾고 있으나 6.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다.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누우셨던 곳을 와서 보아라. 7. 그리고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당신들보다 먼저 갈릴래아로 가실 터이니 거기에서 그분을 뵈게 될 것이오’하고 알려라. 나는 이 말을 전하러 왔다.” 8. 여자들은 무서우면서도 기쁨에 넘쳐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려고 무덤을 떠나 급히 달려갔다. 9.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께서 그 여자들을 향하여 걸어 오셔서 “평안하냐?”하고 말씀 하셨다. 여자들은 가까이 가서 그의 두 발을 붙잡고 엎드려 절하였다. 10.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 여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래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11. 여자들이 떠나간 뒤에 경비병 중 몇 사람이 성안으로 들어 가 그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대사제들에게 낱낱이 보고하였다. 12. 대사제들은 원로들과 만나 의논한 끝에 병사들에게 많은 돈을 집어 주며 13. “너희가 잠든 사이에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시체를 훔쳐 갔다고 말하여라. 14.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희에게는 아무런 해가 없도록 하여 주겠다”하고 말하였다. 15.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 시키는 대로 하였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16. 열 한 제자는 예수께서 일러 주신 대로 갈릴래아에 있는 산으로 갔다. 17. 그들은 거기에서 예수를 뵈고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18.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20.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내가 시대 끝 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교리 요점

- * 부활에 대한 불신앙은 고집적인 것이지 논리적이지는 못하다.
- * 부활절은 미래의 삶을 믿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미움을 초월한 사랑의 힘과 거짓을 극복하는 진리가 모든 삶 안에 있어야 함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
- * 주님의 부활은 비록 우리가 육체적 눈으로 그분을 뵈지 못한다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가르쳐준다.

해설

우리는 성탄절에 교회에 참석하며 아름다운 장식도 하며 선물도 준비한다. 우리는 부활절에도 이와 비슷하게 교회에 나가 싱싱한 백합으로 장식도 하고 새 봄나들이 옷도 차려 입는다. 그 이유는 부활절이 추운 겨울이 지난 후 따뜻하고 바깥 활동이 자유로워지는 봄철에 있기 때문이어서 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새 봄 옷 혹은 백합꽃과 같은 외적 즐거움은 일시적일 뿐 더 이상의 진전이 있을 수 없다. 우리가 부활절이 즐겨야 할 영원한 봄철을 상징함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의 중요성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스웨덴북은 그의 저서 「사랑과 지혜 104항」에서 천국은 언제나 봄철이라고 말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저 세상에서 새롭고 더 충만한 삶과 기쁨을 향해 언제나 전진하기 때문이다. 스스로에게만 의존할 때의 우리는 언제나 힘의

한계에 부딪친다. 우리의 육체는 늙어 험 옷 같이 되어 가고, 우리의 마음은 각자 나름대로 한계에 도달된다. 우리의 선한 의지들은 그것들에 반대하는 것이나 무지로 인해 멈춰 서 있게 된다. 오로지 주님의 항구적인 현존(presence)에 의해서만 우리는 계속 전진할 수 있다.

무덤에 온 여인들은 이를 인식했다. 그들은 자신들보다 더 위대한 어떤 분으로서 예수를 생각하고 있었으나 그분을 한 인간으로 사랑했다. 오늘날의 많은 이들도 이와 같다. 그들은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분의 시신이 무덤에 놓여진 것을 보았을 때 제자들과는 달리 그들의 전 직업으로 되돌아가는 방식은 취하지 않았다. 그들은 무덤 근처에서 머물렀고, 그들이 사랑했던 스승의 시신을 위해서 마지막 섬김을 위한 향료를 준비했다. 여인들은 진리에 대한 우리의 애착을 표현하며, 설사 지성 측면이 의심으로 인해 변해있다 하더라도 주님에 대한 생각 쪽에 애착이 기울고 있음을 그린다. 주님은 이런 애착들을 수단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그분의 존재 자체 그대로를 우리에게 보여 주실 수 있다. 우리는 이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한 인간으로서 마음속에 그리는 어린이 수준의 사상을 한쪽으로 치워놓고, 그분이야말로 말로 언제나 현존하시는 주님이시며 우리의 힘의 근원이신 구세주로서 인식하며 그분에 대해 배워야 한다.

본문을 보면, 부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취해진 조처들 뒤에는 그것이 불신임 되게 하기 위해 소문을 퍼트리는 일이 거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세상적 이론이 우리들 지성 쪽에 가하는 조처에 해당된다. 그러나 부활은 사실(fact)이며, 그 사실은 사도들에게 큰 변화를 일으켰고 부활 신앙에 따라 모든 기독교 삶에서 성취되는 일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이 세상 삶이 전부이며 육신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여기는 사람과 이 세상 삶은 끝없는 저 세상 삶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믿는 사람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대처하는 방법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인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죽음에 대한 측면은 아주 달라지며, 삶 자체 역시 달라진다.

부활 후 제자들은 주님을 갈릴래아에 있는 산 위에서 뵈게 되었다. 앞서 공부했던 바와 같이, 갈릴래아는 우리 삶의 바깥 평면을 말하며 산이란 생각 평면에서의 높은 상태를 표현한다. 우리가 세상적 관심사 위로 우리의 생각을 들어 올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주님과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기회로 여기게 될 때만이 그분을 뵈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만사를 처리하시게 된다. 주님은 제자들을 갈릴래아에서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이는 오늘과 내일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원리를 근간으로 처리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리하면 우리의 삶은 사도들처럼 타인에게 “good news, 좋은 소식”을 전달하며 지상 위에 천국을 건설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기본 상응 공부

여인들 = 애착들

산 = 높은 관점 또는 영적 관점

질문 정리

- 1) 본문에서 언급된 날은 어떤 날인가?
- 2) 우리는 왜 부활주일을 지키는가?
- 3) 사람들은 왜 주님을 왕으로 환영한지 며칠도 채 안 되어 그분에게서 등을 돌렸는가?
- 4) 주님은 왜 목요일 저녁에 다시 성으로 들어 가셨는가?
- 5) 주님은 어떤 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 6) 우리는 성주간 중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요일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 7)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후 그분의 시신은 어떻게 되었는가?
- 8) 누가 부활주일 아침 무덤에 먼저 왔는가?
- 9) 그들은 무엇을 발견했는가?
- 10) 천사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 11) 천사는 주님이 제자들을 어디서 만날 거라고 말해 주었는가?
- 12) 여인들은 달려갔을 때 누구를 만났는가?
- 13) 종교 지도자들은 부활이 불신임되도록 어떤 음모를 꾸몄는가?

- 14)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 15)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래아에서 만났을 때, 그분에 대해 하신 첫 말씀은 무엇인가?
- 16)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 17)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격려는 무엇인가?
- 18) 주님은 왜 갈릴래아에 있는 산에서 제자들을 만나겠다고 하셨는가?
- 19) 여인들이 왜 부활에 대해 제일 먼저 배웠는가?

질문의 답

1) 부활주일 2)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기 위해서이다 3) 그들이 시기심 많은 종교지도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다 4) 과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 5) 금요일 6) Good Friday 7) 새 무덤에 놓여졌다 8) 여인들 9) 열려진 무덤 10) 그분은 다시 사셨다 11) 갈릴래아 12) 예수 13) 경비병을 매수해서 거짓말을 퍼트리게 했다 14) 죽은 후 우리는 다시 살게 된다 15)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16)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17)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18) 갈릴래아 = 일상생활 (outer, everyday life) 산 = 생각의 높은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 다시말해 생각의 높은 상태인 영적 관점을 일상생활에 적용할 때 주님은 우리와 만나실 수 있기 때문. 19) 진리에 대한 우리의 애착은 외적 증거들이 의심을 조장하더라도 존속되기 때문이다.

38

요한의 환상

머리말

요한계시록과 복음서의 연결을 언급한다. 주님의 부활과 승천 후 대략 40여 년이 지난 AD.70년 경에 예루살렘과 성전은 마지막으로 「티도(Titus)」하의 로마 군인에 의해 파괴되었다. 그리하여 기독교인들은 산산이 흩어져 소아시아와 그 너머 까지 흩어졌다. 그래서 초대 교회들이 소아시아에서 발달되었다. 초심자들은 사도 요한과 세례자 요한을 혼동치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계시록은 그리스어로 묵시록 (Apocalyse)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베일이 벗겨짐(unveiling) 혹은 밝혀짐 (revelation)을 의미한다.

성서: 요한 계시록 1장

1장: 1.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느님께서 곧 일어날 일들을 당신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리스도에게 계시하셨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천사를 당신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려 주셨습니다. 2. 나 요한은 하느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언하신 것, 곧 내가 본 모든 것을 그대로 증언합니다. 3.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 일들이 성취될 시각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4.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지금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장차 오실 그분과 그분의 옥좌 앞에 있는 일곱 영신께서, 5. 그리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죽음으로부터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시며, 땅 위의 모든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총과 평화를 내려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의 피로써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6. 우리로 하여금 한 왕국을 이루게 하시고 또 당신의 하느님 아버지를 섬기는 사제가 되게 하신 그분께서 영광과 권세를 영원무궁토록 누리시기를 빕니다. 아멘. 7. 그분은 구름을 사용하여 오십니다.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입니다.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입니다. 땅 위에서는 모든 민족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8. 지금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주 하느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9. 여러분의 형제이며 함께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환난을 같이 겪고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같이 견디어 온 나 요한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예수를 증언한 탓으로 파트모스라는 섬에 갇혀 있었습니다. 10. 나는 주님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내 뒤에서 울려 오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11. 그 음성은 나에게 “네가 보는 것을 책으로 기록하여 에페소, 스미르나, 베르가모, 티아디라, 사르디스,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이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어라”하고 말씀하셨습니다. 12. 그래서 나는 누가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보려고 돌아 섰습니다. 돌아 서서 보았더니 황금등경이 일곱 개 있었고 13. 그 일곱 등경 한가운데에 사람같이 생긴 분이 서 계셨습니다. 그분은 발끝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14.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또는 눈같이 희었으며 눈은 불꽃같았고 15. 발은 풀무불에 단 놋쇠 같았으며 음성은 큰 물소리 같았습니다. 16. 오른손에는 일곱별을 쥐고 계셨으며 입에서는 날카로운 쌍날칼이 나왔고 얼굴은 대낮의 태양처럼 빛났습니다. 17. 나는 그분을 뵈자 마치 죽은 사람처럼 그분의 발 앞에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나에게 오른손을 얹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고 18. 살아 있는 존재이다. 나는 죽었지만 이렇게 살아 있고 영원무궁토록 살 것이다. 그리고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내 손에 쥐고 있다. 19. 그러므로 너는 네가 이미 본 것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20. 네가 보는 내 오른손의 일곱별과 일곱 황금등경의 비밀은 다음과 같다. 일곱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들이고 일곱 등경은 곧 일곱 교회이다.

교리 요약

- * 부활하시고 신성화 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유일한 하느님이시다.
- * 본문 1장에 있는 환상은 우리가 그분께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담아두어야 하는 주님에 대한 완전한 그림이다.
- * 계시록은 새 교회의 “헌장(charter)”이기도 하다.

해설

사도 요한은 “사랑 받은 제자”로 불렸다. 주님은 그에게 요한복음서를 쓰도록 하셨을 뿐 아니라 요한 1,2,3서와 계시록까지 쓰도록 하셨다. 그는 여느 제자보다 더 오래 살기도 했다. 주님이 부활하신 지 40일 후 제자들은 그분이 하늘(heaven)로 승천하심을 보았다. 이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24장 50-53절에서 말해진다. 사도들은 승천 후 밖으로 나가 주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세상 각처에 복음을 전파했다. 복음의 전파는 A.D. 70년경 로마인들에 의해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됨으로 인해 가세되었다. 그리하여 소아시아는 그들 활동의 본거지가 되었다. 기독교인의 그룹들은 그곳에서 교회로 형성되어 갔다. 요한은 에페소 교회의 지도자로 추측된다. 그는 교령이 되었을 당시 주님의 제자 중 유일한 생존자가 되었으므로, 그가 모든 기독교회의 총 지도자격이었을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기독교인들이 박해 당할 때, 그도 역시 에게해에 있는 파트모스 섬으로 유배되었다. 그는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환상을 가졌다. 이 책은 그리스어로 묵시록(Apocalypse)이라고도 불리며 같은 의미를 지닌다.

구약성서는 율법과 예언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신약성서도 법을 구성하는 복음서와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외의 신약성서의 책들은 구약성서 속의 거룩한 저술(Sacred Writing)로 말하는 책들처럼 말씀(Word)의 일부가 아니다. (그 책들은 내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 책들도 역사적으로 가치를 지니고 흥미가 있으므로 계속 읽혀야 한다.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 있었다. 그의 영적 시야는 “이미 본 것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도록 열려져 있었다. 환상은 그의 눈 앞에서 공연되는 권위 있는 상징적 활동사진과 같았다. 스웨덴북은 “영계의 본체들은 물질계의 본체처럼 비활성적이지 않아서 영적 힘에 즉각 응답한다. 그래서 거기서의 모든 것은 천사, 영들 또는 악마들의 생각과 애착에 상응되는 바깥쪽 형체를 즉각 입힌다.”라고 설명한다.

요한의 환상은 그에게 주님이 나타나 보여주심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그분이 과거 세상에서 섬겼던 그의 스승임을 인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분 주위에 수반된 모든 것이 신격(deity)적이어서 죽은 자같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졌다. 그리고 요한에게 주어진 주님의 말씀들은 그분이 창조자 하느님이시며 요한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 이심을 느끼게 해준다. 우리는 새 교회에서 이를 주님에 대한 우리의 환상으

로 받고 있다. 우리는 두렵고 위세를 떨치는 하느님인 예수를 찾지 않는다. 주님은 요한에게 말씀하셨듯이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라고 우리에게 하신다.

요한의 환상은 우리가 그분께 기도할 때나 그분에 관해 생각할 때 마음속에 두어야 할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이 그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빛남이다. 황금등경, 별, 불꽃같은 눈, 풀무불에 단 낫쇠 같은 발 그리고 얼굴은 “힘있게 비취는 태양처럼”...등등에서 눈에 띄는 것은 빛남임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인간 형체로서의 인상을 가져보려고 애쓴다. 그러나 그 형체는 너무나 빛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찬찬히 볼 수 없고 세부적 사항을 파악하는 것도 불가능 하다. 상응으로 볼 때 이 전체는 신성한 진리들이다. 금띠는 우리 모두를 묶어주는 신성한 사랑을, 황금등경은 우리 세대의 사람들을 교회로 만들어 주는 신성한 진리에 대한 사랑을 그려주는 것 외에는 모두 진리와 상응되고 있다. 좌우에 날이 선 검이란 악을 파괴하며 선을 보호하는 신성한 진리를 말한다.

연속되는 계시록의 환상들은 우선적으로 세상에 있는 교회, 인간의 심정과 지성 속의 상태들, 교회 혹은 마음을 에워싼 조건들 그리고 마지막 심판에서 이것들이 파괴될 것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계시록은 “새 교회의 헌장”이라고 불러 왔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 관해 말씀 안에서 말해지는 모든 것들이 우리 개개인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우리 모두는 이 책에서 그려진 악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들과 싸우며 진정한 교회가 우리 각자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본 상응 공부

황금등경 = 신성한 진리에 대한 사랑

금띠 = 신성한 사랑

질문 정리

1) 복음서에는 어떤 두 요한이 있는가?

- 2) 어느 요한을 통하여 복음서가 기록되었는가?
- 3) 주님이 죽으신 뒤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었는가?
- 4) 초대 기독교회는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 5) 복음서 외에 어느 책이 요한에 의해 쓰였는가?
- 6) 요한에게 계시가 주어질 당시 그는 어디에 있었는가?
- 7) 요한은 처음에 무슨 소리를 들었는가?
- 8) 그는 돌아섰을 때 맨 처음 무엇을 보았는가?
- 9) 일곱 황금등경 한 가운데에는 누가 서 있었는가?
- 10) 주님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 11) 그분은 오른 손에 무엇을 쥐고 계셨는가?
- 12) 주님은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 13) 그분은 일곱 등경과 일곱 별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 14) 그분은 요한에게 무엇을 하라고 했는가?
- 15) 이 환상에는 왜 여러 차례 빛에 대한 언급이 있는가?

질문의 답

- 1) 세례자 요한, 사도 요한 2) 사도 요한 3) 모두 파괴 되어졌다
- 4) 소아시아 5) 요한 1,2,3서; 계시록 6) 파트모스섬 7)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 8) 일곱 황금등경 9) 부활하신 주님 10) “발끝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고.”
- 11) 일곱 별 12)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13) 교회들과 천사들
- 14) 환상을 받아써라 15) 신성한 진리가 권능이 있음을 보여 주시기 위해서임

39

교회들에 대한 메시지

머리말

본문에서는 어린이들을 제외한 모든 이들에게 제시되는 공통점이 언급된다. 각 메시지에 있는 공통점을 간단히 요약해 보자.

- (1) 주님에 대한 환상 중 일부가 거론된다.
- (2) 선을 행하도록 교회에 명령한다.
- (3) 각 교회의 특별한 악들을 견책하고, 그것이 시정되지 않음으로 인한 악들을 보여준다.
- (4) 각 교회가 그들의 악을 멀리할 때 따르는 보상을 제시한다.
- (5) “들을 귀 있는 자는...”라고 끝맺으며 각 교회가 순종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성서: 요한계시록 2, 3장

2장: 1. 에페소 교회 천사에게 이 글을 써서 보내어라. 오른손에 일곱 별을 쥐시고 일곱 황금등경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2. ‘나는 네가 한 일과 네 수고와 인내를 잘 알고 있다. 또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할 수 없었으며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를 사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허위를 가려 낸 일도 잘 알고 있다. 3. 너는 잘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어 냈으며 낙심하는 일이 없었다. 4.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네가 처음에 지녔던 사랑을 버린 것이다. 5.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빗나갔는지를 생각하여 뉘우치고, 처음에 하던 일들을 다시 하여라. 만일 그렇지 않고 뉘우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너의 등경을 그 자리에서 치워 버리겠다. 6. 그러나 네가 잘 하는 일이 한 가지 있다. 너는 니골라오파의 소행을 미워하고 있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7.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나는 승리하는 자들에게 하느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8. 또 스미르나 교회의 천사에게 이 글을 써서 보내어라. 처음이고 마지막이며 죽었었지만 살아 계신 분이 말씀하신다. 9. ‘나는 네가 겪은 환난과 궁핍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너는 부요하다. 네가 유대인으로 자칭하는 자들에게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이다. 10. 네가 장차 당할 고통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기 위하여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가두려 하고 있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월계관을 너에게 씌워 주겠다. 11.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승리하는 자는 결코 두 번째 죽음의 화를 입지 않을 것이다.’ 12. 베르가모 교회의 천사에게 이 글을 써서 보내어라. 날카로운 쌍날칼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13. ‘나는 네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그 곳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그러나 너는 내 이름을 굳건히 믿고 있다. 또 나의 진실한 증인 안디바스가 사탄이 살고 있는 그 곳에서 죽임을 당하던 날에도 너는 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14. 그러나 나는 너에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중에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사주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죄짓게 하였고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게 하였으며 음란한 짓을 하게 하였던 자다. 15. 또 너희 중에도 니골라오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16. 그러므로 뉘우쳐라. 만일 뉘우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17.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감추어 둔 만나를 주겠고 또 흰돌도 주겠다. 그 돌 위에는 새로운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이름은 그 돌을 받는 사람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18. 티아디라 교회의 천사에게 이 글을 써서 보내어라. 불꽃 같은 눈과 돛쇠 같은 발을 가지신 분, 곧 하느님의 아들이 말씀하신다. 19. ‘나는 네가 한 일들을 잘 알고 있고 네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네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20.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 여자는 예언자로 자처하며 내 종들을 잘못 가르쳐서 미혹하게 했고 음란한 짓을 하게 했으며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게 하였다. 21. 나는 그 여자에게 뉘우칠 시간을 주었지만 그 여자는 자기의 음행을 뉘우치려고 하지 않는다. 22. 이제 나는 그 여자를 고통의 침상에 던지겠다. 그리고 그 여자와 간음하는 자들도

뉘우치지 않고 그와 같은 음란한 행위를 계속한다면 큰 환난 속에 던져 버리겠다. 23. 그리고 그 여자의 자녀들을 죽여 버리겠다. 그러면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각각 행한 대로 갚아 주겠다. 24. 그러나 티아디라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여자의 가르침을 받아 들이지 않은 사람들, 곧 사탄의 비밀을 배우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으니 25.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단단히 간직하고 있어라. 26. 승리하는 자, 곧 나의 일을 끝까지 수행하는 자에게는, 여러 민족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27. 그는 쇠지팡이로 질그릇을 부수듯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28. 이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권세로 다스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승리하는 자에게는 내가 셋별을 주겠다. 29.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3장: 1. 사르디스 교회의 천사에게 이 글을 써서 보내어라. 하느님의 일곱 영신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네가 한 일을 잘 알고 있다. 네가 살아 있다는 말이 있지만 실상 너는 죽었다. 2. 그러므로 깨어 나거라. 너에게 아직 남아 있는 것이 완전히 숨지기 전에 힘을 북돋아 주어라. 나는 네가 하는 일이 내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3. 그러므로 네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 그것을 굳게 지켜라. 그리고 네 잘못을 뉘우쳐라. 만일 네가 깨어 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처럼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가 어느 때에 너에게 나타날지를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4. 그러나 사르디스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몇 있다. 그들은 하얀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는 그럴만한 자격이 있다. 5. 승리하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며 나는 생명의 책에서 그의 이름을 결코 지워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6.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7. 필라델피아 교회의 천사에게 이 글을 써서 보내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네가 한 일을 잘 알고 있다. 네 힘은 비록 미약하지만 너는 내 말을 잘 지켰으며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 일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너를 위해서 문을 열어 놓았다. 그리고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다. 9. 사탄의 무리에 속하는 자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떠들어 대지만,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로 하여금 너에게 나와서 네 발 앞에 엎드려 너를 경배하게 하겠으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10. 참고 견디라는 내 명령을 너는 잘 지켰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앞으로 온 세계에 환난이 닥쳐 올 때에 나는 너를 보호해 주겠다. 11. 내가 곧 갈 터이니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지켜 아무에게도 네 월계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여라. 12. 나는 승리하는 자를 내 하느님의 성전기둥으로 삼을 것이며, 그가 다시는 그 성전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나는 내 하느님의 이름과 내 하느님의 도성의 이름, 곧 하늘에서 내 하느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로운 이름을 그 이기는 자 위에 새기겠다. 13.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14. 라오디게이아 교회의 천사에게 이 글을 써서 보내어라. 아멘이시며 진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며 하느님의 창조의 시작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15. '나는 네가 한 일을 잘 알고 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차라리 네가 차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하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16. 그러나 너는 이렇게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기만 하니 나는 너를 입에서 뱉어 버리겠다. 17. 너는 스스로 부자라고 하며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네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18.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권고한다. 너는 나에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자가 되고 나에게서 흰 옷을 사서 입고 네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고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눈을 떠라. 19.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일수록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히 노력하고 네 잘못을 뉘우쳐라. 20. 들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게 될 것이다. 21. 승리하는 자는 마치 내가 승리한 후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옥좌에 앉은 것같이 나와 함께 내 옥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22.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교리 요점

- * “선행과 믿음 안에” 있는 정도만큼 삶 속의 옳고 그름을 볼 수 있다.
- * 주님과 인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교회는 그 자체로는 하나뿐이나 인간이 그것을 받는 양상 때문에 수많은 교회가 있게 된다.
- * 주님은 언제나 문을 두드리며 서계신다. 문을 열고 닫음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해설

말씀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글자 외에 세 가지 주요한 내적 의미들을 지닌다. 첫째는 인류의 영적 역사에 관련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우리 개개인의 영적 발달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의 생애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요한 계시록, 구약 성서 혹은 복음서에서도 동일하다.

첫 번째 의미, 즉 역사적 측면에서의 내적 의미에서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들은 사도들 혹은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에 의해 복음이 전파된 결과로 발달된 기독교 조직의 여러 가지 형태를 그린다. 또한 각 시대에 존재하게 될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도 그려준다. 두 번째는 영적 의미라고 불리는데, 이는 우리의 종교생활 가운데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다양한 상태들을 그려준다. 세 번째는 천적 의미라고 부르는데, 이는 다양한 상태들 안에 있는 개인 또는 교회를 주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그려준다. 다시 말하자면, 주님의 사랑과 지혜가 모든 인간의 필요성을 만나고 모든 인간들이 도달하고자 자유로이 선택한 것을 가장 높은 상태로 끌어 올리시려는 적절한 반응(신 축성)을 그리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이것은 나쁘고 저것은 좋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 있다. 옳고 그름은 우리가 선행과 믿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느냐 혹은 가까이 있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즉, 우리의 심정 안에 주님의 이타적 사랑이 들어 있는 정도와 우리의 지성 안에 그분의 말씀으로부터의 진리를 가지는 만큼에 따라 결정된다. 사랑과 진리는 서로 손잡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사랑보다 지혜가 더 많거나 혹은 지혜보다 사랑이 더 많게 되면, 우리는 어떤 시험에 빠지게 되어 회개하고 진정한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 우리가 시험을 인식하고 싸워간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질 천국의 진짜 있을 곳을 준비하는 것이며 가장 큰 행복을 갖게 될 것이다.

주님은 각 메시지에서 각기 다른 방법으로 그분을 묘사하고 계신다. 그분이 언급하시는 모든 속성은 요한에게 보여준 그분에 대한 환상에 기초한다. 주님은 그 안에서 각각의 교회로 기술된 상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강력히 호소하시는 신성한 특질을 강조하고 계신다. 예를 들면, 스웨덴북은 필라델피아 교회의 경우 주님께 근거를 둔 선으로부터의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한다. 3장 7절에 언급된 모든 것은 진리로 행해져야 함을 뜻한다. 그들 앞에는 “문”이 열려 있다고 말해진다. 그러나 라오디게이아 교회는 어떤 때는 그들 자신을 믿고 어떤 때는 말씀으로부터 믿음을 가져 거룩한 것을 모독하는 이들로 그려진다. 그들에게는 주님이 만물의 근원이심을 상기하고 그분께 마음의 문을 열라고 말해진다. 주님의 진리를 신뢰하는 대신 자기 자신의 지혜를 신봉하려함은 시험 중에서도 가장 깊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를 극복하려 하면,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복락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다. 이에 대해 주님은 “승리하는 자에게는 나와 함께 내 옥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하신다.

주님이 각 개인 또는 각각의 일곱 교회에게 각기 다른 방법으로 스스로를 나타내신 바와 같이 승리의 보상에 대한 약속 역시 각각에게 다르게 주어지고 있다. 우리 각자는 가능성과 취약점 그리고 고유의 시험들을 갖고 있다. 어느 두 개인도 이 세상에서 똑같은 장단점 또는 시험을 가질 수 없다. 주님은 각 개인을 꿰뚫어 알고 계셔서 각기 다른 방법으로 다루시고 각자가 창조하는 수준이나 위치에 도달되도록 최선의 기회를 주고 계신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기본 상응 공부

에페소 = 생활의 선이 아닌 교회의 진리에 집착하는 이들

스미르나 = 생활은 선하나 교리에 거짓이 있는 이들

질문 정리

- 1) 누가 계시록에 기술된 환상을 보았는가?
- 2) 요한은 어디서 이 환상을 보았는가?
- 3) 그는 환상의 처음에서 누구를 보았는가?
- 4) 요한은 주님을 어떻게 보았는가?
- 5) 요한은 주님 주위에 있는 무엇을 보았는가?
- 6) 주님은 일곱 등경이 무엇이라고 요한에게 말씀하셨는가?
- 7) 일곱 교회는 어디에 있었는가?
- 8) 본문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 9) 이 메시지들의 비슷한 점은 무엇인가?
- 10) 그들은 어떻게 달랐는가?
- 11) 어느 교회가 가장 신실하다고 기술되는가?
- 12)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메시지에서 문은 어떻게 있다고 했는가?
- 13) 라오디게이아 교회는 무엇이 나쁘다고 했는가?
- 14) 이 교회에 대해서 문은 어떠하다고 말해졌는가?
- 15) 각 메시지는 어떤 말로 끝맺는가?
- 16)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17) 본문 2장과 3장은 우리에게 어떻게 호소하고 있는가?

질문의 답

- 1) 사도 요한 2) 파트모스 섬 3) 부활하신 주님 4) 제 1장 23-26절을 읽어 보자.
- 5) 일곱 등경 6) 교회들 7) 소아시아 8) 교회들에 대한 메시지
- 9) 선을 칭찬하고 결점들이 지적되며 약속이 뒤 따른다
- 10) 각기 다른 결점과 보상이 있음 11) 필라델피아 교회 12) 열려있다 13) 미적지근한 것 14) 닫혀있다 15) “들을 귀가 있는 자는...”

16) 들었으면 순종하라 17) 문을 닫는 것 혹은 여는 것은 우리의 자유이다.

40

거룩한 성

머리말

요한의 환상이 마무리되는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 교회의 이름이 하늘에서 하느님께로부터 내려온 거룩한 성에서 붙여졌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영감과 기쁨을 더해 줄 것이다. 환상의 요점을 엄두 하고, 말씀의 시작에서 말씀을 끝맺고 있는 본문과의 관계를 알아본다. 성서공부 제 1권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주님의 인도와 자아의 인도 중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있게 되는 우리 안의 선의 발달 혹은 악의 발달과 그것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성 서 본 문: 요한계시록 21, 22장

21장: 1. 그 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2.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맞을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차리고 하느님께서 계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3. 그 때 나는 옥좌로부터 울려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하느님의 집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있다. 하느님은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사람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느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하느님이 되셔서 4.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이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5. 그 때 옥좌에 앉으신

분이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하고 말씀하신 뒤 다시금 “기록 하여라, 이 말은 확실하고 참된 말이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6.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생명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7. 승리하는 자는 이것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나는 그의 하느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8. 그러나 비겁한 자와 믿음이 없는 자와 흉측스러운 자와 살인자와 간음한 자와 마술장과 우상숭배자와 모든 거짓말장자들이 차지할 곳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죽음이다.” 9. 마지막 일곱 가지 재난이 가득히 담긴 일곱 대접을 손에 든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에게 와서 “이리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인 그 신부를 너에게 보여 주겠다”하고 말했습니다. 10. 그리고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 가 하느님께서 계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 주었습니다. 11. 그 도성은 하느님의 영광에 싸여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12.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과 열 두 대문이 있었고 그 열 두 대문에는 천사가 하나씩 있었으며 또 이스라엘 자손 열 두 지파의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13. 그 대문은 동쪽에 셋, 북쪽에 셋 남쪽에 셋, 서쪽에 셋이 있었습니다. 14. 그 주춧돌에는 어린 양의 열 두 사도의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15. 나에게 말하던 그 천사는 그 도성과 대문들과 성벽을 재려고 금으로 만든 측량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6.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했고 그 길이와 넓이가 같았습니다. 그가 측량자로 그 도성을 재어 보았더니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똑같이 만 이천 스타디온 이었습니다. 17. 또 그가 성벽을 재어 보았더니 사람의 자로 백 사십 사 척이었습니다. 이 자는 천사의 자이기도 했습니다. 18. 그 성벽은 벽옥으로 쌓았고 도성은 온통 맑은 수정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19. 그 성벽의 주춧돌은 갖가지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첫째 주춧돌은 벽옥으로, 둘째는 사파이아로, 셋째는 옥수로, 넷째는 비취옥으로, 20. 다섯째는 홍마노로, 여섯째는 홍옥수로, 일곱째는 감람석으로, 여덟째는 녹주석으로, 아홉째는 황옥으로, 열째는 녹옥수로, 열한째는 청옥으로, 열두째는 자수정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21. 또 열 두 대문은 열 두 진주로 되어 있었고 각각의 대문은 각각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성의 거리는 투명한 유리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22. 나는 그 도성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과 어린 양이 바로 그 도성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23. 그 도성에는 태양이나 달이 비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 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24. 만국 백성들이 그 빛 속에서 걸어 다닐 것이며 땅의 왕들은 그들의 보화를 가지고 그 도성으로 들어 올 것입니다. 25. 그 도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종일토록 대문들을 닫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26. 그리고 사람들은 여러 나라의 보화와 영예를 그 도성으로 가지고 들어 올 것입니다. 27. 그러나 더러운 것은 아무것도 그 도성으로 들어 가지 못하고 흠찬 것과 거짓을 일삼는 자도 결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도성에 들어 갈 수 있는 자는 다만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들뿐입니다.

22장: 1. 그 천사는 또 수정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나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느님과 어린 양의 옥좌로부터 나와 2. 그 도성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 양쪽에는 열두 가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뭇잎은 만국 백성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3. 이제 그 도성에는 저주받은 일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하느님과 어린 양의 옥좌가 그 도성 안에 있고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4. 그 얼굴을 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는 하느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5. 이제 그 도성에는 밤이 없어서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무궁토록 다스릴 것입니다. 6. 그 천사가 또 나에게 “이 말씀은 확실하고 참된 말씀이다. 예언자들에게 영감을 주시는 주 하느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곧 이루어져야 할 일들을 보여 주시려고 당신의 천사를 보내셨다.”하고 말했습니다. 7. 그러자 주님께서 “자, 내가 곧 가겠다.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행복하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8. 이 모든 것을 듣고 본 사람은 나 요한입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듣고 보고 나서 나에게 이것들을 보여 준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였습니다. 9. 그러자 그는 “이러지 말아라. 나도 너나 네 형제인 예언자들이나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중에 지나지 않는다. 경배는 하느님께 드려라.”하고 말했습니다. 10. 그는 이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때가 가까 왔으니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봉하지 말아라. 11.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도록 내버려 두고 더러운 자는 그냥 더러운 채로 내버려

두어라. 올바른 사람은 그대로 올바른 일을 하게 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여라.” 12.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가 곧 가겠다.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자기 행적대로 갚아 주기 위해서 상을 가지고 가겠다. 13. 나는 알파요 오메가, 곧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 14. 생명의 나무를 차지할 권세를 얻고 성문으로 그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두루마기를 깨끗이 빠는 사람은 행복하다. 15. 개들과 마술장이들과 음란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일삼는 자들은 다 문 밖에 남아 있게 될 것이다. 16.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모든 교회에 이 모든 것을 증언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에서 돋은 그의 자손이며 빛나는 샅별이다.” 17. 성령과 신부가 “오소서!”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오소서!”하고 외칩니다. 목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마시십시오. 18. 나는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말해 둡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느님께서 그 사람을 벌하실 때에 이 책에 기록된 재난도 덧붙여서 주실 것입니다. 19. 또 누구든지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서 무엇을 떼어 버리면 이 책에 기록된 생명의 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 대한 그의 몫을 하느님께서 떼어 버리실 것입니다. 20. 이 모든 계시를 보증해 주시는 분이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소서, 주 예수여! 21. 주 예수의 품위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교리 요약

- * 거룩한 성에 관한 기사는 끝없는 기쁨과 평화를 발견하는 우리 삶의 진정한 형체에 대한 환상이다.
- * 성으로 가는 우리의 “문”이란 말씀을 규칙적으로 공부하며 공부한 말씀 속의 진리를 삶에 응용하려는 항구적인 노력을 말한다.

해설

본문 첫 장의 2절은 모든 새 교회인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다. 그 이유가 이

구절은 상징적으로 우리 교회의 이름에 대한 이유를 주기 때문이다. 구약성서나 복음서에서 알 수 있듯이, 예루살렘은 교리적 측면의 새 교회를 의미한다. 또한 거룩한 성에 대한 환상의 모든 세부 사항은 그 교회와 교리의 영화로움 그리고 권능에 관해서 언급하는 것이다. 교리에 따른 삶은 교회를 “신부, 어린 양의 아내”로 만들어 준다. 스웨덴북은 성령에 감동된 요한을 데리고 간 “크고 높은 산”은 가장 높은 천국이라고 말한다. “크고 높은 산”은 모든 진리를 싸서 보호하는 말씀의 글자적 의미이다. 열두 대문이란 선과 진리에 관한 모든 지식을 말하며 이에 의해 교회로 들어오게 된다. 각 방면의 세 개의 문은 분리된 입구 하나씩으로 해서 세 개의 문이기보다는 겹문, 즉 바깥 문과 중간 문 그리고 안쪽 문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각 방면의 문들은 주님에 대한 세 가지 평면에서의 열림을 표현한다. 성의 주춧돌은 십계명과 같은 말씀의 글자적 의미 안에 있는 교리에 관한 것이다. 성의 길이와 넓이가 같다는 사실은 교리안의 선과 진리는 동등한 치수로 나타남을 의미한다. 보석들이란 교리 속의 모든 아름다운 진리들을 의미한다. 그것들은 마음 안에서 각기 다른 모습을 취하지만, 주님에 관한 지식을 살아 넘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순금으로 된 거리란 섬김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며, 이로 인해 우리는 진리 속의 아름다움을 보게 된다. 21장 22절과 23절은 천국의 새 교회에 속한 이들이 그들 자신에게는 진리가 없고 주님만이 모든 선함과 진리를 갖고 계신다고 기쁘게 인정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생각은 제 22장에서 생명나무가 자라는 생명수의 강으로 다시 나타난다. 우리가 모든 지혜와 선함의 근원으로서 주님을 찾는다면, 그분은 우리에게서 “선한 일” 곧 우리 안에 순수한 선함을 가진 행동이 우리의 진리가 발전하는 각 단계마다 나타나도록 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매 달 열리는 열두 가지 열매이다. 만국 백성을 치료하는 나뭇잎이란 생명나무로 그려진 원리로부터 발달되는 합리적인 진리들을 뜻한다.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의 생각과 행동이 주님을 순종함에 따라 규율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질병 역시 더욱 신속하게 치료될 것이다.

성의 문들이 언제나 열려 있지만, “신성을 모독한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함을 주목해야 한다. 그 이유는 생명을 위해 진리를 갈망한 이들만이 성에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들이 배우고 말한 진리대로 삶을 엮기를 원치 않는다면, 이는 한낱 외적인 기억에 불과해 죽을 때에 그 진리들은 단혀져버리고 만다. 진리대로

살았던 것만이 그 사람의 심정 속에 쓰여져 있는 것이다. 제 20장 12절을 읽어 보자. 열려진 다른 책이란 말씀이며 인간은 말씀과 각자의 삶 의 비교로 심판된다. 우리 각자는 날마다 삶이라는 자기 책을 집필하고 있다.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로 선택한 모든 생각과 느낌은 우리 내적 삶의 한 부분이 되어 간다. 이는 바깥쪽과 자기 속의 생각 그리고 느낌이 다르다하더라도 관계없다.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바깥쪽 부분은 남겨두고 안쪽 부분만이 실제의 나로서 나타난다.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를 심판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요한 계시록 전체에 걸쳐서 우리에게 가르쳐 지는 것이다.

제 22장 12절과 19절에서 주는 경고는 아주 심각하다. 우리는 성경공부를 더욱 깊이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변경시키자 하는 시험을 겪게 되는 것, 말씀을 그대로 행하기보다는 자기주장을 대변시킬 자료 수집을 위해 말씀을 이용하는 것 그리고 자기 이론의 근거로 삼기 위해 성경을 왜곡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이러한 경우는 머지않아 말씀의 글자마저 신뢰하지 않는 신앙으로 빠지게 되어 성경을 하느님의 작품이 아닌 인간의 작품으로 등락시켜 버린다. 그리하여 말씀 자체의 의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 성경에 등장된 사람들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서 탐구하게 된다. 따라서 하느님의 생각보다는 인간들의 생각을 극구 찬양하게 되어 말씀이 가져올 빛을 스스로 차단시켜 버린다. 우리가 말씀이 전달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에 어떤 결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무지 때문이다. 즉,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제자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미련하여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성서의 끝을 장식하는 본문의 말씀이 주는 경고가 지니는 중요성을 꼭 기억해야 할 것이다.

기본 상응 공부

거룩한 성의 성벽 = 말씀의 글자적 의미

열 두 대문 = 선과 진리에 관한 입문적인 모든 진리

질문 정리

- 1) 주님의 메시지는 일곱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가?
- 2) 라오디게이아 교회는 왜 가장 신랄한 비판을 받았는가?
- 3) 계시록 21장 2절의 성은 무엇이라고 불리는가?
- 4) 그 도성은 몇 개의 문을 갖고 있는가?
- 5) 천사들은 어떤 도구로 이 성을 측정했는가?
- 6) 이 성의 모양은 어떠했는가?
- 7) 그 성의 기초에는 무엇이 보였는가?
- 8) 이 성의 문은 무엇으로 되어 있었는가?
- 9) 이 성은 누구로 인해 밝혀지고 있는가?
- 10) 누가 그 성에 들어가는가?
- 11) 하느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무엇이 보였는가?
- 12) 그 강가에서는 무엇이 자랐는가?
- 13) 생명나무와 강에 대해서 어디에서 공부했는가?
- 14) 요한이 경배를 드리려 하자 천사는 뭐라고 말했는가?
- 15) 우리는 성서의 마지막 절을 주로 어디서 사용하는가?

질문의 답

- 1)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지적하며, 경고하고 약속을 주고 있다.
- 2) 극복해내기 가장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 3) 새 예루살렘 4) 열두 문 5) 금 자 (gold reed) 6) 네모 반듯 했다. (foursquare)
- 7) 보석들 8) 진주 9) 주님 10) 들어가기 원하는 모든 이
- 11) 생명수의 강 12) 생명나무 13) 에덴의 동산 14) 하느님을 경배하라
- 15) (예배의 끝) 기도문에서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Matthew 25:21